

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1985

정병강군이 되자



공군본부

애국지사(愛國志士)들에게

부끄러운 마음 금(禁)치 못해

8·15 해방(解放)을 맞이하기까지 온갖 희생을 다해 가며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펴온 독립 유공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껏 독립운동(獨立運動)을 펴 온 애국지사(愛國志士)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 반성(反省)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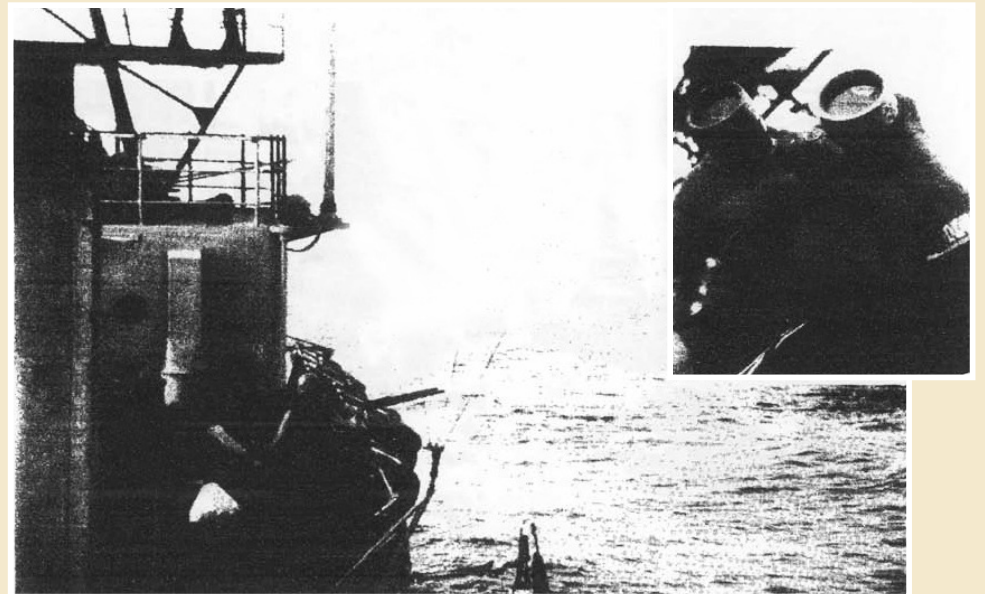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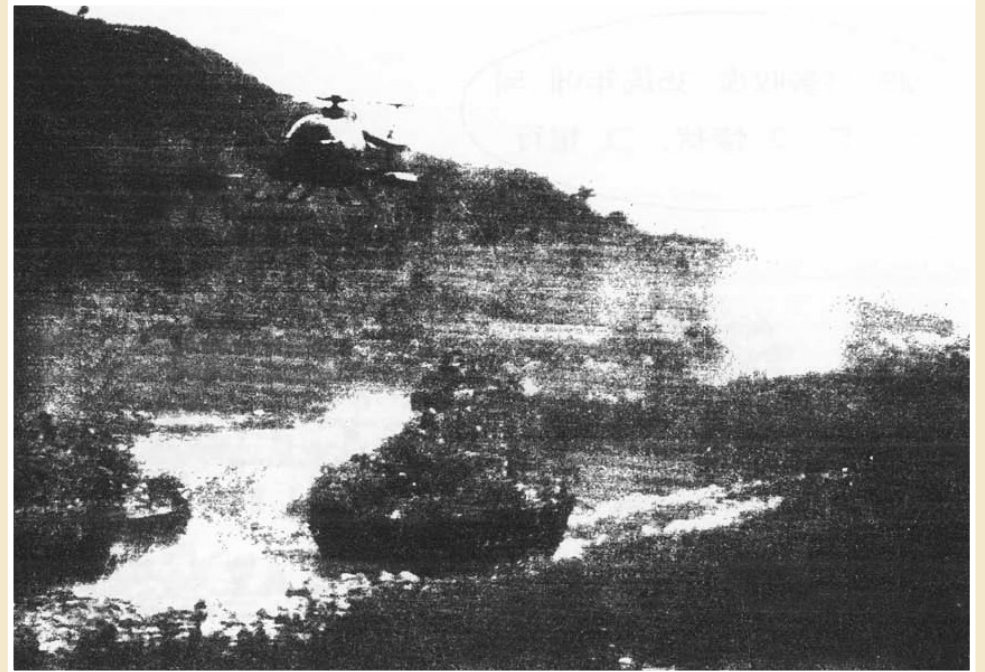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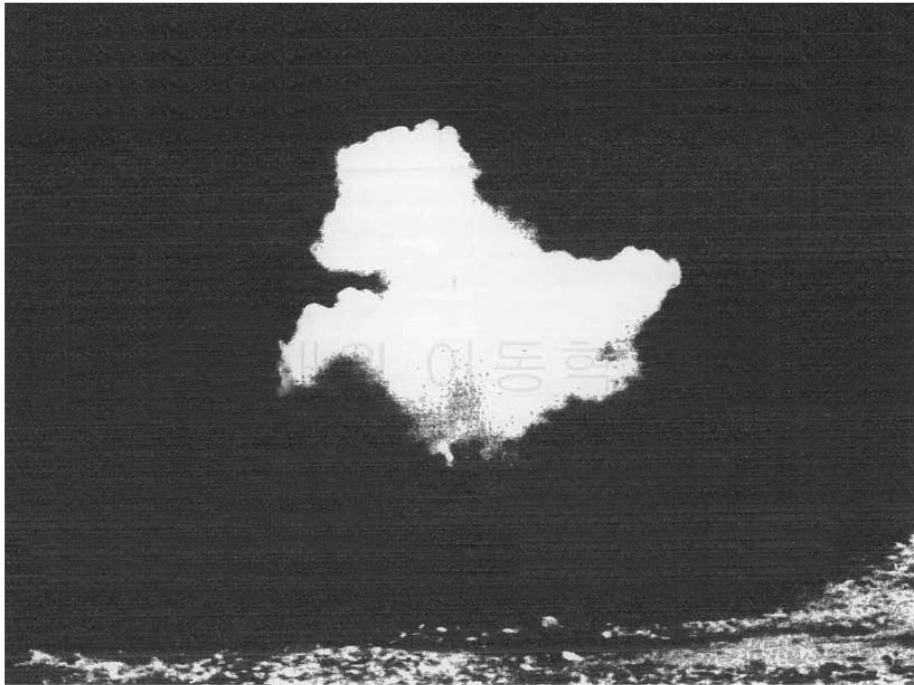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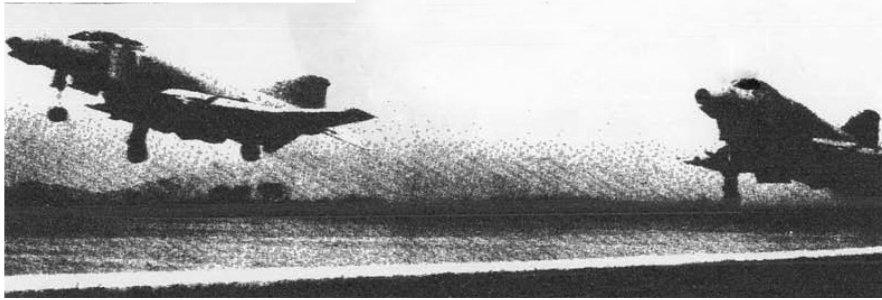


8 월 의 강 (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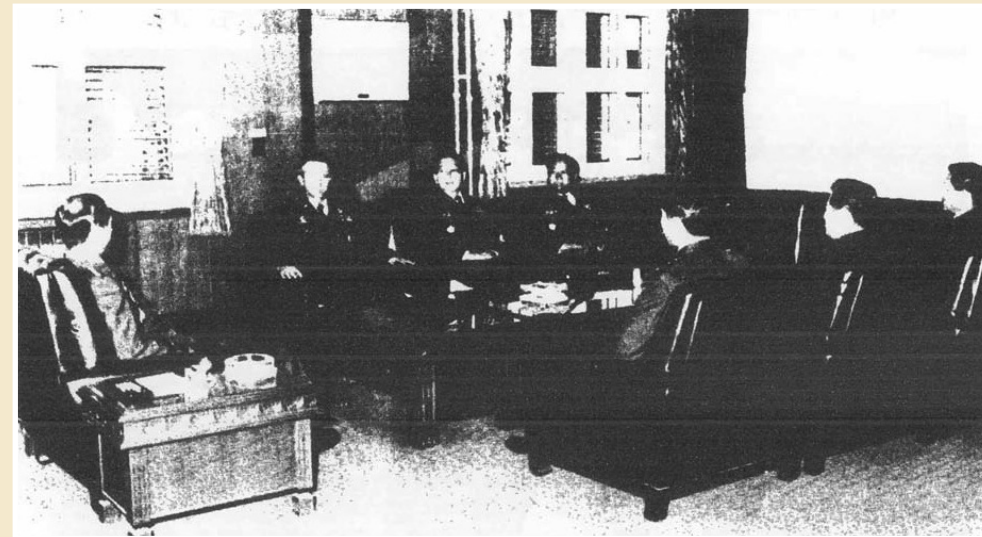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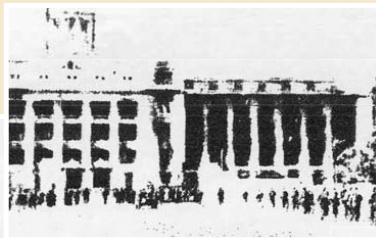
분수(噴水)처럼 쏟아져 내리는
햇별은 누구의 것인가.
계곡으로부터 부서지는 폭포는
또한 그 누구의 것인가.
피 흘림보다 더한
겨레의 뜨거웠던 가슴이 아니던가.
천년(千年)이 가도
만년(萬年)이 가도
아, 쏟아져 내리는 물보라여
발바닥이 해져도 뛰고
맨발이 아파도 뛰고
무르팍이 꺾여도 꺾여도

우리는 오늘을 산다.
불타는 가슴으로
뼈마디가 으스러져도
언제나 불타는 그것 아닌가
아, 강산은 푸르다.
뜨거움으로 불붙은 우리
손과 손이 뜨겁고
가슴끼리 뜨거운 8월
청동(靑銅) 및 불티를 튕기며 튕기며
씻가루를 벗겨 내며
내 생명(生命)의 흙 속에서
뜨겁고 솟아 오르는 혈맥(血脈)의 달

오늘은 막강(莫強) 대한민국(大韓國軍)
항재전장(恒在戰場),
임전태세(臨戰態勢) 완비(完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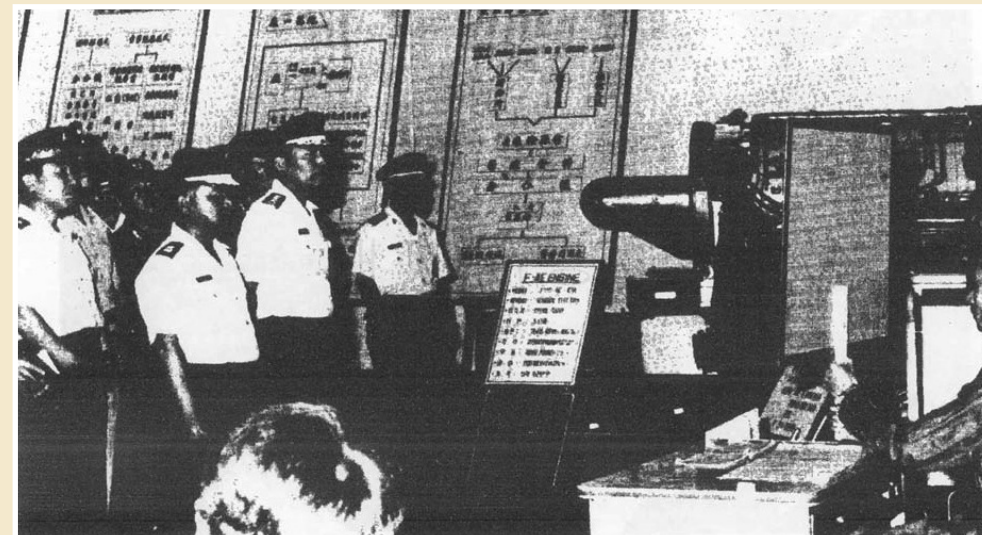


9.28 서울수복(收復)
35주년(周年)에 되돌아본
그 참상(慘狀), 그 만행(蠻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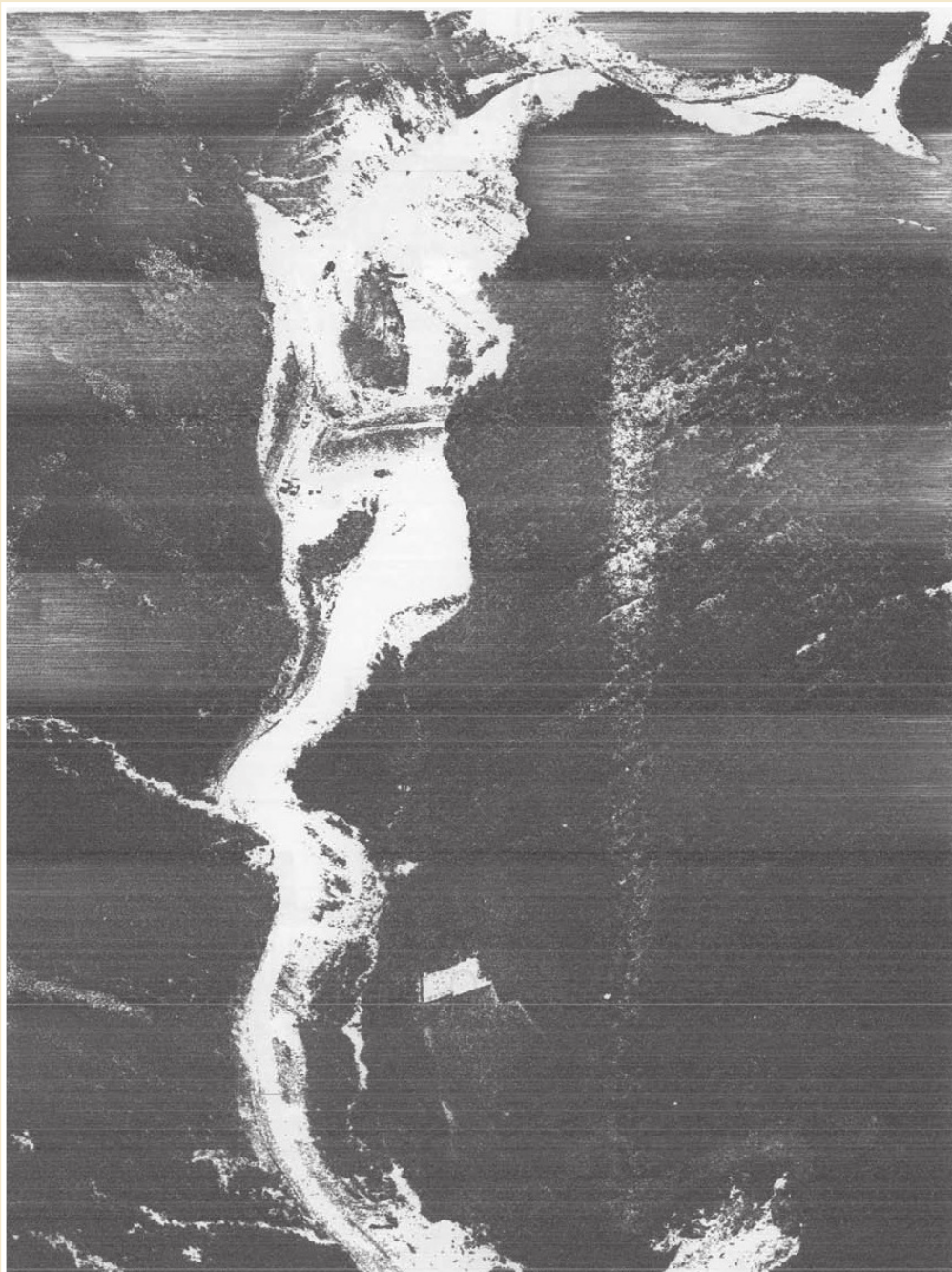


△ 이임(離任) 연합참모장(聯合參謀長) 접견(接見) (5. 13 공군본부(空軍本部))

▽ 국방관리(國防管理) 회계제도(會計制度) 시범행사(示範行事) (5. 23. 3579부대)



하늘에서 본 “진락산” 대역사(大役事) (충남 금산)



목 차 (目 次)

권두언(卷頭言) 정훈감(政訓監) 장정효(張正孝) (1)

논 단 (論 壇)

북한(北韓)의 민족관(民族觀)과 민족주의관(民族主義觀)에 대한 고찰(考察)
..... 김호성(金鎬城) (3)
마(魔)의 38선(線)은 어떻게 생겼나 나창주(羅昌柱) (18)
체제(體制)의 명에 속에 황폐해가는 북한(北韓)의 청소년(靑少年) 유양우(柳養雨) (27)

정훈교육자료(政訓教育資料)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연구(研究) (1) 이용형(李龍炯) (35)
북괴치하(北傀治下)의 특이용어(特異用語) 편집실(編輯室) (48)
북한(北韓) 노동당(勞動黨)의 군(軍)에 대(對)한 정치적(政治的) 통제(統制)
..... 안중철(安鍾澈) (59)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으로 모든 일에 최선(最善)을 편집실(編輯室) (72)
남북한(南北韓)의 통일방안(統一方案) 및 통일 접근자세 비교 고찰(統一 接近姿勢 比較 考察)
..... 서광주 (75)
주민신고의식(住民申告意識)과 시민정신(市民精神) 편집실(編輯室) (88)
북한(北韓)의 인간성(人間性) 유린 교육실태(教育實態) 장익현(張益鉉) (95)
에너지 절감방안(節減方案) 및 수출증대방안(輸出增大方案) 김삼식(金三植) (105)

군사지식(軍事知識)

미(美)·중공관계(中共關係) 편집실(編輯室) (114)
미래(未來)에 있어서 공군(空軍)의 역할(役割) 박성식 (123)
한국전쟁(韓國戰爭)과 냉전(冷戰) 장상용 (132)
급진사상(急進思想) · 제(第)3세계(世界)와 발전논리(發展論理) 편집실(編輯室) (141)
오늘의 초점(焦點) · 외채(外債)와 국제수지방어(國際收支防禦) 편집실(編輯室) (150)
긴급진단(緊急診斷) · 수입(輸入)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와 국내기업(國內企業)
..... 편집실(編輯室) (161)

역사의 인물(歷史의 人物)

연담공(蓮潭公) 곽예(郭預) 김태호(金泰浩) (168)
퇴계(退溪) 이황(李滉) 김창훈(金昌勳) (176)
법률상식(法律常識) 어음수표(手票)에 관(關)한 제문제(諸問題) 정계남(鄭啓男) (189)
동물세계(動物世界)의 숨은 얘기 / 사 슝 김정만 (193)
건강상식(健康常識) 비만(肥滿)과 식이요법(食餌療法) 성낙응(成樂應) (195)
올림픽 ○호돌이의 23개(個) 경기종목(競技種目)·묘기확정(妙技確定) 김현(金炫) (199)

수 필

○ 남을 보는 거울 정재호 (202)
○ 가난한 사람의 노자 이원우 (204)

시(詩) ○ 진리(真理) 박일송(朴一松) (207)
○ 그리운 바다 편집실(編輯室) (208)
전기소설(伝記小說) · 고향(故郷)따라 전설(伝説)따라 정연(鄭衍) (209)
단편소설(短篇小說) · 통한(痛恨)의 강(江) 정해환(丁海煥) (215)

空 軍

통권 제 194 호

(1985년 제 3 호)

참모총장통솔방침
參謀總長統率方針

정병강군(精兵強軍)이 되자

필승의 정신전력
必勝의 精神戰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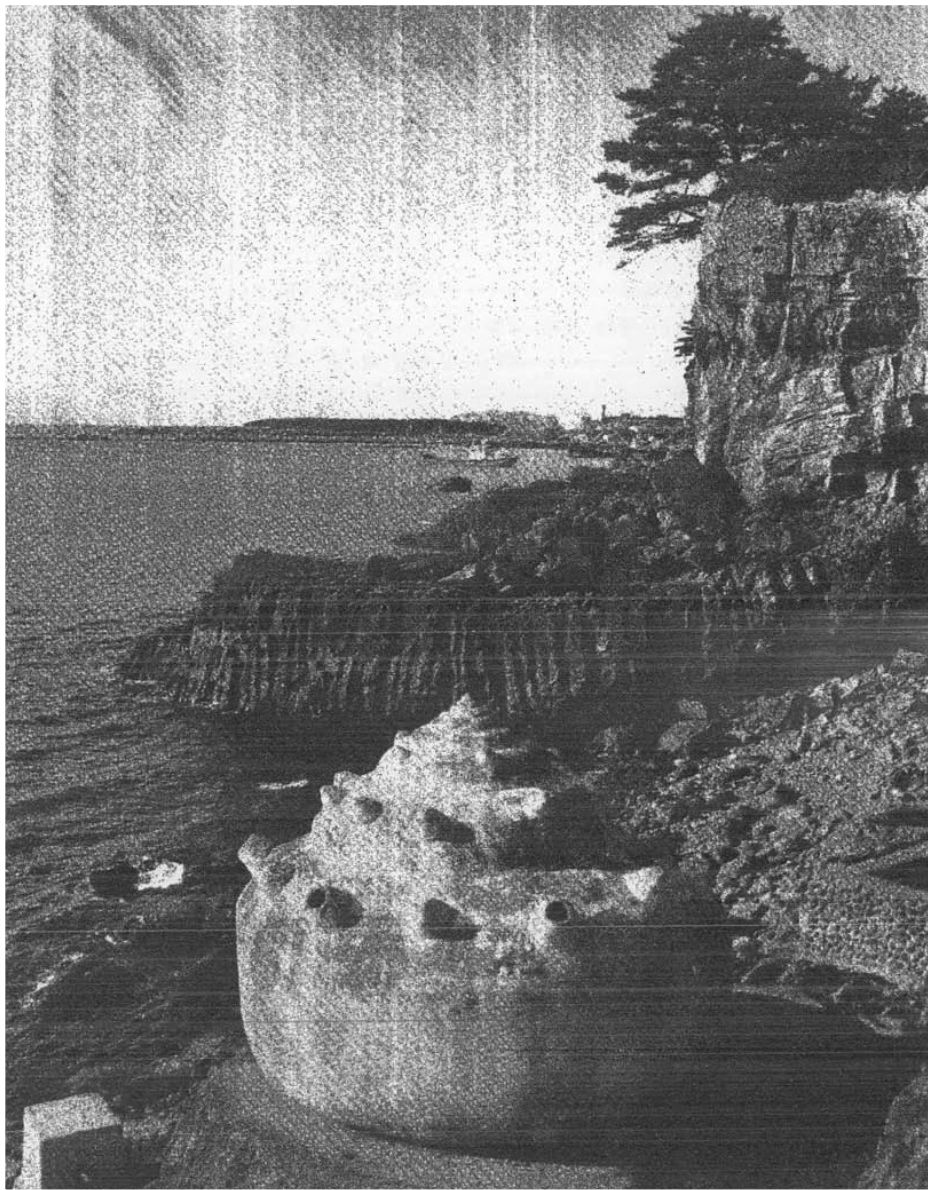
필승의 기술, 기량
必勝의 技術, 技倆

필승의 지휘, 관리
必勝의 指揮, 管理

공 군 본 부
(空 軍 本 部)

제주도(濟州道) 소라의 집

봄이 맨 먼저 찾아들고 겨울이
맨 먼저 들어서는 소라의 집



권두언(卷頭言)

정신(精神)의 보석(寶石)을 찾자



정훈감(政訓監) 대령(大領)
장 정 효(張正孝)

철인(哲人) 스피노자(Spinoza)는 그의 명저(名著) 「에티카(Etica)」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릇 모든 고귀(高貴)한 것은 드물고 어렵다.”

이 말은 인생의 진리(眞理)를 갈파한 명언(名言)이라고 생각된다.

세상에 고귀(高貴)한 것은 반드시 드물고 어려우며, 쉽고 흔한 것 중에 고귀한 것이 없다.

성공(成功)이 쉽게 얻어진다면 성공에 영광(榮光)이 따르지 않는다. 승리(勝利)가 위대한 것은 많은 희생(犧牲) 고난(苦難)을 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저마다 마음 속에 고귀(高貴)한 보석(寶石)이나 진주(眞珠)를 가져야 한다. 돈으로 사고 파는 보석이 아니고 마음에 끼는 정신(精神)의 보석(寶石)을 지녀야 한다.

단순히 산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바로 사는 것, 알차게 사는 것, 참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늘날처럼 세태(世態)가 각박할 수록 정신(精神)의 고귀함이 더욱 빛나며 자기의 육신(肉身)을 희생하더라도 고결한 정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 더욱 필요(必要)하게 되는 것이다.

굳센 사람, 능률한 사람, 자신의 소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확고한 원리원칙(原理原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고매(高邁)한 사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루 하루에 최선(最善)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必要)한 시대(時代)이다.

국민(國民)의 자제(子弟)로 이루어진 「국민(國民)의 군대(軍隊)」인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덕목(德目)이 필요(必要)한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國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지켜야 하는 직분(職分)을 가진 우리가 무사안일(無事安逸)만을 바라고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일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생활(國民生活)의 기본(基本)부터 시작하여 민족(民族)의 최대(最大) 염원인 “통일(統一)”에 이르기까지 실로 고단하고 지난(至難)한 길이나 모두에 숄선수범한다는 자세로 성실한 삶을 영위할 때 승리(勝利)의 여신(女神)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언제든지 국가(國家)와 민족(民族)의 부름에 응(應)해야 하는 우리가 더욱 군인(軍人)답기 위해서는 명예(名譽)를 존중(尊重)하고 분수(分數)와 능력(能力)에 맞게 금욕(禁慾)과 절제(節制)된 생활(生活)을 당연하게 여기며 또한 창의적(創意的)이고 직분에 충실(忠實)한 군인상(軍人像)을 마음 깊이 정립(定立) 定立해야 할 것이다.

도도(滔滔)하게 밀려드는 세계의 새 조류(潮流), 그리고 나날이 발전하는 사회구조(社會構造)에 대응(對應)하기 위해서도 부정적(否定的)인 가치관(價值觀), 낡은 관념(觀念)을 버리고 새 시대에 알맞는 정신자세(精神姿勢)를 확립(確立)하자는 것이나 보다 풍요롭고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또한 의식개혁(意識改革)이 필요(必要)한 것이다.

우리의 당면과제(當面課題)인 “정신전력강화(精神戰力強化)”는 결코 먼곳에 있거나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그것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일상(日常) 가운데 얼마든지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약하고 무기력한 무위(無爲)를 견어차고, 소극적인 생활(生活)상의 폐습(弊習)을 벗어던지고 비(非) 합리적(合理的)인 사고(思考)를 물어버림으로써 성실(誠實)하려 애쓰고, 건전한 생활과 좀더 보람된 일거리를 찾으려 들 때 우리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은 점차 기틀을 잡으며 그 아무도 특특하게 쌓인 우리의 성(城)을 넘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강(強)한 적(敵)도 정신(精神)이 올바르고 굳센 우리의 눈빛에 벌써 압도되고 말 것이다. 바야흐로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무르익은 결실(結實)의 계절이 왔다. 선선하고 충만한 풍광(風光) 속에 정신(精神)의 건강을 찾고 알찬 마음의 수확을 위하여 험젯 일어서 보자.

논단(論壇)

북한(北韓)의 민족관(民族觀)과 민족주의관(民族主義觀)에 대한 고찰(考察)

김 호 성(金鎬城)
서울대 교수



1. 서설(序說)

서구 팽창자본주의를 일찍 모방한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가 계속된 36년간의 기나긴 강압 속에서 해방되어 소위 광복을 맞이한지가 어언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40년 동안 남·북한에서는 「민족」 「민족주의」란 말을 수없이 사용하여 왔으며 지금도 통일정책의 일환으로 각각 「민족통일협의회」와 「대민족회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40년이란 세월은 수천년 동안을 분단없이 단일민족으로서 남다른 역사적 공통기반을 갖고 오랫동안 통일된 국가생활을 영위해오던 한민족을 남·북으로 분열시켜 놓고 말았다.

또 이 40년은 단일민족 단일국가에 두 개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수천년 동안에 없었던 민족상잔의 민족적 비극을 초래하게 하였고 그 후 민족의 이질화가 심화되었으며 한편으로는 북한의 왜곡사관(歪曲史觀)으로 인해서 민족사 단절분위기를 가져온 기간이기도 하다.

여기서 잠깐 우리 민족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물론 소련이 평양에다 크레믈린에 충성을 다 바쳐야 되는 명목상의 괴뢰정권인 독립정권을 수립한 사실에서 찾아야 한다.

북한지역에는 크레믈린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서 1946년 2월 8일에 이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스탈린 주의적(主義的) 팽창정책에 따른 「혁명기치화」노선의 표현이며 북조선단독괴뢰정권 바로 그것이었다. 그 1년 후인 1947년 2월 22일 「임시」 두 자만을 떼어낸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이를 괴뢰 입법기관에 해당하는 「북조선인민회의」(1947년 2월 21일 구성)가 승인하였으며 아울러 사법기능 담당자인 최고재판장을 임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괴뢰정권」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기본정책과 인물구성에 있어서는 이미 1946년 2월의 「북조선 임시 인민위원회」와 차이점이 전혀 없는 동일한 것이다.

북한은 민족분단의 원인, 책임을 남한에 돌리고 있으나 이상으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에 실질적 정권이 수립된 것은 이미 1946년 2월에 수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연장해서 설명한다 해도 1947년 2월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북한지역을 대표하는 「정권」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1949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경제계획」을 북한 지역 전역에 걸쳐 실시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를 더욱 정확하게 입증한다 하겠다.

일제(日帝) 36년간에 걸쳐서 시행된 잔악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제2차대전 이후의 신생독립 국가들과는 달리 「민족」이 있었다. 그러나 해방이 되어 40번째 광복절 기념행사는 오늘도 성대히 베풀어지고 있건만 오늘날까지도 「민족」,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은 그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남·북한 간에는 막강한 군사적 파괴력을 보유한 채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전쟁공포와 불안한 긴장상태의 상호 대립 속에서 지리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남·북한은 한민족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형성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최신행무기를 갖춘 1백여만의 대군이 대치하고 있으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긴장과 대결 상황속에서 항상 그 근처에 남·북한 민족구성원의 머리 속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불신감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민족적 비극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신감이 엄존하게 된 이유는 물론 1950년에 일으킨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전쟁(김일성(金日成)은 이를 「조국해방전쟁」이라 부른다)에서 연유한다 하겠다.

공산주의자들은 외국에 대한 군사적 점령을 「혁명」 또는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미화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 1인(人) 독재체제가 밤낮없이 되풀이 하는 「남조선 해방」 또는 「남조선 혁명」은 언제라도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공산군의 무력점령을 그 개념 속에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의 비생산적이며 민족자해(民族自害)의 현상이 바로 해방된 민족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민족사에 있어서 수천년동안 역사의 실천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역사책의 서술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온 「민족」을 찾고 그 민족이 역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과정(諸過程)에서 실천적 에너지를 활성화했던 민족주의를 올바르게 개념화하여 행동원리로 삼는 작업은 실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민족사적 임무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민족과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줄기찬 탐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민족」의 해방을 찾는 민족적 사명으로 근대화를 추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한국의 근대화 추진작업이라는 것은 민족중흥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족통일을 내세우고 있다.

소위 「남조선 해방」을 전제로 한 「고려연방제」라거나 「민족대회」 등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는 절대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의 합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감을 웅변한다 하겠다. 이러한 불신감은 6.25와 같은 동족상잔과 군사적 무력에 의한 파괴를 해서라도 「남조선 혁명」을 수행할 것이라는 북한 공산

집단의 호전성이 민족 앞에 만들어낸 산물이다.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합병하여 일방의 이익에 알맞게 민족을 통일하려는 통일정책을 버리지 않는 한 40년간의 민족분단의 민족적 고통을 씻어줄 화해와 신뢰는 도저히 제도화되지 못할 것이다.

이제 우리 민족은 40년간의 대결, 긴장, 고조의 고통을 가져온 민족분단을 상호 신뢰에 의한(양당사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수준에서도) 화합의 씨앗을 심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의 신성한 의무일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도 무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배제된 평화적 통일을 통해서 남·북 6천만 전민족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한 민족자결의 원칙이 담겨진 민족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것은 물론 일방이 타방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고 6천만 민족 모두의 뜻과 마음이 모여 이룩되는 통일이며 전쟁의 공포와 불신의 긴장에서 남·북한 6천만 민족이 다같이 해방되는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로운 가운데 민족전체가 화목하고 단결하여 민족의 의사가 모아질 수 있는 민주적 합의가 곧 민족적 통일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제시하는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은 통일접근 방법에서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합리적이며 이룩하려는 도달목표 등 여러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평화적 통일방안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구체적인 통일절차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민족구성원의 의사를 대표할 대표자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民族統一協議會議)」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논의해서 만든 통일헌법을 남·북 전지역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된 다음 이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된 나라의 입법부와 행정부 및 사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족」을 찾고 「민족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은 귀중한 일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관, 민족주의관을 밝혀내는 작업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2. Marxist의 민족관과 민족주의관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엄격한 의미에서 민족이나 국가문제를 체계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민족관이란 궁극적으로 계급적인 문제로서 인식된다. 민족문제는 다수 민족국가인 러시아에서 혁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민족의 혁명 역량을 집결시키려는 현실적 요청에서 레닌·스탈린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들은 민족문제를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해방운동으로 축진시키기 위한 정치적 목적 내지는 그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민족사 문제도 결국 계급사관에 의한 문제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볼 때 민족은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입각한 각 역사발전 단계에서의 사회계층의 구성원을 말한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 이전의 사회구성원을 준민족의 형태라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주도세력은 부르조아라고 못박고 민족주의는 그런 부르조아의 이데올로기로서 분리주의의 이기주의라고 매도한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이론상 소멸하기 시작하고 계급을 대표하는 민족은 사회주의적 민족으로서 결국 전민족을 대표하게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국가도 근대 국가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민족적인 것과 국가적인 이해가 대두되기 마련이다. 이것과 계급이란 국제적인 연대, 즉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의 관계가 문제된다. 여기에 그들은 국제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의 조화를 논하고 그런 조화에 입각한 것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라 하여 호도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분리주의로 부정하면서 전세계의 공산화를 그들의 최고 전략으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민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48년에 발표된 공산주의강령적 문헌으로 불리우는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을 통하여 공산주의는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들이여 단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민족주의에 대립되는 전략으로 개념화시켰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모든 나라의 노동계급이 자기의 나라와 민족의 이익보다 자기의 계급을 위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이익을 우선화시키는 전략이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동시혁명론을 통하여 전략적 이론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그후 레닌과 스탈린에 의한 일국사회주의론(一國社會主義論)(One-State-Socialism)으로 말미암아 동시혁명론이 회의시되는 변화를 보게 되었다.

레닌은 민족에 대한 생각을 민족의 주권실현과 그 확대의 희구를 볼셰비키 혁명에 이용하기 위하여 「분리의 자유」(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하였고 또 새로운 형태의 러시아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연방제를 창안하였다. 레닌의 연방제는 한 민족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적 세력의 위치에 과정에서 과도적 정권형식으로 고안해 낸 것이다. 이는 부르주아 민족국가를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에 흡수하기 위한 과도적 정권형식이며 이를 한반도의 분단상황에 창조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남북연방제이다.

소련은 정통적 「후진국 혁명의 가능성사」란 전제 하에 현실적인 문제시로 전환시켰다. 이에 관하여 흔히들 1913년 「스탈린」의 「Marxism and National Question」된 견해라고 말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전의 미정립 상태에서 이를 면색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공산주의의 수정된 민족관을 정치적 또는 혁명전략적 차원에서 논의한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1924년에 스탈린은 「레닌주의(主義)의 기반」이란 논문에서 민족문제에 관한 구체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 글에서 세계는 두 개의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다. 즉,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국주의(帝國主義)진영과 세계인구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식민지 및 종속국의 피압박민족진영으로 분열되어 있다. 이들 피착취계급은 현재 제국주의(帝國主義) 최대 예비군으로 혁명전략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 식민지의 착취계급이 제국주의(帝國主義)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은 압박으로부터 그들 식민지를 해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본주의 제국을 위기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

그리고 선진공업국의 노동계급도 식민지종주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제국주

의(帝國主義)에 대한 공동전선을 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두 개의 진영」(Two Camps) 이론은 민족주의에 대한 약소국의 자결권을 영속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산주의가 피압박상태에 있는 약소 민족에게 민족자결권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이들 제 민족이 제국주의(帝國主義)의 힘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노동계급의 혁명식을 고취시키려는 전략적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변용가치성을 인정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의 민족자결권은 오로지 피압박민족이 강대 종속국으로부터 정치적 의미의 독립, 즉 분리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하고 있으므로 이 분리권은 결국 자주독립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국가군 형성을 위한 통일에 기여되어야 한다는 단계적 전략의 범위 안에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에 쫓아 공산혁명전략은 민족주의와 영합된 채로 일국사회주의론(一國社會主義論)을 앞세운 소련의 국가이익에 기여하게 된 역사적 전통체계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은 Comintern Cominform을 통한 소련의 국가전략의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스탈린에 있어서의 민족이란 오랜 세월에 걸친 동일한 생활조건의 역사적 결과로 생산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민족되게하는 특징은 유일적인 것이 없으며, 언어, 영토, 경제, 문화공동체 등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 스탈린은 민족본질을 생활수자의 역사적 결과로 보기 때문에 생활조건의 변천은 민족의 변천을 가져오며 민족은 한 시대의 체제나 사조에 관계없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스탈린의 민족주의관은 상품시장을 얻기위하여 타민족의 부르조아지와 경쟁에서 일어나는 적개심을 갖게 하는 부르조아지 민족주의를 말한다.

부르조아지 민족주의는 지배계급인 부르조아지가 피지배계급인 국민대중을 회유하여 타국에 대항하는 정신적 사상적 무기라는 것이다. 이 경우 대중의 계급적 모순과 자각 및 조직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스탈린의 민족이론을 더 한층 뚜렷이 전략적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논리는 레닌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소산이므로 공산주의와 적대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마르크스주의(主義)는 아무리 공정하고 순수하고 세련되고 문화적인 것이라 하여도 민족주의와는 양립하지 않는다. 다만 마르크스주의(主義)는 모든 민족주의 대신에 모든 민족을 보다 고도한 통일체로 융합하는 국제주의를 말한다고 하였다. 이것 역시 민족부정론인 것이다.

결국 공산주의의 민족에 관한 문제는 개별화된 자기완성적인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향한 부분적인 문제이므로 전체적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에 관하여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피압박민족주의란 두 개로 나뉘어 파악하고 전자는 반혁명적이기 때문에 말살시키려 하며 후자는 친혁명적이기 때문에 혁명화시킬 시점까지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명백히 밝혔다. 이로써 그들의 민족이론은 부정과 가수용이란 두 가지의 측면을 가졌으므로 이중성을 띠고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사에서 민족문제를 전략적 측면에서 제기한 최초의 경험은 Comintern

의 통일전선전술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1920년대에 구라파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은 완전히 패색이 짙었고 오히려 도처의 식민지에서는 민족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 통일전선전술은 이와 같은 전시공산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창안된 것이다. 레닌은 코민테른 제2차대회의 「민족 및 식민지 문제에 관한 체제」에서 자본주의 하에서 민족의 평화적 공존 및 평등의 가능성에 대한 소부르조아의 민족적 환상을 붕괴시켜야 한다고 민족주의를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 「공산당은 식민지 및 후진국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와 일시적 협정 내지 동맹까지 맺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결코 그들과의 융합일 수 없고 가장 초기적인 형태에 있을 경우에도 공산주의 운동의 독자성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역설하여 자신의 민족관에 따른 이중성에 입각한 논리로서 당시 세력의 허약상을 면치 못하던 공산당의 혁명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소부르조아 민족의 잠재적 혁명 가치성에 미련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1921년 6월 코민테른 제2차대회는 「대중으로」(To the Mass)의 구호를 앞세우고 통일전선전술의 일반화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더욱 이 전술은 같은 해 12월에 코민테른의 결정에 따라 「통일전선전술에 관한 체제」가 공식발표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1926년 3월의 코민테른 확대집행위원회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분열된 전선을 통일하고 부르조아지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올바른 노선」으로 의결하였다.

모택동(毛澤東)은 민족주의 문제와 공산주의와의 관계를 해명하고자 1937년 8월 「모순론」을 발표하게 된다. 그의 모순론에 의하면 우주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모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소위 「모순의 보편성」이다. 그는 마르크스가 말한 유물변증법적 역사발전의 통일된 원칙이 곧 모순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주의 보편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각(各)」사물에는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모순을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봄으로써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에서 말하는 「투쟁」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모순이라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든 특수적인 것이든 간에 그러한 모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들은 그러한 사물들의 밖(外)에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요, 반드시 그 사물의 안(內)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열쇠는 그 사물 자신이 안고 있는 것이며 결코 남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서 그는 모순 해결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물발전적(事物發展的) 근본원인(根本原因) 불시재사물적외부(不時在事物的外部)

이시재사물적내부(而是在事物的內部) 재간사물내부적모순(在干事物內部的矛盾)」모택동(毛澤東)이 모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안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중국 내부의 체제적 모순 속에서 일차적으로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주는 근거라고 생각되어 진다.

모택동(毛澤東)은 이러한 모순론을 중국적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중국의 민주주의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모순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표방하여 중국민족의 특수적 모순은 러시아의 모순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모택동(毛澤東)은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의

순수성을 표방하면서 도전해 오는 이론적 논쟁을 무마하고 동시에 사회주의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인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사회주의가 중국을 개명시킨 것이 아니라는 지극히 중화중심적(中華中心的)인 사고방식을 통하여 민족을 혁명전선에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그의 모순론, 민족주의론은 전략적인 의미와 전술적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레닌, 스탈린, 모택동(毛澤東) 등의 민족관 민족주의관은 프롤레타리아의 국제공산주의운동 내지는 식민지 종속국의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식 고취와 국내혁명전선 유도라는 전략적 의미로 사용되었지 개별 민족의 권익이라는 개념이나 민주국가

3. 북한(北韓)의 민족개념(民族概念)과 민족주의관(民族主義觀)

한민족은 역사적으로 민족적 단결이 강하다는 기록을 갖고 있다. 외부로부터 침략이 있을 때는 물론이요, 평상시에는 강인한 단일민족의식으로 단결하여 생활을 유지해 왔으며 이를 역사상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 남·북한은 민족의 문화유산의 계승 방법을 달리 하면서 가치관의 상이를 가져오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전통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정권을 장악하고 나면 습관, 풍속을 변경시키고 언어까지도 새로운 관념과 사구(辭句)로 채워놓음으로써 전통적 가치를 변형시킨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민족의 전통적 가치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의 이념과 목적에 맞도록 변형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민족변질론과 민족부정론을 신봉하고 있는 북한공산집단은 우리 민족을 「사회주의적 인민」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공산 집단의 일민족(一民族) 일국가주의(一國家主義)는 곧 적화통일의 인민공화국을 한반도에 전일적으로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민족정의를 보면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와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 규정하고 있어 스탈린의 규정과 동일하다. 스탈린은 Marxism and National Question이란 논문에서 민족을 정의하여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공동 가운데 나타나는 심리생태의 공통성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견고한 공동체이라고 하였다.

스탈린의 위의 논문은 1913년 3~5월에 발표된 것이고 북한의 「철학사전」은 1970년 10월에 발행된 것이므로 그 시차는 실로 반세기하고도 7년이 더 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의 이론을 북한공산주의가 전혀 동일하게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도주의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북한의 「철학사전」과 동시기적으로 1970년 10월에 발행한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은 기괴하게도 「민족」이란 단어는 아예 수록도 하지않고 다만 「민족」과 관계 있는 「민족주의」, 「민족국가」, 「민족어」, 「민족통일전선」 등의 용어만을 수록하고 그것에 대한 풀이를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은 그때까지만 하여도 북한공산주의가 정치

용어상으로는 민족의 본질개념을 규정하기 어려웠던 사정임을 말하여 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3년후인 1973년 12월에 발행한 「정치사전」에서는 민족을 정의화하기를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이보다 3년 2개월 전에 발행한 북한 「철학사전」의 민족 정의에 「혈통」의 요건을 더 집어 넣은 것이 다를 뿐이다. 북한공산주의가 민족의 정의에 있어서 「정치사전」을 통하여 왜 종래의 「철학사전」에는 없었던 「혈통」의 이자(二字)를 집어 넣었는가 하는 것은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가 못된다. 스탈린은 혈통의 조건은 민족구성요소의 하나로 될 수 없다고 배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혈통특징은 인생을 생물학적으로 논할 때 혈종, 인종으로 나누어지는 특징일 수 있을 뿐이고 민족을 민족되게 하는 필수적 요건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스탈린은 그 주장을 변호하여 민족은 사람들의 일정한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는 인종적인 공동체도 아니고 종족적 공동체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민족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의 일정한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인종, 혈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의 「정치사전」은 민족의 혈통조항을 일관성 있게 고수하지 못하고 「민족은 생물학적 징표에 의하여 구분되는 인종과는 다르다」고 주장함으로써 혈통을 민족표징의 하나로 내세워된 앞부분에서의 주장을 뒷부분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고 말았다. 결국 민족이 혈통조건을 부인하는 스탈린 원본에 일치성을 보이고 만 것이다.

북한이 민족개념에 대해서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남관계에서의 전략, 전술의 변경에 따른 것이다. 1972년에 남·북공동성명의 내용 중 민족통일의 원칙이 들어가게 되자 그 다음해에 나온(1973) 「정치사전」에서 종전의 민족개념에 혈통 요건을 삽입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에 어느 정도 변경을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대남정책 변화와 더불어 스탈린 원본과 일치성을 보이는 민족 개념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다음은 1973년에 나온 북한 「정치사전」의 민족관계 부분을 약술하고자 한다. 민족개량주의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맞서 싸울 대신에 그들에게 아부 굴종하면서 농민의 식민지 통치인의 테두리 안에서 민족의 처지를 부분적이라도 개선할 수 있을 듯이 떠벌리는 반동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철학사전〉에 의하면 민족개량주의는 두 가지로 된다. 하나는 지난날 일제(日帝)시대의 문제로서 이는 조선의 빈궁과 고통의 원인을 일제의 침략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족의 「열악한 민족성」에 있다고 주장하여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든가 인민의 혁명투쟁을 「무모한 행동」으로 돌리고 자치운동을 주장함으로써 일제침략을 합리화하고 민족해방투쟁을 방해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한에서의 「미제(美帝)와 그 주구(走狗)들」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개량주의를 들었다. 「정치사전」에는 이 후자가 삭제되고 표현도 간략하게 되어 있다.

「철학사전」에는 없고 「정치사전」에만 새로 삽입된 것이 민족이기주의이다. 이는 「자국민족의 이익만을 내세우며 그것을 위하여 다른 민족의 이익을 해치는 부르조아사상」이라 규정하

고 부르조아지는 민족 안에서 자기들의 계급적 지배와 착취 등 민족이기주의를 선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金日成)의 다음 교시를 설명하기 위한 규정 같다.

「혁명하는 인민들을 도와주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은 민족적 이기주의이며 수정주의이다. 우리는 세계혁명을 위하여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를 때려부수기 위하여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민족이기주의는 표면상 수정주의 공격용으로 강조된 듯하나 정치적으로는 소련, 중공 등 강대국을 비판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라든가 참다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도 배치되는 민족이기주의는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의 주장과 밀접히 관련 되어 있다.

민족문제는 그 제목이 표시하듯 북한의 민족에 대한 사유(思惟)를 전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그 개념적 정의를 보면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여 완전한 정치적 자결을 실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민족의 최대한의 자유로운 발전과 전면적인 개화를 이룩함으로써 온갖 민족적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문제」로 규정된 이 용어는 매우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민족이라든가 민족성 민족자결권 등의 개념이어야 할텐데 「민족문제」라는 포괄적 용어가 특수한 개념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예인 것이다. 이 항목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가를 이로써 알 수 있다. 특히 이 항목 속엔 김일성(金日成)의 소위 교시가 4개나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4 가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자본주의 시대는 계급적 착취와 함께 민족적 억압이 지배하는 시대 라는 것. 따라서 민족적 불평등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실적 문제로서 중요하다는 것.
- ② 모든 민족은 평등하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 민족자결의 권리가 있다는 것. 「자기 권리를 자기 손에 틀어 쥐고」 행사해야만 독립과 자유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
- ③ 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없이 민족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것.
- ④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없이 미제(美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정치적 독립도 불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민족문제를 이처럼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남·북한이 갖고 있는 현실적 민족통일문제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는 듯 하다.

민족문화유산은 「한 민족이 오랜 역사에 걸쳐 이룩하고 후대들에게 남겨놓은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의 총체」로 규정되며 두 개의 교시에의 그 역점(力點)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① 사회주의 민족문화 건설이 그 목표이다.

주권을 잡는 노동계급은 선행문화와 질적으로 구별되는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문화를 건설해야 하는 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행문화를 계승한 기초 위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건설은 국경이 있고 민족이 있고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조건에서 민족 단위로 진행하여 민족적인 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② 물론 오늘날의 사회주의적 현실에 맞게 과거의 유산은 비판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곧 노동계급의 계급적 입장을 견지하는 태도

가 그것이다.

민족분할정책은 「국제주의자들이 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통치를 유지 강화하여 식민지 예술 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민족 호상(상호 인용자)간 또는 민족 내부를 이간시켜 그의 통일단결을 파괴하려는 침략정책」으로 규정되어 그 본질은 「분할하여 통치하라」라는 말들에 있으며 그 실례로는 지난날 영국의 인도 통치와 오늘날의 미제국주의를 들고 있다.

민족배타주의는 「자기 민족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며 자기 민족의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하여 타민족에 대한 반복과 증오를 설교하는 반동적인 부르조아민족주의」로 규정된다. 이 항목은 주체사상과의 관련성에 있어 음미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용어 자체는 그들이 증오 내지 매도하고는 있지만 실질상으로는 주체사상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 김일성(金日成) 교시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배타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에 적대되며 대중 속에서 진정한 애국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한다」로 되어 있다. 부르조아 민족주의가 부르조아지들의 계급적 이익에만 봉사하는 것이면서도 민족적 이익인 듯이 위장하는 것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한 민족배타주의도 결국은 부르조아 계급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계급(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및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전자가 노동계급에 기초한 사회주의체제에 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 될 수 없고 다만 대외적인 국제관계에서의 투쟁목표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만일 민족배타주의가 자기 민족의 「민족적 우월감」을 고취하는 것이라면 이는 주체사상의 기본향이어야 할 것이다.

민족자결권은 「모든 민족이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며 자기 민족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과 결심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권리」로 규정한다. 노동당의 기본적인 민족 문제가 바로 이 점이라 주장되고 있을 정도로 강조되고 있다.

「정치적 독립의 물질적 기초는 경제적 자립이다. 이를 「기본담보」라 적고 있거니와 경제적 낙후성은 민족간의 불평등의 실제적 기초로 보고 있다. 경제적 자립과 정치적 독립의 관계는 이 항목에서 가장 날카롭게 의식되고 있거니와 그것은 다음 두 단계로 설명된다. 첫째, 정치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단계, 둘째는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나가는 단계인데 이를 위한 방법이 곧 주체사상이라 한다. 주체사상은 곧 민족자결권을 위한 이론적 기초라고 한다. 정치적 자주, 경제적 자립, 문화적 자위를 기반으로 하는 주체사상에 의해서만 외세의존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 허무주의, 고립주의, 민족 이기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자본가는 「식민지 및 반식민지 나라들에 외래 독점자본에 예속되지 않았으며 그들과 모순관계에 있는 토착자본가」로 규정된다. 이에 대립되는 것이 외래독점자본가와 예속자본가이다. 민족자본가는 우선 외래독점자본과 예속자본가의 투쟁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혁명에 이해관계를 갖는다, 민족자본가의 반제적(反帝的) 측면이 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

른 한편 민족자본가는 그들이 자본가인 특성으로 하여 착취계급에 봉사한다. 이로 인해 노동계급 및 민족을 배반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된다. 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그들은 혁명수행상 단계적으로 해결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노동당은 민족자본가와 타협하여 공동전선을 펴다가 노동당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는 당에 의해 흡수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에겐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이고 다만 남조선에만 이것이 미해결로 놓여있다는 것이다. 미제국주의 독점자본과 매판자본가의 압력 속에서 남조선의 일부 「애국적 민족자본가」들은 「남조선 혁명의 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레닌의 낱은 명제를 본다. 민족적 자부심은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계승해야 할 민족의 훌륭한 모든 것에 대한 자랑의 감정이며 조국의 영예와 민족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고 민족문제를 자신의 힘에 의거하여 능히 해결할 수 있다는 신심」으로 규정되며 북한의 민족문제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보인다. 그들이 말하는 민족개념이 노동계급의 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한 것인 이상 민족적 자부심도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노동계급의 민족적 자부심이다. 따라서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랑의 감정을 결합시킨 것으로 된다. 물론 감정인 한에서 그것은 과학적 개념일 수 없다. 그들은 이 민족적 자부심이 민족배타주의와 무관하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감정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金日成)은 그의 교시에서 「우리는 근로자들 속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더욱 높이며 그들로 하여금 조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른바 민족적 자부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당(黨)과 김일성(金日成) 숭배사상이다. 다시 세분하면 김일성(金日成)을 받드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랑, 그가 만들고 지도하는 사회주의 제도에 산다는 우월감, 그가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 된 영예와 자부심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느껴지는 것은 그것이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을 반영시켜 놓았다는 점이다. 민족적 자부심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무한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인 셈이다. 따라서 민족적 자부심을 강화하는 일은 곧 주체사상을 강화시키는 것과 비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金日成) 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에다 포편타당성을 부여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개인숭배사상이 아니라는 신념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 고안한 것이 민족적 자부심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적 자부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민족적 자주의식은 「그 나라 혁명의 주민은 그 민족 자체라는 자각과 민족 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는 그 민족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는 민족 허무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주체사상의 발현이라 보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애국주의」로도 발현되는 것이라 한다. 「김일성(金日成)의 교시에 의하면 사회주의 애국주의는 계급의식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

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킨다」로 규정하고 있다. 계급의식과 민족의식의 결합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인 것이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 변증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 변증법의 설명과정의 매개개념을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의 우수한 것, 조국산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떠난 민족 자주의식이란 추상적인 것」이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민족의 우수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한민족의 우수성이 김일성(金日成)이라는 혁명가를 낳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족주의는 「계급적 이익을 전 민족적 이익으로 가장하고 자기민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증오하며 민족들 사이의 불화와 적대를 일삼는 부르조아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민족주의는 부르조아적 성격을 띤 것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라 한다.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 및 비판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대국(大國)자본가 계급의 민족주의와 피지배 국가 자본가 계급의 민족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前者)는 대국 배타주의적 민족주의요, 후자는 식민지 예속국가의 민족주의라 불리는 것이다. 이중 후자(後者)는 전자(前者)와 투쟁하여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도에서는 그리고 노동계급이 아직도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연합전선을 펼 수 있다. 그러나 후자(後者)는 끝내 부르조아적인 것이기에 어느 시기가 오면 부정되고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도 이 민족주의의 잔재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투쟁이 요청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이룩된 국가에서는 「민족주의의 사회계급적 근원들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새삼 민족주의의 피해에 우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재가 남아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민족이기주의와 대국주의적 경향을 지칭한다. 이 둘과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국주의가 소련이나 중공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민족적 허무주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자기민족이 이룩하여 놓은 민족적 전통을 비롯한 귀중하고 가치있는 것들을 부인하고 말살하는 사상」으로 규정된다. 이를 달리 노예적 굴종사상이라 하고 또한 사대주의, 교조주의와 연결되며 세계주의(그들이 말하는 미국제국주의)와 결합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민족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초」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이것이 잔재로서 나타날 수 있어 근로자 교양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지난날 우리 민족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은 민족 허무주의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 속에 민족적 자부심을 높일 수 없고.....」라고 지적한다. 민족적 허무주의를 없애고 민족적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① 김일성(金日成)의 항일(抗日) 혁명투쟁의 혁명전통, ② 그 후의 혁명지도성에서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이 곧 민족자체라는 논법인 것이다.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은 「식민지 및 반식민지나라들에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앞잡이인 국내 반동세력을 때려부수고 민족의 독립을 이룩하여 봉건적 착취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이고 자주적인 발전을 실현하는 혁명」으로 규정된다. 이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이고 그 동맹자는 농민, 진보적 청년, 학생, 지식인, 애국군인, 애국민족자본가, 소자산 계급이라 한다. 혁명이 완수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성립될 때 그 동맹자는 이미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은 소위 「남조선 민족해방」에 관련되는 것이다.

민족언어(民族言語)는 「민족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지고 발전하며 그와 운명을 같이 하여 민족 안에서 단일화되어 전체 민족 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고 이해되는 언어」로 규정된다. 「민족」 설명에서 보이듯이 김일성(金日成) 교시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것이 실상 사회주의 혁명건설의 모든 분야에서의 「힘 있는 무기」로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족어는 민족 문화창조의 필수적 수단이자 전통의 계승 발전의 중요수단이며 또한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복돋우고 「민족적 단결」을 이루는데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정치사전」에 들어있는 것으로 「철학사전」에 실린 것보다는 민족관계의 항목수가 많고 또한 세분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철학사전」의 항목으로는 「민족 통일전선」이 더 실려있다. 이는 「정치사전」엔 없는 것이며 다만 「정치사전」의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속에 일부 흡수되어 있다. 이 항목은 물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을 목표로 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 목표는 「철학사전」에 의하면 ① 노동계급이 주축이 되어 농민 등 동맹자를 합하여 주력을 형성하고, ② 하층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여 상층통일전선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에 있어서의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규범적 이해는 의외로 간단하지 않다. 그들이 「민족문제」라는 용어를 철학적 단위로 설정해 놓고 있음을 보아서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겠거니와 특히 그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사유적 단위의 핵으로 삼고 있음에서 소위 주체사상과의 연결이 모색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4. 결론(結論)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내적 갈등과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민족수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으며, 그 많은 세월 속에서 민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수난을 극복하고 문화창조를 위해서 조화와 협력을 이룩하여 왔다. 19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서구 자본주의의 우세가 동양에 문호개방을 요구하면서 동양근대사의 방향에 수용과 저항이라는 변수를 민족에너지로 갖게 하였다. 우리 민족은 이러한 세계사적 상황 속에서 민족을 지키고 민족의 역량을 선양하려는 노력이 나타났으니 이가 곧 근대 한국민주주의인 것이다. 근대 한국민족주의가 자주와 진보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걸고 민족의 총량(總量)을 수렴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일찍부터 동양 전통 외교사의 이단자로 등장하여 준서구(準西歐) 세력임을 자칭하면서 러일전쟁(露日戰爭)

과 중일전쟁(中日戰爭)의 승리를 힘의 원천으로 하여 한국에 힘 우위의 원리를 강조하여 왔다. 그 결과가 36년이라는 민족사 단절의 상처인 것이다. 일제(日帝)의 가혹한 민족말살정책 속에서도 5천 년동안 면면히 전해온 한국의 민족주의 의식은 3.1 민족주의를 능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단절된 역사 속에서 민족사는 역사의 주체를 상실한 채 이를 회복할 겨를도 없이 해방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었다. 상처받은 민족사를 회복하지 못한 채 해방된 우리 민족 앞에는 민족구성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민족분단이라는 전민족적 비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분단 그 후 벌써 30여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북한에는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란 외래 사관(史觀)과 소위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에 의해서 5천년 우리 민족사가 날조되어 민족통일의 과업을 성취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이를 극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2중 3중으로 배가된 민족사의 상흔을 치유하면서 민족 통일의 그 날을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족관, 민족주의관이 전통적 민족, 민족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근대화의 에너지로 삼고 있는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이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대남 전략 전술상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오늘도 다방면에서 민족, 민족주의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자신의 정당화요, 민족적 감정에 향수를 갖고 있는 남한 구성원에 대한 전략상의 개념인 것이다. 공산주의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별민족의 이익에 부합되는 민족, 민족주의란 있을 수 없다. 북한이 공산주의 운동을 그들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삭제하지 않는 한 한민족 개별 민족의 이익을 위한 민족이나 민족주의를 받아들일리가 없게 된다.

북한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지의 사상이라 하여 배격하면서 민족이익을 계급 이익에서 「민족적 자부심」과 「민족적 자주의식」을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에서 찾고 있어 민족을 곧 김일성(金日成) 개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민족의지와 민족 총량이 민족구성원 개개인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金日成) 개인으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소위 「민족적 이기주의」를 배격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선동하고 있으며 민족적 전통과 가치를 말살하는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면서 민족구성원을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민족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에게 혈육의 정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문화적 교류를 갖자는 우리의 제안을 일관성있게 거부하는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민족구성원 개개인(국민)의 행동원리가 민족이익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하고 국민 스스로가 미래지향적인 민족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민족이익과 민족발전을 국민개인의 그것과 연결시키기 위한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만이 앞으로 올 후세들에게 자랑스러운 오늘을 떳떳이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상식교실(常識教室)

항공기(航空機) 안에서 라디오 왜 못켜게 하나?

트랜지스터 전자(電子)신호 발신 비행기 통신(通信)장비에 전파(電波)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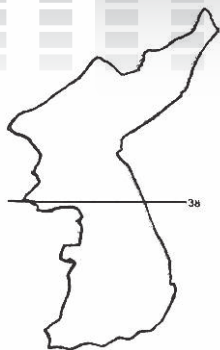
어떤 항공사에서는 항공기 내에서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TV를 못켜게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일까? .

모든 휴대용 TV나 FM라디오는 전자신호를 수신할 뿐만 아니라 발신하기도 한다.

여기서 발신된 신호는 고유의 세기와 주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처의 다른 신호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휴대용 TV나 FM라디오에서 발신되는 저주파 신호는 항공기의 운항장치 및 통신장비에 이용되는 주파수와 가깝기 때문에 이들 장비와 전자파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미(美) 연방공화국(FAA)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의 조사결과 이같은 전자파장애 의한 항공기 내의 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승객들에게 TV나 FM라디오를 꺼주도록 요청한 결과 신호장애가 멈추었다는 사례는 약 1백건에 달하고 있다는 것. 기내에서 TV나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못켜게 하는 것은 아직은 각 항공사의 재량에 따르고 있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특히 정확한 운항신호가 요구되는 이 · 착륙시 전자제품의 사용을 규제하기도 한다

마(魔)의 38선(線)은 어떻게 생겼나



나 창 주(羅昌柱)
〈교수〉

1. 군부의 강경에 밀린 각의 일본은 당황했다.

아무리 외교를 통해(소련이 중계를 기대)연합국에 접근하려 해도 번번이 묵살 내지는 성의를 보이지 않은 소련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가사키(장기(長崎))와 히로시마에의 원폭투하는 일본으로 하여금 더욱 당황케 할 때였다.

1945년 8월 8일 좌등 주소 대사는 면담 예정 시간을 3시간 앞당겨 하오 5시 일본시간(日本時間))에 만나자는 전달을 받고 크레믈린으로 몰로토프 외상을 찾아갔다.

평화공작에 대한 소련측의 회담을 기대하면서 좌등 주소대사가 막 포스담회담에서 돌아온 그에게 무사히 귀국한 인사만을 건네자 몰로토프는 황급히 제지하면서 느닷없이 소련의 대 일 선전포고문을 낭독했다.

「……소련정부는 명일 즉 8월 9일부터 일본과 전쟁상태에 들어 갈 것을 선언한다.」

한 가닥의 희망도 깨진 가운데 8월 9일 상오 10시 30분 일본 궁성에서는 6거두 최고 전쟁지도자회의가 열렸다.

「……제반정세에 비추어 포스담선언을 수락할 수 밖에 없다」라고 영목(鈴木)수상이 말문을 열고 참석자의 의견을 들었으나 몇 분동안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됐다.

「가만히들만 있어도 별 도리가 없지 않소.」

미내 해군상(장관(長官))이 침묵을 깼다.

「천황제 유지를 유일한 유보조건으로 포스담선언을 받아들이거나 이 밖에 무장해제의 방법 전쟁범죄인의 처벌 점령군의 일본점령 방법 중 세가지를 내세워 상대방과 교섭하는 두 가지 방법 밖에 없는 줄 아오.」

이 때 매진 육군 참모총장이 언성을 높이며 일갈했다. 「항복이란 두 글자는 일본군이 쓰는 사전에는 없소」라고 종래의 본토 결전을 한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확신도 없으나 포스담 선언

이란 것을 무조건으로 수락할 바에야 남은 최후의 기회를 살려보는 기회도 마땅하다라고 아남 육군상도 매진총장의 의견에 동조하는 바람에 회의는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회의가 한창 진행되던 상오 11시 30분 환주의 나가사키에 제2의 원자 폭탄이 투하됐다는 소식이 날아 들었다.

잇따라 9일 하오 9시 30분에 열린 각의에서도 「사중활(死中活)」을 아남 육군상이 주장하여 평화론을 누르고 있었다.

동향 외상은 설득에 나섰다.

국제(천황제(天皇制))가 유지만 된다면 어떤 고통도 참아야 하며 그것이 일본을 구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라고 했으나 그것은 먹혀 들어 가지 않았다.

밤 10시반에 이르러서도 각의 결정을 보지 못하자 영목수상은 화가 난듯 아니 결심이나 한듯 벌떡 일어나서 각료를 만으로는 결정지를 수 없다 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궁성을 떠나 버렸다.

2. 어전회의서 항복을 결정

정말 긴장한 분위기였다. 끝까지 싸우자는 군부와 화평을 주장하는 각료들 주장은 문자 그대로 갑론 을박이었다.

말 한 마디 잘 못하면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회의요, 또 그 운명도 진정 풍전등화를 처리 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였다. 국운을 가름하는 지로 바로 그것이였다. 영목수상이 궁성에 도착, 그때 시계바늘이 9일밤 11시 50분, 길이 10m, 폭 6m 궁중 방어호에서 천황이 임석한 어전 회의가 열렸다.

각의에서는 천황제 유지를 유일한 조건으로 한 동향 외상안이 6표, 네 가지 조건을 내세운 최고 전쟁지도자회의의 안이 3표, 중간 5표로 의견이 서로 달랐다.

시간은 흘러 이튿날 상오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런 의견의 일치나 일치될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영목수상은 비장한 각오로 입을 열었다.

「이렇게된 이상 황송하기 그지 없으나 성혜(聖惠)로써 이 회의 결정으로 삼겠다」라고 발언하고는 어전(천황(天皇)) 앞으로 다가섰다-

천황은 수상에게 자리에 돌아가라고 명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외무대신의 말에 동의한다.」

육·해군통사부의 계획은 항상 착오를 빚었고 또 그것은 시기를 잃었다. 공습은 격화하고 이 이상 신민(臣民(국민))을 도탄의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은 짐(朕)이 바라는 바가 아니니라.

충량(忠良)한 군대(軍隊)를 무장해제 하고 또 이제까지 짐(朕)에게 충근(忠勤)을 다 한 자를 전쟁범죄인으로 하는 것은 참을 수 없지만 국가를 위해서는 부득이 하다.

천황(天皇)의 이 말이 끝나자 영목수상은 기다렸다는 듯이 머리를 조아리고 「성단으로써 이 회의의 결론으로 한다」라는 한 마디를 남기고 어전회의를 산회시켰다.

천황(天皇)의 통치자(統治者)로서의 대권(大權)을 저해하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양해 아래라는 단서가 붙은 포스담선언 수락을 전하는 동경방송의 전파를 워싱턴이 포착한 것은 8월 10일 상오 7시 33분이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상오 9시 백악관에 번즈 국무장관, 스티븐 육군장관, 포레스털 해군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레이히 제독을 불러 이렇게 물었다.

천황제 유지라고 하는 이렇게 큰 단서가 붙은 수락은 우리가 요구해 온 무조건 항복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번즈 국무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항복을 수월히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일본 측 제안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자는 의견으로 표명되었다.

트루먼 대통령은 번즈장관에게 회담문의 기초를 의뢰했다.

번즈 국무장관의 회담문 중 천황에 관련된 귀절은 다음과 같다.

「항복의 순간부터 천황 및 일본정부의 국가를 통치하는 권한은 연합군 최고사령관에게 예속된다.

일본의 최종적 정부형태는 포스담 선언에 따라 일본국민이 자유로이 표명하는 의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일정한 조건아래 천황제가 존속될 수 있다는 함축성 있는 내용의 것이었다.

트루먼은 이 회담을 띄우기에 앞서 영국, 중국 그리고 바로 이틀전 대일선전 포고한 소련에 동의를 요청했다.

10일 밤 해리먼 주소대사는 외상 몰로토프를 만났다.

여기서 훗날 한날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한 편법이라고 했던 38선이 한반도 분단으로 굳게 될 수 있다는 대화가 오고 갔다.

그것이 표면에 나타난 첫 38선 분단이었다.

3. 38선 분단 과 「해」, 「물」 대화

미국의 해리먼 주소대사나 몰로토프 외상은 일본이 항복할 것을 기정화하고 한반도에서의 일본군 무장을 어떻게 해체시키느냐가 초점이었다.

사실 당시 중화민국이 공산당의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고 당당한 승전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졌을 것이라는게 오늘의 판단이기도 하다.

그것은 중화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일군 무장해제를 걸머졌다면 오늘과 같은 비운의 38선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저 아쉬움만이 되풀이될 따름이다.

여기서 그 38선 잉태를 앞둔 두 외교관사이를 오고간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몰로토프 : 소련정부로서는 천황과 일본 정부가 예속하게 되어 있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대표의 한 사람의 후보 혹은 몇 사람의 후보에 관하여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리먼 : 그것은 무슨 뜻인가?

몰로토프 : 어느 연합국 대표 혹은 연합국 대표들이 일본과 교섭하느냐에 관하여 상호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 뒤 누가 최고사령관이 될 것인가에 동의하면 된다.

해리먼 : 그것은 최고사령관의 선택에 관하여 소련에 거부권을 주는 것이며 전혀 문제 밖의 일이다.

미국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소련은 맥아더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몰로토프 : 용의가 있으나 동료들과 의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리먼 : (되풀이 하듯)소련정부는 최고사령관의 선택에 거부권을 갖자는 것 같은데 이것은 미국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몰로토프 : 두 사람의 최고사령관 즉 맥아더 원수와 소련국동군 사령관 바시레프스키 원수를 임명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해리먼 : 그것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이전부터 일본점령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도했던 것이다.

장차 일본이 행여 소련의 대립국이 되지 못하도록 썰기를 박자는 것이었다.

이것이 미국에 보이콧 당하자 소련은 가능한 지역(동구 극동의 경우 소련군이 진주하게 된 한반도의 북한 38도선 이북)을 자기의 세력권으로 확보한다는 구도를 더욱 굳히게 되었다.

4. 미·소를 낚는 극비전문

미국 번즈국무장관 기안의 회담전문(8월 11일자)은 중립국 스위스를 경유하여 극동으로 발신되었다.

다음날 12일은 일요일이었으나 트루먼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 하루종일 들어 앉아 일본 측의 반응을 이것저것 저울질하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모스크바에서 전후 처리에 배상문제를 두고 소련측과 협상하던 플리트사로부터 극비의 전문이 날아들었다.

「배상에 관한 토의에서 미군은 한반도 및 만주의 공업지역을 남단에서 북쪽으로 향하여 되도록 넓게 소속히 점령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같은 행동을 취하더라도 일본군의 조직적인 적대행위가 끝난 뒤이므로 미군의 생명은 위협에 빠지게 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전문에 이어 해리먼 대사의 급전이 또 날아 들어왔다.

「포스담 회담 때 마살장군과 킹제독은 만약 소련군이 한반도 및 만주의 대련지구를 점령하기 전에 일본군이 굴복할 경우에는 한반도와 대련에 미군이 상륙해도 좋다고 본인에게 말했습니다.

스탈린이 중·소우방동맹 조약체결과 관련하여 송자문 외교부장에게 과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루어보아 적어도 만주의 관동주와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받도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소련의 군사작전에 경의를 베풀어 점령지역을 바칠 의무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트루먼이 이 전보를 받아들였을 즈음 소련함대의 무리는 청진앞 바다에 모여 있었고 12일 밤 중에는 상륙군의 선봉부대가 부두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형무소의 죄수와 극동지역의 미개인으로 혼성된 소련상륙군은 청진시가를 가로지른 유성천을 향해 상륙을 기도 일본군의 저항을 받아 상륙 단정 몇 채를 잃은 끝에 성공했다.

이 때 하지중장의 휘하에 있는 미국군은 오키나와에 발륙인 채 꼼짝못하고 있을 때였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때였다. 당시 미 하지중장 휘하의 일부병력이 양동작전을 펼쳐 한반도의 어느 항구여라도 먼저 닿았더라면 사태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하다.

5. 일 천황제 싸고 갑론을박

이때 일본은 또 과연 어떠한가? 소련군이 한반도의 북단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미의 지상군 주력은 오키나와에까지 다가섰으니……. 남은 것은 어떠한 형태로 항복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었다.

상륙하는 연합군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느냐 아니면 당장 백기를 드느냐? 들면 어떻게 드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때 샌프란시스코 방송의 전파를 타고 미 번즈 국무장관의 회답이 일본외무성 무전실에 들어온 것은 12일 0시 45분이었다. 그것이 바로 「일본정부의 최종적인 형태……」라는 귀절이었다.

정부(Government)의 G자가 대문자냐? 소문자냐? 정관사 The가 어떤 한정된 뜻을 품느냐를 두고 외무성 전문가 들은 밤새껏 머리를 쥐어짰다.

천황제 존속 여부의 힌트를 거기서 풀어내자는 것이었다.

G자가 대문자이고 거기에 The가 붙었으면 의미가 한정되어 정부만을 뜻하는 것이고 G가 소문자라면 보다 넓게 천황을 포함한 정치 체제의 전부를 뜻하는 것으로 풀어야 한다와 아니다로 갑론을박이었다.

12일 하오 3시에 소집된 각의에서 동향외상은 전문풀이에 대한 단을 내리고 이야기했다.

「……천황제는 엄존한다. 때문에 이 항복문서의 수락은 부득이하다」라고 하자 아남 육군상은 타자를 치며 「이것으로는 국체(천황제) 문제가 불안하므로 재조명해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외무성 못지 않게 각의에서도 갑론을박이었다. 이렇게 되자 영목수상은 막판에 입을 열었다. 「이 회답으로서 국체문제가 불안하므로 다시 조회하자. 그것이 확신되지 않는다면 전쟁의 계속은 부득이하다.」

이렇듯 모든 각료는 천황제 수호에는 고집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었다. 비록 자기들은 죽어 마땅하지만 천황만은 살려 놓아야 하고 또 천황제는 일본국민이 살아있는한 지켜져야 한다는 의지, 아니 신념에는 변함이 없었다.

화평파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영목수상의 이같은 발언은 동향외상을 곤경에 빠지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회답문서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웠다.

또 그게 외교문서일지도 모른다.

평화 아니 항복에도 조건이 있다고 끈질기게 물고드는 게 외교의 한 단면일지도 모르나 트루먼 미대통령으로서도 그렇게 하는 수 밖에 없었다.

어떻게 보면 일본항복이 늦어진 것도 그 천황제의 고수에 있었고 또 고군(孤軍)이 된 일본으로서 포스담선언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만약 당시 일본이 포스담회담 내용을 소상히 알았더라면 소련군을 극동에 불러들이지도 않았을 것이요, 또 손도 먼저 들었을지도 모른다.

6. 일군 「국체수호」에 안간힘

이렇게 정부의 고위층이 우왕좌왕했을 때 일본의 군부는 과연 어떠한가?

전쟁 계속 수행을 고집한 아남 육군상은 과연 누구를 믿고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때문에? 하는 답변은 간단하다. 군인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 나라에 몸바친 사람이다. 때문에 자기 일신이 죽아갈 때까지는 싸워야 한다.

그러면 아남 육군상은 누구를 믿었을까? 할때 그것은 한 마디로 충용스러운 자기의 부하들을 믿었다.

일부의 육군장교들은 각료들의 동정을 눈치채고 「국체수호」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천황을 옹립하여 궁성에 농성하는 쿠데타 계획을 짜고 그 거사시각을 14일 상오로 예정하고 있었다.

일본 육사출신 중령급이 주동이 된 청년장교들은 ① 국체수호, ② 전쟁수행, ③ 화평주의자 배격 등을 내세우고 군간부(지휘관급 이상)로서 이에 동조하지 않을 때는 연금 또는 처단한다는 극렬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또 그들은 예상되는 천황의 항복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막는다는 것이 첫 과제였다.

(참고 : 일본 근위사단 장교들이 중심이 되었던 국체수호 쿠데타계획은 일본이 패전하고 항복한 뒤로 갑론을박되어 1960년도 일본의 국영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긴 날=세카이데이(찌반나가이 히)라는 타이틀로 영화화하여 세상에 공개됐다).

군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인 13일 상오에 열린 최고 전쟁지도자회의에서도 국체문제로 소용돌이쳤다.

동향외상은 회의 도중 궁성에 들어가서 천황으로부터 「외상의 주장대로 화평공작을 추진시켜도 좋으니 그 뜻을 총리에게 전하라」라는 하명을 받고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41년 2월 1일 태평양전쟁 개전을 결정한 어전회의 이래 한번도 열지 못했던 최고 전쟁지도자 회의 구성원과 각료합동의 어전회의가 8월 14일 상오 10시 50분 궁중 방공호 안에서 개최되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124대 유인천황은 최후의 단안을 내렸다.

「국체문제에 관하여는 여러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수락하는 것이 국민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은 좋은 길로 생각한다.」

이 희생을 끝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본제국주의는 막을 내렸다. 천황은 자기의 일신을 돌보지 않고 사태가 그릇됐고 또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때 일본이 8월 15일이 아니라 1주일 앞당긴 8월 7일에만 항복해도 소련의 개입은 없었을 것이고 또 38선분단은 면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고 하는 문제도 생기고 더 늦었더라면 한반도의 운명은 더 이상 견잡을 수 없는 참담한 꼴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든다.

7. 「항복조서」가 방송되기까지

어쨌든 당시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소위 근위사단의 열혈장교들의 국체수호 투쟁에 부딪쳐 곤경에 빠졌다. 그보다 잘못 처신하다가 생명을 잃을 판이었다. 어전회의에서 천황의 그 한마디로 제국주의 일본은 백기를 들었다. 또 천황은 이미 항복에 관한 조서를 녹음판에(당시는 레코드판에 녹음했음) 담고 있었다.

8월 14일 하오 7시(일본시간 15일 상오 9시) 워싱턴, 런던, 중경, 모스크바에서 동시에 일본 항복이 발표됐다.

14일 일본의 국체수호 장교단들은 항복조서의 녹음판을 탈취하려 궁성에 뛰어 들었다.

그때까지 그 녹음판은 사무처의 한 서기관이 보관하고 있었다. 저녁에 방송국에 옮겨 15일 아침 7시 전국에 방송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녹음판을 방송국에 옮기기도 전에 열혈장교들의 침입을 받게 됐다. 큰 변이 아닐 수 없다. 궁성을 지키던 근위사단장은 할복자살을 했는가 하면 만류하던 연대장은 부하의 권총에 목숨을 잃고 있었다.

천황의 거실을 제외하고는 궁성 전역이 수라장이었다. 총성과 함성(절대 국체를 수호한다는 외침)으로 그 하루야 말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하루였을지도 모른다.

이러할 때 녹음판을 보관하고 있던 서기관의 입장은 정말 난처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외신과 동시에 전국에 전쟁종말을 알릴 녹음판을 방송국에 보내지 못한 채 가지고 있다가 열혈장교들에게 빼앗기거나 하면 사태는 견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기가 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서기관은 정중히 보관해 두었던 녹음판을 사무실 쓰레기통에 쓰레기와 함께 아무렇게나 버렸다.

얼마 후 열혈장교들이 그 방에 쳐들어 왔다.

『천황폐하의 녹음판을 내 놓아랏……』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그럼 누가 보관하고 있는가?』

『모릅니다.』

그러자 사무실을 뒤지기 시작했다. 책상이며 서류함 등 모든 집기를 뒤졌으나 나올리 만무했다. 쓰레기통만은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천황의 녹음판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리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군국주의 일본은 천황의 조서나 국기는 자기의 머리보다 높이 받들고 다니는 것이 예의요, 법이기도 하다.

때문에 항복조서를 쓰레기통에 보관하리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았다. 1차의 위기를 돌파한 항복조서는 다음 순간 궁성의 빈 청소트럭의 도구상자에 담겨 방송국까지 도착했다.

그곳을 지키던 헌병의 눈을 피해 지하 녹음 송신기 앞에 도착한 것이 상오 11시 40분이었다. 그곳까지의 운반에 성공한 사람은 다름아닌 그 청소차의 무명의 운전사였다.

결국 대일본제국의 국운을 마지막으로 장식한 이는 청소차의 운전수.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호언하던 일본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했다.

이렇게해서 유인천황의 항복조서는 예정시간보다 세 시간이 늦은 11시 50분부터 동경의 중앙방송을 통해 한반도에까지 번져갔다.

8. 제국은 망해도 국체만은

포스담선언 수락을 둘러싸고 일본 수뇌층이 펼친 파노라마는 그 모든 것이 국체(천황제) 문제를 논점으로 한 것이다.

먼저도 잠깐 언급했지만 포스담선언을 기초할 때 연합국측에서 기왕 인정해줄 천황제 존속의 조건을 붙여 주었다더라면 일본은 8월 15일 보다 더 일찍(7월 중순) 손을 들었을는지 모를 일이었다.

이래서 정치와 역사를 하나의 파노라마라고 하는지 모른다. '45년 5월 미국의 구루국무차관이 중심이 되어 포스담 선언안이 기초되었을 때는 제12장 후단에 이런 귀절이 있다.

「(일본)정부가 장차 일본에 있어서의 침략적 제국주의 발전을 불가능케 하는 평화정책을 추구할 참된 결의를 갖고 있음을 평화 애호국들로 하여금 확신케 한다면 현 황통하(皇統下)의 입헌군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7월 26일 포스담선언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 조항이 삭제되어 있었다.

모름지기 이 조항대로였다면 일본은 두 말할 것도 없이 7월 27일 아니면 늦어도 8월 1일에는 그 선언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받아들였을 것이라는게 당시 현상이었다. 만약 그런 사태가 유발되었더라면 한반도의 분단을 미리 막았을 것이요, 또 중공의 대륙 점령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비통한 시기였고 또 이렇게 보면 한민족은 불운했다고나 할까.

9. 해방은 됐어도 불운한 민족

그럼 그 귀절이 왜 어디서 어떻게 빠졌느냐 하는 문제가 궁금하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지만 「혈」 회고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번즈 국무장관은 1945년 7월 포스담회담에 참석하기 직전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3국 공동선언의 줄거리를 알렸다. 거기에 만약 일본이 화평을 준수한다면 일본의 천황제는 유지될 것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번즈는 국무성 육·해군성의 고위층은 이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나의 의견을 구했다.

나는 이 선언안을 너무나도 일본에 대해 유화적인 것 같이 생각된다고 해답해 주었다. 불행하게도 전쟁 중 미국 당국자들은 천황에 대해 꽤 뚜렷한 비난을 퍼부어왔기 때문에 트루먼대통령이나 번즈국무장관은 미국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스팀슨 회고록에서)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 귀절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더라면 일본은 진작 항복했을까? 그리고 소련은 대일침전의 기회를 잃고 따라서 한반도에 38선을 긋는 일은 피할 수 있었을까?

모두 억측에 지나지 않겠으나 일본측이 포스담선언 수락을 둘러싼 전말은 한낱 허무한 억측으로만 들릴 수 없는 구석을 남기고 있다.

또 구루 국무장관의 기초안이 소련의 압력에 의해 삭제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소련 외교 공작(극동진출)을 미리 탐지 못한 미·영의 졸작(拙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것도 그럴듯한 것이 당시 소련은 무슨 수작을 써서라도 극동에 진출해야 할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시키는 것만이 상책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일본은 이렇게 해서 끝내 연합국에 손을 들고 말았다.

질서는 사람 속에 사람은 질서 속에

논단(論壇)

체제(體制)의 멍에 속에 황폐해가는 북한(北韓)의 청소년(靑少年)



유 양 우(柳養雨)
작가(作家)

청소년문제는 비단 어느 한 나라나 정체(政體)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연발생적인 청소년기 성향(性向)에서 빚어진 것이 아니요, 어떤 감압이나 해어나오지 못할 굴레나 멍에에 씌워 양순(良順)한 천품의 청소년들이 집단적인 폭력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특수한 그 사회나 조직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狀況)이 벌어지고 있는 곳……. 그곳이 세계 그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사례(事例)를 찾기 힘든 바로 김일성세습사회(金日成世襲社會)에서 빚어지는 현상들이다. 북한에서 청소년들의 범법행위가 날로 증가되고 잔인해지는 등 범(汎)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김일성(金日成)은 「혁명의 부리를 튼튼히 할 데 대하여」라는 지령을 정치보위부에 내렸다.

김일성(金日成)은 이 비밀지령에서 청소년들의 반동 성향을 철저히 뿌리뽑으라고 주먹질을 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폐쇄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체제항거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기에 김(金)자신이 정치보위부에게까지 고향을 지르고 있을까…….

○ 강계역(江界驛) 철도경비대 사건(事件)

’73년 여름, 자강도(慈江道) 강계역(江界驛) 철도경비대 소대장이 20대의 소대원들과 10대의 현지 청소년들을 동원해서 역(驛) 주위의 국영식당과 인가에 침입, 재봉틀, 시계, 철 등을 다치는대로 강탈하고 「만일 고발을 하면 전가족몰살을 각오하겠다」는 소위 「맹서문」을 받은 뒤 일단 강도단에 끼었던 청소년들에게는 양말 한켠레씩을 나눠주고 해산시켰다.

소대장 권말식은 그 길로 강탈품들을 열차 안전실에 실은 뒤 평양(平壤)변두리에 있는 수매상점에 암거래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만 보안원에 검거되고 말았다. 철도경비를 맡은 경비원이 국영상점과 인민에게 총칼을 들이던 예(例)이다.

○ 밤중마다 모이던 비행(非行)아지트

‘74년 초, 함경남도 신북청에서는 이상한 사건이 세 차례나 일어났다. 이른바 「신부 증발사건」이다. 갓 시집 온 신부들이 그것도 세번이나 연속해서 증발되는 것이다.

그 해 겨울도 거의 갈 무렵, 미궁에 빠질뻔한 이 괴상한 사건이 엉뚱한 사고가 말미가 되어 해결이 되었다. 즉 동리밖 냉상모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쌓아두었던 자재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다.

사회안전부에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그곳에선 증발되었던 신부들의 시체가 나았는데 모두가 노예처럼 수족이 묶여져 있었다. 음식찌꺼기 등도 있어 일대 마을을 이잡듯이 뒤진 결과 밤마다 집을 비웠던 7명의 소년 패거리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들 고급중학생들로부터 「꼭두새벽부터 심야까지 계속되는 훈련과 노동 그리고 독보회 및 자기 비판」에 질린 나머지 자학적인 음모를 꾸민다는 고백도 받아내게 되었다.

「왜 하필이면 갓 시집 온 신부들을 택했는가?」하고 조사반이 묻자 놀랍게도 그들은 입을 모아 「그 여자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들은 그 행복을 도적질해 보고 싶었습니다…」고 했다.

행복을 도적질하고 싶었던 그 순수한 충동이 이토록 잔인하게 표현되는 사회…….

역시 김일성(金日成)이 떠벌인 호전성(好戰性)의 여파가 아니겠는가.

○ 변질(變節)한 동료를 죽인 「함흥 오성(五星)패」

「새벽별 보기 운동」이 한창이던 ‘74년 여름…….

아두워서 근로장으로 나가는 가족들 조반을 지으려고 좁은 부엌으로 나가던 김치원(金致原)(40세) 여인은 「에그머니! ……」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대로 부엌 아궁이 곁에 벌렁 넘어지고 말았다.

사람의 목이, 그것도 다름아닌 자기집 작은 아들의 목이 부엌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살살이 추적한 결과 같은 학교의 닷별패 「오성(五星)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다섯 소년들은 「어떤 일이고 행동을 같이한다. 처벌까지도 함께 받는다」는 소년다운 서약들을 하고 다 함께 손목에다 먹실로 별점까지 그려 넣었다.

그러나 소년단 외에는 어떠한 사조직도 용납이 되지않는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유아적인 발상의 순수한 소년 사이의 동료애가 통할리 없었다.

성구(成九)가 먼저 불안한 낌새를 보였다. 비판회의에서 비판을 받을까……하는 의사를 비슷하게 내비친 그날 밤, 나머지 네명 중의 하나가 돌로 뒤통수를 쳤다. 그리고는 피를 본 그들은 「미제의 각을 뜨자!」는 평소의 교육대로 배신한 동료의 부위를 잘랐다.

○ 여대생(女大生) 박금옥(朴錦玉) 살해사건(殺害事件)

이번에는 체제의 비극이 빚어놓은 순수한 경우…….

옛 평양백화점에서 보통벌로 빠져나가는 언덕길에 네모진 적벽돌 2층집이 있다. 이 건물이 현재 「평양특별시 중구역 재판소」로 쓰이는 곳이다.

명칭이야 재판소지만 사실은 이미 당(黨)에서 재결(裁決)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상 처리절차를 밟느라고 가끔 그야말로 형식적인 재판을 열고는 할 뿐이다.

‘66년 초, 여대생을 살해한 대학생에 대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피고는 최만기(崔滿基) 당시 22세…….

「피고 최만기는 살인행위를 시인하고 있나……?」

재판장인 판사가 이런 투로 따지고 피고석에 서 있는 김일성종합대학 철학부 4년생인 피고 최만기는 사실을 시인하는 형태의 고식적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심문이 거의 끝나고 선고에 앞서 판사와 배심원들이 일어서려는 순간 피고 최만기가 미친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억울하다! 아니 내가 왜 금옥이를 죽이는가 말야」

「뭐라구……?」

어리둥절한 재판관들이 다시 자리에 걸터앉고 말았다. 재판장이 날카롭게 쏘아본다.

「그럼 피고는 살인을 하지 않았단 말인가? 사귀던 여대생 박금옥을 피고가 죽이지 않았단 말이지?」

「죽인건 시인하오……」

피고는 다시 고개를 푹 떨어뜨린다.

「그럼 뭐야? 어정쩡하니 뭐를 주었다 아니다 발병하는게야! 쌍!」

재판관의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되자 최만기 학생은 숙였던 고개를 힘차게 들면서 외쳤다.

「친애하던 박금옥을 죽인건 나 최만기입니다! 그러나 금옥을 죽게한 것은 바로 이 사회(社會)! 이 체제(體制)! 숨도 쉴 수 없는 그놈의 유일 사상 때문이라구요!」

일순 재판관들의 얼굴이 무섭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뭐 뭐야? 저놈은 위대하신 수령동지까지 모독을 하구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사람백정이랴니 인간백정이야 말로 별장에 살고 있는 그 놈이 인간백정(人間白丁)이라구! 똑똑히 알기들이나 하란 말이다!」

보름 전 일이다.

그 날 최만기 청년은 동급생인 애인 박금옥과 대동강 청류벽 근처의 유보도(柳步道)에서 밀회를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대학생들이 연애를 하는 것이 발각되면 무조건 퇴학을 당하고 학적이 없어진 학생은 그 길로 탄광이나 근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남의 눈을 피해서 늦은 밤에 잠깐씩 만

나고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약혼한 사이나 다름없이 부모들이나 당의 반승락을 받아놓고 있는 사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 날은 다른 때와는 달리 박금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 둘은 버드나무 길가 시멘트 의자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가끔 쌀쌀한 꽃샘바람이 마른 나무들을 뒤흔들고 그럴 때마다 대동강 물결 위로 투영(投影)된 팔색등(八角燈)빛이 와르르 흘러지면서 검푸르게 출렁거리고는 했다.

그런데 이밤따라 박금옥의 얼굴빛이 그 꽃샘바람 처럼 냉랭하게만 느껴져 왔다. 금옥이 먼저 침묵을 깨면서 물어 온다.

「최동무! 솔직이 말해주어야 합니다. 동문 나를 속이고 있는 사실이 있죠……?」

「속이다니?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지, 금옥동무?」

최만기가 어눌한 표정을 짓자, 박금옥이 고개를 쳐들면서 최만기를 뚫어져라 노력하는게 아니냐.

「정말 없다구요? 거짓백정 말라구요! 만기 동무는 가정문제를 나한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시인입네까. 부인입네까 딱 잘라 말하시라요!」

그 순간 최만기는 가슴에 부딪치는게 있었다. 절로 말이 스며들었다.

「아 그건……」

「뭘 우물쭈물거립네까? 난 기래두 만기 동무테 나만은 믿구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의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만기 동무는 기만수법으로 나를 우롱한거야요!」

「기만이라니! 아니 내가 왜 동무한테 기만수법을 써야 됩네까?」

「기만이 아니구요! 어째서 만기 동무는 자기 부친이 종파분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농촌으로 쫓겨갔는데도 그런 엄청난 사실을 감추고 있던 말예요!」

「아니 종파분자라구요? 누가 우리 아버지를 종파분자루 몰아 붙이는가 말야 응? ……」

최만기는 극도로 흥분했다. 그러나 박금옥은 여전히 싸늘한 표정인 채.

「그럼 종파분자가 아니란 말예요? 이 시점에서 명확한 대답이 필요합네!」

최만기는 사실대로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금옥동무! 우리 부친이 농촌으로 내려가신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나 종파분자로 숙청당한 것은 아니야, 절대루! … 비판은 받았지. 무능하다는 비판은 받은게 사실이라구……. 그래서 비판을 받고 시골로 좌천되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란 말이지? 그게 어쨌다는게야?」 최만기로서는 오랫동안 사권, 더구나 둘 사이의 결합을 반승락까지 받고 있는 박금옥이 자기 아버지가 좌천된 사실을 두고 기만자니 뭐니하면서 따지고 드는게 몹시 언짢았다. 사실 최만기로서도 최근에 일어난 아버지의 좌천사실이 박금옥을 두고 걱정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도 전에 느닷없이 「종파분자」 운운하면서 대드는 금옥이 야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제야 금옥의 냉랭하던 얼굴에 한줄기 우수가 서리면서 나직히 말한다.

「나두 처음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집에서는…」

「아니 뭐요? 집에서까지?」

「…그래요」

「아니 한 직장에서 나란히 국장으로 있던 금옥 아버님아……?」

「……」

금옥도 잠잠했지만, 만기로서는 장말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금옥과 만기의 부친들은 둘 다 북한 금속공업성 국장들이었다. 그러다가 만기의 아버지가 「직무태만」으로 당에서 몰려 국장자리를 철직 당한 채 농촌으로 좌천당했다. 그러나 「종파분자」로 낙인이 찍힌 것은 아니었다. 만기가 학교를 그대로 다닐 수 있는 것만 모야도 그것은 증명이 된다. 그러나 금옥 아버자가 보는 관점은 달랐다.

당의 눈밖으로 밀려난 사람……

만기의 부친이 중앙으로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과 혼처를 맺고 사돈이 된다면? 금속공업국의 노론자 위치에 있는 자신은? 자신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계산들이 앞서지 않을 수 없었다.

죽이지 않으면 죽는다는 공산전술을 이미 익혀 닦아 알고 있는 그였다. 딸을 불러 단호하게 말한다.

「최만기 부친은 철직을 당해 농촌으로 쫓겨났다. 머잖아 종파분자로 몰려 숙청을 당할 것이다. 그런 자의 아들과 이제는 교제를 끊어라…… 네가 교제를 못 끊겠다면 우리 집도 철직대상에 오를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젊은 혈기로 아버지께 반발을 했지만 역시 획일교육을 받고 자라난 박금옥으로서의 아버지의 명령보다도 무서운 당의 눈길이 있었다.

「아니 금옥 아버지가……」

끝판에 와서 금옥은 다부지게 말뼌음을 의식적으로 하고 있었다.

「네. … 그러나 아버지보다도 저 자신이 만기 동무와의 교제를 청산하기로 결심했는걸요……!」

그 순간이었다.

최만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옥의 명치 끝을 후려 갈겼다. 어떻게 된 노릇이 그대로 금옥은 뒤로 벌렁 넘어졌다. 벌렁 누운 금옥…… 금옥은 몇 번 몸을 움찔거리더니 그대로 두 팔을 벌린 채 눈이 한 곳으로 고정됐다.

「아니 이럴 수가…… 금옥! 금옥동무!」 몸을 흔들어 보았으나 금옥은 대답이 없었다.

「……아!」

만기는 자신도 모르는 새 금옥의 늘어진 몸을 들춰업고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어다로 무엇을 하려고 가는지 자신도 몰랐다.

얼마를 그렇게 갔을까… 함께 엮어진 채 정신을 차려보니 강물 소리가 들려왔다. 사방을 건
져보니 흥부교 못미처 모래밭이었다.

뒤쪽에는 흙사 옛날 임금이 살던 궁전처럼 웅장한 김일성별장 불빛이 휘황했다.

그 불빛 속에 흐르는 대동강…

만기의 눈에는 한없이 옴산하게만 느껴졌다.

그 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호각소리가 들린 듯했다.

「……!」

만기는 먼젓번보다 몇 배나 더 무거운 금옥의 늘어진 몸을 안고서 그대로 강물로 들어
섰다.

「이놈의 세상이 우리를 죽이는구나…」

차가운 물살에 번저들면서 만기는 외마디 소리를 신음처럼 뱉었다.

○ 동해안(東海岸) 일대의 청소년비행

'74년 이후 청진(淸津), 함흥(咸興) 등 동해안(東海岸) 일대에서는 굶주린 청소년들이 북송
(北送)교포들만 노려 당이 약탈하고 남은 찌꺼기 재물마저 강탈해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났다.

후꾸오까에서 포목점을 하다가 선동원의 갖은 술수에 속아 청진(淸津)으로 이른바 조국을
찾아 왔던 오이행자(吳梨行子)(51세)의 경우 한밤에 침입한 2인조 청소년 강도 앞에서 서투른
조선어로 「우리 아버지도 조총련, 돌아가신 남편도 조총련! 우리 집안은 김일성장군님 훈장까
지 땀어요…」 하고 빌어 보았으나, 「이 아줌마 훈장은 안달라고 할테니까 물건을 내란말야 물
건!」 하면서 여행고리에다 온갖 생필품을 챙겨 넣었다.

「…이 물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과수댁이 급한 나머지 여행고리짜를 부둥켜 안고 늘어지자

「척후병 숨쉴까 봐야 알잖나!」

날씨에 목을 걸머잡는 바람에 이 한심스러운 교포마님은 그만 두 손을 번쩍 드는 수 밖에 없
었다. 두 어린 강도들은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다. 일제 크레파스를 꺼내서는 벽에다 「승리 만
만세!」 라고 써 놓았다.

승리 만만세라니… 교포 여인으로서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구호는 자유만만세를 뜻
하는 오래된 전통의 반체제 구호(口號)다.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박사가 있을 때부터 승리(勝
利)만만세! 라고 외치던 그 구호(口號)다. 이런 것을 벽에다 써 놓는다면 나중에야 밝혀지겠지만
우선 집 주인이 큰 곤욕을 치루지 않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덧붙여 둘 구호(口號)하나…

역전(驛前)이나 너절한 공중변호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북한사회의 전용구호(專用口號)하

나 그것이 바로 서투른 청소년들 글씨로 또는 다부진 어른 글씨로 쓰여진 「김일성을 타도하
자!!」 는 느낌표 두 개의 구호낙서(口號落書)다. 두말할 것 없이 김일성을 두드려 잡자는 구호
(口號)다.

끝으로 사례(事例) 하나…

○ 신의주(新義州) 여공(女工) 살해사건(殺害事件)

1978년 봄, 신의주 방직공장에서는 40대의 어머니뻘 되는 사감을 10대 여공(女工)들이 목을
졸라 죽이고 이를 은폐하려고 식도로 토막을 쳐 분노통에다 파묻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지나친 감독 간섭에 시달린 여공들 소행이었으나 그 범죄수법에 소름이 끼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감 김반수(金畔守)(당시 48세)는 6.25때 전쟁포로로 거제
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자 우익 여성(女性)포로를 같은 수법(手法)으로 살해하던 저 여군(女
軍)포로수용소의 조직장(組織長)이었으니 똑같은 개죽음을 당한 것은 하늘의 공정(公正)한 응
징 업보(業報)라고나 할까.

이밖에도 원산(元山) 송도원(松濤園)요양소 집단파괴사건('80년)이며 보급창 방화사건(放
火事件)('81년) 등 청소년 범죄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사회를 괴롭히고 있다. 그들 당국
자들은 이를 분석하여 출신성분(出身成分)이 나빠 대학진학과 출세의 길이 막혀 김일성과 당에
대해 불평 불만을 품고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 각종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물론 그런 계층 청소년들이 일종의 보복행위로서 당 행정기구의 고위간부들 자녀들을 고의적으
로 구타하고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질식할 것 같은 체제의 명에가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 아무리
타아소에서부터 「아버지 수령님…」 을 찾으며 자라난 그들 청소년이지만 도저히 감당하기 어
려운 갖가지 공산조직의 굴레들이 발작적으로 또는 작위적으로 수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김일성 자신 비밀지령까지 내리는 사태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 상식적인 기준으로 북한 청소년 비행을 몇 가지 요인(要因)으로
풀이해 보기로 하자.

○ 정치적(政治的) 요인(要因)

북한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소년단→사로청→붉은청년근위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극
심한 사회노동과 조직생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이라도
다르게 사는 맛을 심층적으로 갈구하게 된다. 불량배 폭력배들로 북한 청소년들이 하루 아침에
변할 수 있는 소지(素地)가 바로 이렇듯 누적된 억압생활이다.

○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

청소년들이 갈망하는 정서생활을 잠시도 누릴 수 없는 북한의 사회구조와 식량 의류 기타 생활필수품 등의 극화된 궁핍으로 이를 뿌리쳐 보려는 본능이나 욕구가 인간관계(人間關係)를 적대(敵對) 적(敵)으로 단절시켜 놓으려는 김일성교조사상(金日成敎條思想)의 근원적 영향에 힘입어 범죄성향의 극대화(極大化) 현상(現狀)을 빚어내고 있는 것이다.

○ 가정적(家庭的) 요인(要因)

문제는 가정부재(家庭不在)이다 북한에는 전통적인 인간 본연의 따사로운 가정이 있을 수 없다. 또 당이 아닌 가족관계의 따사로우를 반동시(反動視)하는 것이 그들 생리(生理)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수령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라난 이 삭막한 「획일아(劃一兒)」들이 과연 가정(家庭)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선 생존(生存)을 유지하려면 그 내면의 의식 속에 「우리 집 우리 아들」이 급하기 전에 「당과 조직」이 항상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니 당을 위해 아니 김일성을 위해 거대한 병영조직화(兵營組織化)된 북한에서 가정(家庭)은 오직 「일을 위한 하나의 합숙소(合宿所)」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천심(天心)에서 우리나라오는 발랄한 웃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내 아이 우리 아이이기 이전에 「당의 아들, 조직의 딸」인 그 아이들에게 과연 부모들은 어떤 사람다운 사람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들은 세삼 오늘의 북한 청소년들 문제를 다뤄보면서 또 그들의 의식세계를 더듬어 보면 서 불행히도 북(北)에 생(生)을 받아 한번도 천연스런 웃음을 웃지 못하고 흡사 밭공장의 제품들처럼 삶이 조작(造作)되어가는 삭막한 북한 청소년들을 위한 연민의 정을 쏟기에 먼저 그런 비인격화(非人格化)된 조직을 더욱 다져나가고 있는 김일성애의 증오를 다시 한번 불태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자유세계(自由世界) 청소년들의 우발범죄나 단순범행과는 그 양태와 동기가 전혀 다른 북한성(北韓性) 청소년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하겠다.

휴전(休戰)은 결코 평화(平和)가 아니다

승리(勝利)의 그날을 향해 정진(精進)하자

정훈교육자료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연구(研究) (1)



군인정신요소(軍人精神要素)의 타당성(妥當性)을 중심(中心)으로

중령 이 용 형(李龍炯)
공군본부(空軍本部)

적 요(摘要)

인류(人類)가 칼로써 전쟁(戰爭)을 시작(始作)한 고대(古代)로부터 고도(高度)의 원자무기(原子武器)가 전장(戰場)의 주역(主役)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現代)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歷史)와 수많은 전략가(戰略家)들에 의해 정신전력(精神戰力)의 중요성(重要性)이 강조(強調)되어 왔음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이처럼 시대(時代)를 초월하여 그 중요성(重要性)이 강조(強調)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우수(優秀)한 물질적(物質的)인 수단(手段)을 갖고 있는 군대(軍隊)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使用)하는 장병(將兵)들의 질(質)이나 정신(精神)이 침체(沈滯)되어 있다면 전승(戰勝)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전력(精神戰力)의 핵심(核心)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이 확립(確立)되지 못하고 저마다 그 주장(主張)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본(本) 연구(研究)를 통하여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을 정립(定立)하고자 하였다.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요소(要素)로는 일반적(一般的)으로 이념성(理念性), 사명성(使命性), 행동적(行動的) 실천성(實踐性) 등(等) 제측면(諸側面)의 요소(要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검토결과(檢討結果) 현행(現行)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는 사명성(使命性), 행동적(行動的) 실천성(實踐性)에 관(關)한 제요소(諸要素)는 충분(充分)히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념성(理念性)이 빈약(貧弱)하였다. 때문에 우리 국가이념(國家理念)인 민주복지국가사회(民主福祉國家社會) 건설(建設)을 구현(具現)할 수 있는 민주정신(民主精神)과 이를 실현(實現)하기 위한 승공정신(勝共精神)이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요소(要素)로 첨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현재(現在)도 장병(將兵)의 정신교육(精神教育)에 멸공사상(滅共思想)과 국가관(國家觀)에 대(對)한 교육(教育)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에는 표면적(表面的)으로 명시(明示)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괴(北傀)와의 사상전(思想戰)에 대응(對應)하기 위해서는 승공(勝共)과 민주정신(民主精神)을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로 부각시켜 정치사상교육(政治思想教育)을 보다 조직적(組織的)이고 체계적(體系的)으로 실시(實施)하여야 할 것이다.

- 목 차(目 次) -

제(第) 1장(章) 서론(序論)

제(第) 1절(節) 연구(研究)의 목적(目的)

제(第) 2절(節) 연구(研究)의 내용(內容) 및 방법(方法)

제(第) 2장(章)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제(第) 1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에 대(對)한 제이론(諸理論)

제(第) 1항(項) 이념적(理念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2항(項) 사명적(使命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3항(項) 행동적(行動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2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전제조건(前提條件)

제(第) 1항(項) 군대(軍隊)의 역사성(歷史性)

제(第) 2항(項) 군대(軍隊)와 국가(國家)

제(第) 3항(項) 군대(軍隊)와 사회(社會)와의 관계(關係)

제(第) 2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제요소(諸要素)

제(第) 1항(項) 미국(美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2항(項)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3항(項) 이스라엘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4항(項) 구일본군(舊日本軍)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제(第) 3장(章) 한국(韓國)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에 대(對)한

타당성(妥當性) 분석(分析)

제(第) 1절(節) 한국군(韓國軍)의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배경(背景)

제(第) 1항(項) 홍익인간정신(弘益人間精神)

제(第) 2항(項) 신라(新羅)의 화랑도정신(花郎徒精神)

제(第) 3항(項)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의 애국애족정신(愛國愛族精神)

제(第) 4항(項) 3·1운동(運動)의 자주독립정신(自主獨立精神)

제(第) 2절(節) 현(現)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의 분석(分析)

제(第) 1항(項) 명예심(名譽心)

제(第) 2항(項) 충성심(忠誠心)

제(第) 3항(項) 용기(勇氣)

제(第) 4항(項) 필승(必勝)의 신념(信念)

제(第) 5항(項) 책임감(責任感)

제(第) 6항(項) 임전무퇴(臨戰無退)의 기상(氣像)

제(第) 3절(節) 바람직한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

제(第) 4장(章) 결론(結論)

참고문헌(參考文獻)

제(第) 1장(章) 서론(序論)

제(第) 1절(節) 연구(研究)의 목적(目的)

한 국가의 군사력(軍事力) 또는 군전력(軍戰力)은 크게 유형적(有形的)인 요소(要素)와 무형적(無形的)인 요소(要素)로 구분(區分)할 수 있다.

유형적(有形的)인 전력요소(戰力要素)로는 그 국가(國家)가 보유하고 있는 병력(兵力)의 수(數), 장비(裝備) 및 물자(物資) 등(等)이 있고 무형적(無形的)인 전력요소(戰力要素)로는 전투기술에 속하는 여러 가지 기능(技能)과 전투의지 즉,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으로 나타나는 제정신요소(諸精神要素) 등을 들 수 있다.1)

전쟁(戰爭)의 역사를 살펴볼 때 전쟁(戰爭)에 있어서 승패(勝敗)의 요인(要因)은 이 두 전력요소(戰力要素)에 의해 좌우되어 왔는데 산업혁명(産業革命)의 여파가 전쟁에 도입(導入)된 이래 전쟁의 승패는 주로 유형적(有形的)인 전력요소(戰力要素)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

그러나 2차대전(2次大戰) 이후 전쟁의 양상이 총력전(總力戰)으로 화(化)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무형적(無形的)인 전력요소(戰力要素)가 점점 더 비중(比重)이 높아가고 있다.2)

그러므로 우리 군(軍)에 있어서도 유형적(有形的)인 전력(戰力)의 증강 뿐만 아니라 무형적(無形的)인 전력(戰力) 즉, 정신전력(精神戰力)의 개발(開發)을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예(例)를 들면 국군정신전력학교(國軍精神戰力學校)의 설립(設立)이나 공군(空軍)의 정신교육원(精神教育院)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군(軍)의 정신전력(精神戰力)은 장병(將兵) 개개인(個個人)의 투철한 군인정신(軍人精神)을 바탕으로 하여 형성(形成)되므로 군정신전력(軍精神戰力)의 개발(開發)과 강화(強化)를 위한 교육(教育)에 있어서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명확(明確)한 개념정립(概念定立)이 필요하다.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하여는 여러 전략가(戰略家) 및 군(軍) 정신교육(精神教育) 교범(教範) 등(等)에서 그 개념(概念)을 제시(提示)하고 있지만, 국가(國家), 사회(社會) 및 군(軍)의 특성(特性)을 고려한 종합적(綜合的)인 측면에서 다루지 않고 부분적(部分的)인 측면만을 주장(主張)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에 대한 의견(意見)의 일치(一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신교육과 정신전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 사회 및 군(軍)의 특성과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本) 연구(研究)에서는 군(軍)의 존재(存在) 의의(意義)와 사명(使命), 그리고 군대(軍隊)와 국가(國家), 군대(軍隊)와 사회(社會)와의 관계를 통한 군(軍) 특성(特性) 등을 고찰(考察)해 보고 군인정신(軍人精神)에 포함될 제반요소(諸般要素)들을 분석(分析)하여 현시점(現時點)에 있어서 우리 군(軍)에 적합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이 무엇인가를 밝혀 군(軍) 정신교육(精神教育)의 이론적(理論的) 체계정립(體系定立)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 1) 국군정신전력학교, 「정신전력 지도이론과 실제」, 1980, p.3
- 2) 김중수, 「현대전과 정신전력」, (서울 : 열화당, 1976), pp.78-88 산견(散見)

제(第) 2절(節) 연구(研究)의 내용(內容) 및 방법(方法)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연구(研究)는 창군 이래(創軍以來) 각군(各軍)을 비롯한 국방부(國防部)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 발표된 것들이 저마다 그 주장하는 바가 상이(相異)하기 때문에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통일(概念統一)에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본(本) 연구(研究)에서는 지금까지 논의(論議)되어 온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에 대(對)해서 분석(分析)해 보고 한국군(韓國軍)에 있어서 필요한 군인정신에 포함될 제요소(諸要素)를 도출하는 것을 연구내용(研究內容)으로 하였다.

본(本) 연구(研究)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使用)한 연구방법(研究方法)으로는 정신전력 및 군인정신에 관한 관계문헌(關係文獻)을 통해 군인정신에 포함되어야 할 일반적 제요소(諸要素)에 대(對)해 고찰(考察)한 다음 우리나라 군인정신(軍人精神)의 배경(背景)과 현재(現在) 군(軍)의 각(各) 교범(教範)에 규정(規定)되어 있는 한국 군인정신의 제요소(諸要素)를 일반적(一般的) 개념(概念)에 비추어 비교(比較) 검토(檢討)한 후,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군인정신에 포함되어야 할 제요소(諸要素)를 도출하는 방법(方法)으로 연구(研究)를 진행하였다.

제(第) 2장(章) 군인정신(軍人精神)에 관(關)한 이론적(理論的) 고찰(考察)

제(第) 1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에 대(對)한 제이론(諸理論)

정신전력(精神戰力)의 기저(基底)가 되고 있는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은 그 전개(展開)하려는 논지(論旨)에 따라 주장(主張)하는 바가 다르다. 이들의 제이론(諸理論)을 크게 분류하면 이념적(理念的) 관점(觀點)과 사명적(使命的) 관점(觀點) 그리고 행동적(行動的) 관점(觀點)의 세 가지로 구분(區分)해 볼 수 있다.

제(第) 1항(項) 이념적(理念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군인(軍人)으로서의 가치관(價值觀)과 목적의식(目的意識)에 비중(比重)을 두고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을 규정(規定)한 것으로서 고(故) 박정희(朴正熙) 대통령(大統領)은 군인정신(軍人精神)을 「조국과 겨레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혼연히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살신보국(殺身報國)의 정신(精神)」 1)이라고 하였으며 국방부(國防部)에서 발간한 정신전력 강화법(精神戰力強化法)에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실재(實在)를 완수(完遂)하는 애국애족(愛國愛族)의 정신(精神)」 2)이라고 규정(規定)하고 있다.

즉 이들은 군인(軍人)의 바람직한 가치관(價值觀)을 애국심(愛國心)에 두고 조국(祖國)과 겨레에 대(對)한 충성심(忠誠心)을 강조하고 있다.

- 1) 국군정신전력학교, 「정신교육지침」, 1978, p.83
- 2) 국방부, 「정신전력강화법」, 1975, p.15

제(第) 2항(項) 사명적(使命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대아(大我)를 위해 소아(小我)를 버릴 줄 아는 희생적 면을 중시(重視)하는 관점(觀點)에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을 규정(規定)한 것으로서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정훈교재(政訓教材)에는 「맡은 바 임무(任務)를 완수(完遂)함에 있어 가장 용감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희생적으로 완수하는 숭고(崇高)한 정신(精神)」 3)이라고 정의(定義)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은 목표달성(目標達成) 면(面)에서 절대성(絕對性)이 요구(要求)되고 강요되는 군집단(軍集團)의 특성을 강조한 견해라고 하겠다.

제(第) 3항(項) 행동적(行動的) 관점(觀點)에서 본 군인정신(軍人精神)

전쟁(戰爭)이라는 극한 상황(狀況)에서 자기를 극복하고 적(敵)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용기(勇氣)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見解)이다.

이와 같이 군인정신을 「군인(軍人)이 갖추어야 할 이상적(理想的)인 정신자세(精神姿勢)」 4)로 정의한 것이나 「군대사회(軍隊社會)라는 특수성(特殊性)에 알맞는 적성적(適性的) 정신상태(精神狀態)」 5)라고 정의(定義)한 것 등은 군인정신을 행동적, 실천적 측면에서 강조한 견해라 하겠다.

제(第) 2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전제조건(前提條件)

군인정신(軍人精神)이란 군(軍)이라는 한 특수집단(特殊集團) 또는 개인(個人)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基本的)인 정신적(精神的) 태도(態度)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前提條件)들이 있는데, 이 전제조건(前提條件)들은 군(軍)의 역사성(歷史性), 군대(軍隊)와 국가(國家)와의 관계, 군대(軍隊)와 사회(社會)와의 관계 등을 살펴 봄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제(第) 1항(項) 군대(軍隊)의 역사성(歷史性)

인류사상(人類史上) 최초(最初)로 군대(軍隊)가 발생(發生)한 것은 기원전 4000년경 고대(古代)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인(人)(Sumerians)이 세운 도시국가(都市國家)에서부터 발생(發生)하였으며 6) 그 후 기원전 2700년 경에는 고대(古代) 이집트에서 조직적인 군대를 형성, 이웃나라에 대한 약탈원정과 피라밋 건조(建造)에 노동력으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이집트의 군대는 기원 전 1200년 경에는 직업적 무사계급(武士階級)까지 발생(發生)하였다. 7) 동양(東洋)에 있어서도 기원 전 1700년경 중국(中國)의 은(殷)나라에서 군대(軍隊)를 양성하였다. 8) 이와 같이 군대(軍隊)가 국가(國家)의 한 중요한 기구로서 발생(發生)한 이래 현금(現今)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어떠한 제도(制度)보다 긴요한 것으로 존속 발전해 왔다. 그러나 군대(軍隊)가 그 발상(發祥)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군대(軍隊)의 본질(本質), 즉 내외(內外)의 적(敵)으로부터 국가(國家)의 생존권(生存權)을 방위하고 국민(國民)의 복리(福利)를 보장키 위한 무장조직이라는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러한 군대본질의 불변성이야말로 군대로 하여금 어느 사회에 있어거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대본질(軍隊本質)의 불변성(不變性)은 인류가 투쟁적 속성을 지니고 있는 한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전쟁(戰爭)은 인류사회(人類社會)의 하나의 속성처럼 발생(發生)하였으며, 그러한 전쟁이 있는 한 군대(軍隊)는 각 국가(國家)와 사회(社會)의 방위(防衛)를 위하여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존재(存在)로 존속 유지(維持)되어 왔던 것이다.

3) 육군본부, 「정훈교재」, 1965, p.526

4) 육군사관학교, 「한국의 군인정신」, (서울 : 삼화출판사, 1978), p.265

5) 김유혁, 「정신교육강화」, (서울 : 현대교육총서 출판사, 1970), p.288

6) 한용원, 「군사발전론」, (서울 : 박영사, 1980), p.98

7) 육군사관학교, op.cit, pp.16~17

8) Ibid., p.17

제(第) 2항(項) 군대(軍隊)와 국가(國家)

군대(軍隊)는 초기부터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국가와 더불어 발생하여 발달해 왔으며, 또 군대의 임무(任務)가 주(主)로 국가방위(國家防衛)와 국가정책수행(國家政策遂行)의 지지(支持)에 있다는 데서 국가(國家)없는 군대(軍隊)는 생각할 수 없다. 물론, 서양(西洋) 중세(中世)의 봉건기사 군대(封建騎士軍隊)나 근세 초 중국(中國)의 군벌(軍閥) 등의 사적(私的) 군대(軍隊)도 있었지만, 이들 사적(私的) 군대(軍隊)도 명목상(名目上)으로는 국가라는 조직의 일부로 존재(存在)하였고 모두 국가의 중심세력(中心勢力)으로 발전하려는 것이 공통된 열망이었다.

그러므로 군대(軍隊)는 체제유지(體制維持)에 필수적(必須的)인 것이다. 고대(古代) 스파르타는 소수민족(小數民族)으로서 약 20배에 달하는 피정복토착민(被征服土着民)을 지배(支配)해야 했기 때문에 9) 전시민(全市民)을 군대조직화(軍隊組織化)했으며 티베르(Tiber), 강변의 라티움(Latium) 평원에서 여기(興起)한 초기 로마공화국(共和國)도 자연적(自然的) 국경(國境)이 없어서 자주 분쟁(紛爭)에 빠지므로 국가의 생존(生存)을 위하여 백인조(百人組)(Centrie)라는 강력한 시민적(市民的) 방위조직을 구성한 것 10) 등은 군대가 국가의 생존(生存)에 절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예(例)이다.

그러므로 군대(軍隊)를 구성하고 있는 군(軍) 구성원(構成員)은 군대(軍隊)의 존립목적(存立目的)에 알맞은 정신(精神)과 태도(態度)를 구비해야 한다. 즉 군(軍) 구성원(構成員)은 외부(外部)로부터 국가(國家)를 보호(保護)하며 안정(安定)을 유지(維持)하여야 한다는 정신적(精神的) 태도(態度)를 가져야 한다.

9) Ibid., p.23

10) 한용원, op-cit., p.103

제(第) 3항(項) 군대(軍隊)와 사회(社會)와의 관계(關係)

군대(軍隊)는 국가(國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존재(存在)이므로 군대(軍隊)는 국가(國家)의 바탕이 되는 사회(社會)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즉, 군대(軍隊)는 그것이 속한 사회(社會)의 구성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사회(社會)의 영향(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군대는 그 기능적(機能的)인 면(面)에서 사회방위를 효과적(效果的)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군대가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가. 사회(社會)가 군대(軍隊)에 미치는 영향(影響)

군대(軍隊)는 그것이 속한 사회(社會)의 지배적(支配的)인 가치관(價值觀)과 제도(制度)가 반영(反映)된다. 그러므로 시대(時代)와 사회(社會)에 따라 군대(軍隊)의 가치관(價值觀)과 제도(制度)가 달라지는 것이며 그러한 예(例)는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역사(歷史)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페르시아제국(帝國)의 군대(軍隊)와 그리스 군대(軍隊)는 같은 고대사회(古代社會)의 군대(軍隊)지만 양국가(兩國)의 군대(軍隊)는 가치관(價值觀)과 제도면(制度面)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페르시아 군대(軍隊)는 여러 민족(民族)과 다른 언어집단(言語集團)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군대(軍隊)의 핵심(核心)은 기병(騎兵)과 궁병(弓兵)이었으며 보병(步兵)은 별로 중요시(重要視)하지 않았다. 또한 페르시아 사회(社會)는 대토지(大土地) 소유자(所有者)인 귀족(貴族)과 그들의 배신(陪臣)을 중심(中心)으로 하여 조직되었으며 이들 계층으로부터 기병(騎兵)이 나왔다. 그러므로 페르시아 군대(軍隊)는 전제주의적(專制主義的) 색채가 강하였다.

여기에 반하여 그리스 사회(社會)는 노예제도 위에 구축된 것이긴 하지만, 그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수의 자유로운 중산층시민(中産層市民)이었으며 이 사회(社會)에서 군역(軍役)은 시민(市民)의 제일주의적(第一主義的)인 의무(義務)였으며 만일 군복무(軍服務)를 치르지 않는 시민(市民)은 공적(公的)인 활동(活動), 즉, 민회(民會)에 참가하여 법률안을 표결하고 관리를 선출하거나 관리로 피선되는 일 등을 할 자격(資格)이 없었다. 따라서 모든 시민(市民)은 군(軍)에 복무하였으며 군조직(軍組織)은 그만큼 민주적(民主的)인 색채가 강하였다. 그리고 군인정신(軍人精神)도 그 사회(社會)의 종교(宗教)와 윤리(倫理)를 반영하여 그리스의 청년(青年)들이 군인(軍人)으로서 선서를 할 때 「신성(神聖)한 무기(武器)를 더럽히지 않을 것」과 「신(神)을 모독하지 않을 것」을 동일시(同一視)하였다.¹¹⁾

또한 중세기사(中世騎士)들의 군인윤리(軍人倫理)인 이른바 기사도(騎士道)(chivalry)의 덕목(德目), 즉 신(神)에 대(對)한 신앙(信仰)과 군주(君主)에의 충성(忠誠), 부인(婦人)에 대(對)한 예의(禮儀), 대담성, 용감성, 모험성 그리고 약자에 대한 자비심 등은 기독교의 영향아래 형성되었으며¹²⁾ 이슬람교의 구호(口號)인 「코란과 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¹³⁾ 이슬람교의 포교(布教)와 군사적(軍事的) 정복을 동일시(同一視)한 이슬람의 종교(宗教)·가치관(價值觀)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오늘날의 미국군(美國軍)과 소련군(軍)의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며 또한 공산주의(共產主義) 국가(國家)라도 소련과 중공군(中共軍)의 특성이 다른 것은 다 그 군대(軍隊)가 속해 있는 사회(社會)의 가치관(價值觀)과 제도(制度)가 다르기 때문이다.

11) 육군사관학교, op·cit., p.30에서 재인용

12) Ibid., p.31

13) Ibid., p.31

14) Ibid., p.31

나. 군대(軍隊)가 사회(社會)에 미치는 영향(影響)

군대(軍隊)는 사회(社會)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역(逆)으로 사회(社會)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신라(新羅)가 삼국(三國)을 통일(統一)한 것은 신라의 청년무사집단(靑年武士集團)인 화랑도(花郎徒)들이 당시(當時) 신라사회(新羅社會) 속에서 정신문화(精神文化)의 내용(內容)과 방향(方向)을 주도해 당시(當時) 화랑도(花郎徒)의 가치관(價值觀)이며 행동규범(行動規範)인 세속오계(世俗五戒), 즉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臨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의 사상(思想)을 전사회(全社會)에 전파, 신라사회(新羅社會)가 이 세속오계(世俗五戒)를 중심(中心)으로 단합(團合)될 수 있었기 때문이며, 고대(古代) 스파르타의 군인윤리(軍人倫理)가 후에 스파르타 사회(社會)의 기본덕목(基本德目)으로 된 것은¹⁴⁾ 군대(軍隊)가 사회(社會)에 영향을 미친 예(例)이다.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국가(國家)가 징병제를 채택하여 국민(國民)이면 누구나 일정기간 군(軍)에 복무하게 됨에 따라 군(軍)이 사회(社會)의 제도(制度), 가치관(價值觀) 등(等)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군대(軍隊)는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과 국가사회(國家社會)의 속성을 유지(維持)시켜 주는 역할(役割)을 하며 사회(社會)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사회(社會)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역동적(逆動的)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정신(軍人精神)은 군(軍)의 국가(國家) 사회(社會)에 대(對)한 이러한 역할(役割)에 적응할 수 있는 개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군대(軍隊)의 국가(國家)에 대(對)한 역할(役割)과 군(軍)과 사회(社會)와의 관계(關係) 속에서 군인정신요소(軍人精神要素)의 기저(基底)를 형성(形成)할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 다음의 3가지를 들 수 있겠다.

(1) 이념성(理念性)

모든 국가(國家)는 하나의 이념(理念)을 갖고 있으며 이 이념(理念)을 구현(具現)하기 위해서 노력(努力)하고 있다. 우리 민족(民族)의 최초의 국가(國家)인 고조선(古朝鮮)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즉 널리 인간세계(人間世界)를 이롭게 한다는 데 있었으며 평화(平和)와 화해(和解) 속에서 공존(共存)의 삶을 영위한다는 정신(精神)은 현재(現在)까지 우리의 국가이념(國家理念)으로 내려오고 있다.

또한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은 미국(美國)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이며 공산주의(共產主義) 국가(國家)들의 이념(理念)은 완전한 공산사회(共產社會)의 건설(建設)이다.

이념(理念)은 이와 같이 국가 사회를 이끌어 가는 근간(根幹)이므로 국가사회(國家社會)의 모든 조직활동은 이 이념(理念)과 부합(符合)되어야 한다. 한편 이러한 국가이념(國家理念)이 전쟁(戰爭)과 결부(結付)될 때 그것은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왜냐하면 전쟁(戰爭)이

란 상대방의 세계관(世界觀)을 변화(變化)시키려고 하거나 자기들이 옳다고 믿고 있는 세계관(世界觀)을 유지(維持)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념(理念)은 전쟁(戰爭)의 명분(名分)과 목적(目的)을 제공(提供)해 주는 것이다.

역사상 어떠한 전쟁(戰爭)도 이념(理念)을 앞세우지 않은 것이 없었다. 고귀(高貴)한 이념(理念)을 실현(實現)하겠다는 것으로부터 저급(低級)의 욕망(欲望) 충족(充足)에 이르기까지 전쟁(戰爭)의 주최자(主催者)들은 항상 명분(名分)으로서 갖가지 이념(理念)을 사용(使用)하여 왔다. 특히 역사상 거대한 정복전쟁(征服戰爭)으로 세계(世界)에 회오리바람을 몰고 온 7세기 모하메드(Mohammed), 13세기 칭기스칸(成吉思汗), 20세기 히틀러(Hitler) 등은 하나의 이념(理念)을 최대의 무기(武器)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이념(理念)이 쇠퇴하자 전쟁(戰爭) 역시 끝장이 나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전쟁(戰爭)의 목적(目的)을 제공(提供)하는 이와 같은 이념(理念)은 전장(戰場) 속의 장병(將兵)들에게 고통을 오랫동안 견디어내게 만드는 주요(主要)한 정신요소(精神要素)가 되므로 국방부(國防部) 발행(發行) 국군정신전력(國軍精神戰力) 교본(敎本)에서도 “국군(國軍)의 이념(理念)이란 국민(國民)들이 지향(指向)하는 목표(目標)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¹⁵⁾이라고 했고, 국군정신전력학교편(國軍精神戰力學校編) 정신전력지도이론(精神戰力指導理論)과 실제(實際)에서도 “이념적(理念的) 측면(側面)을 정신전력(精神戰力)의 기본구조(基本構造)”로 보았으며, 또한 정전지도(精戰指導)의 2대목적(大目的) 가운데 하나를 국가이념(國家理念)의 구현(具現)으로 본 것¹⁶⁾ 등은 전쟁(戰爭)에서의 이념(理念)의 중요성(重要性)을 강조한 것이다.

(2) 사명성(使命性)

사명(使命)이란 「사신(使臣)이 받은 명령(命令) 또는 심부름 받는 명령(命令)」¹⁷⁾이란 뜻으로 임무(任務)보다는 더욱 강력한 개념(概念)이다. 군대(軍隊)는 단순한 조직체(組織體)나 이익집단(利益集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國家社會)를 외침(外侵)으로부터 막고 국가사회(國家社會)의 속성(世계觀)을 유지(維持)시켜주는 데 그 존재(存在) 이유(理由)가 있으므로 군인정신(軍人精神)에는 사명적(使命的)인 개념(概念)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인(軍人)들은 투철한 사명감(使命感)에 불타 있었는데,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將軍)의 노량해전(露梁海戰)에서의 최후 유언(遺言), 즉 적(敵)의 화살에 맞고도 휘하(麾下) 장병(將兵)들이 동요할까봐 “방패로 내 앞을 가리라”라고 명령(命令)하고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 말을 하지 말라”¹⁸⁾고 한 유언(遺言), Napoleon의 침입(侵入)으로부터 영국(英國)을 방어진 Nelson 제독(提督)이 1805년(年) Trafalgar 해전(海戰)에서 France와 Spain의 연합함대(聯合艦隊)를 맞아 싸우다 적탄(敵彈)에 맞아 쓰러지면서 “전황(戰況)은? 전황(戰況)은?”하고 계속 전황(戰況)만을 물었으며, 영국

(英國) 해군(海軍)이 승리(勝利)하였다는 보고(報告)를 듣자 “신(神)에게 감사(感謝)한다. 나는 나의 책임(責任)을 다하였다.”¹⁹⁾라고 말하고 운명(殞命)한 것은 투철(透徹)한 사명감(使命感)의 한 예(例)이다.

15) 국방부, 「국군정신전력교본」Ⅲ, 1979, p.115

16) 국군정신전력학교, op.cit., p.25

17) 안병욱, 「새 한국인의 사명」, (서울 : 삼육출판사, 1980), p.124

18) 육군사관학교, op.cit., p.282

19) Ibid., p.282

(3) 행동적(行動的) 실천성(實踐性)

군(軍)의 존재(存在) 이유(理由)는 국가사회(國家社會)를 외침(外侵)으로부터 보호(保護)함은 물론 그 국가(國家)가 지향(指向)하는 국가이념(國家理念)을 수호(守護)하고 실현(實現)하는 무장집단(武裝集團)이기 때문에 군인정신(軍人精神)은 이념성(理念性)과 사명성(使命性)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념적(理念的)으로 잘 무장(武裝)되고 사명감(使命感)에 투철(透徹)하다 하더라도 전장(戰場)에서 일어나는 제장애요소(諸障礙要素)를 극복(克服)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없다면 주어진 사명(使命)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없기 때문에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개념(概念)에는 행동적(行動的)이며 실천적(實踐的)인 개념(概念)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Clauswitz)는 전장(戰場)이란 위험하고 육체적 고통이 따르며 불확실성(不確實性)이 많고 우연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명(使命)을 성공적(成功的)으로 완수(完遂)하기 위해서는 이를 극복(克服)할 수 있는 능력(能力)이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²⁰⁾ 영국(英國)의 하딩(Harding) 원수(元帥)는 그가 참모총장(參謀總長)으로 재직(在職) 당시(當時)인 1953년(年) 7월 상원(上院)에서 행한 연설(演說)에서 “역사상(歷史上) 커다란 전투(戰鬪)는 불리한 조건(條件)에도 불구하고 혹은 아주 위급한 상황(狀況)에서도 강인한 의지력(意志力)에 의하여 승리(勝利)가 거두어 졌다”²¹⁾고 하여 군인(軍人)의 실천적(實踐的) 정신요소(精神要素)를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개념규정(概念規定)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前提條件)으로 이념성(理念性), 사명성(使命性), 행동적(行動的) 실천성(實踐性) 등(等)의 제개념(諸概念)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第)3절(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제요소(諸要素)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제요소(諸要素)의 설정(設定)에는 공통점(共通點)이 있긴하지만, 각(各) 국가(國家)마다 또 주장(主張)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같은 인

간으로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추출(抽出)된 군인(軍人)의 이상적(理想的)인 정신요소(精神要素), 예컨대 충성심(忠誠心), 용기(勇氣), 책임감(責任感) 등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군인정신(軍人精神)은 또한 문화적(文化的) 산물(產物)인 까닭에 민족(民族)과 시대(時代)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事實)이다. 전술(前述)한 바와 같이 어느 한 나라의 군대(軍隊)는 그 나라의 안전(安全)과 번영(繁榮)을 지키는 조직(組織)이니만큼, 그 군대(軍隊)의 정신(精神)도 원칙적(原則的)으로 그 나라의 전통(傳統)과 국가이념(國家理念)에 부응(副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문에 본절(本節)에서는 각(各) 국가(國家)의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제요소(諸要素)를 살펴보고 이들 제요소(諸要素)를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전제조건(前提條件)에 비추어 군인정신(軍人精神)에 포함될 일반적(一般的)인 제요소(諸要素)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제(第)1항(項) 미국(美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

미국(美國)은 그 건국이념(建國理念)이 자연법(自然法) 사상(思想)에 기초(基礎)를 두고 모든 인간(人間)에 대(對)해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을 실현(實現)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자유(自由)와 평등(平等)의 구현(具現)은 모든 국민(國民)의 의무이기 때문에 군인정신(軍人精神)에 대(對)한 별도(別途)의 개념(概念)을 규정(規定)해 놓지 않고 있다. 다만 미국인(美國人)으로서의 자부심(自負心) 고취(鼓吹)에 치중(置重)하고 있다. 즉 국가(國家)에 대(對)한 애국심(愛國心), 국기(國旗)에 대(對)한 자부심(自負心), 미국(美國)의 역사(歷史)에 대(對)한 긍지(矜持)에 대해 강조(強調)하고 있을 뿐이다.²²⁾

그러므로 미국(美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은 이념면(理念面)에 상당히 치중(置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第)2항(項)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자유중국군(自由中國軍)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제요소(諸要素)로서 지(智), 인(仁), 용(勇), 엄(嚴), 신(信)을 들고 있다.²³⁾

이것은 고대중국(古代中國)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손자(孫子)가 그의 병법(兵法) 시계편(始計編)에서 장수(將帥)가 갖추어야 할 다섯가지 덕(德)을 그대로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요소(要素)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장교(將校)와 사병(士兵)의 구분(區分)을 하지 않으려는 자유중국(自由中國)의 건국이념(建國理念)인 평등사상(平等思想)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Karl von clausewitz, 이종학 역, 「전쟁론」, (서울 : 일조각, 1980), pp.27~76 산견(散見)

21) 국방부, 「지휘·통솔」상(上), 1979, p.215에서 재인용

22) 육군사관학교, op.cit., p.267

23) 국방인력관리 연구위원회, 「군인기질 육성기준 설정안」, P.4

제(第)3항(項) 이스라엘의 군인정신(軍人精神)

이스라엘군(軍)은 군인정신(軍人精神) 요소(要素)로서 용기(勇氣), 모험(冒險), 결단(決斷), 대담(大膽), 자신(自信), 단결(團結), 확실(確實), 공정(公正), 진실(眞實) 등(等)을 들고 있다.²⁴⁾

이러한 정신요소(精神要素)는 신(神)의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選民思想)과 그들의 민족수난사(民族受難史)가 비취준 교훈(敎訓)이 오늘날 세계(世界)에서 가장 강인(強忍)한 민족정신(民族精神)을 확립(確立)하게 되었으며, 또한 초인간적(超人間的)인 민족단결(民族團結)을 가능(可能)케 하였는데, 그들의 이러한 민족정신(民族精神)이 군인정신(軍人精神)과 직결(直結)되어 국민정신(國民精神)은 곧 군인정신(軍人精神)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제(第) 4항(項) 구일본군(舊日本軍)의 군인정신(軍人精神)

군국주의하(軍國主義下)의 일본군(日本軍)은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요소(要素)로 충절(忠節), 예의(禮儀), 무용(武勇), 신의(信義), 검소(儉素)를 들고 있다.²⁵⁾

소위 「군인칙유(軍人勅諭)」라고 불리우는 군인정신(軍人精神)의 근본(根本)이라는 것이 비록 무력(武力)으로 국민적(國民的), 경제적(經濟的) 발전(發展)을 꾀하려고 했던 군국주의하(軍國主義下)의 행동(行動) 강령(綱領)이긴 하지만 전통(傳統)을 자랑하는 일본인(日本人)의 무사도(武士道) 정신(精神)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각국(各國)의 군인정신(軍人精神)을 군인정신(軍人精神)의 전제조건(前提條件)에 비추어 일반적(一般的)인 제요소(諸要素)를 도출해 보면 첫째, 이념성(理念性)으로는 충성심(忠誠心), 명예심(名譽心), 책임감(責任感) 셋째, 행동적(行動的), 실천성(實踐性)으로는 용기(勇氣), 필승(必勝)의 신념(信念) 등(等)을 들 수 있다.

<다음호 계속>

24) Ibid., p.4

24) Ibid., p.4

살기좋은 자유대한(自由大韓)

자수하면 나의 조국(祖國)

북괴치하(北傀治下)의 특이용어(特異用語)



편 집 실(編輯室)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분배원칙(分配原則)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에 대해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적 생산에 지출한 각자의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해서 생산물을 분배하는 원칙을 말한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하여 분배하는 제(諸)관계의 설정과 분배형식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실천과정에서 제반 모순이 생산된다.

사회적 생산에 지출한 각자의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의 과학적인 실행 이론이 없고, 그 노동의 질과 양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치성이 작용하여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해서 분배한다는 말은 사실상 허망한 공론(空論)으로 되고 있다.

실제로, 분배는 정치적으로 평가하여 부여한 각자의 직위,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각자에 대한 평가 등이 노동의 질과 양보다도 우선적인 분배량 배정의 방도로 되고 있다. 같은 노동을 해도 사람에 따라 분배량이 달라지는 것이 그 사회 실태라는 것이다.

적대성분을 가진 농민이 핵심계층에 속하는 농민과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양의 노동을 하여도 작업반장이 매겨주는 노력점수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북괴 특권층에 속하는 자들은 편안히 지내면서도 많은 분배 몫을 받아 호의호식하고 일반 노동자, 농민들은 피땀흘려 일을 해도 세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반항공(反航空) 비상(非常)배낭

북괴가 전쟁준비에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책동의 하나가 바로 이 반항공(反航空) 비상배낭을 휴대케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북괴는 가혹한 노동력 착취와 그로 말미암은 주민대중의 불만, 반감을 빚나가게 하기 위하여 전쟁 위기설을 퍼뜨리며, 반항공훈련 등 군사훈련을 혹독하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다.

이 반항공 비상배낭 속에는 비상미(非常米), 미숫가루, 초, 성냥, 식기, 붓대, 공책, 항일(抗日) 무장투쟁 참가자들의 회상지 등을 넣도록 되어 있다. 주민들을 극도로 긴장시키지 않고는 한시도 유지할 수 없는 김일성(金日成) 독재체제의 고질을 보여주는 실례이기도 하다.

반항공(反航空) 조직(組織)

북괴는 유엔군 및 국군 공군기의 폭격으로 6.25동란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들은 유엔군의 참전을 예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비한 공습훈련을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그 피해가 더욱 심하였다.

이러한 경험에 비추어 그들은 전쟁 준비에 대비, 이른바 반항공훈련이라는 공습훈련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북괴의 반항공조직을 보면, 당(黨)군사위원회 산하에 민방 중앙통제기관이 있고, 그 산하에 중앙반항공 대책위원회가 있어 도(道)·직할시(直轄市)·시(市)·구역(區域)·군(郡)·리(里)·동(洞)·직장(職場)에 설치된 각 반항공대책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다.

이것은 당(黨)과 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조직이고, 이밖에 공군사령부 예하의 경보 및 방공작전임무 주관의 반항공부(反航空部)가 있다.

1961년 소위 「내각결정」에 의해 조직된 이 민간방공기구인 반항공대책위원회는 각급 행정기관의 부책임자들을 위원장으로 하고 몇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반항공 대책위원회에서 방공(防空)에 대한 제반 사업을 결의, 지시하면, 산하 각 도(道)(직할시(直轄市)·시(市)(구역(區域)))·군(郡) 반항공대책위원회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해당 당(黨)상무위원회의 비준을 얻어 각급 인민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집행을 하도록 지시, 감독한다. 사업집행에 있어서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해당지역의 각 기업소에서도 행한다.

각 기업소에서는 반항공부가 있는데, 그 조직을 광산의 실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대부(聯隊部)가 있고 그 예하에 경비대대(警備大隊), 구원대대(救援大隊), 화학대대(化學大隊)가 있다. 연방군 경비대대 예하에는 경비중대, 소방중대가 있고, 구원대대 예하에는 통신중대, 구원중대가 있으며, 화학대대 예하에는 구급중대, 감염조사중대가 있다.

연대장은 지배인급이며 경비대대장에는 광산산업 보위대장이, 구원대대장에는 광산공무부장 이, 화학대대장에는 광산공무부장, 화학대대장에는 광산종합 병원장이 각각 임명되어 있다.

대원(隊員)은 25~40세의 건강한 노동자, 사무원으로 선발 구성되며, 방공호와 광산 갱도(坑道)를 이용하여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반항공대책위원회 주사업은 1962년 4월경까지는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반원자대피호(反原子)

子待避壕) 축조공사를 추진하는 일이었으며, 그 뒤에도 계속 추진하면서 원자탄이 투하했을 때를 가상하여 대피방법, 방독면 사용방법, 가스 오염지 탈피와 오염제거방법, 구급방법, 방화방법, 후송방법 등을 훈련받고 있다.

특히, 1966년 10월의 당대표자회의 이후 반항공훈련은 적극성을 띠고 있다.

대피훈련은 대체로 야반(夜半)에 행하는데, 이것은 노동의 지장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대피할 때에는 배낭에 식량 며칠분과 의복, 예비신발, 성냥, 초, 심지어 항일(抗日)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와 학습장 등을 상비하며, 실전을 방불케 비행기까지 동원 훈련하고 있다.

그리고 등화관제훈련도 한 달에 몇 차례 행한다. 이 등화관제훈련을 위하여 모든 차량은 일상적으로 장치를 하고 다닌다.

뿐만 아니라, 야간차량 운행을 위하여 모든 가로수예다가 지상 50센티미터 가량 흰 칠을 해놓았다고 한다.

대피호를 도처에 굴설해 놓았기 때문에 장차 전쟁 재발시에 반공주민들의 은신처가 많아진 셈이다.

주민들은 지나친 반항공훈련에 지쳐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6·25 당시 반공주민들은 유엔군 및 국군 공군기의 출격이 있을 때마다 피신하지 않고, 도리어 태극기를 흔들며 공습을 격려하기까지 하였다.

그 대신 당 간부들은 매에 쫓긴 꿩처럼 정신없이 숨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굴설해 놓은 대피호가 과연 어느 만큼 실효있게 이용되었는가가 의문시 된다.

김일성 상(金日成 賞)

1962년 3월 20일, 소위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상임(常任) 위원회(委員會) 정령(政令)」으로 공포 제정된 상(賞)이다.

「김일성(金日成) 상(賞)」은 김일성(金日成) 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일성(金日成)의 사상, 의지대로 행동하며, 당정책 관철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과학자, 기술자, 출판보도 일꾼, 교육자, 작가, 예술가, 체육인 등과 문화예술작품, 출판물, 과학서, 설계작품 등에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것도 「김일성(金日成) 훈장」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최고의 상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김일성(金日成) 상을 수여받은 일꾼은 「김일성(金日成) 상(賞) 계관인(桂冠人)」, 김일성(金日成) 상을 수여받은 대상은 「김일성(金日成) 상(賞) 계관작품(桂冠作品)」이라 칭한다고 되어 있다.

김일성(金日成) 상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김일성(金日成) 금메달」이 수여되는데, 이 금메달은 직경 39밀리미터의 십이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김일성(金日成)의 흉상(胸像)이 그려져 있다.

이것 역시 김일성(金日成)훈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남발한 각종 훈장으로서의 근로자들을 자극시킬 수 없게 되자, 또 다시 새로운 상을 마련, 북녘 주민을 노력 생산으로 자극시켜 보려는

술책에 불과하다.

그리고 과거의 「인민상(人民賞) 계관인(桂冠人)」은 김일성(金日成) 상(賞)의 제정으로 아무런 가치도 없게 만들어 놓았고 김일성(金日成) 우상화에만 광적으로 미쳐 날뛰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金日成) 훈장(勳章)

1972년 3월 20일, 북괴는 소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으로 「김일성(金日成) 훈장」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훈장은 소위 김일성(金日成) 회갑(回甲)을 기념하기 위해 새로 제정한 것으로, 김일성(金日成)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이른바 공산주의 건설에 탁월한 성과를 올린 혁명투사, 당일꾼, 행정일꾼, 모범노동자, 해외동포, 기관, 기업소, 군부대들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정령(政令)에서 김일성(金日成) 훈장을 제정한다는 공포와 함께, “김일성(金日成) 훈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훈장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천리마 운동이 노쇠하여, 이중 천리마운동이나 천리마공장운동 같은 것으로 이미 근로자를 자극할 수 없게 되고, 「국기훈장」, 「영웅칭호」 등 각종 훈장으로도 별 자극을 주지 못하게 되자, 소위 최고훈장이라는 김일성(金日成) 훈장까지 조작하게 된 것이다.

김일성(金日成) 훈장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① 김일성(金日成)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② 김일성(金日成)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思考)하고 행동하며, ③ 김일성(金日成)을 목숨으로 옹위 보위하며,

④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운 일꾼들에게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김일성(金日成) 훈장은 상기와 같은 이른바 탁월한 인물 또는 직장 군부대의 단체에 주어지게 되는데, 매년 김일성(金日成)의 생일인 4월 15일을 전후하여 수여하기로 규제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 훈장은 너비 60밀리미터, 길이 65밀리미터의 타원형으로, 그 중심에 김일성(金日成)의 흉상과 양 옆에 벼이삭으로 둘러싸여 있다.

상단에 금색 별이 있고 뒷면에는 「김일성(金日成) 훈장」이라는 글자와 번호가 있다.

북괴가 김일성(金日成) 훈장을 새로 제정하고 그것을 북괴 최고의 훈장으로 하였다는 것은 김일성(金日成) 우상화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가를 입증해 주고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각종 영웅칭호나 훈장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김일성(金日成) 청년(靑年) 영예상(榮譽賞)

사회주의 건설에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로청 조직과 사로청 맹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1956년 1월 7일, 민청(現(現) 사로청(社勞靑)) 창립 10주년을 기념해서 제정했다.

해마다 1월 17일인 사로청(社勞靑) 창립 기념일을 전후하여 수여하게 되는데, 1972년 1월 15일 북괴 「내각결정 제1호」로 이 「청년(靑年) 영예상(榮譽賞)」을 「김일성(金日成) 청년(靑

年) 영예상(榮譽賞)」으로 개칭하였다. 청년 영예상을 받게 되는 사로청 조직에는 김일성(金日成) 표창장과 함께 상표가, 사로청맹원과 사로청 일꾼에게는 김일성(金日成) 표창장과 김일성(金日成) 청년 영예상 휘장 및 상품이 수여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 청년 영예상을 수여할 때에는, 이 영예상과 함께 노력영웅칭호, 「국기훈장」 등 훈장도 겸하여 수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1971년 2월 4일의 김일성(金日成) 청년 영예상 수여식에는 이 영예상 받은 7백여 명 중 노력영웅 칭호 14명, 「국기훈장」 1급 10명, 군공 메달 25명, 공로메달 267명이 각각 훈장을 수여 받았다.

이 상도 다른 상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영예심을 자극시켜 최대한의 노력착취에로 내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의 영예상마저 김일성(金日成) 청년 영예상으로 개칭하여 김일성(金日成) 우상화에 결부시키고 있으며, 오직 김일성(金日成)을 위해 몸과 뼈를 바쳐 충성을 다한다는 광적(狂的)인 사태에 이르고 있음을 입증시켜 준다.

1호 주택(一號 住宅)

일반 노동자와 사무원용으로 지은 주택으로 방 1칸과 부엌 반칸의 주택을 말한다.

도시에 있는 주택을 규모와 실내장식 여하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주로 아파트(외량식)가 이에 속한다.

방 크기가 1.5~2평 정도여서 식구 5명 이상이면 발을 옮겨 놓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1호주택이 도시주택 전체의 약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여기에서 살고 있는 입주자들의 불편을 해결할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많은 세대는 방 안에 임시로 선반같은 것들을 만들어 애들은 그 선반 위에서 자도록 하는 집이 있으며, 부엌 일부에 마루를 깔아 세대주가 거기에서 자는 경우도 있다. 방이 비좁아 학교다니는 애들은 집에 와서 공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족끼리 어떤 오락(가정 오락이란 거의 없다)을 즐기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러한 1호 주택인데도 주택배정을 못받아 남의 집에 얹혀 살아야 하는 신혼부부들이 많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방에 두 세대(가족이 없는 신혼부부인 경우)씩 집어 넣어 방 한 가 운데 커튼을 치고 사는 예도 있다.

모두가 조립식에 의한 건축인데, 벽체 블록이 너무 얇아 이웃 간에 말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그래서 부부싸움이라도 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로 즉각 해당 직장의 당위원회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웃 세대주가 부부싸움 광경을 당에 통보하기 때문이다.

2호 주택(二號 住宅)

방의 규모가 1호주택보다 1~2평 정도 크기는 하지만, 식구가 많은 가족은 역시 비좁게 살고 있다. 수도와 변소시설이 되어 있으나 급수가 되지 않아 공동수도와 가변소(假便所)를 이용해야 한다.

방 1칸 반과 부엌 1칸의 규모를 가진 아파트로서 신 외량식 아파트와 일부 궁륭식(穹窿式) 아파트가 대부분 이에 속한다.

방 1칸 반이면 2.5~3평가량 되며, 중간에 미닫이만 달면 두 칸으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1호주택보다 규모가 약간 크며, 신 외량식 아파트에는 자그마한 벽에 부착된 벽장 뿐이고, 입주자 자신들에 의해 선반같은 것을 설치하기도 한다.

3호 주택(三號 住宅)

1호, 2호주택보다는 크고 시설이 되어 있으나 문화주택이라는 점에서 볼 때는 아직도 불비한 점이 많다.

3호주택은 방 2칸과 부엌 1칸 그리고 창고 반칸과 변소 등으로 되어 있는 주택(아파트)이다.

궁륭식, 즉 중간 복도식의 아파트와 일부 섹시아식(式) 아파트에 이런 규모의 주택이 있다.

방 2칸은 모두 온돌방이며, 각기 벽장이 있고, 도로변에 연한 방에는 베란다가 붙어 있다.

방 1칸의 크기는 보통 2평 내외이며, 폭 1.5미터, 길이 35미터의 복도가 달려 있다.

이같은 3호주택에는 중견간부들이 입주하게 되므로 힘을 쏟고 있다.

상수도 시설만 하더라도 3호주택에는 각 층과 각 방마다 급수가 되도록 배수관 시설도 하였는데, 수압관계로 3층까지는 물이 나오나 4층 이상에는 나오지 않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3호주택에는 아파트 비품으로 침대·책상·의자 등을 비치한 곳이 많으며, 각층마다 쓰레기 버리는 장치도 되어 있다.

그러나 쓰레기 버리는 장치도 설계상의 미숙으로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변소의 사 위는 시설만 되어 있지 물이 나오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또한 3호주택에는 중견간부들이 입주하게 되는데, 한 아파트에 각기 다른 직장의 간부들이 모여 사는 관계로 더욱 언동에 조심하고 있으며, 간부들일수록 상호감시가 엄격하고, 또 서로를 경계하는 도(度)가 높기 때문이다.

4호 주택(四號 住宅)

북괴의 부부장급(副部長級)(차관급(次官級)) 이상이 거주하는 특별주택을 제외하고는 가장 규모가 크고 내부시설이 잘 되어 있는 주택을 말한다.

4호주택은 온돌방 2칸, 마루방 1칸, 창고 반칸, 목욕탕, 변소 등을 갖춘 간부용 아파트를 말한다.

4호주택은 주로 섹시아식(式) 아파트로 건설되었으며, 벽체가 두터워 방음역할도 한다.

방 한칸의 크기가 3평 내외이며, 나무침대 2개, 책상 1개, 의자 2개, 벽장 등이 비품으로 설치되어 있다.

4호주택에는 상·하수도 시설도 그들 나름대로 시설되어 있어, 목욕탕과 수세식 변소도 제대로 이용하고 있다.

스팀장치도 되어 있으나, 온돌방 만은 구공탄을 피하도록 되어 있다.

4호주택과 특별주택에는 구공탄 공장에서 구공탄을 제조 공급해 주고 있다.

또 4호주택 뒷마당에는 소규모의 어린이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다.

한 세대당 건평은 약 15~17평이며, 최근에 건설되는 4호주택에는 20평에 달하는 것도 있다.

4호주택에 사는 간부들 대부분은 전화, 전기세탁기, 냉장고, 전기밥솥 등 문명의 이기(利器)를 갖춘 집이 드물며, 문화주택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북한의 다른 일반 주택과의 비교에서 다소 호화롭고 잘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와 같은 현대적 수준에는 훨씬 처진다.

특별 주택(特別 住宅)

북괴의 부부장(차관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특별주택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3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부부장(차관급)급이 사는 주택으로 단층건물과 아파트가 있다. 둘째는 부장급(장관급)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는 모두 단독주택이며 단층 또는 2층 주택이 있다. 셋째는 부총리급이 거주하는 주택으로 이는 모두 2~3층의 단독주택이다. 특별주택은 방 4칸(부부장급) 이상 10칸(부총리급)에 이르고 있으며 부부장급 단층건물도 건평이 30평 내외가 된다. 부부장급의 고위층 아파트도 온돌방 2칸, 마루방 1칸(응접실 겸용), 다다미방 1칸, 창고, 목욕탕, 수세식 변소 등 부대 시설이 모두 되어 있다. 특별주택에는 응접실을 비롯해서 피아노, 냉장고, 선풍기, 침대, 책상, 의자, 찬장, 카펫 등을 비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를 갈 경우 이 비품은 그대로 남겨 두어야 한다. 부부장급(차관급) 이상의 특별주택에는 식모와 운전수, 유모 등이 배속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국가기구」에 포함된 인민경제노력이다. 따라서 특별주택에 배치된 식모는 그 집 주인한테서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가」에서 월급과 식량배급을 받는 하나의 직장근무로 되고 있다. 부부장급 고위층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단독주택이므로 일정한 면적의 정원을 가지고 있고 부총리급 주택에는 정원에 분수시설도 되어 있고 온실도 있다. 특별주택에 사는 고위층 간부들은 일반 서민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어 평등하다는 공산주의 이념의 현실적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또 특별주택에 배치된 식모, 유모, 운전수 등은 주인과 하인이라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식모도 「국가공무원」이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식모가 그 주인 가족들의 행동에 대해 비판할 수도 있다. 특히 부부장급이나 부장급의 주택에 파견된 식모, 유모, 운전수들은 그들의 거동을 감시하는 비밀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군무원 노력동원(軍務員 努力動員)

북괴의 사무원들은 노력동원을 중요한 하루의 일과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행정(行政)시간 외의 과외시간에 동원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시간

을 침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로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같은 과외시간에 동원시키고 있다. 도시 사무원의 노력동원은 해당 당기관에서 책임지고 일률적으로 동원시키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평양시에서는 노동당 평양시당위원회에 사무원들의 노력동원 계획을 작성해서 각 구역당위원회에 보내며 구역당에서는 자기 구역 내의 각 기관 당위원회에 노력동원 지시를 하달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 당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동원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기관 책임자에게 통고하여 동원시키고 있다. 소위 「전국적 규모」의 건설대상 도로공사 등과 각 구역 당위원회에서 필요한 노력동원대상이 이에 포함되고 있으며 직장의 환경정리 보수공사 등은 이와는 별도로 직장 자체에서 동원시키고 있다. 한편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기적인 노력동원(예를 들면 봄에 농촌의 냉상모협조 이앙작업=가을추수작업 등)에는 구역 당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인원을 1개월 혹은 2개월씩 동원시키는 경우가 있다. 사무원의 노력동원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무보수이며 작업시 계획량을 초과수행 해야 하는 경쟁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장기적인 노력동원의 경우 인원차출에서 공연히 일을 잘못하거나 당적 신임이 얇은 사람부터 선별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만이 싹트고 있으며 과외시간 특히 일요일 같은 휴일에 자주 노력동원에 걸리기 때문에 사무원들의 불만이 그치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全體主義)

「사회 및 국가의 이익과 권력을 절대화하고 그에 대한 개인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희생을 주장하는 팻쇼사상」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하면서 전체주의(全體主義)를 배척해야 한다고 선전한다. 사실상 전체주의는 영국의 스무츠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창된 사상으로서 개인은 무조건 전체의 의사와 이익에 복종되어 민족 및 국가를 위해서 희생 될 것을 요구하므로 민주주의는 완전히 말살되고 개인 또는 국가의 독재적인 폭력 행사를 생산(生産)시키는 사상(思想)경향이나 행동인 것이다. 그리고 보면 현시대에 있어서 공산국가들에서 개인의 이익을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희생시키는 독재행위가 바로 전체주의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사실상 공산 독재국가야말로 전체주의적(全體主義的)인 학정을 실시하는 전체주의국가라는 본질을 여실히 실증해준다. 북괴의 독재 학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라는 구호나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의 확립(確立) 강요,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충성심과 무조건 복종의 강요 등은 전체주의적인 형포의 실례인 것이다.

초급당(初級黨)

북괴는 당원 및 후보당원 1백명 이상의 단위에는 초급당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고 있다. 단 농촌 경리분야와 특수부문에는 그 이하일지라도 초급당을 조직할 수가 있다. 또한 초급당위원회 내에는 집행위원회를 조직하며 초급당 산하에 여러 부문이 망라되어 있거나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 초급당위원회 밑에 부문 당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초급당위원회

산하의 하부조직은 세포위원회 또는 분세포(分細胞)가 있다. 초급당위원회의 임무는 ① 간부대열의 체계적인 육성확장, ②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 ③ 당내 종파 및 지방주의 가족주의의 배격 근절 ④ 상급당의 결정과 지시의 충실한 집행, ⑤ 당원 및 후보당원으로 입당 시키기 위한 대상자 교육, ⑥ 하급당 단체에 대한 지도, ⑦ 상급당에 자기사업의 적극적인 보고 등이다. 초급당에는 책임비서 비서집행위원이 있으며, 그 산하에 세포 또는 분세포가 있다. 한마디로 초급당은 북괴 노동당의 기본 조직으로서 각 분야 요소요소에서 당이 지닌 임무를 직접 수행한다. 그러므로 행정사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통제 월권행위 당 관료주의 행패 등으로 행정기관과 심한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타협주의(妥協主義)

타협주의(妥協主義)란 「계급적 원칙을 포기하고 원수들에게 양보하며 타협하는 기회주의 사상경향과 태도」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당의 일시적인 타협은 원칙적 포기나 양보가 아니라 원칙의 관철과 공산혁명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원칙적인 것, 차요적(次要的)인 것에 대한 일시적인 양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타협의 실제로 스탈린과 히틀러의 불가침조약, 중공(中共)의 대미타협(對美妥協) 등을 들고 있다. 북괴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등 대화에 응하고 있었던 것도 이러한 타협에도 속할 수 없는 전술적인 것으로서 대남침략을 위한 종전 전술에 대화를 통한 공격전술을 보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타협주의란 말은 교조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소위 현대 수정주의자들을 규탄하기 위해서 붙인 명칭으로서 그 말 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의의는 별로 없다.

토지개혁(土地改革)

북괴는 1946년 3월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공포하고 동년 3월 8일부터 3월 30일 간에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이 토지개혁은 단순히 농지개혁 농촌구조개혁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 반제(反帝) 반봉건민주혁명(反封建民主革命)이란 구호 밑에 북괴의 독재기반 구축이라는 정치성이 보다 강력히 작용한 데 특색이 있다. 동(同) 법령은 그후 부분적인 보충과 수정을 가하여 1948년 9월 9일 북괴헌법으로 그 합법성이 부여되었으며, 1958년 10월 농업집단화 완성 시까지 그 효력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 토지개혁 법령은 전문 17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골자는 ① 일본인 지주, 민족반역자 종교단체소유토지의 소작주는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경작자에 토지경작권 만을 인정하여 무상 분배한다. ② 축력(畜力) 농기구 주택 등 일체 건축물 대지(堡地) 등도 몰수하여 「국가」 재산으로 귀속 처분한다. ③ 몰수한 과수원 관개시설은 국유화하며 산림은 농민소유의 적은 것을 제외하고 전부 국유화한다. ④ 지주제, 소작제를 철폐하며 부여된 토지는 매매 저당되지 못하며 소작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북괴의 토지개혁 결과

총 경지면적 184만 정보 중 54%인 100여만 정보가 무상몰수되어 그 중 98만 정보가 72만 4천여 호의 농가에 분여되었으며 소작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또 토지몰수와 병행하여 이에 부수된 생산(건축물 역우마(役牛馬) 농기구 관개시설 등) 수단과 전 산림을 「국가」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농촌에 대한 북괴의 실권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지주제, 소작제가 폐지되어 경작권지제(耕作權地制)가 새로 확립됨으로써 토지 「국유화」의 성격이 농후하게 되었다. 북괴의 토지개혁은 종전의 지주 및 소작주에 대신하여 북괴 당이 농촌에서 실질적인 상전(上典)으로 대치된 데 불과한 것이다.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는 한낱 기만적 전술에 불과하고 처음부터 농업집단화를 위한 집단적 조치였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혁명동력(革命動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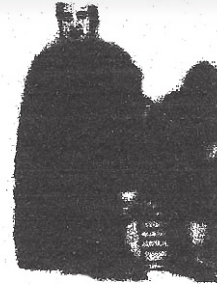
혁명동력(革命動力)이란 공산혁명을 촉진시키며 공산혁명의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들과 계층들에 공산주의자들이 붙인 말이다. 이 혁명의 동력(動力)은 어느 계급 계층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포섭대상의 범위가 결정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사회주의 혁명의 동력을 프롤레타리아 근로농민, 근로 인텔리로 본다. 그러나 해당 국가 또는 민족이 처한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의해 혁명동력이 약간씩 달라진다. 북괴는 혁명동력에 청년 학생 소자산계급(小資產階級) 일부 민족자본가(民族資本家)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혁명동력이란 공산주의자들이 포섭 대상의 한계를 결정짓기 위하여 만든 말이며 일시 포섭할 대상들을 감언이설로 마치 그들이 공산혁명의 주체세력인듯이 속여 각계 각층을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주의(社會主義) 사회(社會)

공산주의적 사회경제 구성형태의 낮은 단계를 북괴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가리킨다. 사회주의 사회는 일체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화(괴뢰정권의 소유화)한 데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공산주의 사회 이전의 낮은 단계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소위 「국가적 소유」와 협동 소유의 두 형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 두 형태는 본질에 있어서 괴뢰집단의 소유라는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경제생활은 소위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괴뢰집단에 의해 지도된다. 사회주의 경제는 주민 대중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이용되지 않고 소수 공산지도층의 목적달성에 이용된다. 북괴의 경우 현 지도층의 목적인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전쟁준비에 이용된다. 북괴 사회의 특징은 ①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私的) 소유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유(私) 재산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개인이 가진 땅도, 집도, 생산업체도 전혀 없으므로 사유재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봉급 또는 분배몫 등의 수입이 있으므로 그 수입으

로 가재(家財), 피복, 장신구를 살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의 소유로 된다. 북괴가 이 조그마한 사유재산을 인정한 미끼로 헌법에 또는 각종 규제에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② 북괴 치하의 주민들은 집단주의 체제하에 얽매어 있다. 직업의 선택, 자녀의 교육, 거주이전 등 일체 거동을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할 수 없고 무조건 집단적인 조직에 복종해야만 한다. ③ 북괴는 불평등 분배의 계급사회를 고의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북괴가 소위 사회주의적인 분배원칙을 입으로는 떠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분배 원칙이라는 것이 노동을 제공한 질량(質量)에 의한 평등분배가 아니라 특권층 위주의 불평등 분배이다. 출신성분 또는 본인 성분이 적대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동질 양의 노동을 하여도 핵심계층에 속하는 사람보다 분배 몫을 적게 타고 있는 것이다. ④ 1인(人) 독재체제가 형성되어 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군사 등 모든 영역에 대하여 독재자인 김일성(金日成)과 그 측근자들이 지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

북한(北韓) 노동당(勞動黨)의 군(軍)에 대(對)한 정치적(政治的) 통제(統制)



안 종 철(安鍾澈)
〈서울대교수〉

1. 서론(序論)

북한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모든 권력의 원천은 노동당이 며 정치체제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권력 구조의 핵(核)으로서 노동당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당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권력체계는 그것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으로서 강력한 물리적 힘을 보유하고 있는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는 정권이 수립되기도 전에 인민군이 창설되었던 것이다. 이는 어떤 정치사회에서나 그 정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원 간에는 복잡한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있게 마련이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나아가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원천적인 요소로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군대는 정치사회의 통치조직을 성립, 유지시켜 주기 위한 기초적인 힘의 요소로서 작용하여 온 것이다. 군대의 존재가 인간사회의 통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실력적인 기초가 되어 온 것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나 한결같이 공통된 현상이었다. 공산국가에서의 군대는 군(軍) 자체가 당(黨)의 무장력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군(軍)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이 실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물론 북한의 경우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북괴군은 당(黨)의 무장력으로서 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軍)의 정치적 기능은 다른 공산국가보다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인민군이 북한노동당의 정권유지에 무장력으로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여 주지만 인민군이 그에게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떠나 다른 방향으로 이익을 표출할 경우에는 노동당정권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당(黨)이 군(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군대 자체가 본래 엄격한 계급적 조직을 갖고 있으며 직업적, 제도적 가치가 타조직에 비해 높은 까닭에 당(黨)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군대의 성격 때문에 북한에서는 당(黨)이 군(軍)을 통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이미 실시하고 있던 소련과 중공의 제도를 모방하여 노동당은 인민군 내·외부에 통제기구를 설치하여 군(軍)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변수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노동당이 인민군을 원활하게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라 볼 수 있다. 이는 군대가 체계유지에 가장 강력한 보루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黨)에 의한 군(軍) 통제의 성립배경과,

둘째, 군(軍)을 통제하기 위해 구사되는 수단 방법과,

셋째, 군(軍)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기구의 기능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II. 북한노동당(北韓勞動黨)과 군(軍)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통제(統制)의 성립배경(成立背景)

1. 북한인민군(北韓人民軍)의 특성(特性)

마르크스주의(主義)에 입각한다면 공산국가에서 직업군인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산국가에서는 직업군대를 가지고 있다. 공산국가의 군대가 민주국가의 군대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면 당(黨)과 군(軍)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군(軍)의 통수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당(黨)이 가지며 헌법상의 통수권과 실제상의 통수권은 다르다는 점이다.

둘째, 정치장교의 제도를 두고 있어 군대는 철저히 당(黨)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비군사적인 요인에 의해서 군사적인 요인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산국가의 군대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은 공산당이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을 구사하는 조직이며 공산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무력적 수단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그것을 유지하며 공산혁명을 강력히 추진해 독재체제가 필요하므로 그 무장력으로서 군대가 필요한 것이다.

김일성(金日成)이 해방 후에 북한에 돌아와 가장 먼저 군사력의 구축부터 시작한 것도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며 적화(赤化)의 수단으로서 혁명 군대 조직이 가장 급선무였다. 이와 같이 북한인민군의 성격은 그들 스스로도 당(黨)규약에서 당(黨)의 무장력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김일성(金日成)의 군대, 당(黨)의 군대, 노동계급의 군대인 것이다.

그런데 점차 인민군은 당(黨)군으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김일성(金日成)의 사병(私兵)으로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앙집권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노동당의 모든 권한이 당(黨)의 총비서인 김일성(金日成)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지만 당(黨)이 스스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까닭이다. 김일성(金日成)은 전반적인 무력(武力)의 최고사령관이며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군의 주요 지휘관과 간부의 임명과 해임 등 모든 군사적인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당의 무장력(武裝力)으로서의 군대가 충실히 남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당(黨)은 그들의 본연의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조직하고 통제하여야만 된다. 군(軍)에 대한 통제가 철저히 못할 때 정치체제 유지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당(黨)에 의한 군(軍)의 통제는 소련과 중공(中共) 등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인민군은 소련군에 의해 창설되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중공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므로 북한에서의 당(黨)에 의한 군(軍)의 통제는 소련과 중공(中共)의 통제를 먼저 고찰함으로써 더욱 명확히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2. 북한노동당(北韓勞動黨) 군통제(軍統制)의 성립배경(成立背景)

공산국가의 군대에서 정치통제제도를 처음으로 채택한 것은 소련에서 볼셰비키정권이 수립되었을 때이다. 볼셰비키정권은 제정(帝政)러시아의 구(舊)군대 짜르군대를 해체하고 적군(赤軍)을 창설하였다. 적군(赤軍)은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전문지식이 없어 짜르군대로부터 군사전문가로서 하사관과 장교를 충원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상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 이들을 감독할 정치위원(Political Commissar)을 당(黨)에서 군대로 파견하였다. 정치위원은 군사지휘관과 동등한 계급으로 구군장교(舊軍將校)를 감시하고 제재를 가하며 일반 군인들에게 당(黨)정치교육을 실시하고 계급의식을 불어 넣었으며 당(黨)정책을 선전하였다. 그러나 정치위원과 군사지휘관은 같은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1925년부터 단일지휘관제로 개편되어 정치위원이 군사지휘관보다 하위계급을 유지하였으나 1936년 스탈린의 숙청시기에 다시 정치위원이 부활되어 이중지휘관제로 바뀌었다. 이것은 또 다시 핀란드와의 전쟁 때 군사작전의 수행 중에 허다한 혼란을 일으켜 정치위원 대신 정치보좌관(Political Zampolite) 제도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수차에 걸친 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정치위원제의 정신과 기능만은 큰 변화가 없었다. 정치위원은 장교들의 충성심과 정직성을 검토하며 전투의 목적을 설명함으로써 군대의 높은 사기를 유지하며 학습반, 토론그룹, 강연, 연극회 등의 조직과 각 단위의 지휘관을 보좌하고 전략적 결정에 협조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소련의 군(軍)통제제도를 받아들인 중공(中共)에서는 당(黨)에 의한 군(軍)통제제도가 홍군(紅軍)의 조직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홍군(紅軍)의 창설과 조직은 소련군사고문관의 지도와 역량이 크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소련적군(赤軍)의 정치위원제도와 그 조직구조 및 운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홍군(紅軍) 초기의 중공군(中共軍)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및 국민정부군의 투

항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위원은 군(軍)의 하급단위 특히 중대급(中隊級)의 조직에서 강조되었는데 중대(中隊)의 정치위원은 정치훈련을 수행함에 있어서 군인위원회를 감독하고 대중운동업무를 지시하고 동시에 당지부(黨支部)의 서기(書記)로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중대급(中隊級) 이상의 군(軍)지휘관은 거의 예외없이 당원(黨員)이었기 때문에 이중(二重)지휘체제를 수립하여 그들을 통제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었는데도 정치위원제도는 중공인민해방군의 거의 모든 단위에 조직되었다. 중공군의 정치 통제제도는 그 후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거기에는 독특한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정치통제 자체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치교화(政治教化)(Political Indoctrination) 선전에 관한 것이다. 중공군에 대한 당(黨)의 통제는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總政治部), 당위원회(黨委員會)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군(軍) 내에 침투시키고 있다. 이들 기관의 계층적 구조는 몇 개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으며 가장 상위의 통제기관은 중앙군사위원회인데 이것은 그 조직 체계상 당(黨)중앙위원회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군(軍) 내에 침투되어 있는 기관은 아니다. 군(軍) 내부의 통제기관은 총정치부이며 이것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군(軍) 내의 실질적인 정치통제를 행한다. 그리고 총정치부의 각 단위에 당위원회 또는 정치부를 두고 당(黨)에 대한 군(軍)의 충성의 확보와 그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소련과 중공(中共)의 정치통제제도는 다른 공산국가 군대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동구(東歐)의 공산국가들은 이(二)차대전 후에 소련군이 점령하여 소련의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였다. 이와 같은 공산국가 군대의 정치통제와 유사하게 북한인민군에서도 다음과 같이 형성되어 강화되어 왔다. 북한인민군은 소련군의 북한 지역 점령 정책으로써 탄생하였다. 즉 인민군은 1948년 2월 8일 인민집단군이 편성되어 발전되어 온지 9개월 만에 정규군인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으로 창설되었다. 처음 창설할 당시의 인민군의 성립에는 1945년 일본(日本)이 항복한 이후 북한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되어 활동해오던 보안대가 모체가 되었다. 이 보안대가 중심이 되어 4개 사단(師團)이 형성되었으며 중공군 내에 있던 한인부대(韓人部隊)를 북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교섭을 하여 중공군 출신의 한인(韓人) 약 2만명으로 제(第)5사단(師團), 제(第)6사단(師團)을 편성하였다. 이 외에 또 다시 약 2,000명의 중공군 출신 한인부대(韓人部隊)가 입북(入北)하였고 스탈린그라드 공방전(攻防戰)에 참가한 바 있는 2,500명의 소련군 출신 한인부대(韓人部隊)가 입북(入北)하여 인민군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다. 1950년 5월 초까지 중공군에 소속되어 있던 한인(韓人) 의용군과 기타 중국 각지에 산재해 왔던 한인부대(韓人部隊)를 합하여 약 만명이 제(第)7사단(師團)으로 편성되었다. 그 결과 6·25 남침시까지 북한인민군 장교 중에 중공군 출신이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이처럼 북한군의 구성은 이질적이고 다양하였기 때문에 당(黨)에 대한 충성을 보장할 수가 없었으며 마치 소련군의 초창기와 비슷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은 소련군에 의해 창설된 북한군이 소련군의 체제를 모방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 특히 당(黨)·군(軍)관계에서 당(黨)이 군(軍)을 통제하기 위하여 모방한 것은 정치위원제도로 북한군은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문화부사령부를 설치하고 대대급(大隊級) 이상에 문화부대대장(文

化部大隊長), 문화부연대장(文化部聯隊長), 문화부사단장(文化部師團長)을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각급부대에서 북한군의 정치사상통제를 담당하였던 바 노동당은 이들을 통하여 군(軍)을 통제하였다. 이러한 당(黨)·군(軍)관계는 그동안 정치통제를 담당하였던 문화사령부를 1950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확대개편하여 인민군 내에 당(黨)조직과 정치부를 설치할 것을 밝혔다. 그후 1961년 수정된 노동당 규약에 의하여 복고군 총정치국이 설치되었으며 이 총정치국 산하에는 군단(軍團) 이하 중대(中隊)에 이르기까지 정치부가 조직되어 해당단위 내에 조직되어 있는 당(黨)위원회의 집행부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각급 부대의 정치통제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각급 부대의 정치부를 장악하기 위하여 정치부지휘관(政治副指揮官)이 임명되어 있는데 이 정치부지휘관(政治副指揮官)은 군사지휘관이 군사면에 책임을 지는데 반하여 정치적 활동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1969년 이후에는 중앙당 비서국에서 인선(人選)한 정치비서를 인민무력부로부터 사단(師團) 및 여단급(旅團級)까지 배치하여 군사·정치 등 군(軍) 내 제반업무를 조정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조직, 즉 군당위원회(軍黨委員會)·당군사위원회(黨軍事委員會) 등이 설치되어 있어 당(黨)에 의한 군(軍)의 통제는 겹겹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통제의 수단과 방법도 다양하다.

Ⅲ. 북한노동당(北韓勞動黨)의 군(軍)에 대한 정치적(政治的) 통제(統制)의 수단(手段)과 방법(方法)

어느 사회이든지 간에 개인이나 집단을 통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통제는 특정사회가 유지 존속하는데 불가결의 요건이기 때문이다. 원래 통제란 말은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제(諸) 구성요소들을 특정한 목표로 지향하도록 제어하는 일이며 나아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부분을 그 사회적 이념에 부합하게끔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정의(正義)된다. 이러한 통제는 결국 개인으로부터 충성심, 순응, 추종 및 승낙을 획득하려는 억제력의 행사와 그 수단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북한에서는 노동당에 대한 인민군의 충성심과 복종심을 얻어내기 위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군(軍)을 통제하는 수단과 방법을 발달 시켜왔다. 이와 같은 정치통제의 목적은 당(黨)이 군(軍)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여 군대 내의 모든 병사(兵士)를 성실하고도 충성스런 군인으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데 있다. 이러한 통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은 아주 다양하여 군대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지만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자크 폰 돈의 통제방법의 분류에 따라 분석한다.

1. 사상주입(思想注入)에 의한 통제(統制)

복고군에서 구사되고 있는 통제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통제의 방법은 사상주입(思想注入), 즉 교조주입(教條注入)에 의한 것이다. 사상주입에 의하여 북한노동당은 군대로

하여금 당(黨)의 지휘에 절대 복종하는 무장력(武裝力)으로 만들려 노력하고 애국적 공산주의의 이념으로 물들게 함으로써 당(黨)의 이익과 정책에 충성하는 공산주의관(共產主義觀)을 갖게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교(將校)와 사병(士兵)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와 김일성(金日成) 유일사상(唯一思想)의 학습에 할애되고 있으며 군(軍)에서 발간되는 잡지와 신문은 정치적 사상주입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 사상주입(思想注入)의 목적(目的)

북괴군에 대한 사상주입은 노동당의 무장력(武裝力)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사상으로 교화(教化)하는 것이다. 인민군은 당(黨)의 군대로서 끝없이 당(黨)에 충실해야 하고 또 당(黨)이 내세우는 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인민군은 오직 노동당의 사상,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의 사상만이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방침은 군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북한주민들에게도 실시되고 있다. 다만 그들이 말하는 군대는 당(黨)의 혁명무장이므로 정치사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사상주입을 위한 원칙으로 김일성(金日成)이 창시하였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교육학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북괴군에게 사상을 주입하는 근본목적은 당(黨)의 무장력(武裝力)으로서의 인민군의 존재 의의를 강조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 사상주입(思想注入)의 실제(實際)

공산국가 군대에서 사상주입의 주역을 맡고 있는 기관은 사관학교이다. 사관학교의 교육 과정의 대부분은 정치교육에 충당되고 있다. 이는 군관으로 양성되기 이전에 철저히 공산주의사상을 주입시킴으로써 졸업 후 군대에서 당의 충실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에서 사관학교격인 제1종합(第一綜合) 군관학교(軍官學校)는 그들의 교수과목으로 대체로 군사교(軍事校), 일반학(一般學)에서도 순전히 그것만을 교수(教授)하는 것이 아니고 사상주입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관학교에서 철저히 사상주입을 받은 후 군관으로 임명되어 복무 중에도 재교육기관으로 김일성(金日成) 종합군사대학(綜合軍事大學)을 설치하여 끊임없이 사상무장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주입은 군관 뿐만 아니라 일반병사에게도 시행되고 있다. 신병이 훈련소에서 사상주입을 받은 다음 부대에 배치된 후에도 동기와 하기의 2기로 나누어 사상주입은 계속된다. 여기서도 당 및 국가에 대한 충성심 양양이 목표이며 특히 1961년부터는 김일성 유일사상체제(唯一思想體制)의 확립을 위해 정치교양교육을 배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교육 중에 정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4%인데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보통 군사학에 선행하여 첫 시간에 실시하며 중요사항을 암기시키고 나중에 학습내용을 토론시킨다. 학습내용으로서의 혁명전통학습, 공산주의사상학습, 계급교양학습, 당정책학습, 김일성 교시학습, 국내외정세학습, 적군학습 등이다. 이들 내용의 공통점은 군의 사명확인과 김일성 유일사상체제의 확립으로 당에 대한 군대의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사상주입인 것이다.

2. 숙청과 테러에 의한 통제

북한에서 노동당에 의하여 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중 가장 강압적인 것이 숙청과 테러에 의한 통제이다. 이는 북괴군이 군대 특유의 조직과 직접적인 무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함에 따라 당의 군대로 확보하기 위해 당간부들을 숙청하는 것이다.

◎ 종파군부의 대숙청

1956년부터 1958년까지의 군부의 숙청은 8월 종파의 군사쿠데타인데 이는 전쟁 중이던 1951년 무정의 숙청으로부터 연유된다. 무정은 당시 인민군 내에서 중공계 출신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더욱이 1950년 전쟁에 중공군이 대거 참전함으로써 그의 위치는 김일성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전쟁 중에 무정을 중심으로 한 연안파의 제거를 계획하여 1950년 12월 패주길 강계에서 노동당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전쟁의 중간총화라는 의제를 내걸고 무정의 제2군단장직을 해임시켰던 것이다. 물론 이 회의의 목적은 한국전쟁에서 북괴군이 패전하게 된 책임을 반 김일성파에게 돌리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무정을 지지하던 군부세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후일 이른바 8월 종파 군사쿠데타의 불씨를 만들었다. 중공계 및 일부 소련계 지휘관들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군은 당의 통제를 벗어나 직업군인들에 의해 지도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즉 그들은 군은 어느 정도 정치성을 배제하고 순수한 군사적 임무에 충실하도록 당관료보다는 직업군인의 통제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직업군인들의 군에 대한 자율성의 주장은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공에서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었다. 1956년 4월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김일성은 당간부들의 자파 등용을 서둘렀고 혁명전통교육의 강화 등 자신의 세력기반을 다지기 위한 과업을 추진시켰으며 8월 전원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최창익을 비롯한 연안파와 박창옥을 중심으로 한 소련파 등은 김일성의 경제정책과 인민경제 5개년계획에 따르는 주민생활의 위협을 이유로 김일성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김일성은 오히려 이 기회를 포착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제1차 당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연안파와 소련파에 대해 이른바 8월종파 쿠데타음모라는 죄명으로 숙청을 단행했던 것이다. 김일성은 이들을 숙청한 후 북한인민군은 노동당이 창설한 군대이며 김일성항일유격대의 혁명적 애국전통을 계승하여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을 골간으로 창설되었다고 하면서 인민군은 노동당의 군대이며 항일빨치산 그룹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자파군대의 숙청

1959년 연안파의 숙청이 완료되자 당권은 김일성직계의 당료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다. 김일성직계인 갑산파의 권력이 비대해지자 김일성은 이의 견제세력으로서 직계군부세력을 대두시켰다. 1967년 3월 김일성은 당조직책 박금철 대남공작책 이효순 등 고급당료들을 인민경제 7

개년계획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씌워 숙청하였다. 이에 따라 당은 군사파들에 의해 독점되었는데 이들 중 일부는 다시 군의 독립성을 주장하여 김일성은 이들의 비대해진 세력을 두려워하여 이들이 비정규전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군부 내에 군벌을 조성한다고 하면서 모두 숙청하였다. 여기서 보면 김일성은 자파군부 내에서 일부 강경파들의 세력 독주와 비대를 몹시 두려워 하였다. 따라서 군이 당의 강력한 통제를 받도록 지휘체계의 이원화가 부활되었다.

3. 충원에 의한 통제

앞에서 살핀 숙청에 의한 통제가 구성원을 그의 지위에서 제거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라면 충원에 의한 통제는 온건적이며 회유적인 방법이다. 북한 권력구조의 핵심기관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비서국인데 이러한 권력기관에 군부출신이 얼마나 충원되어 있는가를 분석해 본다.

◎ 당중앙위원회의 군부출신 총원

당중앙위원회는 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 전역을 통하여 정치권력의 중핵인 정치위원과 후보 위원을 선출한다. 그러므로 당 내부의 지배관계에서 볼 때, 정책결정의 최고기능이 부여된 당중앙위원회는 북한 정치사회의 대표적 권력엘리트 집단이다. 실질적으로는 정치위원회가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나 형식상 모든 최고결정은 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서명된다. 당의 권력엘리트 90명을 추출하여 이들의 구조를 분석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서 전문분야별로 볼 때 군부엘리트 출신이 단연 우세함을 알 수 있다. 분류상 전문교육을 받지 못한 군대출신 특히 항일 빨치산 그룹의 인물이나 당료출신이라도 장기간 특정한 전문기능을 수행하여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이들은 군으로 분류하지 않고 전문기능 부문으로 분류하였다. 만약에 현직과 최근의 주요경력을 고려한 기능분류가 아닌 단순한 출신별 분류라면 군부출신의 엘리트는 30명을 상회할 것이다. 중앙위원회 위원 중 분석이 가능한 27명을 서열에 따라 5계층으로 분류하면 ① 1~11위, 항일빨치산출신 권력엘리트 ② 12~22위, 비군사전문가출신 권력엘리트 ③ 23~35위, 항일빨치산 출신 준권력엘리트 ④ 36~58위, 항일빨치산 군사엘리트 ⑤ 59~117위, 비군사적 관료출신 혁명 후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제3계층에 속하는 항일빨치산출신들은 제2계층에 속하는 비군사적 전문가집단보다 서열은 아래지만 비교적 연령이 높고 정치적 이념이 강한 계층이다. 따라서 김일성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제3계층이 제2계층보다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이 강하고 제2계층에 대한 제동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서열 36~58위인 제4계층은 순수한 군사엘리트가 우세한 집단으로서 이들은 주로 제1계층의 보호장치기능을 수행한다. 연령구조상으로는 거의가 혁명세대에 속하며 현직은 각 군사령관과 군단사령관인 자가 많다. 이들은 김일성계의 권력적 종합능력을 보장하여 주는 구실을 하며 전문적 관료의 정치적 성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주요계층이다. 그러므로 당에 의한 군통제에 대한 성공여부는 사실상 이 제4계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치위원회의 군부출신 분호

정치위원회는 당의 최고권력기관일 뿐만 아니라 북한정치사회에서도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이러한 현상은 다른 공산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정치위원은 당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정치위원회는 당전원회의와 다음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노동당의 모든 정책이 바로 정치위원회에서 수립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어서 최고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의 핵심집단인 정치위원회에 군부 출신이 얼마나 충원되어 있는가를 분석하면 군부출신들이 해를 거듭함에 따라 많은 비율을 보이다가 1970년 5차 전당대회에서는 전원이 군부출신이다. 이처럼 군부출신을 당의 권력구조에 충원시킴으로써 군을 통제한다.

◎ 비서국의 군부출신 총원

비서국은 당중앙위원회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부서를 일상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기구로서 정치위원회가 정치결정기관이라고 하면 비서국은 결정된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이다. 비서국의 또 다른 주요기능은 당원들의 신상 및 경력을 비롯한 모든 인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비서국의 총비서는 당의 최고지도자로서 김일성이고 대부분의 비서들은 정치위원을 겸하고 있다. 비서국은 여러 개의 직속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군 총정치국도 바로 직속기관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군 총정치국이 당중앙위원회의 지휘 지도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은 비서국의 군사작전 및 교육담당비서의 지휘를 받고 있다. 그러다 대개 군 총정치국의 담당비서는 군 총정치국장이 겸하거나 또는 군 총정치국장을 지냈던 자가 맡고 있다. 역대의 비서국 비서들을 분석하면 1956년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당시는 군부출신이 무정 뿐이었으나 1956년 9월 노동당 제3차 당대회 시에는 6명 중 군부 출신이 4명이었다. 1961년 9월 제4차 당대회 시에는 6명 중 5명이 군부출신이었고, 1966년 10월 제4기 14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11명 중 6명이었고,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 시에는 전원이 항일빨치산 그룹을 중심한 김일성 직계들이었다.

Ⅳ. 북한노동당의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구의 기능

북괴군은 소련군과 중공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통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복잡한 기구에 의해 침투되어 있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단일적 권위에 복속되어 있다. 이와 같은 통제기구들의 궁극적 목표는 군대를 공산주의 사회의 절대 필수적인 구성부분으로 되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북괴군의 정치적 통제의 계급적 구조는 몇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가장 상위에 존재하는 것은 당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서 군대의 외부에서 군대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북한군의 내부에 침투되어 있는 통제기관 중 가장 강력한 기관은 군 총정치국이며 이는 소련과 중

공의 경우를 모방하여 최초로 창설한 통제기관이다. 이와 더불어 군대 내에서 정치적 통제를 수행하는 기구로는 군당위원회 비서기관, 사노청 등이 있는데 이들은 군사작전면의 동원교육 훈련계획과 명령을 초안하거나 확인함으로써 군사행동을 감시하고 군인사관리를 당의 목적에 맞도록 처리하는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구는 말단 분대에까지 침투하여 각개병사의 세뇌공작과 비밀사찰 및 감시지도를 하는 등 당에 맹종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1. 군대 외부의 통제기구의 기능

당군사위원회

당군사위원회는 6.25 남침 다음 날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으로 발표된 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이의 설치배경을 보면 당시 북한은 소련과 중공의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독자노선을 내세울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이것은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였다. 이에 따라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장비의 현대화 등 소위 4대군사노선을 당면 정책으로 내세워 전쟁 및 군사우선정책을 다시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 및 군사우선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하는 추진체로서 당군사위원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이 당군사위원회는 직접 전쟁을 지도하는 기능은 없으나 전쟁에 대비 및 준비하는 국방정책을 심의하고 내각의 군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당면과제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는 준전시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평시에는 군사문제에 관한 최고결정기구이기도 하다. 당군사위원회의 조직은 도당급에까지 군사위원회를 상설하여 병존시켜 전쟁 군사우선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당군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현역 대좌급이 맡고 있으며, 시(市), 군(郡)에도 지부(支部)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당군사위원회는 1972년 12월 기구개편에 따라 새로 설치된 국방위원회에 대부분의 세부업무가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당군사위원회는 주로 기본적인 군사정책의 입안만을 담당하고 있다.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북한은 1972년 12월 헌법개정으로 국방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기구는 당군사위원회와는 별도로 평시에 중앙위원회의 산하에서 국방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 국방위원회 내에는 정책, 작전, 동원 등 국방에 관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여러 개의 주요부서가 있다. 국방위원회의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기능은 당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 군사정책을 심의, 결정하고 이외에 예하 정책부서는 위원장의 대내외의 군사정책자문에 응하며 작전부서는 전선사령부 또는 군단(軍團)의 작전을 조정 감독한다. 또한 동원부서는 후방의 군사동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일체의 전쟁준비사업을 담당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전쟁수행을 지휘한다.

2. 군대내부(軍隊內部)의 통제기구(統制機構)의 기능(機能)

군당위원회(軍黨委員會)

김일성은 1956년의 8월 종파 군사쿠테타사건에 자극을 받아 당이 군을 보다 강력하게 지휘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군당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는 군 내의 각급 당조직을 일원화(一元化)함으로써 군당위원회가 군의 최고통제 지휘기관으로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당위원회에서 합의 결정된 군사 및 당 사업은 군총정치국(軍總政治局)에 의해서 집행 감독된다. 물론 군당위원회와 군총정치국(軍總政治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비준한 지도자를 근거로 하여 결정하고 조직 집행한다. 군당위원회가 수행하는 임무는 ① 당의 군사행동 지침결정, ② 작전 및 훈련계획 등을 기초 검토, ③ 군사행동의 감시 통제, ④ 당목적에 부합한 인사관리 등이다.

군총정치국(軍總政治局)

북괴군은 창설 초기부터 군(軍) 내에 정치적 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문화부사령부이다. 당시 문화부는 대대급(大隊級) 이상에 임명되어 통제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 문화부장교들의 주요기능의 하나는 군사 지휘관의 명령에 대한 연서권(連署權)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부장교의 연서권은 지휘의 이원화(二元化)를 가져와 전쟁 초기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군 내의 정치적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였다. 이것이 노동당규약에 의해 군총정치국(軍總政治局)으로 되었다. 군총정치국의 조직은 중대(中隊)에까지 되어 있는데 집단군 및 각군 사령부에서부터 대대급(大隊級)까지는 지휘기구 내에 정치부를 설치하고 중대(中隊)에는 서민 정치부중대장(政治副中隊長)만이 있다. 특히 전쟁 중에는 군지휘관과 정치부지휘관(政治副指揮官)의 마찰을 없애기 위해 각각의 권한 한계를 어느 정도 구분지어 놓아 명목상으로는 지휘의 일원화(一元化)가 수립되었으나 군사작전과 정치사업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 그러나 1969년 1월 군당 4기 4차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다시 모든 군사행동에 대하여 군사지휘관과 정치부지휘관(政治副指揮官)의 연서(連署)로서 효력을 발생케 하였다. 정치부지휘관(政治副指揮官)의 임무(任務)는 ① 군 내의 당조직(黨組織), ② 마르크스 레닌주의(主義) 전파(傳播) ③ 심리전(心理戰) 정치사상교육(政治思想教育) 사상동태분석(思想動態分析) 및 선전전개(宣傳展開) 등이다.

정치비서(政治祕書)

김일성은 군(軍)의 동요를 억제하고 유일사상체제(唯一思想體制)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치비서제를 실시하여 각(各) 부대(部隊)에 정치비서를 파견하였다. 이들은 사단(師團), 여단(旅團)까지 배치되어 군사, 정치 등 군내 제반업무를 감독하고 있다. 정치비서들은 일명 정치위원이라고도 불리워지는데 특히 군 지휘관의 명령 지시는 이들 정치비서의 비준과 연서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큰 역할과 권력행사를 하고 있다. 정치비서의 주요임무는 ① 당정책(黨政策) 실현(實現) ② 군벌주의조성방지(軍閥主義造成防止) ③ 제반 군사업무 감시감독 ④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 확립(確立) ⑤ 정치 및 당사업 조정감독 ⑥ 지휘관의 명령 및 계획의 비준 서명 등이다. 이 내용을 보면 군 내에 당적 영향을 강화시키려는 말할 것도 없거나 특히 군벌주의조성방지(軍閥主義造成防止)와 지휘관의 명령 및 계획의 비준 서명은 통제의 전형적인 예이다.

정치보위국(政治保衛局)

1970년대 이후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와 족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에 저해되는 인물과 요소들을 제거하며 반김일성세력(反金日成勢力)으로 등장할 수 있는 주민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고안해 낸 것이 정치보위부이다. 군(軍)내의 조직을 보면 인민무력부에는 정치보위국장 이, 군단 이하에 정치보위부장이, 대대 이하에는 정치보위지도원이 각각 상주하고 있다. 정치보위부의 주요임무는 ① 반당 반김일성 음모분자를 미연에 색출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② 정보망을 광범위하게 조직하여 간첩을 색출하며 ③ 남한에 공작원을 침투시켜 탐정사업을 적극 강화하는 것 등이다. 특히 이들 임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족벌독재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음모를 사전에 색출하여 체포 숙청하는 것이다.

V. 정치적(政治的) 통제(統制)의 문제점

이상에서와 같이 북한노동당이 인민군을 통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들을 통제기관을 통하여 구사하고 있지만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첫째, 조직상의 문제점이다. 북괴군이 조직체계는 명목상으로는 단일지휘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중지휘체제를 채택함에 따라 공산주의 조직원칙인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모순되고 있다. 둘째, 군대업무의 비능률성이다. 통제를 위해 군 내에 당을 조직함으로써 당원과 비당원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군대에 대한 과도한 통제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특히 정치통제기구들이 군대의 말단 분대에게까지 침투되어 군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여 군업무에 일일이 간섭함으로써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군지휘관들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군사작전지휘상의 불민성(不敏性)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내부 권력 투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1956년 연안파를 숙청할 때 최창익, 김웅, 박창옥 등이 당의 군대로부터 이탈하려 한다는 죄명으로 제거하였는데 이는 당과 군과의 지배관계를 둘러싼 권력투쟁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정치전문성과 군사전문성 간에 빚어지는 갈등문제이다. 이 문제는 북한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이 더 발달되어 있는 소련이나 중국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 등 공산주의 사회가 현대화과정에서 구조적 기능적으로 분화되어가면 갈수록 기술을 강조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은 보다 고차적(高次的)인 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치의 간섭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당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무기가 지니는 위력 때문에 그 무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공산주의사상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은 그 목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데올로기를 기술에 앞서 강조하는 것이다. 이들 양자 간에는 상호보완적인 면과 상호모순적인 면이 동시에 공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공산국가의 군대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로 보인다,

VI. 결론(結論)

북괴군은 노동당에 의하여 조직 편성 지휘되어 왔다. 이러한 북한의 인민군은 노동당독재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하였고 노동당의 독재는 결국 김일성 일인독재를 가져오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노동당과 김일성의 존립기반이 되어 온 북괴군이 그들의 지휘체제로부터 떠날 때는 북한의 권력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군이 군대특유의 조직과 무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군대의 성격상 항상 독자적인 행동과 위치를 찾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노동당은 그들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민군을 항상 노동당의 지휘하에 두려고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모든 공산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공산국가의 속성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소련군에 의해서 처음으로 채택된 정치장교제도는 북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군대를 통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노동당에 의해 수행되는 통제의 수단과 방법은 사상주입 숙청과 테러 권력엘리트의 충원(充員) 등이며 이러한 방법들은 군대의 내외에 조직되어 있는 통제기구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군대의 통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통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정치 통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이익 보다는 이로온 점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으로 모든 일에 최선(最善)을

〈편 집 실(編輯室)〉

1. 부듯한 긍지를 갖자

고통스럽던 일, 즐거웠던 일, 뜻있게 보냈던 일, 혹은 소홀히 지나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간다.

마치 사람이 죽은 뒤에 비로소 그 사람의 가치를 아는 것과 같이 깨닫게 된다.

어느 사상가는 제야를 보내면서 한 해의 3분의 1은 뜻있게 보냈고, 다른 3분의 1은 다만 마음뿐이었으며, 마지막 3분의 1은 후회뿐이었다고 반성하기도 했다.

사람이면 저마다 지난일에 대한 후회가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 타성에 따라서 어정쩡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군인으로서의 반성과 진실한 마음의 결실을 통해 자신을 뜻있게 맞이하리라는 새로운 각오와 준비가 필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모름지기 군인에게는 국가를 보위하고 적과 싸워서 기필코 승리해야 한다는 지고의 사명이 주어져 있으며 그 사명완수에 따른 결과와 책임 또한 실로 막중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찌든듯한 염천 아래서, 혹은 혹한의 추위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불철주야 전술전기를 연마해왔다.

숙명적인 우리의 적과 대치하여 자나 깨나 씨름하고 있다는 막연한 임무수행에 앞서 복귀를 능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들보다 더 우위의 전력을 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방안을 모색하면서 정신전력향상과 군비증강에도 주력해 오는 동안에는 괴로운 일, 짜증나는 일, 또 지루함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땀땀하게 근면 성실하게 주어진 제 몫을 치렀다는 뿌듯한 긍지를 한 아름씩 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라에 대한 충성(忠誠)과 뜨거운 정성에의 보답이 또한 복귀(北愧)의 마수에서 벗어나 자유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게 할 조국통일의 대업을 수행하는 역사가 어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2. 정신전력은 인간 제1의 요소

우리는 여기서 서두르지 말자. 조급하게 불안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 다만 「하면 된다」는 신념과 「무엇이든지 기필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확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믿는다.

약한 것 같으나 말할 수 없이 강한 것이 사람의 정신이라 한다.

그러나 강한 것 같으나 더없이 약한 게 또한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인간생활(人間生活) 중에 자기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지만 자기 마음을 다스리면서 훌륭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실로 무섭고 강한 게 사람의 마음인가 싶다.

그러므로 병영생활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 전우를 위해, 상관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정신은 인간의 행동을 좌우하는 제 일위적인 요소이며 특히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것이 이 정신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적과 싸워서 꼭 이겨야 하고 이겨야만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철칙하에 군인된 우리로서 가져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필승의 신념이라 할 수 있다.

필승의 신념은 「내가 꼭 이긴다」 「기어코 이긴다」는 의지를 말한다.

평소에는 매사를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전투에서는 「기필코 승리한다」는 굳센 각오인 것이다.

전쟁의 천재라고 불리는 나폴레옹에게 무참히 패배한 프러시아는 왜 졌는가를 엄숙히 반성하면서 나폴레옹 타도 비책(秘策)을 연구하여 소위 대 나폴레옹 전략이라는 것을 꾸며냈다.

나폴레옹은 도망만 다니는 프러시아군을 앞잡아 보고는 50만이나 되는 병력을 10만으로 감축함으로써 이 때의 판단착오로 일대 회전에서 전승의 기록에 먹칠을 했던 반면, 프러시아는 싸우지 않고서도 40만명의 프랑스군을 죽일 수 있었던 전략적 승리를 가져왔으며 특히 나폴레옹에 대항하여 꼭 복수를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전략을 연구하고 끈질긴 공격정신으로 결국은 승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프러시아의 투철한 신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정신무장으로 희망찬 하루를

우리는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고한 사명감과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의식을 길러야 하겠다.

사나이 일생을 한 절개에 걸고 6.25를 맞아 싸운 선배 장병들의 충절이 한갓 의협심에서 비롯된 것은 결코 아니리라.

용감히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희생정신은 바로 책임의식에서 우러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실천적인 사명완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둘째, 평소 교육훈련을 통해 고도의 전술전기와 투지를 연마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적보다 모든 면에서 우세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전술전기와 투지면에서 그들보다 월등히 앞서야 한다.

그러기에 항상 강조되고 있는 실전적인 교육훈련과 임무위주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확고부동한 멸공의식을 가지고 북괴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야 하겠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불구대천의 원수는 과연 누구인가? 분노에 못이겨 이 가슴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자들은 그 누구인가? 신념을 하루같이 밤이나 낮이나 철책을 품에 안고 북녘을 감시해야만 하는 이 안타까운 시련을 누구의 책임이라고 못박아야 하는가? 철천지 원수! 바로 북한 북괴이다.

이 흉악범을 용서하기 이전에 원수를 갚아야 한다. 싸워 이기기 전에 확고한 사상무장부터 해야 한다.

저들의 심장 구석구석을 파헤칠 수 있는 해안과 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보위의 최첨단에서 언젠가는 닥쳐 올 북괴군과의 결전에 대비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견지하고 고도의 전술전기를 연마하는데 한 치의 게으름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정신무장은 만발의 포탄보다도 강하다는 깊은 의미를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곧 내나라 우리 겨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내 자신의 생존과 행복이 보장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60만 전 장병은 실로 건강하고 힘차다.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젊음과 건강과 가능성을 조화시켜 커다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지가 필요하며 해 보겠다는 신념과 기필코 성취하겠다는 투지와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리라.

애석한 마음으로 오늘을 보내기 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내일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무엇인가 남보다 다르고 값있고 후회없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호랑이처럼 6척 앞을 내다보며 황소처럼 천천히 그러나 착실하게 우직하게 한발 한발을 내딛으며 살아야 하리라. 찬란히 밝아오는 동녘의 태양을 우리의 가슴 속에 의지의 활화산으로 불 붙여 올해는 더욱 충직하고 자랑스러운 대한의 용사가 되자.

하면 된다 신념(信念)살려

복지농촌(福祉農村) 전 설을

정훈교육자료

남·북한(南·北韓)의 통일방안 및 통일 접근자세 비교 고찰 (統一方案 및 統一 接近姿勢 比較 考察)

서 광 주
(문교부 사무관)

I. 머리말

'70년대의 눈부신 경제성장(經濟成長)과 함께 국력신장(國力伸張)을 이룬 우리는, '80년대에 들어서서 더욱 큰 자신감(自信感)과 국민적(國民的) 여망(輿望)으로 현실적(現實的)이고 포용적(包容的)인 통일방안(統一方案)으로서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을 제시(提示)하고, 대화(對話)와 협상(協商)을 통해 민족(民族)의 현안문제(懸案問題)와 통일문제(統一問題)를 협의(協議), 해결(解決)할 것을 거듭 촉구(促求)하고 있는데 대하여 북한(北韓)은 대남적화(對南赤化) 전략(戰略)의 일환(一環)으로 위장평화통일선전(僞裝平和統一宣傳)만을 되풀이하면서, 이른바 「선결조건(先決條件)」의 실현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現狀)은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데올로기에서 보는 통일관(統一觀), 통일(統一)의 개념규정(概念規定), 통일(統一)의 과정(過程) 등이 우리의 평화적(平和的)이고 상호주의적(相互主義的)인 통일관(統一觀) 또는 통일접근방법(統一接近方法)과 근본적(根本的)으로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남북한(南北韓)의 통일방안(統一方案)과 통일접근자세(統一接近姿勢)의 비교(比較)를 통하여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론적(理論的) 원리적(原理的) 측면(側面)과 그 실현(實現)을 위한 현실적(現實的) 접근방법(接近方法) 측면(側面)에서 양자(兩者)의 차이(差異)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 통일방안(統一方案)의 합리성(合理性)·현실성(現實性) 그리고 포용성(包容性)을 확인(確認)하고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의 허구성(虛構性)과 기만성(欺瞞性), 나아가서는 그 혁명전략성(革命戰略性)을 깊이 인식(認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들의 선전(宣傳)에 대한 역공격논리(逆攻擊論理)를 정립(定立)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기 때문이다.

II. 통일정책(統一政策)의 다각적(多角的) 비교(比較)

1. 통일방안(統一方案)의 구조면(構造面)

통일방안(統一方案)이란 그 성질상(性質上) 통일(統一)의 목표(目標)를 제시(提示)하고 이 목표(目標)에 도달(到達)함에 있어, 어떤 정책기조(政策基調)(원칙(原則))을 구현(具現)하여, 어떤 과정(過程)과 절차(節次), 어떤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으로써 목표달성(目標達成)을 하겠다는 것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제시(提示)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구조적 특성은 목표(目標)에 이르기까지의 방법(方法)을 제시(提示)하는데 있다.

우리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적(構造的) 요건(要件)들을 갖추고 있다.

통일(統一)의 목표(目標)(단일주권국가(單一主權國家))를 제시(提示)하고 통일(統一)의 3원칙(原則)(민족자결(民族自決)·민주(民主)·평화(平和)의 원칙(原則))을 구현(具現)하여 민주적(民主的) 절차(節次)와 평화적(平和的) 방법(方法)으로 통일(統一)을 완성(完成)하기까지의 구체적(具體的)인 과정(過程)과 절차(節次),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을 체계적(體系的)으로 제시(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反)하여 「북한(北韓)이 제시(提示)한 소위(所謂),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創立方案)」은 통일(統一)의 목표(目標)(연방국가(聯邦國家))를 제시하고 통일후(統一後)의 정책방향(政策方向)(10대시정방침(大施政方針))은 선전(宣傳)하고 있지만, 통일(統一) 「방안(方案)」의 본령(本領)인 목표(目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過程)과 절차(節次)가 제시(提示)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선결조건(先決條件)」으로 상대방(相對方) 체제(體制)를 부정(否定)하고 있어서 결과적(結果的)으로는 모든 것을 공허(空虛)하게 만들고 있다. 구조적(構造的)으로 「통일방안(統一方案)」이 될 수 없으며, 더욱이 본질적으로 평화통일방안(平和統一方案)이 아닌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가 여기에 있다.

2. 통일(統一)의 개념면(概念面)

분단직후(分斷直後)의 남북한사회(南北韓社會)가 오늘과 같이 달라지기 이전에는 외형적(外形的) 통일(統一) 만으로도 충분(充分)하겠지만, 분단(分斷)이 길어지고 동족상잔(同族相殘)의 6·25남침(南侵)으로 인하여 민족(民族)의 가슴에 반목(反目)과 불신(不信), 적대감정(敵對感情)과 원한(怨恨)이 맺히고 특히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민족이질화(民族異質化) 정책(政策)으로 남북한사회(南北韓社會)는 가치관(價值觀)·생활양식(生活樣式)·행동규범(行動規範)·사회체제(社會體制) 등 모든 면(面)에서 상극적(相剋的)인 오늘에 이르러서는 외형적(外形的) 통일(統一)만으로는 민족(民族)의 통일(統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南北韓) 동포(同胞)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고 민족화합(民族和合)을 실현하여 서로 다른 의식구조(意識構造)와 사회질서(社會秩序)를 융합(融合)시켜 민족운명공동체(民族運命共同體)로 통합(統合)시키는 실질적(實質的) 통일(統一), 즉 내면적(內面的) 통일(統一)이 외형적(外形的) 통일(統一)과 병행(並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내면적(內面的) 통일(統一)과 외형적(外形的) 통일(統一)을 결합(結合)하는 민족통일(民族統一)의 개념(概念)을 정립(定立)하고 이러한 통일(統一)로 결과(結果)된 상태(狀態)는 민족(民族)의 이익(利益)과 발전(發展)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은 통일(統一)을 혁명(革命)의 개념(概念)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공산당(共產黨) 간부(幹部)와 남파공작원(南派工作員)들에게 내린 「비밀교시(秘密敎示)」에서 『조국통일(祖國統一)이라는 말은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을 전제로 하는 조선반도(朝鮮半島) 전체(全體)의 공산화(共產化)』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즉 통일(統一)의 전제(前提)로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거쳐 궁극적으로 한반도(韓半島) 전체(全體)가 공산화(共產化)되는 것을 통일(統一)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통일관(統一觀)이 다르기때문에 통일(統一)의 목표(目標)·원칙(原則)·방법(方法)·접근자세(接近姿勢)도 판이하게 다르다.

3. 통일(統一)의 목표면(目標面)

우리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에서는 통일(統一)의 목표(目標)를 민족(民族)·민주(民主)·자유(自由)·복지(福祉)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국(統一民主共和國)」이라고 밝혔다. 즉 하나의 국회(國會)와 하나의 정부(政府)를 수립(樹立)하는 단일민족국가(單一民族國家)를 완성(完成)하려는 것이다. 이 통일국가(統一國家)는 민족(民族)·민주(民主)·자유(自由)·복지(福祉)의 이상(理想)을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明示)하여 통일국가(統一國家)의 이념적(理念的) 지표(指標)를 제시(提示)하였을 뿐 아니라 통일조국(統一祖國)의 미래상(未來像)을 선명(鮮明)하게 밝힌 것이다. 「민족(民族)」의 이념(理念)은 우리 민족(民族)의 영원(永遠)한 생존(生存)과 번영(繁榮)과 자유(自由)를 위한 주체적(主體的) 이념(理念)이며, 다른 이념(理念)의 상위개념(上位概念), 즉 기본이념(基本理念)에 해당한다. 「민주(民主)의 이념(理念)은 인간(人間)의 기본권(基本權)이 보장되고 국민(國民)의 평등(平等)하게 정치(政治)·경제(經濟)·사회(社會)·문화(文化) 등 모든 영역(領域)에서 국가(國家)의 주인(主人)이 되는 민주국가(民主國家)의 원리(原理)이며, 「자유(自由)」는 모든 국민(國民)에게 균등(均等)한 기회(機會)가 주어지는 자유국가(自由國家)의 이념(理念)이요, 복지(福祉)는 국민(國民) 모두에게 보장되고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확립(確立)된 정의(正義)롭고 풍요로운 사회(社會)의 이상적(理想的) 지표(指標)이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이 추구하는 통일(統一)의 목표(目標)는 겉으로는 「민주연방공화국

(民主聯邦共和國)」을 내세우고 있지만, 반민족적(反民族的)인 마르크스·레닌주의(主義)로 공산화(共產化)하여 자유(自由)도 민주(民主)도 복지(福祉)도 없는 공산독재체제(獨裁體制)를 확산(擴散)하려는 것이다.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에 의하면 남북한에 두 개의 「지역자치정부(地域自治政府)」가 연방정부(聯邦政府)와 함께 존속하는 연방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선결조건(先決條件)」에서 마각(馬脚)을 드러내고 있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북(北)쪽의 공산정권(共產政權)과 남(南)쪽의 연방정권(聯邦政權)이 합자하여 공산화통일(共產化統一)로 가는 것을 기본목표(基本目標)로 하고 있다.

4. 통일(統一)의 주체면(主體面)

우리는 통일(統一)의 주체(主體)를 우리 6천만민족(千萬民族) 전체(全體)로 보고 있다. 우리는 민족(民族)이 영원(永遠)히 생존(生存)·번영(繁榮)하고 민족(民族)의 자유(自由)를 향유(享有)하기 위해 통일(統一)하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히 통일(統一)의 주인공(主人公)은 민족성원(民族成員) 전체(全體)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통일(統一)의 주체(主體)를 민족(民族)으로 보는 것은 진정한(眞正)한 역사추진(歷史推進)의 주체(主體)는 계급(階級)이 아닌 민족(民族)이기 때문에 통일(統一)의 주체(主體)도 민족(民族)이어야 한다는 당위적(當爲的) 논리(論理)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북한공산주의자(北韓共產主義者)들도 통일문제(統一問題)를 운위(云謂)함에 있어서는 민족(民族)이라는 용어(用語)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통일(統一)과 관련하여 민족(民族)을 표방함으로써 마치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추구하고 있는 듯한 인상(印象)을 주려고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공산화통일(共產化統一)을 위장하려는 술책(術策)에 불과하다. 그들은 민족의식(民族意識) 대신 계급의식(階級意識)을 고취하고, 민족(民族)이 아닌 노동계급(勞動階級)을 앞세우고 있다. 북한(北韓)도 다른 공산국가(共產國家)와 마찬가지로 민족(民族)을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실현에 의하여 소멸(消滅)시켜야 하는 자본주의(資本主義)의 잔재(殘滓)로 보고 있다. 그들의 민족(民族) 개념(概念)은 레닌과 스탈린의 이른바 『민족(民族)에의 접근(接近)과 융합(融合)』이라는 민족이론(民族理論)과 전술(戰術)을 모방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한반도(韓半島)에는 이미 프롤레타리아적(的) 민족(民族)과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민족(民族)이라는 2개(個)의 민족(民族)이 형성(形成)되어 있으며, 이러한 두 민족(民族)의 분계(分界)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方途)가 접근(接近)이며, 이 접근(接近)이 과정(過程)을 통해 비공산주의적(非共產主義的) 민족(民族)을 해체(解體)하고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인간집단(人間集團)에로의 「융합(融合)」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상투적 구호(口號)인 「민족적(民族的) 단결(團結)에 의한 통일(統一)」도 결코 단일민족(單一民族)에의 겸허한 귀의(歸依)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선적(獨善的)인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일체성(一體性)에의 접근(接近)과 융합(融合)을 목표(目標)로 하는 기만(欺瞞)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民族)이라는 용어(用語)를 자주 쓰는 이유는 우리의 강한 민족의식(民族意識)에 편승(便乘)하고 영합(迎合)하려는 계략(計略)에서 연유(緣由)한다.

5. 통일(統一)의 원칙면(原則面)

우리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에서는 통일(統一)의 원칙(原則)으로 민족자결(民族自決)의 원칙(原則), 민주(民主)의 원칙(原則), 평화(平和)의 원칙(原則)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은 통일(統一)의 기본적(基本的) 수단(手段)으로 무력(武力)과 폭력(暴力)을 포함시키고 있다.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데올로기적(的) 본성(本性)과 그 전략(戰略)·전술(戰術)에 연유(緣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주(自主)」, 「평화(平和)」, 「민주(民主)」를 통일(統一)의 원칙(原則)으로 표방하다가,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와 관련해서는 「자주(自主)」, 「평화통일(平和統一)」, 「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을 통일원칙(統一原則)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자주원칙(自主原則)」은 순전히 주한미군(駐韓美軍)의 철수(撤收)를 노리는데 있다. 즉 한반도(韓半島)에서 외세(外勢)를 배격하기 위해서 미군(美軍)을 철수시켜야 하고 미군(美軍)이 한반도문제(韓半島問題)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주(自主)」를 내세우는 그들이 통일문제(統一問題)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政府)를 배제한 채 미국(美國)과의 직접대화(直接對話)를 기도(企圖)하고, 미국(美國)과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국(美國)을 외세(外勢)라 하여 물러가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 「외세(外勢)」와의 직접협상(直接協商)을 하겠다는 엄청난 모순(矛盾)을 범(犯)하고 있다.

그들의 「평화(平和)」라는 것도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론(理論)에 의하면, 공산주의(共產主義)를 반대(反對)하는 세력(勢力), 즉 모든 자본주의국가(資本主義國家)가 소멸된 상태를 평화(平和)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1980년(年)부터는 이 「평화(平和)」가 「평화통일(平和統一)」로 탈바꿈하여, 「연방제(聯邦制)」가 곧 「평화통일(平和統一)」이라는 등식(等式)으로 연결(連結)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은 통일전(統一前)의 교류(交流), 협력(協力)을 통한 민족적(民族的) 신뢰회복(信賴回復)과 민족적(民族的) 단결(團結)에 이바지하는 「통일(統一)의 원칙(原則)」이 아니라 「연방제(聯邦制)」로 통일(統一)한 뒤에 실시하겠다는 이른바 「10대 시정단결(大施政團結)」과 연관(聯關)되어 있다. 본래 저들의 「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이란 반공안보태세(反共安保態勢)를 풀고 공산주의(共產主義)와 손잡는 것, 즉 「연공합작(聯共合作)」의 대명사(代名詞)에 불과(不過)한 것이지만, 「7·4 남북공동성명(南北共同聲明)」에서 합의(合意)한 「통일(統一)의 원칙(原則)」인 자주(自主)·평화(平和)·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

을 근래(近來)에는 자주(自主)·평화통일(平和統一)·민족대단결(民族大團結)로 변질(變質)시켜,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 「선결조건(先決條件)」, 「연방제통일(聯邦制統一)」, 「10대 시정방침(大施政方針)」을 뒷받침하는 수난(愁亂)도 악용(惡用)하고 있다.

6. 통일(統一)의 과정(過程) 및 절차면(節次面)

우리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에서는 남북한(南北韓)의 각계(各界) 민족대표(民族代表)들이 한 쪽에서는 민주통일작업(民主統一作業)을 추진하고, 한 쪽에서는 민족화합(民族和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制度的) 장치(裝置)를 마련하여 마침내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완성(完成)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헌법(統一憲法)을 제정(制定)하여 이에 따른 단일주권국가(單一主權國家)로 통일(統一)하는 것을 목표(目標)로 하고, 이 작업(作業)을 순조롭게 하는 민족화합(民族和合)의 분위기 마련도 함께 하는 접근방법(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에 의하면 남한(南韓)의 반공정부(反共政府)를 무너뜨린 뒤, 연공정권(聯共政權)을 세우고, 모든 반공태세(反共態勢)를 와해시키며, 미군(美軍)을 철수시키기 위해 그들과 미국(美國) 사이에 평화협정(平和協定)을 체결하는 등으로 소위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을 먼저 실현하고, 이 연공정권(聯共政權)을 먼저 실현하고, 이 연공정권(聯共政權)과 합작(合作)하여 전한반도(全韓半島)를 공산화(共產化)하려는 것이다.

통일(統一)의 실현 절차에 있어서도, 우리는 「민족통일협의회의(民族統一協議會議)」구성 → 「통일헌법(統一憲法)」기초(起草) → 국민투표(國民投票)에 의한 「통일헌법(統一憲法)」확정(確定) → 통일(統一) → 헌법에 따른 총선(總選) → 통일국가(統一國家) 완성(完成)이라는 구체적인 과정(過程)과 절차(節次)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의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에 의하면 남한(南韓)의 정당(政黨)·사회단체대표(社會團體代表), 해외동포대표(海外同胞代表)로써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 「민족통일촉진대회(民族統一促進大會)」,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라는 이름의 군중대회(群眾大會)를 열어 연방제(聯邦制)를 논의(論議)하자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대표(政府代表)와 그들을 반대(反對)하는 특정인사(特定人士)를 참가(參加)할 수 없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방국가(聯邦國家)의 국호(國號), 정치이념(政治理念), 정부형태(政府形態) 등 기본적인(基本的)인 사항(事項)을 그들이 일방적(一方的)으로 결정(決定)·발표(發表)해 놓고, 무조건(無條件) 따라오라는 일방통행식(一方通行式)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반민족성(反民族性)과 비민주성(非民主性)이 여실(如實)히 드러나 있다.

7. 기타 통일접근면(統一接近面)의 제문제(諸問題)

가. 전제조건문제(前提條件問題)

우리는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순리적으로 해결하여 민족(民族)의 염원(念願)을 실현하고자 통일문제(統一問題)를 협의(協議)에 관해 항상 대승적(大乘的)인 자세(姿勢)를 취하여 왔다. 남북(南北)이 상대방(相對方)의 내부문제(內部問題)와 과거(過去)의 잘잘못에 대하여 시비(是非)함이 없이 현실인정(現實認定)의 바탕위에서 아무런 조건(條件)없이 만나서 모든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하자는 입장(立場)이다. 우리의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이나 「남북한당국(南北韓當局) 최고책임자회담(最高責任者會談)」 등 어떤 대북(對北) 제의(提議)에 있어서는 전제조건(前提條件)을 붙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회담장소(會談場所)나 시기선택(時期選擇)의 문제(問題) 등을 북한측(北韓側)에 일임(一任)하고, 의제(議題)도 쌍방(雙方)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問題)를 토의할 것을 제기함으로써 아량(雅量)을 보여 왔다.

그러나 북한측(北韓側)은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안(案)을 비롯하여 모든 대남제의(對南提議)에 있어 우리가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선결조건(先決條件) 또는 전제조건(前提條件)을 붙이고 있다. 전제조건(前提條件)의 내용(內容)은 주로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 우리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폐지, 공산주의활동(共產主義活動)의 합법화(合法化), 대화상대(對話相對)로서 우리 정부당국(政府當局) 또는 특정인사(特定人士)의 배제(排除) 등이다. 이는 우리 국론분열(國論分裂)과 적화통일여건(赤化統一與件)을 조성(造成)하려는 저의(底意)에서 나온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나. 상호인정문제(相互認定問題)

우리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에서는 「남북한(南北韓) 기본관계(基本關係)에 관한 잠정협정(暫定協定)」의 체결을 통해, 통일될 때까지 쌍방(雙方)이 호혜평등(互惠平等)의 원칙(原則)에 입각하여 상호관계(相互關係)를 유지하고, 쌍방(雙方)은 서로 다른 상대방(相對方)의 정치질서(政治秩序)와 사회제도(社會制度)를 서로 인정(認定)하며 상대방(相對方)의 내부문제(內部問題)에 관해 일절(一切) 간섭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남북(南北)이 통일될 때까지는 서로 상대방(相對方)을 대화(對話)와 통일(統一)의 대상(對象)으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모든 문제(問題)를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平和的)으로 해결하여 나가자는 것이다. 평화적(平和的) 통일(統一)은 대화(對話)와 협상(協商)으로써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相對方)에 대한 인정(認定)이 전제(前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상대방(相對方)의 내부문제(內部問題)에 대한 간섭·시비는 불화(不和)와 반목(反目)만을 가중(加重)시키고 민족화합(民族和合)을 저해하는 요인(要因)이다.

그러나 북한(北韓)은 모든 대남관계(對南關係)에서 우리 체제(體制)를 부정(否定)하고, 「해방(解放)」의 대상으로 선전(宣傳)하고 있다. 「고려연방제(高麗聯邦制)」의 「선결조건(先決

條件)」도 그 좋은 예이다. 더우기 우리의 내부문제(內部問題)에 대하여 비방(非謗)과 왜곡(歪曲), 간섭(干涉)을 계속할 뿐 아니라 요인암살(要人暗殺)·파괴·전복활동 등 나라 안팎에서 도발(挑發)을 자행하여 남북관계(南北關係) 개선(改善)과 평화통일(平和統一)을 막고 있다.

다. 대화기구문제(對話機構問題)

우리의 「민족통일협의회(民族統一協議會議)」는 남북(南北) 쌍방(雙方)의 당국대표(當局代表) 뿐 아니라 각계(各界) 민족대표(民族代表)로 구성하여 「통일헌법(統一憲法)」의 기초(起草) 등 통일작업(統一作業)을 협의(協議)·추진하려는 것이며, 「최고책임자회담(最高責任者會談)」은 남북(南北)의 정상(頂上)이 만나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의 정상화문제(正常化問題)와 통일추진(統一推進)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협의(協議)하려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한간(南北韓間)에는 정치(政治)·군사(軍事)·국제문제(國際問題) 등 쌍방(雙方) 통치권자(統治權者) 만이 해결(解決)할 수 있는 현안문제(懸案問題)가 있는가 하면, 남북(南北)의 각계대표(各界代表)가 협의해결(協議解決)해야 할 민족(民族)의 장래문제(將來問題)로서의 통일문제(統一問題)가 있다. 이 민족통일(民族統一)과 민족화합(民族和合)의 실마리는 정상회담(頂上會談)에서 가장 효율적(效率的)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민족통일협의회(民族統一協議會議)」 등 대화기구(對話機構)의 구성에 있어, 그 대표선정(代表選定)에 간섭하거나 조건(條件)을 붙일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북한측(北韓側)은 대화기구(對話機構)로서 소위 「대민족회의(大民族會議)」, 「민족통일촉진대회(民族統一促進大會)」, 「남북정치인(南北政治人) 100인연합회의(人聯合會議)」, 「남북(南北) 정당당(諸政黨)·사회단체(社會團體) 연석회의(連席會議)」, 「전민족대회(全民族大會)」 등 실질적(實質的) 협의기구(協議機構)가 아니라 군중대회(群眾大會)를 열어 정치선전장(政治宣傳場)을 만들려는 상투적 수법(手法)을 제시(提示)하고 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회의장(會議場)에서 고려연방제창립(高麗聯邦制創立)을 준비하자거나, 「선결조건(先決條件)」의 실현문제를 토의(討議)하자고 하면서 가소(可笑)롭게도 우리측(側) 대표(代表)의 선정(選定)에 간섭(干涉)하거나 심지어는 일방적(一方的)으로 지명발표(指名發表)하는 등의 파렴치(破廉恥)한 작태(作態)를 보이고 있다.

라. 교류(交流)·협력(協力) 및 사회개방문제(社會開放問題)

우리는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교류(交流)·협력(協力) 및 사회개방(社會開放)이 민족화합(民族和合)과 평화통일(平和統一)의 기반(基盤)이 된다는 인식(認識)에서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이를 촉구(促求)하여 왔다. 「민족화합(民族和合) 민주통일방안(民主統一方案)」에서도 남북간(南北間)의 인적왕래(人的往來)와 다각적(多角的)인 교류(交流)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류(交流)·교통(交通)·우편(郵便)·교육(教育)·문화(文化)·보도(報道)·보건(保健)·기술(技術)·환경보존(環境保存) 등 제분야(諸分野)에서 협력(協力)할 것을 제의하였고, 또 「20개(個)

시범실천사업(示範實踐事業)」제외에서도 사회개방(社會開放)과 교류(交流)·협력(協力)의 증진(增進)을 위한 구체적(具體的)인 사업(事業)들을 제시하였다.

이에 반해, 북한(北韓)은 이른바 「고려연방(高麗聯邦) 10대시정방침(大施政方針)」에서 합작(合作)과 교류(交流)를 실시하고자 주장하면서도 이를 연방제(聯邦制) 통일(統一) 뒤에 시행하겠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당장 교류(交流)·협력(協力)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연방제(聯邦制) 통일(統一) 즉 그들이 노리는 적화통일(赤化統一)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것으로 아무런 의미(意味)도 없는 공허(空虛)한 정치선전(政治宣傳)에 불과한 것이다.

더우기 저들은 남북간(南北間)에 쉽게 합의(合意)할 수 있고 당장 실천(實踐)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20개(個) 시범실천사업(示範實踐事業)」제외에 대하여, 이는 그들이 제의한 많은 방안중(方案中)의 일부(一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를 『분열(分裂)을 지속시키는 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라고 비난(非難)·거부함으로써,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적(自家撞着的)인 모순(矛盾)을 드러내 놓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남북한(南北韓)의 통일방안(統一方案) 및 통일접근자세(統一接近姿勢)의 차이(差異)를 정리(整理)하면 뒷 일람표(一覽表)와 같다.

남북한(南北韓)의 통일방안(統一方案) 및 통일접근자세(統一接近姿勢) 비교(比較) 일람표(一覽表)

區 分 要 素 別		韓	北
理 論 面	統一의 概念	民族의 再統一	全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의 目標	單一主權國家(民族·民主·自由·福祉)	聯邦制(地域自治制)(吸收 赤化 虛意)
	統一의 主體	民 族	勞動階級 포방(共產黨 및 同調勢力)
	統一의 原則	民族自決·民主·平和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美軍철수)(獨裁)(聯共)
	統一의 過程(方法·節次)	民族和合·民主統一(同時推進)	先, 南朝鮮革命後, 吸收赤化
實 際 面	前提條件問題	無條件 對話促求	先決條件 主張
	相互認定問題	實體로서 認定	體制否定
	對話機構問題	實質的 協議體	群衆大會(宣傳場)
	交流·協力問題	당장實施	聯邦制실현 뒤

Ⅲ. 통일(統一)의 전망(展望)

1. 통일(統一)의 촉진요인(促進要因)과 저해요인(沮害要因)

우리 통일문제(統一問題)에는 통일촉진(統一促進)에 작용(作用)할 수 있는 긍정적(肯定的)인 요인(要因)과 통일(統一)을 저해(沮害)할 수 있는 부정적(否定的) 요인(要因)이 병존(並存)하고 있다.

먼저 긍정적(肯定的) 요인(要因)을 열거(列舉)하면,

첫째, 우리 민족(民族)의 5천년(千年)의 단일민족사(單一民族史)에서 비롯된 통일(統一)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인식(認識)과 통일(統一)의 의지(意志)를 들 수 있다. 유구(悠久)한 민족사(民族史) 속에서 형성(形成)된 단일민족의식(單一民族意識)이 강(強)하고, 숙명적(宿命的)·정감적(情感的)인 민족감정(民族感情)이 면면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한(北韓)의 민족이질화 정책(民族異質化政策)에도 불구하고 통일(統一)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인식(認識)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北韓)의 체제내적(體制內的) 정세변화(情勢變化)에서 긍정적요인(肯定的要因)을 찾을 수 있다.

정치적(政治的)인 면(面)에서 김일성(金日成) 사후(死後)에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가 등장(登場)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상대적(相對的)으로 이데올로기보다는 합리적(合理的) 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 노선(路線)으로의 전환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오늘날 북한(北韓)에서는 내외적(內外的) 저항(抵抗)에도 불구하고 김일성(金日成) 부자세습체제(父子世襲體制) 형성(形成)이 강화(強化)되고 있으나, 이것이 성공(成功)한다 하더라도 김일성(金日成) 사후(死後)에는 김정일(金正日)의 자질(資質)과 경력(經歷)으로 보아 김일성(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적(的) 통치(統治)가 불가능하여 마침내 집단지도체제(集團指導體制)로 바뀔 개연성이 높다. 스탈린 사후(死後)의 소련, 모택동(毛澤東) 사후(死後)의 중공(中共), 티토 사후(死後)의 유고, 호志明(胡志明) 사후(死後)의 월남(越南)에서도 이상과 같은 실례(實例)를 찾을 수 있다.

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북한(北韓)의 자급자족적(自給自足的) 폐쇄경제체제(閉鎖經濟體制)는 이미 한계(限界)에 부닥쳐 「합영법(合營法)」이 입증(立證)해 주듯이 서방(西方)의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도입(導入)하지 않을 수 없는 경제난국(經濟難局)을 맞고 있다. 서방(西方)의 자본(資本)과 기술(技術)을 도입(導入)한다는 것은 국제교역(國際交易)과 인적(人的) 왕래(往來)의 폭이 넓어져서 외래사조(外來思潮)의 유입(流入)을 불가피(不可避)하게 하고 주민(住民)의 의식구조(意識構造)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사회적(社會的)인 면(面)에서 북한주민(北韓住民)의 복지생활수준(福祉生活水準)의 낙후상(落後相)은 최근 체제이탈(體制離脫) 또는 체제(體制)에 대한 저항현상(抵抗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 외계정보(外界情報)와의 접촉이 많아지면, 복지(福祉)에 대한 욕

구(欲求)는 더욱 증대되고 이른바 「반혁명(反革命)·반체제(反體制)」 운동이 더욱 노골화될 것이다.

군사적(軍事的)인 면에서도, 북한(北韓)의 경제난(經濟難)이 군사비(軍事費)에 과중(過重)한 투자(投資)를 할 수 없게 만들고, 주민(住民)의 복지(福祉)에 대한 기대수준(期待水準)이 높아 질수록 군사비(軍事費) 부담능력(負擔能力)을 잃게 하여 마침내 군장비(軍裝備)의 노후화(老朽化)로 전쟁능력(戰爭能力)도 제약(制約)될 것이다.

셋째, 국제환경적(國際環境的) 측면(側面)에서도 통일(統一)에 긍정적(肯定的)인 요인(要因)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주변(周邊) 강대국(強大國)이 한반도(韓半島)에서의 평화(平和)와 안정(安定)을 바라고 남북한간(南北韓間)의 대화(對話)와 교류(交流)·협력(協力)에 긍정적(肯定的)이다.

또한 우리 민족(民族)이 주변국(周邊國)의 이익(利益)을 해(害)롭게 하지 않는 방향(方向)으로 통일(統一)을 추구할 때, 저들이 우리의 통일(統一)을 가로막을 명분(名分)과 실익(實益)이 없어지는 국제질서(國際秩序)와 국제환경(國際環境)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것이 독일(獨逸)의 통일(統一)환경과 다른 우리의 통일환경(統一環境)이다.

끝으로, 보다 소중(所重)한 긍정적(肯定的) 요인(要因)은 우리의 주체적(主體的) 통일역량(統一力量)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정치적(政治的) 선진화(先進化) 지속적(持續的)인 경제발전(經濟發展), 복지사회(福祉社會) 건설(建設), 문화창달(文化暢達), 군사력(軍事力)의 보강(補強) 등 「선진조국(先進祖國)」을 향한 우리의 협력(協力)이 남북한(南北韓)의 총력(總力) 비교(比較)에서의 우리의 압도적(壓倒的) 우세(優勢)를 확보(確保)하였을 때, 이것은 곧 통일(統一)의 준거기준(準據基準)이 되고 주도역량(主導力量)이 되어 정치적(政治的)·경제적(經濟的)·문화적(文化的) 영향력이 북한(北韓)에 미치고, 국제적(國際的) 평화통일기반(平和統一基盤)을 조성(造成)하고 내외(內外)에 선양(宣揚)하는 계기(契機)가 된다.

반면 통일저해요인(統一沮害要因) 또는 부정적(否定的) 요인(要因)도 상존(尙存)하고 있다. ①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대남적화전략(對南赤化戰略)의 견지(堅持) ② 김정일(金正日)의 모험주의(冒險主義) 또는 내부모순(內部矛盾) 타개수단(打開手段)으로서 예상(豫想)되는 대남도발(對南挑發) 위험성(危險性), ③ 소련의 군사팽창주의(軍事膨脹主義)가 작용(作用)하는 대리전쟁(代理戰爭) 도발(挑發) 가능성(可能性), ④ 북한주민(北韓住民)에 대한 정치교화(政治教化)로 인한 반민족(反民族)·반평화사상(反平和思想)의 내면화(內面化)와 민족이질화(民族異質化)의 심화(深化) 등이 그것이다.

2. 단기(短期) 및 중(中)·장기적(長期的) 전망(展望)

가까운 시일(時日) 안에 남북한관계(南北韓關係)가 개선(改善)되거나 교류(交流)·협력(協力)을 통한 민족화합(民族和合)에 진전(進展)이 있을 조짐은 없다.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

團)의 대남전략(對南戰略)에 아무런 변화(變化)의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중계략(二重計略)으로 대남침투공작(對南浸透工作)과 전복활동(活動)을 격화(激化)시키면서 이를 「자작극(自作劇)」 또는 「내부(內部) 소요(騷擾)」로 날조 선전하면서 국제적(國際的)으로는 위장평화(僞裝平和) 이미지를 부각(浮刻)시키기 위하여 평화전술(平和戰術)을 구사 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기 위하여 상당기간(相當期間) 남북대화(南北對話)에 호응(呼應)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정치선전장(政治宣傳場)으로 만들거나 전가(轉嫁)시키는 비방선전(誹謗宣傳)을 일삼을 것이다. 단기적(短期的)으로는 북한(北韓)의 「합영법(合營法)」이나 「대화호응(對話呼應)」이 그들의 개방화(開放化)나 남북관계(南北關係)의 개선(改善)이라는 긍정적(肯定的) 측면(側面)보다는 대남적화혁명역량(對南赤化革命力量)의 강화(強化)와 그 기간(期間)을 연장(延長)하는 부정적(否定的) 요인(要因)으로 작용(作用)할 것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 시기(時期)에는 내부모순(內部矛盾)의 타개책(打開策)으로 또는 국제정세(國際情勢)의 혼미(昏迷)에 편승(便乘)하거나 소련의 사주(使喚)에 의한 전쟁도발(戰爭挑發) 가능성(可能性)도 있다. 이것이 단기적(短期的) 전망(展望)이다.

그러나 80년대(年代) 후반의 중(中)·장기적(長期的) 전망(展望)은 우리 한반도(韓半島)에서의 평화정착(平和定着), 남북한간(南北韓間)의 관계개선(關係改善), 나아가서는 평화통일(平和統一)에 밝은 요인(要因)들을 찾아 낼 수 있다.

첫째, 1980년대말(年代末)에는 남북한(南北韓)의 국력격차(國力隔差)는 더욱 확대(擴大)되어 우리 국력(國力)이 북한(北韓)을 압도(壓倒)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사비투자(軍事費投資)누계가치면(累計價値面)에서 본 남북군사력(南北軍事力)의 균형(均衡)이 이루어질 것이고, 둘째는 북한(北韓)이 군사비부담(軍事費負擔)(GNP의 25% 수준(水準))을 줄여서 경제건설(經濟建設)에 전용(轉用)하지 않는 한(限), 그리고 합리적(合理的)·실용주의적(實用主義的)·경제정책노선(經濟政策路線)으로 바꾸지 않는 한(限) 경제난국(經濟難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노선(路線)을 수정(修正)하는 경우에는 외래(外來)의 자유(自由)·개방(開放)의 사조(思潮)가 유입(流入)되어 모험주의적(冒險主義的) 노선(路線)과 정치(政治) 사상성(思想性) 주입(注入)에 의한 사회통제(社會統制)가 제약(制約)을 받는 이중적(二重的) 딜레마에 빠질 것이며, 셋째는 중장기적(中長期的)인 국제정세(國際情勢)도 긍정적(肯定的)이다. ① 작금(昨今)의 정세(情勢)는 신냉전체제(新冷戰體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적(世界的) 추세(趨勢)는 다원화(多元化)·개방화(開放化)·자유화(自由化)·평화(平和) 공존화(共存化)의 방향(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또한 인류(人類)의 미래(未來)를 위해서도 필연적(必然的)인 방향(方向)이다. ② 공산사회(共產社會)의 변화추이(變化推移) 또한 이데올로기의 퇴화현상(退化現象), 권력구조(權力構造)의 집단지도체제화(集團指導體制化), 테크노크라트의 기능증대(機能增大),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경영방식(經營方式)의 모방, 종교(宗教)의 점진적 부활(復活), 자유화(自由化)운동의 태동 등 북한체제(北韓體制)의 영향과 압력(壓力)을 줄 수 있는 요소(要素)들이 많다.

IV. 결어(結語)

우리 민족(民族)의 영원한 생존(生存)과 번영(繁榮)과 자유(自由)를 위한 평화통일(平和統一)은 되는(Werden) 것이 아니라 만들어야(Machen) 하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사적(民族史的) 과제(課題)이다.

조국(祖國)의 평화통일(平和統一)을 꼭 이룩해야 한다는 역사적(歷史的) 소명의식(召命意識), 민주통일(民主統一)만이 민족사적(民族史的)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할 수 있다는 신념(信念), 평화통일(平和統一)이 가능(可能)하다고 하는 확신(確信)을 바탕으로 하는 통일외지(統一意志)는 통일(統一)의 원동력(原動力)이다. 통일(統一)은 내일(來日)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다음 세대(世代)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세대(世代)의 책임(責任)이다. 왜냐하면 빠른 기간내(期間內) 통일(統一)을 성취하거나 최소한(最少限) 평화통일(平和統一)의 기반(基盤)만이라도 조성(造成)하여 다음 세대(世代)에 넘겨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일(統一)은 영영 멀어질 수도 있을 뿐 아니라 민족(民族)의 생존(生存) 자체(自體)가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통일(統一)에 대한 신념(信念)과 의지(意志)를 바탕으로 정부(政府)와 국민(國民)이 혼연일체(渾然一體)가 되어 통일(統一)을 주도(主導)하고 앞당길 수 있는 길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태세(國家安保態勢)를 강화(強化)하여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의 대남적화기도(對南赤化企圖)와 전쟁도발(戰爭挑發)을 억지(抑止)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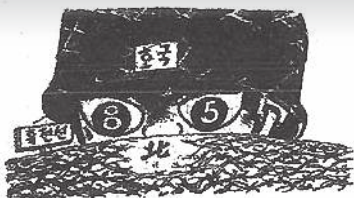
둘째는 대북(對北) 절대우위(絕對優位)의 국력(國力)을 배양(培養)하고 조직화(組織化)하여 남북관계(南北關係) 및 국제관계(國際關係)에서 주체적(主體的)·환경적(環境的) 평화통일역량(平和統一力量)을 강화(強化)하여 통일(統一)을 주도(主導)해야 한다. 국력(國力)은 곧 중력(重力)이요, 중력(重力)은 곧 인력(引力)이다. 우리가 선진조국(先進祖國)을 창조하는 것은 곧 평화적(平和的)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앞당기는 길이다.

「선진조국(先進祖國)의 창조」와 「평화통일(平和統一)의 실현」은 상보관계(相補關係)에 있다. 어느 것이 먼저 실현되어도 한편의 달성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위와 같은 통일외지(統一意志)와 통일역량(統一力量)으로 북한(北韓)에 대한 아량(雅量), 설득(說得), 포용(包容)을 적극화(積極化)하여 평화(平和)와 평화통일(平和統一)의 대도(大道)에 동참(同參)시켜야 한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가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극복(克服)하는 데는 「태양(太陽)과 바람의 외투(外套) 벗기기」에서 보여주는 이솝 우화(寓話)가 시사(示唆)하는 바 크다. 1980년대(年代)를, 민족사(民族史)와 세계사(世界史)의 진운(進運)에 큰 전기(轉機)를 마련한 우리 세대(世代)의 보람찬 연대(年代)로 만들어야겠다.

주민신고(住民申告) 의식(意識)과 시민정신(市民精神)



편 집 실(編輯室)

1. 자구(自救)행위와 주인의식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3대 부정적심리추방운동을 들 수 있다. 이 내용(內容)을 되풀이하자면 첫째 정치적(政治的) 부패로부터 시작하여 일체의 부패요인을 근절하는데 힘써 나가야하고, 둘째, 물가오름세를 스스로 자제하는 슬기를 발휘하고, 셋째, 질서와 책임을 숭상하는 생활(生活)을 습관화해야 된다. 다시말해 이러한 3대 부정적 심리(心理)를 추방하는데 있어 가장 강조(強調)될 것은 스스로 자기 마음의 주인(主人)이 되어 자신(自身)을 슬기롭게 다스리면 부정적인 심리(心理)를 추방할 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회(社會)에서는 <주인의식(主人意識)>이 계속 함양되어야 하고 이 <주인의식>이 국민의식(國民意識) 개혁운동(運動)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의식(主人意識)을 함양하는 주역으로서 민방위대원(民防衛隊員)을 손꼽을 수가 있다는 결론이다.

이 사회(社會)의 가장 핵심적인 역군으로서 민방위대원은 각자가 스스로 <주인의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조, 개혁 발전의 새시대정신을 승화시켜 나갈 때 이 사회(社會)는 곧바로 선진조국의 실현을 조기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의 민방위기본법 제2조(정의)를 음미해보면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住民)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 하기 위하여 정부(政府)의 지도하에 주민(住民)이 수행하여야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 구조, 복구 및 군사작전상 필요(必要)한 협력(協力)지원 등 일체의 자위적 활동(活動)을 수행한다.」 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민방위기본법(民防衛基本法)의 근본적(根本的)인 정신(精神)은 「적의 침공이나

커다란 재난으로부터 우리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보호(保護)」 하기 위한 자구조치(自救措置)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자구조치(自救措置)는 능동적인 참여(參與)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 자구조치(自救措置)는 민방위대원(民防衛隊員) 각자가 철저한 주인의식(主人意識)을 발휘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

더구나 통금(通禁)해제, 교복자율화(校服自律化) 등(等) 일련의 조치는 그만큼 우리 사회(社會)에 주인의식(主人意識)이 성숙돼 가고 있음을 대내외(對内外)에 과시하고 한편(便)으로 안정(安定)과 번영의 발판을 다져나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 자율화조치(自律化措置)는 '86년(年) 아시안게임과 '88년(年) 서울올림픽을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자율(自律)에 따른 훈련(訓練)을 쌓아 세계(世界)의 시민(市民)으로 정착화하는데 있다. 그러니까 자율화(自律化)는 결코 자유방임(自由放任)이나 방종이 아닌 것이며 사회紀綱(社會紀綱)이 해이해져서도 안 된다.

다시 부연하면 자율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國民) 스스로 주인의식(主人意識)을 재확인(再確認) 실천에 옮겨 자율화(自律化)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만 진정한 자율화를 구현할 수가 있다.

2. 대공요원으로서의 사명

우리는 자율화(自律化)에 따른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현 우리 주변의 안보적인 상황도 소홀히 넘길 수 없음을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민방위의 기본정신(基本精神)에 입각하여 자극적인 행위는 국민의 안보적인 자세와도 직결되어야 마땅하다.

전두환대통령(全斗煥大統領)은 지난 '82년(年) 새해 국정연설(國政演說)에서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나라의 안전과 평화가 확실해야만 비로소 사회안정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안정의 토대 위에서 산업활동과 경제(經濟)성장은 이룩될 수 있으며 따라서 국민생활의 안정도 기할 수 있다는 요지의 시책이 제시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전(全)대통령은 국방시책의 목표로 실천적인 방위태세확립 국가동원체제의 정비 정신전력의 강화 국방예산의 생산적 운용을 역설하였으며 어떠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도 나라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전(全)대통령은 대간첩대책중앙회의 유시에서도 「북한공산집단이 우리 사회의 혼란과 후방교란을 노려 악랄하고 선부른 불장난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므로 대간첩응징 태세를 완벽하게 확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주민의 신고의식 고취 등으로 지역단위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지역 방위협의회와 지원본부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지역단위공동방위체제의 확립으로 각종 비정규전에 대비한 훈련을 내실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84년 신년사에서 전(全)대통령은 「우리가 다져온 안정과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 돕고 힘을 모으면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누구보다도 알차게 누리게 될 것이며 설령 시련과 도전이 온다해도 서로 돕고 힘을 모아 헤쳐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언급하였다.

또 반공 안보적인 상황에서 국민 각자는 과거 1.21사건과 삼척 울진의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감안할 때 북괴의 악랄한 도발행위가 날로 가중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주민신고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어떠한 공산침자나 불순분자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각자가 대공요원(對共要員)이라는 입장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겠다.

더구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年)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두고 북괴의 발악적인 호전성은 우리의 전후방을 교란할 공산이 커지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자위태세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겠다.

또한 북괴의 한반도 적화망상은 예나 지금이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음모일진대 북괴의 폭력전쟁노선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安定)을 위협하는 가장 명백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우리의 자유화, 자율화 조치가 북괴의 대남혁명활동에 이용당하여 우리의 안전(安全)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그들의 대남혁명전략에 우리의 대응태세와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한 개인이 지나치게 이기주의에 빠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안일을 주장하는 경우 전체의 자유화 권리와 행복(幸福)은 파괴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자율화시대에 우리는 안보의식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만 할 것이며 자율정신에 입각하여 안정과 질서를 더욱 튼튼히 정립해야 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안보의식과 자율정신을 제고해 나갈 때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은 더 한층 그 빛을 발휘할 것이며 국민간의 결속도 더욱 깊고 북괴의 대남적화통일노선도 우리의 평화적인 생활을 파괴할 수는 없다.

3. 시민정신(市民精神)을 발휘할 때

다음으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행복(幸福)을 추구하고 나아가서 선진조국의 목표를 꾸준히 성취해나가는 마당에 무엇보다도 강조될 것은 정의로운 시민정신을 계속 구현해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곧 시민윤리에 근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서구사회의 시민정신을 살펴볼 때 개아(個我)각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복적인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확고한 개인존중의식, 둘째, 의사의 자율성, 셋째, 행위의 자기 결정, 넷째, 행위결과에 대한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민주주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이상의 서구사회(西歐社會)의 시민정신(市民精神)을 일별할 때 개인(個人)존중의식과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責任)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기본적(基本的)인 조건이 선행되면 시민의식(市民意識)은 구현될 수 있으며 국가(國家)와 사회(社會)는 안정세(安定勢)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의식(市民意識)의 함양에 따른 실천적인 행동(行動)강령에 대해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발전(發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시민의식(市民意識)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시민의식을 풀이하면 (1) 자주적인 주체의식, (2) 건전한 비판의식, (3) 능동적인 참여의식, (4) 합리적인 공동정신의 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식이 곧 인간존중의 원리로 실현되어야 할 기본정신인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의식의 함양은 어떻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려면 각자가 확고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신념을 갖도록 자기개발을 해야만 된다.

국민 스스로가 자각하고 행동에 앞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선행될 자격요건은 자기중심의 이기주의에 흘러서는 안 되겠으며 이미 전(全)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나도 잘 살고 이웃도 함께 잘 살아야 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나가야만 한다.

이러한 공동운명체의 정신만이 민주시민으로서 발양되어야 할 행동강령이며 따라서 민방위대의 가장 근원이 되는 사람이라고 본다.

지난 9월초 엄습한 수마의 피해에서 우리 국민들은 저마다 최대한의 시민정신을 발휘했다고 본다.

특히 군·경·민의 일체감 있는 수해복구작업과 이재민을 돕기위한 상부상조의 정신은 바로 민방위의 사명을 단적으로 대변한 현상이었다.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이재민돕기 성금은 하나의 공동운명체라는 집약된 차원에서 우리나온 상부상조의 미덕인 것이다.

더구나 민방위의 조직화한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안보적인 차원과 더불어 천재지변의 현상에 대처하여 슬기롭게 이를 극복한 모델케이스라고 본다.

4. 민방위대(民防衛隊)와 안보적(安保的) 상황

이제부터 우리의 민방위정신은 더한층 높이 구현되어야 하며 '88년 서울올림픽을 정점으로 향한 선진조국(先進祖國)창조의 기틀을 바로 잡아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전대통령(全大統領)은 하계기자 회견(會見)에서 「앞으로 4~5년(年)은 국가(國家)의 안보(安保)와 발전면에서 매우 중요(重要)한 역사의 큰 고비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대통령은 이러한 관측의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예시했다.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의 우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고, 북한의 세습적인 권력 승계로 인한 내부의 모순과 갈등, 그리고 경제침체에 따른 북한주민의 반발이 심화되어 가는 기간이며, 올해는 미국과 일본 등 자유세계의 강대국들이 선거를 실시할 예정에 있고 급변할 내지는 내년초에 우리 또한 12대 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기간이고, 서울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방해책동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앞으로 4~5년이 기간이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선진조국 창조의 목표를 구현해야 할 시점」이니 만큼 북괴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뜻한 포부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야한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변화와 북괴의 대내외적인 사정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4~5년이 한반도에서 가장 전쟁위험이 높은 시기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은 앞서도 예시한 바와 같이 북괴가 계속해서 폭력적화노선을 추구하면서 군사력증강에 광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괴는 내부적인 제반문제(세습체제에 대한 북한주민의 반발, 경제정책의 실패 등)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88년 서울올림픽개최에 대한 심각한 초조감을 느끼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전대통령(全大統領)이 강조했듯이 이 기간동안 우리가 얼마나 현명하게 국제정세의 변화와 북괴의 움직임에 대처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여력과 선진조국창조의 목표달성이 좌우된다고 언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밝은 미래가 국민적인 노력에 따라 확고한 현실이 될 수 있으며 이 시점에서 국민적인 안보체제를 강화하여야 할 계제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그누구보다도 민방위대원 각자가 스스로 자각하고 나아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부단히 해나갈 때 선진조국창조는 우리가 의도한 바 '88년(年) 서울올림픽을 정점으로 제1단계의 목표가 실현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남북한 비교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북괴는 주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마저 희생시키면서 군사력 증강을 추구함으로써 경제력에서 우리에게 5대 1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비해 얼마간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남북간 군사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북괴는 전쟁도발의 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더구나 군사력 균형은 앞으로 4~5년 동안 전쟁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나가면 현행대로 국민총생산액의 6%를 국방비에 투입하더라도 오는 '88년까지는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코 북괴의 도발적인 호전성과 대남적화야욕은 한낱 탁상공론의 허구가 아닌 것이며, 안보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부적인 도발양상, 간첩침투나 불순분자의 책동마저 철저히 분쇄할 수 있는 사상적인 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5. 민방위대(民防衛隊)의 시대적(時代的)인 사명(使命)

우리 나라의 민방위대(民防衛隊)는 이미 언급했듯이 지난 '75년 인도지나반도의 연쇄적인 공산화로 동(東)아시아의 정세가 크게 동요되고 북괴의 남침도발이 노골화했을 때 창설되어 8년여 동안 국가안보는 물론 각종 재난에 대처하여 중요한 역할을 간단없이 수행해오고 있다.

사실상 초창기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단한 교육훈련과 제도적인 연구 운영면에서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왔다.

그럼으로써 이제 4백 30만의 대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국민자위조직으로서 육성 발전되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위한 핵심조직으로서 그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민방위대는 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다. 자위적 활동을 유감없이 이행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적동원은 8년이라는 기간동안 3백만명이 수해, 한해, 설해, 화재 및 폭발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해온 것이다. 또 141회에 걸쳐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인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계속해왔다.

그런가하면 유사시에 77%의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과 대도시의 비상급수시설을 확보해 놓고 민방공 경보 시설도 보강해 놓았다.

아울러 전략에 대비한 인력동원태세를 완비해두고 주민신고조직을 흡수 통합하여 불순분자와 생활주변의 위해 요소들이 즉각 발견되어 신속히 조치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8년여의 민방위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올바른 시민정신을 발양하고 계속해서 주인의식을 배양해 나갈 때 안보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고 나아가서 선진조국을 건설하는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

북괴라는 「시한폭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적인 상황에 따른 경계심과 결투여 경제성장을 지속해나가야만 한다.

결국 민방위대가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선진조국창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경제적인 제도를 발전시키고 운영상 활성화를 도모해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으로 민방위조직의 지휘관과 교관요원(敎官要員)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중앙(中央)에 민방위종합학교(民防衛綜合學校)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듯 민방위의 운영상과 제도적인 면에서 보강 보완해 나갈 때 우리의 민방위(民防衛)는 다른 어떠한 국가의 민방위 못지않게 국가적인 특성을 살려나가면서 자위적인 기능을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다.

한편으로서는 민방위대가 군·경·예비군과의 긴밀한 연계관계를 갖고 직장 및 지역단위의 자체방어를 가일층 확립해 나가면 어떠한 재난도 손쉽게 복구할 수 있고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방위기능은 사회적인 악습과 폐단을 타파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도 수행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 사회안정, 그리고 명량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데 일익을 맡고 있다 할 것이다.

끝으로 민방위대원은 각자가 앞서 엄격한 시대적인 소명의식을 깊이 자각하고 다시 한번 공동운명체 정신을 향한 일련의 노력을 배가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다운 유산을 넘겨 줄 때 진정한 민방위대의 정신이 꽃을 피울 것이다.

시사용어(時事用語) 풀이

○ 국지전쟁(局地戰爭) : 전쟁의 규모와 지역으로 제한된 지역적인 전쟁, 한정(限定)전쟁, 제한(制限)전쟁이라고도 한다. 전면전쟁(全面戰爭)에 대한 용어이며 전면핵(全面核)전쟁에 대하여 한정핵전쟁(限定核戰爭)이라고 전략론(戰略論)도 거론된다. 월남전의 경우처럼 대국(大國)의 이해가 얽혀 개입하면서도 서로 직접적인 대결을 회피한다는 데서 월남전은 국지전(局地戰)의 전형적인 예(例)로 들 수 있다

○ 전관수역(專管水域) : 연안국(沿岸國)이 어업상(漁業上)의 독점적 특권(特權)을 갖는 수역어업(水域漁業), 수역(水域)이라고도 불리운다. 현재는 6마일, 대부분의 나라들은 12마일을 주장하는 나라가 많다. 최근, 유엔 해양법(海洋法)회의에서 어업자원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5백마일의 어업전관수역을 주장하는 나라들도 있다.

○ 전략산업(戰略産業) : 경제발전의 기폭역할을 하는 생산부문(生産部門), 생산과 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크다. 수출확대에 연결되는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전략산업(戰略産業)은 각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국력의 신장에 따라 자동차(自動車), 선박 등 중공업(重工業)으로 넘어간다.

정훈교육자료

북한(北韓)의 인간성(人間性) 유린 교육실태(教育實態)

1. 서언(序言)

한 나라에서 교육(教育)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 사회(社會), 그 국가(國家)의 참모습을 알 수 있으며 국가(國家)의 장래까지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北韓)은 1948년(年) 공산정권(共產政權)이 수립된 이래 그들의 정치목적(政治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교육(教育)을 실시해 왔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일성부자(金日成父子) 세습체제작업(世襲體制作業)을 강행하면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일반적 교육관(教育觀)에 「혁명성」과 「주체사상(主體思想)에 의한 무장」이라는 것을 첨가함으로써 그들 교육의 비인간적(非人間的)·반민족적(反民族的) 성격(性格)을 더해 가고 있다. 오늘날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가치관, 행동양식, 민족관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달라져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교육(教育)의 소산(所産)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의 각 분야의 실태를 파악함에 있어 북한의 교육(教育)을 중요시(重要視)해야 하는 이유(理由)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에는 우리 민족(民族)이 평화통일(平和統一)을 이룩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時期)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같은 민족구성원간에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북한공산집단의 「증오교육(憎惡教育)」을 비롯한, 일련의 사상(思想)교육(教育)은 우리의 비상(非常)한 관심(關心)의 대상(對象)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問題意識)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교육전반(教育全般)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북한의 인간성(人間性)유린 교육실태(教育實態)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북한(北韓)의 교육이념(教育理念)과 목표(目標)

북한의 교육이념(教育理念)과 목표(目標)는 북한주민을, 1) 혁명화 2) 노동계급화 3) 공산주의화하여 이른바 「공산주의적 새 인간」을 육성(育成)하는데 두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헌법(社會主義憲法)」은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社會主義教育學)의 원리(原理)를 구현하며 후대(後代)들로 하여금 사회(社會)와 인민(人民)을 위하여 투쟁하는 건결한 혁명가로 지(知)·덕

(德)·체(體)를 갖춘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새 인간(人間)으로 키운다”(제39조)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를 보다 명백(明白)히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問題)가 되는 것은 「혁명화(革命化)·노동계급화(勞動階級化)·공산주의화(共產主義化)」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또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새 인간(人間)」이란 어떤 인간(人間)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교과서를 통해 이를 구체화해 보면,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새 인간(人間)이란 ; 1) 노동(勞動)을 사랑하고 즐기며, 이에 자각적(自覺的)으로 참여하는 사람. 2) 개인주의(個人主義), 이기주의(利己主義), 낡은 사상(思想), 자본주의 사상(資本主義思想)을 철저히 뿌리뽑고 김일성(金日成)의 유일사상(唯一思想)으로 무장(武裝)된 사람. 3) 자기개인(自己個人)의 이익(利益)보다도 집단(集團)과 사회전체(社會全體)의 이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 4)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승리(勝利)를 확신(確信)하고 어떤 고통(苦痛)을 받더라도 혁명적(革命的) 낙관주의(樂觀主義)를 갖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북한공산집단(北韓共產集團)이 그들 교육(教育)의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공산주의적(主義的) 새 인간(人間)」이란 인간(人間)의 본성(本性), 개인(個人)의 최소한의 욕구마저 억제된 인간(人間)을 말하며, 이른바 공화국(共和國) 북반부(北半部)에서의 사회주의건설(社會主義建設)과 남조선혁명(南朝鮮革命)에 필요한 인간(人間)을 뜻하는 것이다.

3. 북한의 교육정책(教育政策) (사회주의교육(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

오늘날 북한에서 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教育)의 종합지침서(綜合指針書)로 되어 있는 것은, 1977년 9월 5일에 제정(制定)·공포(公布)된 「사회주의교육(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이다. 현재(現在) 북한교육(北韓教育)의 모든 것은 이것에 의해서 통제되고 규제되고 있는 바, 북한에서는 이 「사회주의교육(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에 의한 교육을 그 이전의 교육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히 이를 강조하여 「사회주의교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사회주의교육(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는 5개장(個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제2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제3장은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제4장은 「사회주의 교육제도」, 제5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로 되어 있다.

동(同) 테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教育政策)의 기본방향을 간추려 보면, 교육이념(教育理念)과 목표(目標)는 인간(人間)을 혁명화(革命化), 노동계급화(勞動階級化), 공산주의화(共產主義化)하는 데 두고 있으며, 교육내용(教育內容)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하면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병행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방법(教育方法)으로서는 「깨우쳐주는 교수교양(教授敎養)」, 「이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교육정책(教育政策)과 비교할 때, 동(同) 테제에 나타나 있는 교육정책상(教育

政策上)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사상교육(政治思想教育)을 여타의 교육(教育)보다도 최우선시(最優先視)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둘째,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육제도 등 교육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획일화시킴으로써 개인(個人)과 학교별(學校別)로 발생(發生)할 수 있는 차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회주의교육(社會主義教育)에 관한 테제」 공포(公布) 이후(以後) 북한에서는 동(同) 테제를 가리켜 「김일성(金日成)의 주체사상(主體思想)을 구현한 주체(主體)의 교육강령이며 공산주의혁명(共產主義的革命) 인재교육(人材教育)에 참다운 길을 명시(明示)한 교육강령(教育綱領) 또는, 「교육(教育)에 관한 이론(理論), 실천적문제(實踐的問題)에 과학적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百科全書)이며 교육총서」라고 찬양하며, 동(同) 테제 공포일(公布日)을 「교육절(教育節)」로 제정(制定)하고 매년(每年) 이날에 기념행사(記念行事)를 개최(開催)하고 있다.

4. 북한(北韓)의 교육제도(教育制度)

가. 일반적(一般的) 특징(特徵)

(1) 조기교육(早期教育)의 강조(強調)

북한(北韓)의 교육제도(教育制度)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고등교육보다는 초등교육 또는 취학전 아동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조기교육(早期教育)의 강화(強化)는 정치사상교육(政治思想教育)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效果的)이며 집단주의적정신(集團主義的精神)의 함양이란 면에서 극히 효율적(效率的)이라는 착안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에서는 1976년에 취학전 아동의 탁아소 생활과 유치원교육을 의무화한 소위 「어린이 보육교양법(保育敎養法)」이라는 것을 제정(制定)·공포(公布)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週)탁아소와 월(月)탁아소가 설치(設置)되며 희망자(希望者)에 한하여 어린이를 탁아소에 수용하여 키우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생후 30일부터 의무적(義務的)으로 탁아소에 넣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유치원은 2년제(年制)로서 「낮은반(班)」 1년과 「높은반(班)」 1년으로 나누어지며 만 4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학교에 갈 준비교육(準備教育)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치원-높은과정 1년부터 의무교육연한(義務教育年限)에 포함시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도합 11년이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다.

(2) 노동당에 의한 통제

북한의 교육은 노동당이 완전히 장악하여 독선적인 통제와 감독을 하고 있다. 노동당은 교육정책(教育政策)을 수립할 뿐만 아니라 그 정책(政策)의 수행과정에서도 지도라는 이름 밑에 통제를 가하고 그 밑의 관할지역 당이 일일이 감시·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각급학교에는 학교 당위원회가 조직·설치되며 동(同) 위원회(委員會)는 학교 내의 당 외곽단체인 사로청(社勞靑), 직업총동맹(職業總同盟), 여성동맹(女性同盟), 소년단(少年團) 등의 각급 조직을 통하여 이중삼중(二重三重)의 감시와 통제를 가한다.

(3) 학생 노력동원

학생에게 부과되는 노력동원은 완전한 무보수노동이며 1일작업량(日作業量)이 부여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노력동원의 범위에는 인민학교로부터 대학까지 망라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동원도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공산정권 수립 이후 학생노력동원이 강제되어오다, 1959년부터 「학생사회의무노동제(學生社會義務勞動制)」가 제도화(制度化)되었으나 규정상(規定上)의 의무노동시간(義務勞動時間)과는 관계없이 실제로는 그 이상의 시간을 노동에 빼앗기고 있다.

(표 1 참조).

〈표 1〉 학생 의무노동시간

구 분	규정상 노동시간	실제 노동시간
대학생	연 10주	연 14주 이상
고등전문학교 학생	연 10주	연 14주 이상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	연 8주	연 10~12주 이상
고등중학교, 중등반 학생	연 6주	연 6주 이상
인민학교 학생	연 2주	연 4주 이상

(4) 군사훈련

북한에서는 이미 4대군사노선에 따라 전지역이 병영화·요새화되었지만 특히 청소년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김일성(金日成)에 대한 충성심(忠誠心), 복종심(服從心), 대남(對南) 적개심 등을 고취하며 군의 간부화, 근위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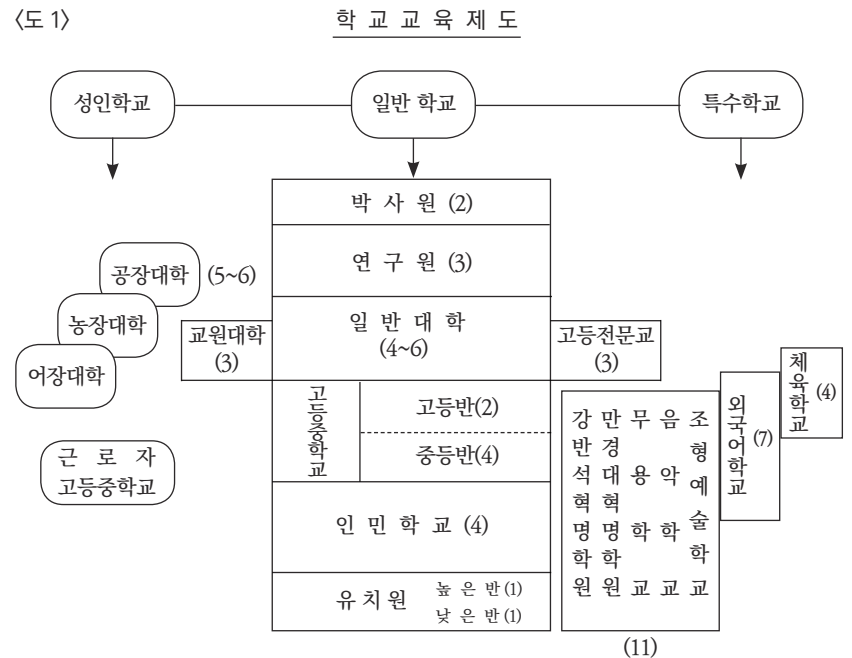
이를 위해 고등중학교 고등반 이상의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훈련(軍事訓練)에 있어서는 정규군(正規軍) 못지 않은 교육훈련(教育訓練)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大學)의 경우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교내훈련 이외에 매학기말 1~2주의 야외 훈련을 실시하며 대학 4년간에 무려 교내훈련 960시간, 입영훈련 1,780시간, 도합 2,740시간에 달하고 있다.

나. 학제(學制)와 교육과정(教育課程)

북한의 현행 학제를 간추려보면, 2년간의 유치원과정과 4년간의 인민학교, 6년간의 고등중학교 그리고 4~6년간의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大學)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교원대학의 3종류가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단과대학은 의학대학을 제외하고는 4년제이다.

이 외에 고등전문학교와 성인교육기관인 공장(工場)대학, 농장(農場)대학, 어장(漁場)대학이 있으며 특수학교인 예체능학교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외국어학교 등이 있다. 학교교육체계를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의 교육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민학교는 주당 교육시간이 1학년 25시간, 2학년 26시간, 3학년 26시간, 4학년 29시간으로 각각 배정되어 있으며 1학년부터 2학년까지는 국어, 수학, 체육,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 10개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3~4학년은 이러한 10개 과목 외에 역사, 지리, 자연 및 실습과목이 추가되어 총 1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습은 주로 학교에서 생산과 결부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인민학교 과정에서부터 1인 1기의 실기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인민학교의 전과목에 대한 총 배정시간은 3,604시간인데 그 중 가장 비중이 큰 과목은 국어과목으로 1,700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수학 850시간, 체육 272시간, 도화, 음악, 공작, 위생 등이 136시



간씩 배정되어 있다.

다음으로각 인민학교 4학년을 졸업하고 들어가는 고등중학교의 교과과목을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로어, 역사, 지리, 생물, 물리, 화학, 체육, 도화, 제도, 음악, 위생,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3학년부터는 음악시간이 없어지며, 4학년부터는 기술이론 과목이 추가되어 점차 기술이나 실습과 관계되는 학과시간의 비중이 높아진다.

5. 북한의 교육내용과 교과서 실태

가. 교육내용

현재 북한의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1) 주체사상(主體思想)에 의한 무장과 이를 위한 혁명전통 교양 2)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의 견지 3)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 4) 집단주의적(集團主義的)으로 교육교양(教育教養) 5) 노동(勞動)을 사랑하는 정신(精神)의 함양 6)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 정신(精神)으로의 무장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교육내용(教育內容)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증오사상」을 고취하는 것이다.

원래 교육학의 근본목표는 인간의 무한한 잠재능력 중에서도 인간성(人間性)을 계발하고 나아가 인간성(人間性)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북한공산집단이 같은 민족성원 간에 적개심을 고취하는 이러한 증오교육은 명백히 인류공통의 염원에 정면(正面)으로 배치되며 민주교육에 대한 반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조국의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해 신뢰회복과 민족화합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요청되는 지금 같은 민족(民族) 성원(成員)이 서로 증오하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남북한의 이질화(異質化)와 적개심을 더욱 심화(深化)시키게 되어 민족의 동질화(同質化)와 민족화합에 커다란 장애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나. 교과서 실태

북한 교과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김일성과 그의 가계우상화, 대남 적대의식과 반미사상의 고취,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선전 등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국어나 사회 과목은 물론 수학, 음악, 미술 등의 과목에서도 거침없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교과서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김일성 우상화

북한 내의 모든 교과서는 예외없이 김일성에 대한 찬양과 순종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교과서 첫 페이지 전면에는 김일성(金日成) 사진을 싣고 그 위에 반투명의 흰종이를 끼어 김일성에 대한 최대한의 존경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국어(國語)과목은 거의 모든 내용과 소재가 김일성(金日成)과 혁명과업에 관한 것들인데, 교과서속의 시(詩), 소설(小說), 희곡, 수필은 예외없이 김일성우상화와 관계되는 것이며, 심지어 언어학적 지식이나 문법조차 김일성(金日成)이나 공산이념(共產理念)과 연결되어 있다.

<실례(實例)>

-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 수령님 교시에 따라 생활한다. (고등중학교 3)
- 그이께서 오신 곳마다에서 기적과 창조가 내려치며 광명과 웃음이 꽃피나니…… (고등중학교 5)
- 시 :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
- 소설 : “포화 속에서” “피맺힌 원썩”
- 희곡: “피바다”, “승리의 기치따라”
- 수필 : “아버지의 뜻을 이어 열렬한 투사가 되어야 한다.”

수학(數學)교과서에서도 김일성(金日成)우상화는 제외될 수 없다. 교과서 내용 중 “김일성”이란 글씨는 모두 붉은 활자로 되어 있으며, 머리말에는 김일성 교시가 제시되어 있고, 연습문제는 김일성과 관련하여 구성 되고 있다.

<실례(實例)>

-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가장 기쁜날은 몇월 며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달력에서 찾아 보시요? (인민학교 4)
 -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신 유서 깊은 만경대로 학생 336명이 견학을 갑니다. 버스 한 대에 48명씩 탔다면 버스가 모두 몇 대이겠습니까? (인민학교 4)
- 음악(音樂)·미술(美術)교과서 역시 김일성 개인 선전물인 것으로 착각될 정도로 개인 우상화가 심하다.

고등중학교 미술교과서 내용 첫 페이지에는 김일성이 미술에 대해 말한 것을 하나의 교육 목표 및 원리라며 이렇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 미술로 되어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어야 합니다.」

인민학교 음악(音樂)교과서에서는 1학년의 경우, 18개의 제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9개 곡이 김일성을 찬양하는 곡이었고, 나머지는 만경대, 평양, 백두산 등 북한을 상징하는 대상을 소재로 한 곡이었다. 특히, 음악교과서의 가사는 터무니 없을 정도로 김일성 우상숭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다. 예컨대 ‘보물동산 우리나라’라는 곡의 가사는 ‘땅속 가득 금돌, 쇠돌, 자랑많은 우리나라, 원수님이 주셨죠.’ 라고 되어 있다.

(2) 반미사상(反美思想) 고취

북한의 교과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죽어 없어야 할 철천지 원수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극렬한 표현으로 묘사되는 것이 미국인이다. 각 교과서에서 반미사상 고취 내용을 발췌해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날강도 미제와 자본주의 괴뢰도당의 침략과 전쟁정책으로, 산들은 모두 벌거숭이 산으로 되고, 기름진 논밭이 군사훈련장으로 짓밟히고 있다.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

○ 남조선에서는 미국놈들이 자기 나라에서 팔지 못하는 연료와 낡은 기계들을 강제로 팔아 먹기 위하여 수력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발전소를 세우지 않고, 수력발전소 조차 돌리지 않고 있다. (고등중학교 3학년 지리)

○ 인민군대 아저씨들이 한 전투에서 승냥이 미국놈을 265놈 죽이고 나머지 157놈은 사로 잡았습니다. 처음에 승냥이 미국놈이 몇 놈 있었습니까? (인민학교 2학년 수학)

(3) 한국의 사회상 왜곡

북한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그것이 폐쇄사회라는 점이다. 북한은 주민들 속에 행여 자유의 바람이나 한국사회의 발전된 모습이 소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남쪽의 실정을 철저하게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 남조선의 한 농민이 당장 굶고 있는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고리대금업자한테서 3만 원을 빌려왔다. 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놈은 4년 후에 연리 10할로 받아내려고 날뛰다. 가난한 농민은 얼마나 물어야 하는가? (고중(高中) 3 대수)

○ 남조선 한 마을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가 82명 있습니다. 담배를 파는 아이는 54명이고 나머지는 구두닦이를 합니다. 구두닦이를 하는 아이는 몇 명입니까? (인민학교 1학년 수학)

(4) 민족의 동질성 파괴

현재 북한 교과서에는 호전성,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소위, 전투적·혁명적,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 즉 「까부시다」, 「원수」, 「고지점령」 등의 말이 거침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방식상학」(방식상학(方式上學): 실제로 사업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신작칙」(이신작칙(以身作則):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것), 등의 혁신적 신어(新語)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언어(言語)를 「혁명(革命)과 건설(建設)의 무기(武器)」로 간주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언어(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원수」, 「놈」, 「파바다」 등과 같은 언어(言語)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합리적(合理的), 비판적(批判的)으로 사고(思考)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고 맹목적(盲目的)으로 자기들을 추종케하는 세뇌효과를 얻어보자는 데 목적(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언어(言語)의 무기화(武器化)는 민족어의 이질화(異質化)는 물론 북한주민(北韓住民)의 의식구조 형성에까지 부정적(否定的)인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言語)의 이질화(異質化)는 의식구조의 이질화를 낳게되고 이것은 더 나아가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키면서 민족화합(民族和合)에까지 장애를 주는 요인으로 작용(作用)하고 있다.

(5) 민족사의 왜곡·날조

북한 교과서 내용 중 우리가 간과할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사를 왜곡·날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등중학교 이상의 「조선역사」 과목은 우리나라 역사를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입각하여 재론함으로써 모든 사실(事實)을 왜곡 내지 과장하고 있으며 근세사(近世史)에서는 「김일성(金日成)」의 조상을 우상화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예를 들면 3.1 운동 실패의 원인을 공산당(共產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는가 하면, 3.1운동이 발달하게 된 것은 김일성(金日成)의 부(父)인 김형직에 의해 주도된 「조선 국민회」의 주동(主動)에 의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의 묘청의 난, 정지상의 난, 만적의 난 등을 미화 찬양하여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은 작은 충돌 사건(事件)마저도 그것을 전쟁, 폭동, 투쟁 등으로 묘사하여 우리의 역사를 폭력적 계급투쟁의 과정으로 왜곡하고 있다.

6. 결론

교육이란 개개인의 개성(個性)과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시켜 개인(個人)의 성장을 돕고, 그러한 창의력을 바탕으로 사회 발전을 이끌며, 나아가서는 인류역사발전을 돕는 것이 그 기본목표라고 말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교육은 공산체제(共產體制) 중에서도 지극히 폐쇄적인 김일성 개인집단을 위한 도구적인 인간(人間)을 만드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독단적·폐쇄적 성향을 갖게 되는 이러한 닫힌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교육이 계속된다면, 인간정신의 발전을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文學), 사상(思想), 과학(科學)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오늘날 거의 모든 공산국국가(共產國國家)에서 경제성장(經濟成長)이 둔화되고 과학(科學)·기술(技術)이 서방세계(西方世界)에 계속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닫힌 교육이 계속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이 지금과 같이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 새 인간(人間)」의 배출에 광분한다면 남북통일(南北統一)은 물론 남북대화마저 어렵게 될 것이며, 남북간(南北間)의 국력(國力)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군사과학(軍事科學)

입체방패 우주무기(宇宙武器)

레이저로 적(敵) 미사일 공중(空中) 파괴

'83년 3월 23일 레이건 미(美)대통령이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 미국(美國)의 우주전락 방위망 구상을 발표, 세상을 놀라게 한데 이어 이른바 SDI로 알려진 미국(美國)의 이 분야 연구계획은 군축문제에 관한 이번 미(美)·소(蘇)외상회담을 계기로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美國)이 소련(蘇聯)의 미사일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전략방위 방패를 공중에 띄우는 이 우주무기체제는 레이저 광선과 미립자 광동선(光束線) 미사일을 외계에 배치해 자동탐지 유도장치를 통해 소련(蘇聯)으로부터 날아오는 공격미사일 탄두를 미국내(美國內)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공중에서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이 같은 방위체제가 구축되면 미(美)·소(蘇)의 전략개념은 종래의 「상호공격파괴」 개념에서 「상호방위」 개념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美國)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소련(蘇聯)도 같은 계획을 추진 장치의 우주전에 대비해야 하는데 기술과 재정면에서 소련(蘇聯)은 미국(美國)의 능력을 따라 가기가 어렵다.

현재 미국(美國)과학자들은 레이저 광선 및 기타 고성능(高性能) 입자선무기를 외계에 배치 미국(美國)을 향해 날아오는 적(敵)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점검 중이다. 또 소련(蘇聯)은 레이저 광선무기를 실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美國)은 또 인공위성 요격미사일을 개발 중으로 작년 6월에는 비핵(非核)장치를 실험한 바 있다.

에너지 절감방안(節減方案) 및
수출 증대방안(輸出 增大方案)

김 삼 식(金三植)

〈세무사(稅務士)〉

1. 에너지 절감방안

가. 에너지 현실

주에너지원인 석유의 경우 산유국의 생산과잉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능력에 여유가 많기 때문에 유가(油價)는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선진공업국의 에너지소비절약 강화와 연료대체 노력으로 최근 몇 년간 석유 총 수요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GNP는 계속 성장한데 반해 총 에너지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에너지 소비절약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시멘트공장에 B-C유를 유연탄으로 대체한 것 등에 괄목할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에너지수요 측면에서 볼 때 세계경기의 회복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의 절대물량은 증가추세인데 반해 에너지의 부존자원은 유한하므로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가격은 상승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이란, 이라크전에 의한 중동의 정정 불안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여 언제 제3의 석유파동이 올지 모르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모처럼의 원유 안정공급의 시기를 맞아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설비 개체나 공정개선 등의 에너지 절약형 사회를 향한 모든 지혜를 모아 절약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실태를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면 GDP 1,000달러를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에너지 즉, 에너지원 단위가 한국이 석유환산량으로 1.45톤인데 반해 일본과 서독은 불과 0.5톤으로써 우리나라가 이들 나라보다 무려 3배나 더 쓰는 에너지소비형으로 에너지 자원이 빈곤하여 총에너지수요의 7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경

제성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으로 본다.

나.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는 북쪽에 위치하여 춥고 긴 겨울을 지내야 하는 계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주택, 건물부분의 난방용 연료소비 비중이 크다.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 중 주택, 건물부분의 소비율이 40.3%인데 비해 일본은 2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우리는 주택, 건물부분의 에너지절약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는 열병합 발전식 지역난방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건축물의 단열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덴마크는 단열실시율이 9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1%만이 단열되었을 뿐 89%가 미단열 건축물이다. 단열 강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제도 등 적절한 시책이 요구된다.

철강, 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제품의 수출비중은 일본이 27.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65.7%로 2배 이상이나 되므로 에너지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또한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 수출토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체 에너지이용 효율은 61.6%이고 38.9%가 손실에너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은 유효이용 에너지가 66.5%로서 우리나라 산업체보다 5.4%나 높은 수준이다.

이를 위하여 효율적인 설비관리, 자동제어 시스템 적용 발열회수이용 증대 및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설비로의 대체 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자동차의 수요증가는 매년 20% 정도씩의 급증 추세에 있어 부문별 에너지소비량 중 '83년도의 수송부문이 14% 정도이나 매년 높아질 전망이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절약의 중요성은 타부문보다 더욱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의 개발과 보급 국내 교통체계 재정비, 운전자에 대한 에너지절약기법의 충분한 지식 등에 대한 대책이 요망된다.

다. 에너지소비절약 평가

1983년도의 전년 대비 GNP 증가율은 9.2%로 나타났으나, 에너지소비증가는 7.8%로서 에너지 탄성치가 0.85%로 에너지소비의 증가는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선진국의 에너지 탄성치가 훨씬 그 이하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미진하다 하겠으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산업체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기업의 경우에도 평균 에너지절감 가능성이 20%에 이르고 있어 이의 대책이 요망된다.

최근 에너지소비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용자 세제감면과 진단지도를 통한 기술지원을 강화하여 '83, '84년도에 국내 총에너지 소비

량의 3~4%로서 금액은 매년 3,000억원 이상의 에너지를 절감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에너지절약을 소비억제 운전관리의 합리화 투자규모가 적은 보일러 개체 등에 의한 단순절약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앞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제고를 위하여 비교적 투자비가 큰 고효율의 설비개체 대형 발열회수장치 적용, 공법 및 공정의 개선 등 근본적이고도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이 요구되고 있어 이를 위하여는 경영층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과감한 투자로 생산원가 절감 노력과 경영쇄신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라.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열발생 설비로는 보일러 및 요로(窯爐)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보일러의 효율은 최근 노후 보일러 교체 및 발열회수 강화로 높은 편이나 산업체 연료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요로의 효율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효율제고가 요망된다.

금속가열로의 경우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진단 결과 평균효율이 27% 정도이나 일본은 40%로 우리나라의 가열로가 무려 32.5%의 낭비 요인이 있으며 요업공장의 소성요(塑性窯)도 일본에 비하여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효율 설비의 효율제고로 인하여 '85년도에

- 성능판단 기준 및 운전지침을 제정 보급
- 요로보유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
- 요로보유 및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목표에너지원 단위 책정 및 관리
- 에너지절약 신기술자료 입수 및 보급
- 중소기업 10,000여 업체에 기술지도
- 에너지관리진단의 효율적이고도 과학화를 위한 최신장비를 부착한 「진단버스」 운용
-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을 위한 투자 확인
-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소비업체 신 증설에 대한 검토

등을 추진코자 하는 바 특히 에너지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열병합발전을 계속 확대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 공업단지에 대한 열병합발전시설은 그 효과가 매우 크므로 조기에 도입토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지역으로는 대구 비단염색공단, 구미 공업단지, 구로동 수출공단, 인천 남동공단 등이 적지로 판단된다.

산업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는 B-C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2차 석유파동 이후 산업체에 석탄사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에너지측면에서 보면 석탄은 B-C유에 비해 열량기준으로 절반정도에 불과하여 최근에 인천 동양화학에 120t/h의 대용량 석탄유동층 보일러

를 설치하여 시운전 중에 있으며 소요량으로는 10여 업체에서 적용하여 상당한 에너지비를 절감하고 있고, 고려합섬에서는 최신기술인 석탄, 기름 혼합연료를 생산하여 사용하므로 20% 정도의 에너지비를 감소시키는 등 앞으로 석탄으로 연료전환이 크게 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년부터 유공에서는 석탄, 물 혼합연료 기술을 도입키 위하여 추진 중에 있다.

국내외적으로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최근에는 에너지절약 신기술이 선진국에서 상용화(商用化)하여 보급 중인 것을 소개하면

- 시멘트공장에서 배출되는 폐가스 및 냉각배기를 이용한 폐열발전
 - 철강 및 화학공장의 중저온 폐열을 이용한 후레온터빈 발전
 - 산업체의 저온발열을 열펌프로 고온하여 이용
 - 제지공장의 초기건조기의 밀폐 후드시스템과 배기열 회수 이용장치
 - 철강공장의 직송압연(Hot Direct Rolling)과 노체(爐體)의 냉각방식을 고온증발냉각으로 저압증기 회수 이용
 - 각종 증발관의 폐증기를 회수 자체 열원으로 이용하는 방식인 기계적인 증기 재압축
 - 산소부화기술
- 등이라고 보겠다.

마.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우리나라는 동절기에 춥고 긴 겨울을 지내야 하므로 난방용 에너지가 다량 소요되므로 건물부문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식 지역난방을 적극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현재 목동의 신시가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3만여 세대 상가 및 공공건물에 대한 열병합발전식 지역난방을 '85년 말 완공 목표로 건설 중에 있으며 아울러 자체쓰레기를 회수하여 쓰레기연소열을 이용 보조열원으로 쓰도록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서울화력발전소의 폐열을 이용 여의도 반포 및 동부이촌동 3만8,000세대를 대상으로 남서울지역 난방사업도 금년부터 착수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지역난방방식을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건물을 중심으로한 지역난방사업도 재개발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 주택 중 89%가 미단열로 인하여 에너지손실이 매우 크므로 단열 보급 강화를 위하여 생산업체에서는 기존 주택에 시공이 편리한 단열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단열보급 촉진을 위하여는 계속적인 금융 세제 지원이 요구된다.

지구촌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자원은 유한한데 비해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90년대에는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될 전망이어서 공해가 없고 무진장한 태양에너지 이용의 확대가 요망된다.

국내에서는 태양열 보급이 '84년 말 현재 3,013개소로 일본의 3백만개소에 비하여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지열을 이용한 열펌프 보급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농촌주택의 Bip-gas를 생산하여 자체에너지로 충당이 요망된다. 최근 절전형 가전제품이 개발 보급됨으로써 전력절감에 기여한 바 크지만 더욱 정진하여 초절전형 개발이 요망되며 조명설비도 나트륨 등과 같은 에너지절약형 개발 보급이 요망된다.

바. 수송부문 에너지절약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83년 후에 700만원으로 국내 총에너지의 14%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도로운송부문에서 67.3%를 소비하고 있다. 차량의 평균증가율은 21%로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에너지절약 대책이 시급하다.

차량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는 연비가 높은 차량 즉 에너지효율향상 차체 및 부품의 경량화 주행저항의 저감 등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83년 5월에 목표 주행거리를 설정 공고하고 에너지소모량 표시의 무화 추진 주행효율 개선을 위한 연구와 더불어 목표 주행거리 미달차량의 생산업체에 대하여는 규제를 '87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운송업체의 경영합리화에 의한 에너지 절약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하여는 자체 주유 및 정비시설의 확보,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와 함께 운전자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특히 속도 주행거리 엔진 회전수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타코미터의 부착을 강화하여 자체관리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운송체계의 합리화는 원활한 수송은 물론 에너지절약도 큰 분야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주차장 시설의 확대, 가변차선제 적용 확대 신호등의 합리적인 운영과 화물운송체계 정립에 역점을 두어야겠으며 또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지하철 등과도 연결 수송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연료소비량은 운전자의 운전방법에 따라 10%정도의 연료소비 증감요인이 되므로 경제적인 운전을 위한 수송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전문기관의 진단실시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철도 지하철 및 선박부문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빈국으로 수입에너지 비중이 증가될 전망이므로 국제 경제수치면에서의 압박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온국민이 합심하여 에너지소비절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인은 에너지사용 설치를 절약형 시설 및 공정으로 대체하고 폐열회수이용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건물부문에서는 열병합발전식 지역난방을 확대 적용 미단열 건축물에 대한 단열 강화 절약형 가전제품이 개발 보급되어야 하고 수송부문에서는 에너지절약형 차량개발 보급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2. 수출증대 방안

가. 평가와 전망

작년 중 수출실적은 292.5억 달러로 최종 집계되어 전년에 비해 20.7%의 비교적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와 같이 작년 중 수출이 다소 호조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시장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기사정이 호전되었고 내부요인으로는 최근 몇 년간의 자금과 물가의 안정이 우리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지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세계적인 여건하에서 대만의 수출신장률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것은 국내 수출환경이나 경쟁력이 대만에 못미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볼 때 세계경기가 회복세에 있었던 상반기에는 높은 신장률을 보이다가 하반기에 들어서 세계경기가 진정되면서 우리의 수출신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수출이 세계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상품구조별로 보면 최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중화학제품의 수출이 최근 수년간의 추세대로 25%나 신장하였으며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오랜만의 부진에서 벗어나 세계경기회복에 따라 16%나 신장한 것은 주목할만하다.

품목별로는 전자제품, 선박, 기계류, 섬유류, 완구, 자동차 등이 호조를 보였고 부진품목으로는 요업제품, 합판 등을 들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의 주시장인 미국, 일본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전체 수출신장을 주도한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55%를 차지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이 각각 전년대비 28% 및 37%나 증가함으로써 작년도 수출신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한편 사우디를 비롯한 대중국 수출은 20%나 크게 감소함으로써 중동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추세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수출추이를 돌이켜 보자.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총 수출은 연평균 14.4%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는 '60년대나 '70년대의 신장세에 비하면 낮다고 하더라도 지난 5년간 세계경제가 저성장기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비교적 착실히 늘어난 셈이다.

품목별로 보더라도 합판 등 사양산업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유망산업이 이를 보충하는 등 대체현상이 뚜렷하다. 몇년전만 하더라도 주종 수출품에 끼어 있던 합판, 비료, 시멘트, 활선어가 부진품목으로써 총 수출에서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는 대신 전자 및 전기기기, 자동차, 완구, 기계류 등이 새로운 유망품목으로 등장하여 총 수출에서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섬유는 연평균 7%의 신장률로서 둔화성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철강과 선박은 '80년대 초에 급격한 신장률을 보였다가 최근 신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선박은 세계적인 선박시황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수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는 우리나라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특히 새로운 유망업종의 개척을 통해 수출구조가 계속 고도화됨으로써 산업전체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강해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5년 수출전망은 정부가 통관기준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한 330억 달러를 책정하고 있으나 해외 경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쉽게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새해에도 10% 이상의 신장이 낙관시되는 품목은 전자, 자동차, 기계, 완구, 합성수지 제품 등으로 예상되나 조선, 철강, 원양어업 등은 1~2%의 극히 낮은 신장률에 그칠 전망이다. 섬유와 신발의 수출이 10% 수준의 신장이 가능하냐가 '85년의 수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나, 금후의 무역환경

금후(今後) 우리의 수출환경은 더욱 각박해지고 경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 경제상황은 지난 60년대나 70년 대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좁은 시장을 놓고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수출증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둘째, 우리의 주시장인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주종 상품의 수출에 대한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덤핑제소나 보조금 지급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 공세를 통한 수입억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공을 비롯한 저질국들의 수출경쟁 참여의 적극화로 종래 우리의 강점이었던 노동력과 임금면의 잇점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어 일부 품목에 있어서의 경쟁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다 많은 품목으로 확산될 것이다.

국내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임금의 상승과 노동시간의 단축경향으로 노동코스트는 계속 상승하여 선진국과의 격차가 축소될 것이며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도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국내의 수출환경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수출증대 방안

이와 같이 점차 치열해가는 국제경쟁 속에서 우리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기 위해서는 한시도 수출증진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경제는 그 운용에 있어서 막대한 외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에도 여러가지 과제가 많겠으나 특히 수출이 부진했을 때의 심각한

상황을 상상이라도 해보면 수출의 중요성은 자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퇴색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에 그랬듯이 장래에 있어서도 수출증진을 위한 국민 모두의 성원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수출을 계속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우리 산업의 특히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튼튼하게 키워 나가는 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도 전후 경제발전기에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미국이나 구주제국으로부터 심한 수입 규제 압력을 받아왔으나 값싸고 좋은 품질의 물건 앞에는 장벽이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음을 우리는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상품이 경쟁력을 유지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상승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저임금의 잇점이 점차 사라질 것에 대비해서 단순노동 집약적인 자동화를 통해 노동코스트의 상승을 막아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노동의 질을 높여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새로운 기술을 꾸준히 개발함으로써 품질을 고급화하고 고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장기적인 목표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내에 있는 자본이나 인력자원을 보다 많은 수출산업부문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대만이 적은 인구로 우리보다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은 국내 노동력이나 자본이 제조업에 집중되고 생산된 재화도 국내 소비보다는 수출에 보다 많이 충당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는 수출의 채산성의 확보이다. 국내 자원이 수출산업에 보다 많이 배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산업의 채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채산성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수출산업에 대한 계속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상당수의 수출기업이 내수부문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사태진전이라 할 것이다.

수출의 채산성 확보는 판매가격과 제조원가의 양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출가격은 해외 경기사정과 해외 시장에서 결정되는 문제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수출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환율의 고평가가 수출보다 내수를 선호하는 가격체계를 형성할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수출품의 원가를 인하하는 노력이다. 이는 정부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물가 안정 과도 상통한다.

수출품의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국내물가가 안정되고 이는 단기적으로 볼 때 수출증대의 기본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해외 바이어를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의 수출이 가격경쟁력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고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노력할 여지

가 많음을 알게 된다.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기업이나 노동자 자신을 위해서도 자제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공과금이나 복잡한 절차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치열한 국제경쟁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의 경감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개별기업으로서도 기업 내부에 산재해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비용절감 등 경영합리화에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이 계속 신장되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보강도 필요하겠지만 신규유망산업을 개발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상품에는 그 나름대로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그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후발개도국이 저임과 새로운 기술도입으로 우리 상품의 시장세어를 잠식해 온다면 우리는 보다 기술집약적인 산업을 찾아 새 품목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책은 기업의 투자에 의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투자환경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불안이 투자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금융사정의 악화가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투자를 주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라 경제의 실정으로 볼 때 수출의 증진이나 이를 위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면 정부는 금융세제를 비롯한 경제 시책의 운용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업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던 바이탈리티(Vitality)를 되살려 적극적인 투자활동을 통해 이웃 일본과 같은 경제번영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생활(生活)의 지혜

○ 쓰레기 냄새를 없애려면 :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은 여러 가지 물건(物件)을 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쓰레기통의 뚜껑 안쪽에 강력 탈취제를 접착제로 고정 시켜 두면 간단하게 해결(解決)할 수 있다.

○ 생선(生鮮) 비린내 없애는 방법 : 생선을 조릴 때에는 먼저 간장으로 4~5분 가량 졸인 다음 생강을 썰어서 넣으면 전혀 비린 맛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생선을 튀길 때에는 생선을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푼 물에다 약 20분가량 담갔다가 꺼내어 튀기면 역시 비린내가 전혀 나지 않는다.

미·중공 관계(美·中共 關係)

Edward Friedman

〈위스콘신 대학교(大學校) 정치학 교수(政治學 教授)〉

본(本) 자료(資料)는
안보문제연구소(安保問題研究所) 주최(主催)
세미나 원고(原稿)임

편 집 실(編輯室)

미·중공 관계(美·中共 關係)

발표할 주제(主題)는 미(美)·중공간(中共間)의 안보협력(安保協力) 가능성(可能性)과 그 한계점에 관한 것이다.

미(美)·중공(中共)관계의 정상화(正常化)는 2차대전이후(次大戰以後) 「아시아」에 있어서의 가장 긍정적(肯定的)인 변화(變化)라고 보아야 하겠다. 비록 남북한관계에 기타 지역에서는 긴장이 감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미(美)·중공(中共)의 관계개선은 「아시아」의 연안지역(沿岸地域)에 있어서의 평화(平和)와 번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美)·중공(中共)관계가 개선(改善)되기 이전 약 20년(年)동안은 주로 한국동란 때문에 미국(美國)사람들은 중공(中共)을 일종(一種)의 괴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미(美)·중공(中共)관계개선을 시도한 지도자(指導者)는 대단히 보수적(保守的)이며 반공적(反共的)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다. 「닉슨」 대통령은 미(美)·중공군(中共軍)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시도하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의 말을 인용(引用)하자면 “미(美)·중공(中共)관계개선 필요성의 긴박감 때문에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천명(闡明)하였다.

당시 「닉슨」 대통령이 성취한 업적은 마치 오늘날 한반도에서 평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것처럼 미국 국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것같이 여겨졌다. 미·중공관계가 완전히 정상화 되기까지는 약 10년(年)이 걸렸다. 그러나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가 하는 사실은 정말 놀랍다고 하겠다. 모택동은 「닉슨」 대통령의 제의를 재빨리 받아 들었다. 중공(中共)은 즉각 세계시장에 접근(接近)하여 농산물을 증산하기 위하여 비료공장(肥料工場) 시설들을 사들였다. 중공(中共)이 이와 같이 재빨리 미국(美國)의 제의에 응한 이유는 당시 1968년(年)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것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중공(中共)은 미국(美國)쪽으로 기울어지고 안보문제를 고려한 관계개선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미·중공관계는 월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하고 소련이 「아프칸」을 침공하므로 해서 가속화되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중공은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이 「이란」혁명 이후 「이란」에 설치했던 전자정보기를 잃었기 때문에 중·소국경지역에 이를 대치할 수 있는 정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허용했다. 그 이후 1980년과 1982년 사이에 미·중공관계는 「레이건」이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최초로 이르기까지 다소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대통령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재수립함은 물론이며 대만이 필요한 어떤 무기든지, 예를 들어 Fx와 같은 무기들을 포함해서 대만에 판매하려는 듯한 기미를 보이기가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 Fx는 핵무기를 적재하여 대만에서 상해까지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항공기이다.

그러나 결국 대통령은 이러한 초기의 계획을 철회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미·중공관계는 계속 악화되었을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결국 「닉슨」, 「포드」, 「카터」 전임 대통령들의 의견에 따르기로 하였다. 그는 대만에 대한 Fx판매를 철회하였다. 그리고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조건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였다.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조건을 대단히 애매하게 규정하였다. 결국 지난 달에 그는 북경을 방문함으로써 미·중공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복귀시켰다. 그리고 대만해협은 위협이 없는 상업적 수로가 되었다. 중공과 대만은 L.A 「올림픽」 경기에 동시에 참가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결론적으로 미·중공간의 관계개선은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공의 새 지도자 등소평은 미국에 기울어진 중공의 대외관계를 다시 조정하여 이번에는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 정책은 모택동시대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모택동은 서방에서 교육받은 유능한 인재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었다. 반면 등소평은 소련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과거 소련의 협조로서 세웠던 약 200개의 공장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부품 및 기타 시설물들을 현대화시키려면 소련의 도움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등소평의 이

러한 「이니시어티브」에 대하여 「브레즈네프」는 펍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무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중·소간의 무역량은 보도된 것보다 실제 무역량이 훨씬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소 양국은 그들의 협정을 과거 1958년과 1959년 그들이 마지막 교역을 하던 때의 가격으로 환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등소평(鄧小平)은 과거에 모택동(毛澤東)이 외교관계를 단절했던 「쿠바」, 「앙골라」, 「인도」 등의 친소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월남은 제외되었다. 월남(越南)에 대한 중공의 적개심은 대단히 깊고 심각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공은 월남의 독립을 위하여 피흘리고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남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예(例)를 들면 중공(中共)은 한국전(韓國戰)에서 노획한 대포(大砲)들을 월남(越南)에 제공했기 때문에 월남이 「디엔 비엔 푸」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남이 소련을 끌어들여 해(海)·공군기지(空軍基地)를 제공할 뿐더러 월남의 중국인(中國人)들에 대한 차별대우는 중공(中共)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다.

중공(中共)은 동아시아지역(東亞細亞地域)에 있어서 소련군사력의 위협을 잘 알고 있다. 북경(北京)은 소련이 「시베리아」에 배치해 놓은 SS-20를 해아릴 수가 있다. 북경은 소련의 태평양함대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해왔다. 소련 폭격기들의 위치는 물론이며 군대를 전방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아세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소련군대의 팽창은 일본의 전(前)수상 「오히라」 씨(氏)까지도 소련의 극동군사력은 방위적이 아니라고 믿게끔 만들었고 중공은 소련의 기습공격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중공은 미(美)·소간(蘇間)에는 장기적(長期的)인 군사력 평형관계가 성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중공은 단기적인 군사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군(軍)의 현대화(現代化)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머지않은 장래에 미국의 무기와 군사기술이 중공에 유입(流入)되리라 믿는다. 많은 미국의 우방국들은 중공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우려하고 있다. 이 우방국들은 과거에 중공이 한국, 대만해협, 중·인국경, 중·소국경, 월남 등에 군대를 투입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중공과 국경분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중공이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공정부는 미국정부에 대하여 군사기술을 판매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미국(美國)은 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미국정부(美國政府)는 「아시아」의 우방국(友邦國)들의 우려와 염려를 존중하고 있다. 만약 미국(美國)이 중공(中共)에 판매한 최신형 무기들이 우방국들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국내의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의 무기판매는 미국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공 또한 많은 양의 무기를 구입하고자 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공(中共)이 원하는 것은 제한적(制限的)인 협의의 의미에서 방위적인 군사기술을 요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동식 대전차 TOW 등이 될 것이다. 미국이 중공을 우방국으로 선언한 이상 법률적으로 “우호적(友好的)”이란 범

주 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소련과 같은 적대국에게 주어지는 제한적 조건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美國)은 중공(中共)의 학자(學者)들로 하여금 특수분야의 연구를 하도록 허용하고, 적대국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군사기술을 중공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무기판매는 「케아스 바이 케이스」로 검토되고 있다. 중공(中共)은 무엇이든 원하는데로 모두 구입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공(中共)이 주변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한(限)에서 공자(政者)에 대해서만 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구입하고자 원할 때 미국은 이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보안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우방국들은 미국이 중공과의 협력관계를 어떤 단계까지 끌고 갈 것인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인도차이나」의 상황 즉 예를 들어 중공·태국간의 국경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태국의 편에 서게 되었음을 예를 들어가며 설명(說明)할 수가 있겠으나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한 가지 예(例)를 들어 본다면 주지(周知)하는 바와 같이 중공(中共)은 「캄보디아」의 「폴 포트」를 지지(支持)하였다. 「아시안」 국가 중 어느 누구도 「폴 포트」가 재집권(再執權)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미국(美國)은 「시아누크」가 이제는 임시연립정부를 미국(美國)에 설립(設立)하는 것을 환영(歡迎)하였다. 미국(美國)은 반공노선(反共路線)의 「손산」 일파(一派)가 미국(美國)에 주재(駐在)하는 것을 환영(歡迎)하였지만 「폴 포트」 일파(一派)는 입국(入國)을 허용(許容)하지 않았다. 미국(美國)의 정책(政策)은 우방(友邦)을 포기하고 중공(中共)으로 기울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사실 「카터」 대통령(大統領)은 중공(中共)과의 관계개선 보다도 월남과의 관계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월남의 주장은 우선 미국(美國)이 월남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 않는 한 관계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중공(中共)은 미국(美國)이 계속 대만에 대하여 무기를 판매하더라도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하겠다는 커다란 양보를 했던 것이다. 미(美)·중공간(中공間)의 우호관계는 태국으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월남군에 대하여 행동의 자유를 갖게 하였다. 따라서 미·중공관계의 정상화는 「아시안」 국가들의 유대와 안보를 강화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끝으로 미·중공관계와 한국을 관련시켜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국과 중공이 관계정상화를 추진한다면 이는 미·중공관계를 더욱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한국(韓國)은 이 문제(問題)를 대단히 성숙한 태도(態度)로 세심하게 그리고 온건하게 잘 다루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전망은 생각했던 것만큼 평탄하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항공기 납치범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수적이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이 중공문제를 잘 다루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의 말을 다시 한 번 인용하며 본인의 발표를 끝내고자 한다. 미·중공관계 개선 필요성의 긴박감 때문에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마지막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質疑應答)

문(問) : 2000년대(年代)쯤에 가서는 이 지역(地域)의 국제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答) : 우리 미국인(美國人)들은 4년(年) 이상의 장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世界)를 4년(年)마다 한번씩 개조(改造)한다. 아마 이 지역에서의 가장 골치거리인 북괴일 것이라고 본다. 북괴는 불법적이고 무법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를 자행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우방국들도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심각한 후계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 그들의 경제는 침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들의 기술은 경쟁에서 낙오되고 있다. 그들은 외화를 벌어들여려고 무엇이든 팔고 있다. 본인(本人)생각으로는 그들이 북경을 통해서 미국에 전달한 그들의 「메시지」가 대단히 의미(意味)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의 최대한의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랭군」 사태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또 한편 그들의 상황(狀況)은 대단히 악화(惡化)되고 있기 때문에 선진기술(先進技術)을 도입하기 위하여 세계시장(世界市場)에 접근(接近)해야 할 필요(必要)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괴도 다소 긍정적인 방향(方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미(美)·중공(中共)관계를 보면 긍정적인(肯定的)인 방향(方向)으로 전환된 후에도 관계 정상화까지 거의 10년(年)이 소요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가 낙관적인 견해를 가져 보면 아마도 남·북한관계도 금세기말경(今世紀末頃)에 와서는 모종의 평화적(平和的) 해결(解決)이 가능(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국(韓國)이 중공(中共)과의 관계(關係)를 잘 처리해 나가는 것으로 보아 북한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신념을 갖게 한다.

문(問) : 미국(美國)은 중공(中共)의 체제를 언젠가 변형시킬 수 있다는 전제에서 지금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답(答) : 아니다. 미국(美國)은 결코 중공을 변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펙 흥미로운 답변이 될는지 모르지만 공산주의 이념 자체도 중공을 변형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공의 체제를 변형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공의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계속 집권(執權)하는 것이 「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이익이 될 줄로 믿는다. 이러한 현대화계획의 성공여부는 결국 중공 스스로에게 달려있지 외부의 영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미 중공의 농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엄청나다고 하겠다. 과거 본인이 중공의 농촌지역을 방문했을 때 목격한 한 가지 예만 들어 보겠다. 6년전 본인이 중공을 방문했을 때 중공의 시장은 전혀 활기가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을 보려고 모여들었다. 그러나 오늘날 중공의 어느 시장을 가든지 약 1만~2만명의 사람들이 들끓고 있다.

중공시장에서는 소를 위시해서 뱀의 기름으로 만든 고약 등 온갖 상품들이 팔리고 있다. 본인이 최근에 중공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더이상 본인의 피부색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으며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것은 펙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심지에는 큰 변화를 볼 수 없었다.

문(問) : 중·소관계 개선의 노력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답(答) : 어떤 정책이든 상호의 이익이 걸려 있거나 당사자들이 득을 보지 않는 한 오래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중·소관계에서 중공이 득을 본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시아」의 미국우방국들 「파키스탄」, 태국, 한국 모두 득을 본다고 할 수 있다. 세계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소관계개선은 필요하다. 연간 평균 28%나 증가하였다. 세계경제는 모든 긍정적(肯定的)인 요인(要因)들을 필요(必要)로 한다. 세계은행은 금세기말에가서 200억불 상당의 「에너지」를 중공이 세계시장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에너지」의 원천이 세계 각지에서 다변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우방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중·소련관계개선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징조로 판단된다.

문(問) : 귀하(貴下)는 중공(中共)을 여러번 방문(訪問)하였다고 하는데 미국(美國)과 소련(蘇聯)에 대한 중공주민(中共住民)들의 태도(態度)는? 중국인(中國人)들은 미국(美國)을 더 좋아하는가? 소련을 더 좋아하는가?

답(答) : 중국인(中國人)은 외국인(外國人)들을 접대하는 데 대단히 능란하다. 미국인(美國人)들에게는 미국(美國)을 더 좋아한다는 인상을 줄 것이고 소련인들에게는 소련이 더 좋다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努力)할 것이다. 본인(本人)이 중공(中共)을 방문했을 때 본인(本人)을 좋아하지 않는 것같은 인상을 준 사람들은 한국동란에 참전했던 사람들인 것 같았다.

문(問) : 귀하(貴下)의 생각엔 어느 때인가 미국(美國)이 중공(中共)에 들어가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팔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답(答) : 아니다. 일본(日本)사람들이 팔게 될 것이다. 본인(本人)이 과거 중공의 깊은 산간 지방까지 여행을 하면서 자세히 보았는데 그런 곳에서도 일본의 22인치짜리 「히다치」 TV를 보았다. 아마도 「맥도날드」 「햄버거」도 일본사람들이 팔아먹지 미국인들이 팔아먹기는 어려울 것으로 안다. 본인은 또 미의회의 임무를 띠고 상해의 「컴퓨터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컴퓨터」의 10%가 대만에서 생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최근에 중공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품 중에는 「세탁기」와 「모터사이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인생각으로는 머지않은 장래에 중공은 이들을 생산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카세트」 같은 상품들이 퍼져가고 있는데 이들은 대만과 「홍콩」에서 들어온 것들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

공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썩 염려하고 있고 개혁(改革)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대단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정치적 세력간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문(問) : 미·중공관계가 개선된다는 뜻은 결국 많은 군사적 내지 비군사적 물자가 교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적 물자가 중공에 유입될 수 밖에 없는데 모두 다 이 현상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귀하의 생각은 어떤가? 중공이 미국으로부터 유입된 무기로 인해서 소련을 위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중공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모범적인 태도로 나올 것이기 때문인가?

답(答) : 중국인들은 대단히 유능한 국민이다. 모택동식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결국 모든 새로운 방법을 스스로 배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갑작스런 최신형기술을 판매함으로써 안정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라고 하겠다. 중공 역시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피하고 있다. 중공은 제3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자 원하고 있다. 중공은 독립노선을 걷고 있다. 중공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를 구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결국 미국이 모종의 방어적인 무기를 판매할 의향이 있느냐 그리고 구매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의 의견은 중공으로 하여금 미국이 진심으로 중공을 소련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問) : 중공은 핵무기를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있다. 만약 중공이 핵능력을 향상시킨다면 미·소관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답(答) : 중공은 핵보유국이다. 이 사실 때문에 미국이 중공을 “우호적”인 국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킨 것은 사실이나 다른 “우호국(友好國)”들에 비해서 약 25% 정도의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결국 중공이 핵보유국이기에 때문에 미국의 기술 이전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중공은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가입(加入)했다. 중공은 국제공동사회에 훨씬 더 책임감있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왜 중공이 오늘날 대륙간탄도유도탄 ICBM의 발전을 신속히 성취할 수가 없었는가 하는 해답을 찾기 전에는 귀하의 질문 즉 미·소의 역학(力學)관계에서 중공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답변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이 분야에 있어서의 중공의 능력을 우리는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問) : 중공은 다시 제3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중공이 제3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답(答) : 중공(中共)이 제(第)3세계(世界)의 시장(市場)에서 무엇을 사들이는가를 주시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아마도 이념적(理念的)인 문제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인 이해(利害)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선진산업국에 대한 수출입통제문제라든지 직물수출입규제에 관한 문제 등의 실용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제3세계의 일원(一員)으로 이들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중공은 과거처럼 제3세계의 안정을 갈망하는 역할보다는 안정적 개혁(改革)의 역할(役割)을 담당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공은 정치적 안정과 일관성(一貫性)을 계속 추구할 것임에 틀림없다.

문(問) : 미(美)·중공(中共)이 관계개선(關係改善)을 할 때에는 양국(兩國)이 공통된 이익을 인지할 수가 있지 않았는가? 남북한이 관계개선을 하자면 양측이 공통된 이익을 인지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북괴는 한국에 대하여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조건들을 내걸고 있지 않은가?

답(答) : 한국은 아마도 북괴의 무분별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 역시 초기에는 중공의 제의를 받아 들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상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10년간 노력해 온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협상과정인데 상대방의 제의에 대하여 상대적 제의를 하므로 협상을 계속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양(兩)측의 이해(利害)가 걸려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이해하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 한쪽이 전혀 무책임한 제의를 해올 때는 이쪽도 무책임한 역제의(逆提議)를 해서 맞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란 오랜 시간 간소요되는 것이다.

문(問) : 조금전 귀하(貴下)는 4년이후(年以後)의 사태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를 주저한다고 말했는데 앞으로 4년내의 남북한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답(答) :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의 요인은 외부세계의 경제적 요인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석유, 미국의 무역적자, 금융, 기타 경제적 상황(狀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논의(論議)는 생략하겠다. 한국에 대하여 본인이 한 가지 제의를 하자면 현재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불안한 지역(地域)은 「필리핀」이다. 「마르코스」 이후의 「핀리핀」은 대단히 불안정(不安定)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한국(韓國)이 다른 몇몇 국가와 더불어 IMF를 통해 「마르코스」 이후의 「필리핀」을 안정시키는데 「이니시어티브」를 취할 수가 있다면 이는 한국(韓國)은 물론 이 지역 안정을 위해 크게 기여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과거 「멕시코」가 주동(主動)이 되어 「아르헨티나」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전례가 있다.

한반도 자체에 국한시켜 말하자면, 대단히 놀라운 변화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평양정권이 현재 경제체제를 변형시켜 세계시장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적·군사적 태세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면 현재에도 커다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과거 「카터」 행정부는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한 과오를 범했다. 그 이후 한국 국민이 중공(中共)의 대미(對美) 접근세력과 미국의 지나친 열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은 이해할 만하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대북한접근에 대하여 신중할 뿐더러 여러분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대북한 접근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수락하고 만약 서울정부가 미국으로 하여금 중공의 대(對) 한국접근 시도에 보조를 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대(對)북한접근을 허락해준다면 이는 대단히 건전한 정책이 되리라 믿는다. 미국은 한국이 점진적(漸進的) 방법(方法)에 보조를 맞추어 서서히 점진적(漸進的)인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미국은 중공이 한국에 대하여 접근해오는 정도에 상응하는 대북한접근(對北韓接近)을 시도할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은 한국(韓國)이 원하지 않는 대북한정책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대북한접근을 허락하는 일은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한국의 점진적 방법, 교차접촉, 교차승인 등의 한국의 입장을 전적(全的)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까운 장래의 한국(韓國)은 이러한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한국(韓國)과 미국(美國)은 이 지역(地域)에 있어서 이해(利害)가 일치(一致)하기 때문에 한국(韓國)이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취하면 미국(美國)은 한국(韓國)을 따라 갈 줄로 믿는다.

미래(未來)에 있어서 공군(空軍)의 역할(役割)



- 미(美) 공군(空軍)을 중심(中心)으로 -

박 성 식
〈KAL 영업부(營業部)〉

1. 서언(序言)

과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공군의 역할은 전쟁을 방지하거나 억제실패시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국가 지도자와 군사지휘관에게 우주 항공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주항공력은 세계전쟁, 지역적인 전쟁 및 국지전 등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주항공력은 육군 및 해군과의 합동 및 연합작전의 일부로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지·해상군과의 연합·합동작전 노력의 범위 내에서 공군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있다. 맥아더 원수는 2차대전시 태평양전쟁에서 공군력의 융통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태평양전쟁 기간동안 현대화된 공군의 융통성은 끊임없이 연구개발되어 왔으며, 진격시마다 미리 항공기지를 보유함으로써 다음 작전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공군력이 전선의 앞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군의 업호로 해군의 해상보급로는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상군, 해군, 공군작전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왔다.”

장차전의 합동 및 연합작전에 있어서의 공군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첫째, 독립부대로서의 공군의 역할
- 둘째, 공군의 능력과 임무
- 셋째, 장차전의 작전환경
- 넷째, 싸워서 승리하기 위한 전력소요

다섯째, 미래에 대비한 전력계획과 준비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 등이다. 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공군의 “고유한 융통성”을 심층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공군의 융통성이란 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새로운 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한다. 본고는 주로 미 공군의 작전개념과 역할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인데 우리의 공군 편제가 이와 유사하게 되어 있는만큼 적어도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흡사한 일면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되어 그대로 원용했으므로 다소 무리가 있는 추론도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우리와 차원이 동떨어진 공군 우위항공력의 도식도 과감히 개선하였으므로 이점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이하 미래의 공군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 보기로 한다.

2. 독립부대로서의 공군의 역할

공군지휘관 통제하에 합동으로 작전하는 독립공군은 그의 융통성, 속도 및 항속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작전지역 내의 지상군 및 해상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공군력은 병력 집결소, 군수기지, 병참선 그리고 해상함대와 같은 적의 목표를 깊숙이 강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작전지 내의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도 항공기는 임무 전환이 가능하며, 새로운 목표에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착하여 작전할 수 있다. 또한 공군력은 적 병력에게 공급되는 병기와 보급품의 생산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적의 전산업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적은 규모의 편대나 또는 지난 해 이 지역에서 중요한 훈련을 실시한 것과 같은 태평양 공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로 구성된 160대의 편대군이든 간에 공군은 짧은 시간 내에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목표에 공격할 수 있다.

또한 공군력은 원거리에서 신속히 항공기를 전개시키고,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지상군을 이 동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독립적이며 융통성을 가진 공군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이 증명되었다. 북아프리카 카사린 전투에서 공군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군구성군 지휘관하에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분권적 임무수행은 미 공군 교리의 기본사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래의 공군의 능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20세기 말까지는 공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극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다. 고유의 융통성을 충분히 활용하고 공군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공군력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공군은 군사작전에 상당한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기본 전투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잠재력을 제공해 주며 이 전투능력의 중요성은 미래에도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투능력은 보다 현실적인 훈련, 향상된 준비태세, 지속성과 개량된 무기체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인 전투능력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신속성은 항공력을 사용하고 운용하는데 기본적인 요소이다. 공군은 전투

력을 세계 어느 분쟁지역이나 특별한 전투지역에서 전개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가 있다. 새로운 항공우주정찰시스템, 개선된 지휘, 통제, 통신, 전산화, 정보 및 자료시스템(C4T2), 향상된 항공기 성능과 항속거리, 그리고 향상된 무장시스템은 국가 지도자나 군사지휘관으로 하여금 공군력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력 때문에 공군은 전쟁의 초기부터 종료될 때까지 항공우주군으로 운용될 것이다.

3. 공군의 능력과 임무

어떠한 미래의 전쟁에서도 기동성은 필수적인 능력인데, 기동성은 변화되는 전황의 요구에 따라 분쟁지역 내에서나 또는 분쟁지역간에 공군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공군력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티프퍼리트 훈련기간 중 연료급유기와 공수항공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술공군기들이 매년 미국본토로부터 한국에 전개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이 공군부대들은 기동성이 있다. 공군능력의 또다른 기동적인 면은 전구 내나 전구 사이에서 작전하는 타군(주로 육군)과 동맹군에 대한 공수능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군의 공수력은 육군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증대시켜 준다. 장차전에 있어서 공군의 전반적인 기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 능력, 포장되지 않은 활주로에서의 이착륙, 지원장비의 감소, 증가된 생존성, 재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 항속거리, 초대형화물 적재능력, 그리고 많은 수송기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작전지역의 변화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무기, 연료, 기타 보급품을 보유한 기동성 있는 부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관리되어진 군수지원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금과 가까운 장래에 적절한 계획과 조사연구 및 설계를 함으로써 공군의 공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고 20세기 말까지 공군의 기동성 요구를 장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대응성과 기동성은 현지 역지능력과 매일 한국에서 시현되는 계속적인 경계태세 유지와 적 전력을 위협할 수 있는 불굴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군은 신속히 전개하여 상당 기간동안 지속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세계 어느 분쟁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전·평시를 막론하고 공군의 위치는 국가의 관심지역에 무력시위를 할 수 있고, 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억제실패시 적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력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

항공우주는 적이 우군을 탐지, 식별, 요격, 격파하려는 복잡하고도 유일한 작전환경이다. 공군의 기동성, 우주공간에 한없이 연장이 가능한 속도 및 거리의 복합성 등으로 공군은 지상군에 가해지는 물리적 제한사항을 받지 않는 우주공간에서 전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지상에서의 항공기 기동성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으로써 향상될 수 있다. 즉 지상방어 경계강화, 항공기의 시동서부터 지상활동 및 이륙까지의 단축된 시간, 무장의 설계, 항공전자 시스템, 그리고 적의 공격에 노출을 적게 하면서 소수인원으로 재출동준비, 작전에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 시설이 안 된 기지에서 신속히 수리할 수 있는 군수 및 인력지원, 공수능력, 적 항공기가 공격동안 인원과 항공기를 보호할 수 있는 엄폐호시설 등이다.

2000년대의 공군은 적군의 근원지를 강타하고, 적의 주도권이 변하는데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생존성을 제고하고 우리의 목표가 획득될 때까지 지속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공군은 세계적으로 어느 곳에든지 결정적인 화력을 운반할 수 있다. 항공우주군에 있어서 고유의 충격효과는 시, 공간을 초월한 전투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공군력은 공군의 지휘관에게 적 군사능력을 선택적으로나 또는 전면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떠한 적에게도 신속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군력은 지상 및 우주공간 환경을 정찰할 수 있으며, 항공우주군은 지속적인 적 활동과 속도, 거리, 융통성으로 세계적인 정찰을 함으로써 잠재적인 적의 행동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신속한 대응성, 이동성, 현지전력, 생존성, 결정적인 화력, 그리고 정찰능력 등은 공군의 기본 임무인 전략항공 우주공격, 전략항공 우주방어, 제공, 후방차단, 근접지원, 특수작전, 공수, 항공우주 감시 및 정찰, 그리고 항공우주 해상작전 등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임무들은 계속 발전되어 왔으며 2000년 대에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력을 보유한 주요 사령부도 기본적으로 고유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략 공군사령부(SAC)의 B-52들은 전략우주 공격을 하는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B-52들은 후방차단, 근접지원, 특수작전, 항공우주 감시 및 정찰과 필요시 항공우주 해상작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평양공군의 전술기들은 공수임무를 제외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한 가지 임무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항공기와 무장 시스템을 가진 공군은 위협이 증대되는 미래의 전략환경하에서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전투능력을 증가시켜 줄 것이다.

4. 미래의 작전환경

미래의 작전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미래에 있어서 우리는 보다 치명적인 우주 및 지상환경하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신의 공대공 무장을 한 다수의 적 항공기와 정확도가 상당히 신장된 적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 등은 우리 전력에 상당한 위협으로 상존할 것이다. 미래의 전쟁환경에서 발달된 공격 및 방어에 있어서의 전자전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핵무기의 확산경향도 염려가 되고 있다. 적이 하나 이상의 가공할만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작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판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해당국가나 또는 군사력에 크나큰 재앙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고로 이러한 치명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계속적인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다.

미래전에서 조종사의 임무는 신속하고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적지침투 및 귀환, 항법,

량데뷰 스케줄, 목표식별, 폭탄투하, 그리고 평시의 공군요원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종사와 승무원들은 적의 대공방어와 ECM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며, 장거리 미사일 공격능력(BVR)을 구비한 적의 공대공 능력, 적 지상군 기동계획(근접지원 및 후방차단 임무를 위한) 또는 함대의 재배치(해상작전을 위한)를 미리 예상해야 할 것이며 우군의 공군활동과 방공 및 우군의 작전 기지 상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분쟁은 매우 강렬하고 치명적이 될 것이며, 신속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적군이 지휘, 통제, 통신, 정보기능과 우주감시체제 및 지원체제를 갖춘 작전기지를 무력화 시키거나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은 공군은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더 가공할 무기가 사용되어 진다면 지원부대의 활동력은 상당히 어려운 작전환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때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부대의 활동력은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병참선과 재보급선이 공격받음으로써 연료 및 윤활유, 무장, 예비품목, 인원 및 기타 지원사항을 포함한 지원능력이 둔화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속결전에서 승리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개념설정, 훈련계획, 군수능력을 발전시키고 재정립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미래의 도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 개념발전 문제는 기본임무와 예비임무, 수행, 항공기와 무장의 기술과 유용성 활용, 무인기(RPV)의 사용, 방해받지 않은 통신능력 유지, 지휘 및 통제와 목표시스템의 통합 등에 기초를 두고 고려될 수 있다. 훈련계획은 보다 신중한 선택과정과 조종사 및 항법사에 대한 보다 나은 초기훈련, 복잡하고 세밀한 시뮬레이터 사용횟수의 증가, ACMI(Air Combat Maneuvering Instrumentation) 훈련장에서의 훈련과 같은 향상된 훈련계획, 태평양 공군의 코프썬더(Cope Thunder) 훈련과 전술공군사령부의 레드후레그(Red Flag) 훈련 등이 포함된다. 군수능력을 개발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시 군수 산업으로 전환, 전시군수산업에서 재 생산할 때까지 공군에 지원할 재고량 확보, 재고품이 있는 장소에서 보급품이 필요한 전선으로 무장과 보급품을 지원해 주는 재배치에 대한 계획기능이 요구되어진다.

5. 승리하기 위한 전력소요

미래에 있어서 전력소요는 20세기 말까지 전력을 개발하고 획득하는 과정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장 시스템의 대부분은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막 개발이 끝난 무장시스템과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 F-15와 F-16 항공기들은 전술공군에서 대부분 그대로 사용할 것이나, 이 항공기들의 내부 시스템은 상당히 신장되어서 야간 및 악천후 하에서 작전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신 및 전산화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은 공군이 잠재적인 적에게 유리한 여건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지휘, 통제 및 정보능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주공간은 실시간 정보처리와 통신으로 범세계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유리하게 해준다.

범세계적인 전장감시, 경보, 공격에 대한 평가, 통신, 그리고 우주의 개척자로부터의 미발견된 유익한 점 등을 위해서 항공우주 공군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의 취약한 곳에 직접 항공력을 투입하고, 지원할 때 사용되는 우주시설의 이용으로 공군은 유동적이고 이동적인 분쟁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 더구나 전략공격에 대한 전술적인 정보와 전략공격이 이루어졌을 때 평가는 우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 이유로서는 특히, 위기시에 군사작전을 지원하는데 있어 신뢰성 있고 보안성 있는 감시, 경보, 통신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주공간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어야 한다.

전술항공기들은 제공작전, 후방차단, 근접지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되며, 2000년 대까지 전술기의 해상작전 활동이 증가될 것이라 본다. 아지상군과 공군력은 대부분 전장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항공기를 전투지휘관에 부여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융통성은 전쟁초기에는 제공작전에 대부분의 전력을 투입하게 되며, 공중우세가 획득 및 유지되는 상태에서 정해진 임무 우선순위에 따라 전력을 할당할 수 있게 한다. 공대공 항공기 및 공대지 항공기에 대한 적정량의 획득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항공기들은 필요에 따라 예비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진보된 무기체계와 항공전자시스템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것이다.

20세기 말에 가면, 현재 전투기들의 대부분은 20년 이상의 노후기가 될 것이며 개조의 한계에 도달할 것인데 같은 기간에 적 공군력도 신장된 전투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장된 적 전투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군에서는 지금부터 새로운 전술 전투기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진보된 이러한 전투기들은 어떠한 전장에서 적과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전투를 함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공군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능력은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긴 항속거리와 전투행동반경, 증가된 적하능력, 야간전천후 능력, 우군의 항공기가 작전지역에 있는지 조차 모르게 적기를 탐색하고 “단발”에 격추시킬 수 있는 항공전자시스템과 무장능력, 속도와 가속 및 선회능력을 구비한 탁월한 기동성, 그리고 지속적인 재출동 능력 등이다. 폭격기들의 연장된 전투행동 반경과 충분한 적하능력은 전장의 전투지휘관에게 유일하게 작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장거리 행동반경 능력을 요구하는 작전개념은 폭격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리라 보는데, 왜냐하면 해상작전시 오랫동안 체공할 수 있으므로 폭격기의 융통성을 상당히 증진시킬 것이며, 공대공 무장을 장착한 폭격기는 적 함대에 대한 해상작전 시에 폭격기의 생존성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장거리 항속능력은 전술기들이 전방지역으로 전개하는 동안에 적 지상군에게 신속한 후방차단을 실시하는데도 필요하다. 전쟁의 강렬도에 따라 폭격기의 충분한 적하능력은 우군 전투기

화력을 보강시켜 줄 수 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군은 전장지휘관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폭격전력을 보유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폭격기들은 적지침투, 목표강타, 적지에서 귀환 및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항공전자 시스템과 무장을 장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은 모든 수송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크기와 높이가 큰 초대형화물을 적재하고서도 3,000피트 길이의 활주로로써 작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수송기가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전선 가까이로 이동하는데 제한이 된다. 전역구간의 수송은 세계적으로 위치한 소수의 비행기지에만 주로 수송기들이 운행되고 있어서 쉽게 포화상태가 된다. 3,000피트 미만의 활주소에 수송기가 작전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지역에서 작전할 수 있으며, 한 가지에 집중되던 포화현상을 감소시키고, 전구 지휘관이 화물을 지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증가되며 수송기들은 사용자들에게 쉽게 지원물자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수는 유동적인 전쟁지역에 용이하게 수송기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3가지 형태의 재보급능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송기에 정상적인 화물적재와 저고도에서 화물산출 및 공수투하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송기들은 적 위협을 탐지하고 격퇴하거나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탐색장비와 수동 및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를 장착해야 한다. 효율적으로 적시에 서비스하기 위해서, 공수부대와 야전지휘관간에는 C3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방해되지 않고 보안성이 갖추어진 C3시스템은 전투력과 보급품을 확실하게 공수 지원하는데 꼭 필요하다. 더구나 공수관계자와 공수를 이용하는 관계자들 간에는 심층있는 계획과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에 공중급유기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전술기 및 수송기를 지원하는 공중급유기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이러한 공중급유기의 요구는 원거리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과 전술전투기의 설계상의 제한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중급유기를 설계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공중급유시 한 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시에 재보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6. 미래에 대비한 전력계획 및 준비

미래에 전투지휘관에게 항공력 고유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획은 지금 시작해야 할 것이다. 경영관리 고문관이며 교육자인 피터드러커에 따르면 “강렬히 원한다고만 해서 미래에 가서 획득할 수 없다. 지금 결심해야 하고 모험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 행동 개시해야 하고 지원과 인원을 할당해야 한다. 고로 이 시각에 일을 착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미래의 요망되는 전력과 능력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획이 시발점이 되며 항공력 고유의 융통성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획이 필수적인 것이다.

미 공군의 경우를 보면, 전력계획은 8단계로 되어 있으며 계속적으로 서로 연관되면서 상호보완된다고 볼 수 있다. 전력계획이 논리적으로 맞고 철저하게 연구되기 위해서, 각 단계에서는

면밀한 검토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전력계획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고위당국자의 결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러한 결심은 공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공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군전략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정보부 내에서 적의 실재적인 위협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군은 이러한 공군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소요를 결정한다. 공군이 전력소요가 일단 결정되면 전력계획관들은 수립된 공군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사항을 줄이도록 해야 하며, 현 전력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비교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부족된 사항이라고 한 것은 부족한 사항 전부를 완전히 제거할 충분한 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공군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무기체계와 지원요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전력발전 우선순위 결정은 추천된 공군계획이 되고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는데도 유용할 것이다.

끝으로 국방장관의 승인 후 공군의 전력계획이 재정적인 제한조건하에 발전된 다음에 공군의 추천된 전력계획이 공군에서 예상했던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평가되어진다. 공군전력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평가는 국방장관이 다시 공군전력계획을 보완하는데 결심자료로 사용되어진다.

각 단계별로 전력계획을 작성하는데 단순한 공식은 없으며 계획이 종료되었더라도 중단할 수 없다. 전력계획은 하나의 과학이며 예술이기 때문에 전력계획관들은 전문적이며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러한 전력계획 과정은 미래에 항공력을 최대로 융통성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다음 세대로 전진하고 있을 때, 전문적이고도 현명한 공군요원들은 미래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사용어(時事用語) 풀이

○ **보세가공무역(保稅加工貿易)** : 원자재나 중간제품을 관세없이 수입 가공(加工)하여 수출하는 방식. 노임이 싼 후진국에서 수출(輸出)진흥을 위해 국책으로 장려하는 수가 많다. 원자재 수출국이 제품을 사가는 위탁가공과 제3국이 제품을 수출하는 중계가공의 두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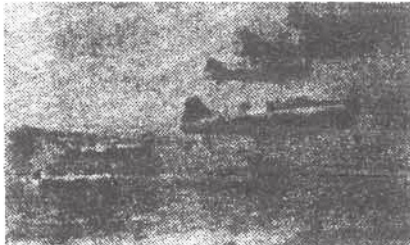
○ **국민소득(國民所得)** : 일정기간(보통 1년)에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순생산물의 가치의 총액. 한 나라의 경제활동 규모를 퍼센트로 포착한 것으로, 말하자면 국민경제(國民經濟) 전체에서 본 소득(所得)이다. 국민소득, 즉 요소(要素)가격표시의 국민소득(國民所得)은 국민순생산에서 간접세를 빼고 여기에 보조금을 보태서 산출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은 세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 국민소득은 생산(生産), 분배(分配), 지출(支出)이라는 순환의 3개 국면(局面)에서 집계한다. 이를 각각 생산 국민소득, 분배국민소득, 지출국민소득이라고 부른다.

○ **제4세계(第4世界)** :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제3국세계로 불려지고 있지만 제3세계 중에서도 특히 자원(資源)이 결핍된 제국(諸國). 1974년 4월에 개최된 유엔 자원(資源) 총회(總會)에서 개도국(開途國) 중에서도 국내 자원(資源)이 빈약하고 식량사정이 악화된 나라를 제4세계라고 불렀다.

○ **전술핵무기(戰術核武器)** : 일정한 지역에서 상대국과 접근하여 전투할 경우 사용하는 핵무기, 핵지휘, 핵폭탄 등을 말한다. 일정한 한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限定)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0.5메가톤 이하의 것을 말한다.

○ **전략핵무기(戰略核武器)** : 상대방의 대도시, 전략무기 시설 등 전력원(戰力源)을 파괴할 것으로 한 핵(核)무기이다. 이는 0.5에서 수십메가톤급의 핵탄두(核彈頭)를 말하며, ICBM(대륙간탄도탄(大陸間彈道彈)), ICBM(중거리탄도탄), SLBM(잠수함발사 탄도탄)이 대표적이다.

한국전쟁(韓國戰爭)과 냉전(冷戰) (Korean War & Cold War)



중령 장 상 용
〈공군본부〉

1. 서론

이 글은 1945년부터 1952년 사이에 한국전쟁(6.25동란)이 미소냉전(Cold War)에 끼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냉전기간을 1945년부터 1952년으로 보았을 때, 한국전쟁은 이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추가해서 냉전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한국전쟁이 미소냉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1945년부터 1952년 사이에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의 수립과정을 알아보기로 하겠다. 특히 냉전의 절정기인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에 끼친 중요한 요소를 고찰함으로써, 한국전쟁과 냉전의 상호 관련성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서론에는 1945년부터 1952년 사이에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 수립 배경을 포함시켰으며, 본문에서는 미 국방예산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관계, 제한전쟁(Limited War)과 미국의 대외공약, 중소노선에 관한 미국의 이해를 다루었다.

가. 배경

한국전쟁은 미국이 소련을 우방으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국내정치 환경을 변질시켰다. 즉 한국전쟁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국가를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해 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을 변화시켰다. 1940년도경 대부분의 미국 고위관리들은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의 엇갈린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소련은 미국에 대해 위협적인 존재이긴

하나, 군사력측면에서는 열세하며, 팽창주의 정책의 신봉자이나 소심한 편이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한국침략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결코 생각지 않았음은 바로 오판이었다.

당시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Echeson)에 의하면, 한국전쟁이 지니는 중요한 교훈이란, 한국전쟁을 소련이 전면전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고 있었다는 점이다. (1) 중공이 한국전쟁에 직접 참여했을 때, 전면전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국가방위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2)

나. 냉전시기의 미국 국방정책

냉전기간이 1945년부터 1952년 사이의 미국 정책은 복잡한 면을 지니고 있었으며, 당시 미국과 소련간의 갈등은 높았었다. 더욱이 한국전은 이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위기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증가시킴으로써 정치적인 정책결정권자들은 전쟁의 실제적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위협에 비하여 너무나도 미약했다. 미국군은 전쟁준비가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재적인 미소간의 갈등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준 정도였다. 모종의 정보분석에 의하면 그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위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관해서 언급하기조차 어려웠을 정도이다.

소련의 미국에 대한 위협이란 즉, 소련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나, 명백하게 전쟁의 위협요소들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국은 믿고 있었다. 소련은 미국에 대등한 수준의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어떤 다른 국가들에게도 군사적 모험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소련의 팽창주의는 전쟁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었다. 미국은 군사적 측면에서 소련의 약세와 미국의 강세는 전쟁의 위협을 어느 정도까지 제한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특히 미국만의 유일한 핵무기 보유는 전쟁의 억제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듯 보이나, 1949년도에 소련의 핵무기 실험은 이를 무력하게 만들고 말았다. 이후 핵무기 생산량은 제한되었으며, 미국은 핵무기 보유라는 점에서는 최소 소련과 대등량만큼 생산해야 했으며, 이것은 미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말경 미국의 정치적 여건은 국방예산의 증가라는 이유 때문에 군사력 증강정책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를 못하고 있었다. 1950년도에 한국전의 발발은 제한전쟁의 개념을 가져왔다. 한국전쟁이란 제한된 군사적 행동의 수단으로 국지적으로 즉, 한반도에서 미국이 공산주의 침략이라는 문제를 당면했던 첫경험으로 표현된다. (3)

한국인이 미국을 보는 눈(견해)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2가지 견해만큼은 뚜렷이 나타난다. (4) 첫째는 본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둘째는 미국이 한국방위에 대한 공약을 소련이 피부로 느낄만큼 강력하게 하지 못했다. 미국은 확고한 한국방위공약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았으며 그 당시 공약을 수행할 충분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세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공산주의화는 전세계에 급격

한 공산주의 파급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더욱이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은 중소노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으며, 미국은 중공을 소련과 같이 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1949년 가을, 소련은 핵폭탄 실험에 성공을 거두었으며, 미국은 중국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미국이 당면한 현재의 위협과 국가 방위를 위한 노력 사이의 격차(Gap)를 심화시킴으로써 미국정책 변화의 기저를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소련의 침략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68*은 종전에는 미국정책이 커지고 있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즉 트루먼 대통령이 실시한 공산주의에 대한 재평가 내용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이는 독일의 재무장과 미국의 국방예산을 급격하게 증가시키게 하였다.

NSC-68은 국가안전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며, 방어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한국전에 연합국의 개입은 NSC-68의 법적 조치의 뚜렷한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 위에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국방정책의 요구는 잘못하면 제국주의처럼 느껴질지 모르나 자연적인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 내의 국민의 여론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국방공약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좋아하지 않았다. (6)

II. 본론

가. 국방예산과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한국전쟁이 미국에게 끼친 중요한 영향 중의 하나는 미국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라고 말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을 수행하는데는 국방예산의 증가라는 뒷받침이 없지는 힘들기 때문이다. NSC-68은 이미 한국전쟁 이전에 미국의 국방예산을 올려주기를 원했다. 트루먼(Truman)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에는 당시 상황으로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트루먼 자신은 국방예산을 증가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완전하게는 이해 못했을지도 모른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국방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트루먼 개인이 판단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으로 트루먼은 NSC-68이 지적하고 있는 소련의 위협분석의 내용을 인정하고,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걱정하면서 국방비의 추가지출을 바랐을지도 모른다. 만일 트루먼이 국방예산을 증가시켜야만 하는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국전쟁은 그의 이러한 견해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다. 한국전쟁은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한국전에 미국병사들이 참전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을 분쇄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경제상태는 평균수준 이상이었으므로 국방예산을 증가시키자는 안에 반대하는 경향성을 누그러질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공산주의의 침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가능토록 해주었다. 한국전으로 인한 두번째로 중요한 영향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창설되

었다는 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가 창설시에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았으나, 한국전으로 인해 군사력이 실제적으로 보완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전은 미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이 공산주의의 침략의 위협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및 국방정책수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NSC-68은 소련은 팽창주의 정착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것이며, 핵무기를 대량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을 피한다는 사고방식으로부터 재래식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공산주의자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련은 미국이 핵무기 보유와 소련을 공격하기 쉬운 전진기지(foward Base)를 가지고 있다는 군사적 우위의 위치를 인정하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전쟁을 일으키게 배후조정을 했음은 미국에 대해 조그마한 유리한 잇점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소련은 지역적으로 군사적 불균형이 확실하지 않는 한 소련 자신에게 유리한 잇점을 찾으려고는 시도하지 않았다. (7)

미국측으로 보면 한국전 참전을 위해 한반도로 미국군대를 이동시켜야만 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한국측에 적절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미국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에 무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소련의 침략대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유럽지역에 미군의 배치, 영국과 프랑스의 헌신적인 지원, 독일의 재무장 그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후 북대서양조약기구위원회(NATO Council)의 첫 회합의 결론은 군사력을 대폭 증강시킨다는 것이었으며, 이로부터 3개월 후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앙사령부가 설치되었다. 1950년도 말 NATO군의 총사령관은 아이젠하워(Eisenhower) 장군이 처음으로 부임되었다. 이로부터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과 불란서군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며, 미국정부는 전진방어 개념에 입각하여 적어도 6개사단을 독일에 유지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유럽국가들의 헌신적인 지원과지지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유럽국가들은 방위비 증가와 더불어 독일의 재무장 원칙에 동의하였으나, 동시에 그들은 유럽방위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확실한 대외공약을 원했다. (8) 유럽방위에 관한 한, 평화시 미국의 유럽 개입 정책은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대외정책의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을 증가시킬 가치가 있다고 보나, 프랑스의 경우는 독일이 소련보다 더 위협적일 수도 있다는 걱정마저 하고 있었다. 독일이 재무장함으로써 두 가지의 자연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9) 첫번째 효과는 독일군을 강력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독일이 재무장함으로써 독일이 더 강력한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소련은 미국과의 정치적 협상에서 양보를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서방국가들이 예상했던 대로 유럽의 방위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려는 가능성은 빛나가고 말았다.

두번째 효과는, 만일 소련이 서부유럽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서부유럽국

가들의 방위를 위하여 군사력 증강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관심을 소련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소련은 독일의 재무장은 그들에게 위협적인 계획이며, 이는 동서간의 긴장완화를 어렵게만 할 뿐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 제한전과 미국의 대외공약

제한전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한국전쟁으로 입증되었다. 앞으로 한국전과 비슷한 전쟁이 발생된다면 미국 또는 세계 어느 나라 군대이든지 재래식 군사력의 확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물론 제한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서로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전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자신들의 방위전략상 무관심을 표명함으로써 실제로 북한의 남침을 초래해 했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한국전 참여는 스스로 자초한 행위의 결과라고 말하고 싶다.

미국은 똑같은 과오를 앞으로 범해서는 안될 것이며, 공산주의의 위협지역에 대하여 공약을 확대시키고, 힘에는 힘으로 대응함으로써 소련의 모험주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의 발전으로 미국의 대외공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든지 미국과 소련의 상대적 행동은 기타 지역국가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세계 어느 지역의 문제들간에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이 미소간의 어느 논쟁에서 후퇴한다면, 이는 미국이 다른 논쟁에서도 비록 이러한 문제들이 상호 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후퇴할지 모른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해는 Hitler가 일련의 유럽침략을 했을 때에 여타 민주주의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전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연합군이 참여하였다.

만일 도미노 이론으로 현상유지정책 측면에서는 조그마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사전에 막는 것이 왜 중요한가가 설명될 수 있다면, 군사력의 균형이론(The Theory of Balance of Power)에 의거 정책역제 이론도 자동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만일 전쟁이 양측 모두에게 가장 악화된 결과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전쟁 당사국은 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즉 스스로 자신의 확고한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것이다.

강대국의 공약사항이 실제로 이와 관련된 국제분쟁 발생시 준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공약 자체를 믿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된다. 조성된 이러한 풍토는 수정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들게 될 것이다. 미국이 세계를 미국의 보호우산 아래 두어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면, 소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정책적인 군사력 증강은 불가피한 것이다. (10)

다. 중소 불력에 관한 이해

미국의 대외공약의 확산은 중공을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써 가속되었다. 한국전 발발시, 트루

먼 대통령은 중공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전혀 생각지 않고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로 미국의 제7함대를 이동시켰다. (11) 미국은 중공이 미국의 국력(군사력)과 국제법의 정통성에 대한 계속적인 도전에 분노를 금치 못했으나, 미국의 7함대 이동은 중공에게 아주 위협적이었음을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미국은 그들 자신의 행동은 생각지 않고 중공이 미국에 대한 증오심만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러한 판단은 비슷한 상황하에서는 여타 의사결정권자도 동일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을 적으로서 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중공의 한국전 개입은 연합군의 압록강까지의 반격을 중공이 자국의 안전에 얼마나 위협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몰랐다. Acheson(트루먼 행정부의 국무장관)은 말하기를 “연합군이 중공을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 (12) 당시 중공의 반격은 자국의 방위만이 목적이 아니었으며, 중공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정의 노출이었다. 더우기 러스크(Rusk) 장관은 중공을 소련의 통제를 받는 국가로서 소련의 관심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하였다. (13)

소련이 중공에게 한국전에 참전하라고 조종하지는 않았다 치더라도, 중공과 소련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공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같은 공산주의의 신봉자이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중공과 우호관계에 있었다면 한국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정부는 중공을 위협적 존재로서 보았으며,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확고 부동하였다.

여러 국가들이 대만의 몰락과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를 원했다. 미국의 행정부는 방위문제에 소극적이었으며, 중공에 대해서 유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중공의 몰락에 대해 힐란을 받았고 중공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강력한 자세를 취하기를 원했다. (14) 더욱이 에치슨이 1950년 경에 이미 중소 마찰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 점은 너무 빠른 판단이었으며,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정책은 융통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은 뚜렷하게 대만을 중공으로부터 방위하겠다는 대중공정책을 미국이 갖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공간의 심리적 마찰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국 내의 공화당은 미국행 정부가 너무 빨리 대중공정책을 바꾸었다고 논쟁으로 삼고 있다. (15)

만일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국방예산의 증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 증강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여론보다 앞서 생각했다면, 중공의 공산화는 좀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 한국전쟁 그리고 중공의 한국전 참전이란 사실은 미국행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중공이 미국에 대해 확실한 적국임을 정책결정권자들에게 확신시켰다. 한국전이 없었더라도, 미국과 중공의 국제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에 중공과 소련은 이념차 또는 어떠한 마찰로 인해 서로 적대관계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III. 결론

한국전쟁은 세계지역사에 깊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냉소(Cold War)의 특성을 잘 이해토록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미국의 정책수립권자들이 한국전에 대해서 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을 해석하는 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의 노골적인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침략에, 민주주의 국가가 어떻게 잘 대응하나 시험(Test)한다는 견해이다. 이 의미는 만일 민주주의 국가가 공산주의자의 침략에 대한 저항에 실패하였다면, 이러한 공산주의자의 침략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빠르게 시도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소련이 연합군에 대하여, 한국전을 자기네들의 국력의 과시로서 생각한다는 견해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정책수립자들이 북한의 남침 동기를 찾으려 하는 입장에서 보는 즉, 소련의 극동전략수행의 한 예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전략적 차원에서 소련의 극동 전략과 관심이 한국에서 외국과의 충돌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련의 침략적 팽창주의정책에 의거하면, 북한의 남침은 극동지역에서 소련의 미국에 대한 선제권 쟁취의 신호로서 볼 수 있다. (16)

위에서 언급한 한국전쟁에 대한 몇 가지 견해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면, 미국정책은 한국전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정치나 미국의 국내정치제도는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하여 공히 국방예산의 증가, 미국의 방위공약의 확산,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 증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좀 더 세분하여 고찰해 보면, 냉전기동안 미국의 정책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소련과의 마찰 증가, 둘째, 위협적인 공산주의와의 전쟁에 관한 이해, 셋째, 방위비의 증가, 넷째, 유럽의 군사력 증강, 다섯째, 중공과 소련블럭에 대한 재인식, 여섯째, 제한전에 대한 중요도 인식, 일곱째, 세계 곳곳의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공약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성은 1946년부터 1947년 사이에 나타났다. 한국전은 미국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중국에 대한 정책 변화, 미국의 세계적 공약 실천에 대하여 의사결정권을 갖도록 해주었다. 즉, 한국전은 냉전과 관련된 미국의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17)

에치슨(Acheson)은 "한국은 우리와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며, 미국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였는데, 이 의미는 미국에 있어서 지식인과 국민의 여론을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1951년까지 위에서 언급한 일곱 가지 요소와 냉전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요약하면 첫째, 국방예산의 증가, 둘째,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 증강, 셋째, 중공블럭에 대한 새로운 인식, 넷째, 세계는 밀접하게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 다섯째, 어떠한 공산주의의 승리도 미국의 국익에 치명적으로 위협적일 수 있다는 생각, 종합해서 한 마디로 줄인다면, 이러한 요소들은 정치적 맥락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일련의 요소로 보아질 수도 있다.

한국전쟁은 확실히 미국의 정책수립권자들에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전과 같은 사건이 없었다면 미국의 외교, 국방정책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전은 확실히 냉전의 특성에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즉, 국방예산의 증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력 증강, 미국의 대외공약의 확산이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미소간의 양극체제 또는 미국의 국내정치체제로는 냉전을 설명하는데 미흡하나, 한국전쟁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냉전의 특성을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다.

현재는 미국과 소련은 적대국으로서 서로 생각하고 있으나, 양극체제의 영원한 존속은 불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이러한 양극체제가 지역간의 마찰이 발생할 때마다 미소 초강대국간의 힘의 대결로서 해결하고, 두 체제의 대외공약의 세계적 확산도 간접적인 힘의 대결로서 생각한다면, 냉전에 대한 이해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용어해설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 1950년 2월부터 2개월간에 걸쳐 미 국방성 산하 연구팀(Paul Nitze가 팀장)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미 국방정책에 관하여 연구한 보고서임. 그 주요내용은 소련의 침략주의정책은 앞으로 더욱 한국전쟁과 같은 제한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예고하였으며 특히 국방비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950년 후반기부터 NSC-68은 미 국방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만일 트루먼(Truman) 행정부가 이 보고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다면, 시기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관점에서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미노 이론(Domino Theory) :** 어떤 지역의 한 나라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차례차례로 공산화된다는 이론. 도미노는 서양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로서, 일정간격으로 세워진 수 많은 말을 맨 앞의 것을 쓰러뜨림으로써 차례차례로 쓰러지게 하는 게임인데, 도미노이론이란 말은 이 도미노게임에서 유래한다.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미국의 델레스 국무장관인 바, 1954년 월남의 고·딘·디엠 정권에 대한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의 경제원조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하였다. 즉, 중국, 북한, 월맹의 뒤를 이어 월남이 또 적화되면 그 주변제국도 차례로 적화될 것이니 이 사태를 막기 위하여 디엠 정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단순히 정부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자의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스탈린의 이른바 공산정권의 본질적 임무에서 그 근거를 발견하게 된다. 즉, 스탈린의 주장에 따르면, <혁명의 승리로 수립된 모든 공산정권은 남의 나라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그 본질적 임무> 라는 것인데, 이것을 위하여 한 나라

에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실행해야 한다고 레닌은 강조하고 있다. 한 마디로 혁명의 확대 또는 수출이 공산정권의 본질적 임무로 되어 있는 것이니, 이것과 도미노 이론은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FRUS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 C. : GPO, 1955), pp.209~232.
2. FRUS :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 C. : GPO, 1950), pp.1309~1310.
3. Alexander L. George, "American policy-making and the North Korean Aggression," World politics, vol.7, No.2(1955), p.209.
4. Robert Jervi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24(1980), p. 573.
5. John Lewis Gaddis, "The Emerging Post Revisionist Synthesis on the origins of the Cold War," Diplomatic History, vol.7, No. 3(1983), p.192.
6. FRUS, 1950, op.cit, p.210.
7. R. Stebbins, The United States in World Affairs in 1950(New York : Harper and Row, 1951), p.129.
8. R. Rosecrance, Defense of the Realm(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1968), p.140.
9. Jervis, op. cit., p.581.
10. FRUS, 1950, op.cit., p.345.
11. FRUS, 1950, op.cit., p.314.
12. J. Spanier, The Truman-Mac Arthur Controversy and the Korean War(New York : Norton, 1965), p.97.
13. FRUS, 1950, op. cit., p.1080.
14. FRUS, 1950, op. cat., p.682.
15. R. Caridi, The Korean War and American Politics(Philadelphia :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68), p.33.
16. George, op. cit., p.213.
17. Jervis, op. cit., p.564.



제3세계와 발전논리(發展論理)

편 집 실(編輯室)



1. 제3세계의 급진사상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8년 전세계 식민지국가의 영토는 지구 육표면적(陸表面積)의 32.6%에 해당하는 4,390만 km²에 이르렀고, 인구 면에서 볼 때에는 세계인구의 33.1%에 해당하는 7억 1천여만명에 달했었다.

이들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야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전후 51개 국가로 출범한 국제연합(UN)의 회원국은 이들 신생독립 국가들의 가입으로 1984년 이르러 159개 국가로 늘어났다.

가. 제3세계의 등장

이들 신생독립국가들은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비동맹원칙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이나 소련의 어느 블록에도 속하지 않는 이른바 제3세계 국가군(國家群)을 형성하였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러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하에서 신음하여 왔기 때문에 예외없이 빈곤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 상호간에 공동의 연대의식(連帶意識)을 가지고 동일한 방향으로 그들의 입장을 모아감으로써, 오늘날 서구(西歐)가 형성하여온 국제질서 속에 그들의 지위와 비중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이려는 제3세계 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세계질서를 형성하여 왔다.

그리하여 「제3세계」라는 개념이 형성되던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반제국주의(反帝國主義)와 반식민주의(反植民主義)가 제3세계 국가군의 중요한 정치, 경제적 이념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 대부분의 식민지가 해체되고 난 이후에 제3세계 국가들은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빈곤과 경제적 낙후성이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통치에 의한 착취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착취의 단절을 통한 경제개발(經濟開發)을 중요한 국가 발전목표로서 등장시켰다.

지금까지 세계사에서 소외(疎外)되었고 무시되었던 제3세계는 이제 세계사의 형성에 능동적인 주체로서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주체적 자주발전노선(自主發展路線)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1960년대부터 중남미에서 경제적 침체와 빈곤을 타파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독특한 이념체계(理念體系)로서 등장한 종속이론(從屬理論)은 신제국주의론(新帝國主義論) 및 매판 자본론 등의 논리와 맥락을 같이 하면서 후진국의 새로운 발전 이론으로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들 이론체계는 세계사의 흐름을 오랫동안 지배하여온 서구중심적(西歐中心的)인 역사관과 질서에 도전하고 저항하는 논리체계로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진적 좌경사상(左傾思想)으로 제3세계에 확산되어가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의 논리를 제시하는데까지도 이들 이론이 가끔 등장하고 있다.

나. 제3세계와 급진사상

이처럼 종속이론, 신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등 제3세계 급진사상은 제3세계국가들이 스스로 정치적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화, 기술적으로 여전히 식민모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갖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하는데 관심을 표명하여 출발한다.

그러면 이러한 제3세계 급진사상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우선 식민지 없는 제국 혹은 신식민주의론(新植民主義論)으로 불리우는 신 제국주의론은 일반적으로 전후 독립한 신생국에 대한 서구 경제대국의 영향력을 확대조명한 개념이다.

원래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레닌(Lenin)에 의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공격적인 무기로 이론화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생된 신제국주의도 극히 좌경적인 선전용어라는 표현이 걸맞다. 이처럼 식민지 없는 제국주의가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신생국의 정부가 경제적 제국주의의 침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서구 선진국에 의한 신식민주의 정책이 신흥독립국의 진정한 독립을 방해(妨害)함으로써 이들을 세계자본주의 체제 내에 영구히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 나라에 바뀐 것이 있다면 제국주의 국가의 직접지배가 토착 지배계급에 의한 대리지배(代理支配)로 바뀌었다는 것 뿐 경제적 자원의 배분과 투자 그리고 이데올로기 구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파악한다. 그런데 신제국주의 이론이 이러한 경제적 의존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종속이론이나 매판 자본론과 혼돈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이 두 이론이 경제적 의존관계와 경제적 착취를 강조 또는 경계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종속이론은 주변적 시각과 입장에서 서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중심부가 주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왜곡시켜온 메카니즘 특히 남미의 경험과 현실을 토대로 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비해 신제국주의론은 현대 국제정치, 경제적 현실을 아시아, 아프리카의 입장에서 규정한 논리이다.

다시 말해 종속이론이나 매판자본론은 예측지역의 경제와 선진국 경제의 구조적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하여 신제국주의론은 선진자본주의 경제가 예측지역을 왜 필요로 하는가 즉 왜 제국주의적 확장이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제국주의정책은 경제활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 특히 미국 외교정책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전후 외교정책을 이러한 각도에서 비판하고 있다.

종속이론과 매판자본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종속이론가 도스 산토스는 매판자본론을 전개하면서 「제3세계에서 혁명적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들이 할 일은 제국주의적 중심부에 의해서 확장의 목표가 되고 또 지배당하고 있는 나라들의 내부적 발전법칙들에 관한 이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바, 이 말 속에 종속이론과 매판자본론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실상 매판자본론은 종속이론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종속을 주변국(周邊國)의 내부에 심화시키는 것이 매판자본이라는 것이다. 과거의 식민주의는 식민종주국에 의한 직접적 식민통치를 통하여 경제적 침략을 하였으나, 지금은 직접적 식민통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정치적 역할을 예측적인 토착정부나 기업이 대리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신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종속이론 등은 모두가 넓은 의미에서 현대판 제국주의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서 대결의 고비를 넘기면서 대부분이 제3세계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3세계 급진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국제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도하는 동시에 국내적으로 민주주의적 정열을 정책 또는 국민통합에 활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반자본주의라는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제 이 글은 종속이론, 신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등의 제3세계 급진사상이 형성된 배경 및 이론의 특징과 그리고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 전략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우리의 현실에 이들 이데올로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 보기로 한다.

2. 제3세계 급진사상의 형성 배경

1930년대 이래로 계속되어온 중남미 경제의 위기와 모순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날로 심화되어갔다. 중남미의 경제위기가 그 절정에 달하였을 때, 중남미 자체의 발전을 자력으로 추진하려는 민족주의 발전론자들은 새로운 개발전략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종래 서구열강이 국제교역의 기초이론으로서 제기하였던 비교우위론(比較優位論)과 확산이론(擴散理論)에 커다란 반론을 제기하면서 중남미 국가의 새로운 발전이론으로서 종속이론을 태동(胎動)시키게 되었다.

가. 중남미 현실과 종속이론 비판자본론

그들은 중남미 여러나라의 경제가 15세기 중상주의(重商主義)시대 이래로 줄곧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의하여 예속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 의하여 그들의 경제가 예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예속을 단절하는 것이 중남미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 중남미 경제가 예속된 이유의 뿌리를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식민지 통치라는 역사적 사실에서 찾으려 한다.

정치적으로 식민통치가 종식된 20세기 후반기에도 경제적 예속관계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하여 대의적 예속관계는 종속이론이나 신제국주의 이론에서 전개하고, 한편 대의적 종속관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대내적으로는 비판자본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종속이론이 중남미의 경제적 낙후 상태를 연구하던 학자들에 의하여 맨 처음 제시된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서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발전을 이룩하지 못한 채 심각한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 더구나 남미 제국은 거의 모든 분야가 외국, 특히 미국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은 이 지역의 경제적 낙후상태를 연구하던 과격한 학자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적 성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학자들에게는, 그러한 낙후의 원인이 그 지역 국가들의 대외적 종속 때문이라는 감정적 결론을 유도하기에 충분한 배경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들 중남미 제국의 당시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1) 중남미 독립사

1492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을 당시 유럽에서 중상주의의 기치 아래 세계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오늘날의 중남미를 여러개의 식민지 속령(屬領)으로 분할하여 통치를 실시하였다.

그 후 300년 이상에 걸쳐 독립운동 투쟁을 진행한 결과, 1821년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등이 독립하였고 1824년에 페루총독이 정식 항복함으로써 중남미의 독립전쟁은 종식되었다. 1824년까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군의 주력은 대부분 축출되어 남미의 정치적 독립은 일단 실현되었다.

이즈음 고립주의(孤立主義)를 내세워 유럽정치에 휘말려들지 않으려 노력해온 미주대륙 최초의 독립국가인 미국은 1823년 미주대륙에 대한 어떠한 식민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먼로독트린을 선언하여 중남미 제국의 독립을 돕는 한편, 중남미 지역에 대한 유럽 열강 등의 지배권 쟁탈전에 뛰어들어 이 지역에 대한 세력을 부식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이 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외관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 바, 이렇게 된 데에는 이들 국가들의 대내적 사정이 크게 작용하였다. 즉 스페인의 식민통치 방식이 본국에 대한 엄격한 충성만을 강요했기 때문에 독립한 이들 국가에는 자치정부의 전통도 없었고 토착기업은 물론 사회발전에 관한 관심과 비전을 가진 정치엘리트도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서구 선진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특히 1904년 미국의 투자자본(投資資本)이 라틴 아메리카에 흘러 들어가면서 영국의 자본을 압도하기 시작하자 미국은 서반구(西半球)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한 우위를 확립하게 되었다. 서반구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부상하면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 사이의 관계는 우호와 갈등이 되풀이되었다.

(2) 미국과 중남미 관계의 특수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리오조약과 1948년 보고타조약 등에서 과시되었던 미주 국가간의 단결 및 협력정신과는 커다란 거리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긴장과 분쟁의 관계가 나타났다. 전략적으로 볼 때에 미국의 대(對) 중남미정책은 중남미 지역에 반미적(反美的)인 세력의 군대 혹은 시설이 존재하면 이것이 서반구 국가에 대하여 공격기지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본적 전략물자의 획득을 제한 혹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미국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경제적으로 중남미는 미국이 생산한 공업제품의 판매대상지역, 공업원료의 공급지역, 그리고 자본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60년의 경우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미국의 전 해외직접투자의 약 25.6%인 84억불, 1967년에는 17.2%인 102억불에 이르며, 미국의 대외 총 수출의 17.4%를 중남미지역이 차지했다. 그리고 1970년에 이르러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직접투자액은 12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중남미는 UN과 같은 국제기구에게 거대한 투표집단(投票集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적으로 미국의 위신과 지도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UN에서 미국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지지 감퇴는 미국의 세계 문제에 대한 위신과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반대로 지지의 증대가 이를 향상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라틴아메리카 제국(諸國)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미국의 중남미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와 같은 정도로 비례하고 있다. 안보면에서 볼 때 방위능력이 미약한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먼로독트린 이래 미국의 서반구 방위전략의 보호 아래 비서반구국가(非西半球國家)의 침입에 대처하여 왔고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핵 및 미사일전력시대에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군사력과 방위공약에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중남미인들은 미국의 이러한 역할이 그를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을 희생함이 없이 행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중남미는 1969년의 경우 그 총 수출의 29.9% 총수입의 35.9%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경제개발을 위해

서 더 많고 더 좋은 조건의 미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 혹은 투자를 유인(誘引)해야 할 입장에 있다.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에 있어서 쌍방이 위와 같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은 각기 자기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협조하는 측면과 상충하는 측면의 서로 상반되는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 양측면은 시간적으로는 역사의 각 시기에 있어서 어느 때는 협조적인 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어느 시기에는 상충적인 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또 같은 시기에도 문제에 따라서 이 양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관계의 협조적인 면을 살펴보면 지역적 인접성, 역사적 긴밀성으로 인해서 군사, 정치, 경제, 문화면에서 양 지역간의 협조가 양측에게 모두 불가결(不可缺)한 것이었다.

군사적으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는 제3의 비서반구 세력의 침입으로부터 미주대륙을 공동 방위하는데 있어서 또는 성내분쟁(城內紛爭)의 공동조정을 위하여 협조가 크게 요청되어 왔다.

팬아메리카니즘(범미주의(汎美主義))의 기치하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주기구가 성립된 것은 이러한 협조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는 소련과 동구권, 영국과 그 연방 혹은 서구에서의 강대국과 그 밖의 국가들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정치무대에서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의 강력한 권력정치의 보스가 되어 주는 대신 라틴아메리카 제국은 미국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 대외관계의 여러 문제에서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양측은 동시에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특히 한국전쟁의 처리문제에서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제국이 보여준 긴밀한 협력의 성공은 이러한 정치적 협력의 중요성을 부각(浮刻)시켜 주었다.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라틴아메리카는 서로 보안관계에 있다. 대개 1차산품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는 라틴아메리카는 미국에 대하여 공업원료(工業原料)를 공급해 주며, 미국은 라틴아메리카가 필요로 하는 공업제품을 제공한다. 특히 미국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통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개발은 양측간 협조의 필요성(必要性)을 강조해 주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도 미국과 개별 국가간의 원조 및 차관 혹은 1960년대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시작된 발전동맹을 통해서 다변적인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간의 이해상충 내지 긴장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충적인 면도 협조적인 측면을 전제로 하고 그런 협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의견충돌이라는 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미국과 남미국가들간의 갈등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제까지 미국 혹은 라틴아메리카 제국의 정책이 너무 법적(法的)인 면을 전제로 생각해온 데 대한 반성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3) 손해보는 무역

19세기 초반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을 달성한 이래 미국과 중남미 국가 사이에 형성된 긴장과 우호의 쌍곡선은 경제적 관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와 미국 사이에 나타난 무역은 본질적으로 농산품과 광물자원을 주축(主軸)으로 하는 1차 산품과 공산품의 교역이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그들이 쉽게 생산할 수 있는 1차산품을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에서 소비될 공업 생산품은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이러한 무역형대는 중남미 제국을 미국의 공업발전을 위한 원료의 공급원이자 제품의 소비시장(消費市場)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농산품과 광물자원은 싼 값에 수출되고 공업생산품은 상대적으로 비싸게 수입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발전에 필요한 자본 축적의 기회를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본이 축적되지 않으니 공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고 따라서 그런 무역으로 인해 수출업자는 돈을 벌지만 그 돈이 농산품이나 광물자원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지는 못하게 되어 그들은 독립 후 약 1백여 년이 지나갔지만 식민지 시대와 비슷한 상태의 경제적 빈곤을 면할 수 없었다.

이같은 중남미 제국의 「손해보는 무역」은 1930년대 세계를 휩쓴 대공황이 일어나자 한층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불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공장들이 도산하거나 기업규모를 축소하게 되자 중남미에서 원료를 수입해 올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러자 수출할 곳이 없는 중남미의 농산품과 광물자원은 값이 폭락하고 나중에는 쓰레기가 되고 말았다. 그에 따라 중남미국가들은 자본공급원(資本供給源)이 떨어지고 생활용품이 희귀해져 극심한 인플레이와 빈곤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4) 수입대체전략의 실패

따라서 중남미 국가들은 그들이 필요(必要)한 공업제품들을 수입하는 대신에 바로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른바 수입찬전략(輸入贊戰略)을 1940년대부터 추진하여 손해보는 무역을 억제하는 한편 국민 경제를 보다 튼튼하게 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나 초기에 그럴듯하게 보이던 이런 정책도 얼마 가지 않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수입대체공업을 발전시키려면 공장과 시설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고, 또한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비해 줄 국내시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들은 그런 자본과 기술이 없으므로 비싼 이자와 대금을 주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해야 했으며, 중남미 제국의 대중은 너무나 빈곤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비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수입대체공업화의 전개를 위주로 한 그들의 대내지향적 경제개발계획은 1960년대에 이르러 막대한 외채(外債)의 증가, 다국적 기업의 침투, 심한 인플레이 및 대중의 빈곤 등 비참한 유산을 안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중남미 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 인플레이, 높은 외국자본 의존도, 다국적 기업의 지나친 침투 등의 문제점은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다.

오늘날 세계 3대 채무국은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1982년 말 현재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 1.2.3의 채무국(債務國)으로서 각각 863억, 846억 및 388억 달러의 외채(外債)를 안고 있다. 그들의 총 국민생산(GNP)에서 외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 51% 및 53%에 달하고 있다.

오늘날 중남미의 30여개 국가 전체가 안고 있는 대외 채무는 모두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거의 모든 나라가 법적(法的)으로 갚아야 할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원리금 상환의 재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아시아, 아프리카 현실과 신제국주의론

중남미 지역에서 19세기 중반 이래로 정치적 독립에 이어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저발전 상태를 극복하려는 자주적 경제발전전략이 논의되고 있을 무렵 제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에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많은 나라들도 식민지 통치의 유산을 하루 아침에 털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독립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기대는 크게 좌절되었다.

이러한 좌절이 일어나게 된 원인의 일부는 분명히 구식민지 지배의 유산에서 찾을 수 있다. 식민지 지배가 없었다고 할 경우 과연 그러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던가 하는 의문은 차치하더라도 발전에 필요한 토착자본의 미형성, 기술의 낙후 등은 식민통치의 결과로서 이해될 수도 있다.

새로이 독립을 얻은 기쁨은 선진국과 같은 수준의 발전에 대한 기대를 낳았기 때문에 신생독립국들의 낙후된 현실과 이를 수 없는 발전기대와의 차이에서 더 큰 좌절과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신생국들이 이러한 좌절과 불만을 극복하고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지도체제의 확립을 필요로 하였다.

여하튼 신생독립국에서 새롭게 성립된 정치권력은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룩될 수 없는 상황과 여기에서 야기되는 불만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였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새로운 명분 아래에 사회적인 힘을 동원하는 방법이 요청되고 있었다.

그 중요한 한가지 방법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자에 대한 증오감을 유발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한 조건은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식민통치가 사실상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에 대치할만한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등장한 것이 신제국주의론이었다.

이러한 신생국의 고민의 시기는 국제정치사적으로 볼 때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기와 대체로 일치한다. 스탈린이 아직 권력을 잡고 있을 때만 하여도 제3세계라는 말로 요약되는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은 소련의 세계전략에서 그리 중요한 요소로서 분명하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신생독립국의 대부분이 당시까지만 하여도 정치, 경제적으로 구 식민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자본주의 진영의 일부라고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55년 인도네시아의 반동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이 회의를 열고 동서 어느 진영과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는 이른바 비동맹원칙(非同盟原則)을 선언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서방 진영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다.

이 회의에 초청되지 않았던 소련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의 적은 친구」라는 역논리에 입각하여 서방진영에 대한 선전에 이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소련 공산당의 이론가들은 서방진영과 제3세계의 관계를 신식민주의(新植民主義)라고 이를 붙이면서 선진 자본주의의 확산이론에 도전하는 이념으로 발전시켰다.

토막소식

광선무기(光線武器)란 무엇인가?

'80년대 후반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 광선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전자, 중성자 등을 가속시켜 방출하는 입자빔무기이고 다른 하나는 고(高)에너지 레이저 광선(光線)무기이다.

입자빔무기는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입자들을 광속에 가까운 초속 약 30만km로 가 목표물에 닿게 되면 입자가 갖고 있는 고(高)에너지가 표적에 옮겨가 녹거나 구멍이 뚫리면서 파괴된다.

한편 고(高)에너지 레이저는 순간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한다. 레이저 광선은 특히 그 자체가 레이더 전파를 갖고 있어 목표물을 탐지함과 동시에 공격할 수 있어 별도의 발사 시스템이 없어도 된다.

외채(外債)와 국제수지(國際收支) 방어(防禦)



편 집 실(編輯室)

외채인식(外債認識)의 문제점(問題點)

일부 논자(論者)들은 외채(外債)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종속을 의미하므로 종속의 탈피를 위해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와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외채문제에 대한 인식의 오류가 범람하고 있어 국민들은 외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지경이다.

우리는 외채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안목으로 회의를 하는 것은 문제해결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좋으나 비판적인 안목은 건설을 전제로 해야 하며 회의는 창조정신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가 있다. 그러나 외채(外債) 우려론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의 제시도 없고 창조적인 정신도 전혀 보이지 않으며 오직 현실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사마르크스주의와 구조론자들에 의해 제기된 종속론의 허구성을 일일이 열거할 겨를이 없다. 다만 저개발국이 선진 자본주의와의 자본 기술 및 자원거래를 하는 것이 빈곤, 시장위축, 추종성을 가속화시킨다는 종속론이 남미(南美)의 상황일지도 몰라도 우리 경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싶다. 선진자본주의국가와의 자본 및 기술거래가 다소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종속론자들의 지적은 진실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빈곤이 가속화되며 시장이 수축되고 저개발국이 중심자본국가의 주변국가로 편입된다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조금만 눈여겨 보면 허위라는 것을 누구나 발견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외채도입(外債導入)으로 빈곤이 가속화된 것이 아니라 국민소득을 급격히 향상시키며 고용을 창출해 냈다는 것을 여러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연간 8%의 성장으로 소득과 고용을 창출한 경제운용의 원동력이 국내저축으로 충당하지 못한 해외 저축에 의한 투자재원이었다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자본과 기술도입이 선진국에의 예속과 시장위축을 가져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해외 저축에 의해 수많은 공장을 건설하여 오늘날 수출실적이 3백억달러 규모로 팽창할 정도로 시장을 확대해 왔다. 선진국과의 자본과 기술거래는 예속에서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모

색해 왔을 뿐이다. 자본과 기술거래에서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비단 저개발국과 개발국간의 거래뿐 아니라 개발국 상호간의 거래에도 흔히 있는 일이다. 불평등한 거래 자체 때문에 자본과 기술의 거래를 하지 말고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폐쇄경제운용을 하자는 말이며 오늘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심화현상을 보지 못하는 눈 먼 자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경우 외채(外債)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들어온 외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어떻게 상환을 하느냐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문제이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일부 외자(外資)는 부실채권화했으나 대부분의 외자는 경제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은 산업현장이 설명하고 있다. 원리금 상환부담률, 외채조정 확률지표(로짓인디케이터) 등은 우리의 외채상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지금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외채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외채(外債)를 이겨야 한다

외채(外債)를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고, 쌓아 올리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4백 32억 달러나 외채를 쌓아 올린 당사자들의 책임(責任)도 있다. 그러나 외자문제(外資問題)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외채누증(外債累增)을 극복하는 길은 싫건 종건 수입(輸入)을 줄이는 것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수입(輸入)에 의존하는 몫이 너무나 크다. 공산품(工產品)은 원료(原料)와 중간재(中間材), 완제품(完製品)의 차이는 있지만 통틀어 거의 1백%를 수입으로 매꾸고 있고, 농산물도 식량의 절반, 쇠고기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매달려 해결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의 사고(思考) 속에는 그다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폐습이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조금만 가격이 치솟을 조짐이 있으면 농(農)·공산품(工產品)을 물을 것 없이 수입(輸入)으로 대처하고, 불요불급품(不要不急品)의 수입증대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무역(貿易)자유화를 급진적으로 추진시키고 있다. 거기에 편승하여 민간(民間)은 또 그것대로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사치낭비적인 수입재(輸入材)를 골라서 수입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수입자유화의 추진을 신중하게 하면 그런 폐습은 막을 수 있다. 이 점 정부는 심심한 반성(反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로서는 수입자유화 폭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외면할 수가 없다. 우리가 남의 나라 시장(市場)엘 파고 들기 위해서는 우리도 남들에게 우리의 시장(市場)을 개방해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이 경우 민간기업이 수입개방된 외국물품의 수입(輸入)을 스스로 삼가하는 마음 가짐이 불가결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수입개방만 되면 불요불급(不要不急)하고 사치낭비적인 상품을 골라서 수입하는 꼴이니 아니 답답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물론 불요불급재(不要不急材)의 수입(輸入)만이 문제가 아니다. 생산재와 생활 필수품의 낭비적

소비증대는 국제수지상으로는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산재(生産材)의 투입을 줄여 고급(高級)·고가품(高價品)을 만들고, 생활필수품을 최대한 절약적으로 소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단위(單位) 생산품의 에너지 소비비중이 남의 나라에 비해 몇 배나 되는 에너지 낭비적 생산품종의 개선(改善)은 물론이거니와, 생활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도 획기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줄 여기는 것이다.

외채문제의 해결은 어느 누구에게도 국한되지 않는 국민 모두의 과제(課題)이다. 국민 모두가 각기 제각기의 위치에서 소비를 줄이면 그것은 곧 외채(外債)를 줄이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사치낭비재의 수입의존도가 크다. 불요불급하고 사치낭비적인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외채(外債)를 줄여가는데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줄 여기는 것이다.

비장한 각오와 실천

연초(年初)의 무역동향을 보면 이제 국제수지 개선은 화급을 다투는 당면과제로 등장한 감이 든다. 1월 중에 경상수지 적자가 5억달러에 이르렀으며 2월 들어서도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연간 목표로 제시된 5억달러 내지 7억달러의 경상수지적자 유지는 지금으로서는 비관적이다. 이는 연초(年初)부터 주종품목의 수출이 둔화된 데다가 수입은 여전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동향은 앞으로 그 추세를 주목해 보아야겠지만 어쨌든 국제수지 개선대책은 서둘러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국제수지 개선대책이 왜 절실했는지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외채(外債)규모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외채규모는 이제 4백억달러를 넘어섰고 추가적인 외자도입(外資導入)이 거의 모두가 외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소진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른바 외채의 차환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그러한 현상이 성장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일부에선 외채 비판론을 주장하면서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내다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외채비판론에 동조할 필요는 없지만 외채절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외채(外債)의 절감노력은 바로 국제수지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며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국제수지 균형을 찾는 요체이다. 일부에선 마치 외채의 누적이 외환당국과 기업가들만의 책임인양 말하고 그들을 탓하기도 한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외채누적과 관련이 깊다. 모든 물건에는 수입원자재가 들어 있으며 모든 물건을 만드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덜 쓰고 절약하며 저축하는 것이 곧 외자도입을 줄이는 길이다.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이 같은 이치를 깨닫고 그것을 생활화할 때 우리는 외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정책당국은 국민 모두가 절약하고 저축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외채 누적문제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사람은 많아도 건설한 생활이 곧 외채절감의 요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절약 저축생활은 지도층부터 솔선수범하고 그것이 대중 속으로 확산되어야만 한다. 정부가 발표한 국제수지 개선대책은 우리가 보기로는 비상대책이다. 이제 국제수지개선에 대해 비상을 걸만한 시점에 이르렀다. 정책당국 기업가 가계 모두가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비장한 각오를 하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국제수지개선에 두고 모든 정책을 조정해야 하며 정책의 통합성을 견지해야 한다. 지금은 부처(部處)의 이해 관계를 따질 수 없고 누구를 탓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시점이다. 우리는 지금이 합심협력하여 당면과제인 국제수지 방어에 민족의 역량에 집결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국제수지(收支)를 함께 걱정하자

올들어 지난 2월까지의 무역부분 수지적자(收支赤字)는 예사로 보아 넘기기 어려울 정도이다. 물론 견해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도 국제수지 적자폭이 13억 6천만달러로 당초 목표했던 10억달러를 크게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현상일지라도 소홀히 볼 수 없다고 하겠다.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길은 수출촉진, 소비절약, 수입억제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당장에 수출이 늘어나기는 커녕 지난해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치와 낭비는 여전히 수입억제도 말에 그치고 있다. 국제수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외채(外債)다. '83년 말에 4백 1억달러였던 외국 빚이 지난 연말에는 4백 32억 달러로 1년 사이에 30억 달러나 늘어났다. 원리금 상환액만 해도 60억 달러에 달한다.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는 한 외채가 자꾸 커질 것은 자명(自明)한 일이다.

국제수지개선이나 외채축소는 정부대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온 국민이 그것의 문제성을 깊이 인식하여 협조로써 참여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정부로서 추진할 내용과 함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근검절약에 보다 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은 국제수지와 외채를 거론할 때엔 으레 정부의 책임이나 탓으로 돌려 버린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자면 종이 한장, 물 한 방울을 절약할 줄 모르는 국민들의 자원낭비와 사치가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에너지를 10%만 절약해도 1년에 6억~7억달러의 외채유출(外債流出)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절약을 우리들은 남의 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물론 절약은 저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국제수지 개선, 나아가 외채축소대책에는 저축증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성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밑 빠진 독엔 물이 차지 않는다

2월의 국제수지 적자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지표상의 개선이 반갑다기보다 차라리 착잡한 심정이다. 그 이유인 즉 아직도 국제수지 방어에 대한 국민 모두의 각성이 미흡하며 그 결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일각에선 갈증현상과도 같은 과시소비가 여전하다. 국제수지를 방어해야 한다고 비분강개하는 사람은 많으나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자세가 국제수지 개선의 요체라는 인식을 깊이하고, 그대로 행동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는 성숙되지 못한 실정이다. 절제와 극기의 가치는 갈증현상과도 같은 과시소비 때문에 외면당하거나 매몰되고 있다. 우리는 국제수지를 방어하려면 국민 모두가 그것의 절박성에 대한 인식을 투철히 하고 대처하는 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독에 물을 채우려면 그 독의 밑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밑빠진 독부터 고친 후 물을 채우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출을 늘리고 외환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수입수요를 자극하는 소비생활이 성행하고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물품을 수입한다면 국제수지는 개선할 수 없다.

국제수지개선은 기업이나 관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이나 외자도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면서 오늘의 외채누적현상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오늘의 국제수지 문제를 걱정한다면 국제수지 개선의 실천운동에 참여하여 소비전전화, 국제수지 방어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외자도입정책은 자원과 자본이 없는 우리 처지에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대안없는 비판이나 냉소주의는 현실타개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깨뜨리는 일일 뿐 지금 처지에서 전혀 생산적인 일이 못된다. 기업들도 말은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면서 실제로는 독을 깨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1월에 5억 6천만달러였던 국제수지의 경상수지적자가 2월 들어 8천 8백달러로 현저히 줄어든 것은 우리 모두의 하기 나름에 따라 국제수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각별히 주목하는 것은 수입개방에 대처하는 국민의 자세이다. 일부 종합상사들은 평당 1백 50만원 내지 2백만원 하는 양탄자와 비싼 주방기구를 수입하고 있다. 과자류는 지난해보다 76.2%, 초콜렛은 94.7%나 늘었다. 그런 것들을 수요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국제수지를 방어할지 의심스럽다. 진실로 지금은 국제수지를 걱정하고 비분강개하는 것보다 국제수지개선을 위한 한 가지의 실천이 아쉬운 때문이다.

경제 :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올해 들어 국제수지문제가 최대의 과제로 등장했다. 그 이유는 '86년에 반드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해묵은 숙원이기 때문이다. 내년에 국제수지를 균형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는 앞으로 상당한 시련이 불가피할 것이다. 4백억달러를 넘어선 외채문제가 그렇게 2천년대를 향한 모든 계획도 재조정이라는 쓰라림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들어 국제수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1월 들어 경상수지가 4억 9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2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사태는 나빠지고 있다. 이는 수출이 부진한 때문이다. 1월 중의 수출은 지난 해보다 19.3%나 줄어든 16억 4천 4백만달러에 불과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해 왔던 섬유, 신, 선박이 부진했다. 물론 한 두달의 수출실적만 가지고 1년간 전체를 비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역업계에서는 1월의 수출이 나쁘면 그해의 수출은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얘기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올해의 국제환경이 지난 해보다 확실히 좋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 나라의 주수출시장인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며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쪽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중동(中東), 일본(日本), 동남아(東南亞) 등 시장도 만만치가 않다. '84년 10%를 넘었던 세계의 무역량 증가율이 올해에는 5~6%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게 세계적인 경제분석기관들의 일치된 예측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입증가 추세이다. 적정성장을 달성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증가가 뒤따라야 하나 지난 해부터 커지기 시작한 수입규모는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가장 큰 점으로 등장했다. 1월 중 수입은 2.1%가 감소했으나 수출감소율에 비례하지 않아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시켰다.

국제수지를 개선하려면 수출의 증가 못지 않게 수입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일은 정책노력보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더 힘든 작업이다. 특히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여 에너지, 식량, 원자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또 경제규모가 커지고 중진국으로 발돋움함에 따른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을 외면만 하고 있을 처지도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 수입을 자유화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이제 한국도 공정한 무역국임을 알려야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입억제는 소비억제운동 등 민간단체의 힘을 빌어야 하는 제한된 행동 밖에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소비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84년 소비율이 71%로 낮아졌지만 아직도 대만, 일본 등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비율을 1%만 낮추어도 국제수지상 2억~3억달러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국제수지를 개선하는 방법은 수출을 늘리고 소비를 줄여야 하는 평범한 방법뿐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수출증대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하고 소비절약에는 가계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짜내

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수 뿐이다. 가계의 소비절약은 평균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의 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좋은 정책을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국민이 정부의 뜻을 이해하고 협조해야 만이 정부의 시책도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국제수지대책에서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외국빚 우습게 알 때 지났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제수지개선대책을 크게 해석하면 외채(外債)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든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켜 궁극적으로는 외채(外債)를 줄여보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외채(外債) 규모가 작년말 현재 4백 32억달러로 경제성장에 부담스런 존재로 등장한데다, 올 들어 국제수지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월 중 국제수지적자는 4억 9천 2백 만달러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5억~7억달러 적자에 육박했고, 2월 들어서도 웬일인지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국제수지문제가 정말 화급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 내용도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근검절약 태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대책 중에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한 듯한 내용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예를 들어 복사지 사용과 설탕소비를 줄여달라든가, 헌옷을 재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든가, 수명이 긴 래디얼타이어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해외 유명선수나 연예인 초청을 줄이고, 호화 TV쇼를 억제하며, 심지어 쌀겨로 만든 기름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내용까지 들어 있다.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하나 하나 실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아무리 강조해도 외채(外債)절감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비판론자 중에는 외채(外債)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현재보다 당분이 덜 들어 있는 청량음료를 마셔야 하고, 재미없는 쇼를 구경해야 하느냐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 즉 작년 한해동안 외국프로권투선수 초청비용은 40만달러, 해외연예인 초청경비는 1백80만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몇 푼 안 되는 외채(外債)를 절약하기 위해 권투팬이나 쇼프로그래머 시청자들이 재미없는 것만을 구경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외채(外債)문제에 관한 한 모든 국민이 조금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외채는 한 번 말쑥이 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고, 그 후에는 더 큰 경제혼란이 밀어닥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나름대로 정책적인 면에서 실천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수출촉진을 위해 수출 금융단가를 올려줬으며, 원유, 석탄, 곡물수입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들도 해외 출장비용을 아낀다든가, 수출적자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제수지적자폭을 줄이자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인 접근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1천억원 증액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국산기계를 구입하는 기업에 국민투자기금을 확대 지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 국산기계를 구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준 것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국산기계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국민투자기금한도가 없어 금융혜택을 받지 못한 기업이 상당수에 달했다. 기업들은 해외지사경비를 많이 쓰고, 불필요한 커미션을 지나치게 지출하는 예가 많다. 또 무턱대고 외국상표나 기술을 도입하는가 하면, 빌딩을 지으면서 값비싼 수입전자재로 장식하는 일이 빈발하다. 일부 경영인 중에는 호화판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으며, 외국에 별장을 매입해 놓은 사례도 있는 실정이다.

전경련(全經聯)과 상의(商議)가 최근 외화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기업부문의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외채(外債) 절감 전방위(全方位) 비상(非常)

올들어 국제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1월 중 경상수지 적자는 4억 9천만달러를 기록, 올해 연간 역세선인 5억~7억달러에 벌써 육박했다. 정부만 탓하고 있기에는 오늘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미국(美國)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7%에서 올해는 3%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타 선진국 경기도 둔화, 이로 인한 교역량 감소로 앞으로의 수출전망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국제금리는 계속 강세를 보여 올들어 벌써 0.5% 포인트 상승했다. 국제금리가 1% 오르면 이자부담이 연간 3억달러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외채(外債)(작년말 4백 32억달러) 구조여서 국제금리 상승은 국제수지에 큰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려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수출증대는 상품의 경쟁력 제고(提高)가 전제돼야 하므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국 수입을 줄여 외채(外債)지출을 억제하는 방안이 당장 손쉬운 대책으로 떠오르게 된다. 외채(外債)와 국제수지 적자(赤字)는 따지고 보면 분수를 넘는 생활의 부산물이다. 먹고 입는 것 어느 한가지도 외채(外債)와 무관한 것은 없다. 농약이 있어야 쌀 생산이 가능하고 석유를 들여와 전력을 생산해야 수도물을 공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다면 국제수지 적자(赤字)를 해결하는 길은 결국 절약과 저축에서 찾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저축이나 절약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다. 자발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행정력을 통한 소비절약도 쉽지 않은 않다. 작년 여름 한 때 강력히 추진되었던 사치성 소비업소 단속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다.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는 정부·기업·소비자가 힘을 합해야 할 과제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의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스스로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자세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불요불급한 품목의 수입자유화는 뒤로 미루어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기업은 국제수지 악화에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 임금과 물가가 전(前)에 없이 안정세를 유지해 왔는데도 수출이 준다는 것은 대외시장 여건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에 그 책임을 돌려야 한다.

국제수지 악화를 빙자, 조악한 품질의 국산품 소비만을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 국제수지 개선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기업 자체의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 역시 반성해야 할 점은 없지 않다. 눈을 뜨면 늘어나는 먹고 마시는 사치성 소비업소 품질은 달라진 게 없는데 외국상표만 붙으면 좋다는 식의 어리석은 구매행위 등이 모두 외채(外債) 누증을 결과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과소비(過消費)는 기업(企業)에도 득(得) 없다

요즘을 일반화되고 있는 과다소비 풍조를 두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소비 그 자체로 볼 때 기업인(企業人)인 나는 이율배반(二律背反)에 처해 있음을 실감한다. 소비가 많아 물건이 많이 팔리고 우선 이익이 많이 난다는 것은 기업인에게는 상당히 의욕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부 사람들로부터는 「기업은 우선 많이 팔고, 돈벌고 그 다음 걱정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듣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이같은 소비풍조를 개별기업의 단기적 수익증대라는 차원에서보다 장기적으로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요즘의 문제가 어떤 형태이며 어떤 수준인가 하는데 있다. 국내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착실히 성장되고 이들이 뒷받침 해 주는 가운데 일어나는 소비라기보다는 이른바 분(分)에 벗어난 과다소비 외채선호로 흐른다는데 걱정이 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된 소득의 뒷받침이 없이 부화적(附和的)·충동적(衝動的)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데 문제가 있다. 요즘 소비가 이같이 정상적 소비(消費)개념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같이 주요자원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곧 국제수지문제, 외채문제에 직결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생활 주변에서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운동화—특히 고급운동화를 예로 들어본다. 우리는 1만~2만원 하는 고급운동화를 살 때 그저 국산품(國產品)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그 원자재 50~60%가 원칙적으로 수입되며 귀한 외화(外貨)가 지출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 것 같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어떤 소비자가 그런 운동화 한 켤레를 사는 순간 같은 운동화 두 켤레를 수출해야 국제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소비가 늘어나면 당장은 수출보다 재미를 본다. 그러나 소비가 많아지면 원자재수입과 외화(外貨) 지출이 늘어나서 궁극적으로 국내 소비급증은 수요가 있어도 외화(外貨)부족으로 원자재수입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국내 저축부족으로 금리수준을 올려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악화되게 마련이다. 장기적으로이 같은 양상이 계속되면 생산중단, 고용감축 등 악순환으로 연결됨은 물론이다.

한편 가계(家計)에서도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위해 여러 가지 무리를 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각종 사회불안요인을 만들게 된다. 우리 주위에서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거론될 정도로 소득수

준이 나아지고 생활 자체를 즐기려는 풍조가 늘어나고 있음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가격-품질면에서 외국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Y서츠 하나에 1전 2전을 따지는 현실 아래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소비를 즐길 것인지, 한 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소비(異常消費)현상이 가져다 주는 사회적 분위기는 큰 문제가 아닌가 한다. 소비가 풍미하다 보면 기업하는 사람이 과정이 복잡하고 경영이 복잡한 제조업을 안 하려 든다. 모두 백화점·술집·유흥음식점 등 고급서비스업에 몰려든다. 술집간은 유흥서비스업이 계속 확대될 때 섬유산업은 그 기능인력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다. 생산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산업은 지속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소비풍조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최근 들어 정부는 단기(短期) 국제수지 개선대책을 마련하며 공공부분(公共部分)의 외화(外貨) 절약기준을 정하고 또 공기업(公企業)의 외채(外債) 절감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인으로서 또한 개인으로서 무엇이 그 실마리를 푸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선 저축은 중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 이웃 일본(日本)의 국민 한 사람의 저축률은 연간소득의 20%에 달한다. 그들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안 먹고 안 입고 저축하고 있다. 경단련(經團連) 회장을 지낸 도꼬씨는 1억엔이 넘는 연(年)수입에도 불구하고, 25평 작은 집에 살며 한 달 15만엔을 쓰고 있다. 과거 우리는 일본을 가르쳤지만 이제 그들은 우리보다 선진(先進) 속에 살고 있다. 그들로부터 배울 것은 배운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기후 탓도 있겠지만 넥타이 맨 사람을 보기 드물다. 모두가 옷종류에 신경쓰지 않고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것에만 신경쓰는 것 같다. 우리의 옷차림은 어떠한가? 고급 음식점은 왜 그렇게 붐비며 식사 후 버리는 음식은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는 너무 외화내빈(外華內貧) 습성에 젖어 있는 것 같다.

우선 실현 가능성 있는 조그만 부분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절약저축의 경우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꾸준히 운동을 벌여야 한다. 열심히 일한 사람, 열심히 자기 기계 설치하고 생산한 사람은 보상받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정책적(政策的)으로 물고 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부, 기업, 가계,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 같은 분위기 조성에는 언론도 막중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문제를 두고 누구나 그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행(實行)에 옮기는 어렵다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소비, 저축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대증(對症)요법보다도 원인(原因)요법을 찾아 지금은 힘들더라도 5~10년 뒤에는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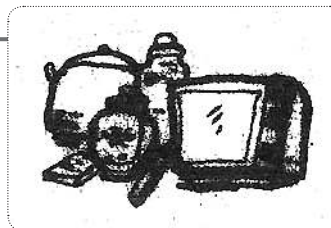
건전한 소비생활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기업도 국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를 수 없고 그 사회가 번영을 구가할 수도 없다고 본다.

풍물지(風物誌)

박 정 화
〈시인〉

강원도 설악산에 와서
전국(全國)에서 절경의 하나인
설악산의 가을 단풍과
설악산의 기암괴석을 보다가
오대산 동쪽 계곡에 자리 잡은
월정사에 와서
서기 643년(年) 절을 창간한
자장율사 스님의 뜻을 읽다가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을
바라보노라면
석조 보살좌상이 내 앞에서
무엇인가 침묵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 오고
보장각에 깊이 소장되어야 할
나의 시구는 금강변에서
줄줄이 시가 되어 흘러내린다.
시가 되어 흘러내린다.

【 긴급진단(緊急診斷) 】 수입자유화(輸入自由化) 확대(擴大)와 국내기업(國內企業)



편 집 실(編輯室)

‘83년 7월 1일을 기해 외국상품의 수입문호가 활짝 열렸다.

정부의 수입자유화와 확대 정책에 따라, 맥주, 커피, 유산균음료, 캐러멜, 드롭프스, 초콜릿 등 식품류와 라이터, 녹음기 및 9인치 이하의 소형 컬러 TV, 안경 등 3백 27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됐다.

이어 설탕, 니트웨어, 에어컨, 재봉틀, 카세트녹음기, 트럭, 전기밥솥 등 2백 32개 품목이, ‘86년에는 도자기, 모직물, 특수강, 전자레인지, 컬러 TV(10~18인치), 일반버스 등 1백 10개 품목이 자유화된다.

1. 수입자유화 폭 확대는 외국의 개방 압력요인

이렇게 되면 ‘88년에 가서는 총 7천 9백 15개품목 중 7천 5백 36개품목의 수입이 개방되어 자유율은 ‘84년의 84.7%에서 95.2%로 크게 높아지게 된다.

정부가 이같이 수입자유화 품목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이유는 외국으로부터의 수입개방압력이다. 미국을 비롯 주요 선진국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해 수입문호를 열라고 요청해 왔다.

지난번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국산 컬러 TV에 대한 미국의 덤핑시비가 일었을 때에도 미국은 퍼스널 컴퓨터와 담배, 카피트 등의 수입개방을 강력히 요구, 결국 1단계로 카피트에 대한 수입문호를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이 세계각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이 국내산업보호를 이유로 외국상품의 수입문호를 꼭 달아 걸어놓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 상품의 외국 수출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입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국제교역 환경 아래서 수입자유화의 확대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의 대열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인 것이다.

이와 함께 대내적으로는 외국 제품을 국내시장에서 국산품과 경쟁시킴으로써 국산품의 품질을 보다 향상시키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다. 지금까지 독점상태나 정부의 과잉보호 아래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은 외면한 채 내수가격을 비싸게 매겨놓고 폭리를 취하는 반면 수출시장에서는 덤핑수출을 일삼던 국내기업들을 국제 경쟁의 싸움터에 출전시킴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술혁신을 통한 체질강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국상품의 수입이 자유화 된다면 국산과 외제의 구별없이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질 좋고 값싼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생산자는 외국상품과의 경쟁 속에서 디자인이나 색상을 개선하고 기술개발 및 원가 절감에 주력함으로써 국산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 내수 및 수출시장에서 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2. 국산품 국제경쟁력 강화 내수와 수출시장의 진출도

그러나 이같은 것은 수입자유화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본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외래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나라에서 외제품의 수입이 개방될 경우, 막대한 외화가 낭비되어 국제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이다.

과거 수입과자파동, 전기밥통파동, 지령이 수입파동 등 수입이 자유화되자마자 정작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건보다는 사치성품목의 수입이 급증, 사회문제를 야기시킨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가 지난 1년간 수입자유화정책을 실시한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우려했던만큼 무분별한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의 수입이 전체적으로는 53.7%가 증가했으나 원면, 반도체부품 등 8개 주요 원자재 부품 등의 수입이 급증했을 뿐 나머지 품목의 수입은 품목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전체적인 통계에도 불구하고 식품 및 직접소비재의 수입은 1년간 94.3%가 증가했다. 물론 수입 금액은 2천2백만달러에 불과 전체수입액의 2% 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소비재의 수입이 전면 개방될 경우 얼마나 수입 수요가 늘지를 예상할 수 있다.

3. 국산품이 외제보다 비싼 편, 가격경쟁 가능한 것은 비누 뿐

또 산업자본재나 원자재의 경우에도 수입번호가 열림에 따라 업종별로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품목이 많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14개 업종 중 외국상품의 수입이 개방될 경우 가격경쟁이 가능한 품목은 비누 하나였으며 절반 이상이 국제 가격보다 국산품의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품질면에서 있어서 국산품이 외제를 능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염료와 제지부문에서 비슷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외제품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같이 가격과 품질 양면의 열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외제 상품의 도입이 개

방될 경우 국내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 수입자유화시기를 연장하거나 관세율을 조정, 가격경쟁력을 키워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또 외국상품이 계속 밀려들 것에 대비, 각 기업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국산품 애용운동을 전개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밖에 각 업종별 단체를 통해 가격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근대화, 기술혁신, 정보교환 등을 모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수입자유화와 확대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주요 업종의 동향을 알아본다.

4. 자유화로 타격이 큰 섬유시설 근대화 등 대책마련

지금까지 과잉보호상태에 있던 국내 화섬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섬유업종의 수입자유화율은 천연섬유의 경우 원면, 원사 등 주원료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자유화율이 1백%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 화학섬유는 '83년까지 91개 품목 중 44개 품목이 개방되어 자유화율은 48.4%에 그쳤다.

정부의 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86년까지 자유화품목을 73개로 확대, 자유화율을 80.2%까지 높인다는 것.

국내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세계각국에서 섬유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판에 수입까지 열어주면 어떻게 살란 말이나고 울상이지만 이미 방향이 확정된 이상 섬유공업의 근대화 작업을 위한 관민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섬유업계의 가장 큰 단체인 섬유산업연합회를 중심으로 발족된 섬유중흥 협력위원회에는 수입자유화와 관련한 업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섬유업계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섬유업계는 이밖에 외국제품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시설근대화 신소재개발, 품질고급화, 섬유관련정보의 신속입수분석, 마케팅능력배양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5. 외제와 대항할 수 없는 식품 150%의 추세 등 비싼 맥주

식품업계는 수입자유화 확대 계획이 확정된 이후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부터 수입이 개방된 맥주나 붉은 커피 및 개방되는 설탕의 경우 가격경쟁력 면에서 외국제품과 대항할 수 있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원자재의 수입개방에 앞서 완제품이 개방된 데다 국산맥주는 주세가 1백 50%나 부과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비싸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업계에서는 국산품의 가격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는 맥주원자재의 수입을 개방하고 주세율을 낮추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설탕의 경우 원자재인 원당을 1백%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기반이 취약, 국제원당가격 변동상황에 따라서는 국내업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물거래를 통한 원당고급확보 등이 시급한 과제이다. .

제과부문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캐러멜, 초콜렛, 드롭프스 등의 수입개방 역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

그러나 제과업체에서는 과거 70년대 후반 수입과자를 비롯한 외국식품의 수입이 개방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었으나 그 후 열기가 사라져버렸던 경험을 들어 그리 우려할만한 사태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체는 또한 과자류의 소비자가 청소년층이라는 점에서 제품의 고급화와 아울러 국산품의 품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대대적인 판촉전략을 세우고 있다.

6. 의약품, 화장품 설 땅 잃어, '86년부터 전품목으로 확대

수입자유화확대로 인해 가장 극심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제약 및 화장품업계이다.

화장품은 지난해 1월부터 향수, 헤어크림, 아이세도우 등 11개품목, 분말향 34개 품목이 수입되고 있으며 콜드크림, 볼연지 등 13개 품목이 '86년부터는 모든 화장품이 전면 개방된다.

또 의약품도 현재 92%에 달하고 있는 수입 자유화율을 96%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모두 외제선호도가 매우 높은 제품인만큼 수입이 완전개방될 경우 국내 업체는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국내화장품 및 의약품업체가 제조원가에 비해 엄청난 판매가를 매겨놓고 할인판매를 일삼는 등 유통질서를 흐리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해온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자유화 조치가 더욱 당겨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완전개방까지는 2년간의 시한이 있는 화장품과 제약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비책을 펴고 있다. 제약업체는 생산설비를 국제수준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산약품의 함량이나 약효가 외제에 비해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편견을 씻어내기 위해 업계 공동 혹은 관·민 합동으로 약효 및 품질검사와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또 화장품업체에서는 품질제고와 함께 포장 및 디자인 개선, 판촉활동강화방안 등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 제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문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판매방식을 개선 엄청난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7. 전기, 전자업계 일본 침투가 관건, 내수가격 낮추는 등 다각적 모색

첨단기술분야인 전자, 전기업체는 수입자유화가 확대 실시될에 따라 일본 제품의 침투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때 전기밥통파동을 빚기도 했던 것처럼 값이 싼 일본제의 수입이 급증, 국내기업들을 도산 위기에 빠뜨리게 될까봐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가 확정한 연도별 수입자유화 계획에 따르면 우선 전화기, 진공소세기, 인터폰, 난방기, 소형에어콘, 9인치 이하 컬러 TV 등 53개 품목의 수입문호가 열리고 내년에는 카세트녹음기, 전기다리미, 전기밥솥, 라디오 등 59개품목이, 오는 '86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컬러 TV(10~18) 등 64개 품목의 수입이 개방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전자제품의 수입자유화율은 올해 62% 내년에 73.9% '86년 87% 점차 높아져 전자제품 총품목 4백 95개 중 수입의 제한되거나 예시가 보유되는 품목은 78개만 남게 된다.

전자제품의 수입자유화율은 전체 자율화율에 비하면 나소 낮은 편이다. 그만큼 국내 전자 산업의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기술수준이 낮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수입자유화 예정시간표를 '90년대 이후로 늦춰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즉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작고 국산화가 안 된 품목부터 수입을 열고 일단 자유화된 품목의 경우 수입물량의 증가추세를 보아가며 사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미 개방정책의 경향은 수입된 것이다,

이에따라 업체는 기술개발 및 설비증설, 부품국산화, 국산화율 제고 등 다각적인 대응전략마련을 하고 있으나 기술기반이 취약한 부품소재 등의 경쟁력 강화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컬러 TV 덤핑문제로 말썽을 빚었던 것처럼 수출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내수가격을 보다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8. 자동차도 '88년까지 완전개방, 경쟁력 위한 계열화작업 진행

자동차부문의 수입자유화 계획은 대형덤프트럭과 이동진료차의 수입문호를 열고 청소차, 제설차, 구급차, '86년에 소방차, 일반버스, (4~10)톤트럭의 수입을 자유화할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승용차는 소형부터 시작, '87년과 '8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수입을 개방 오는 '88년까지는 전 차종을 전면 수입개방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의 수입자유화는 2만여가지의 부품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인 자동차공업의 기술향상을 위해 어차피 겪어야 할 고비이지만 우리 형편으로서는 아직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

승용차의 경우 외국메이커들의 덤핑공세도 우려된다.

즉 완성차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의 헐값으로 팔고는 나중에 부품수출에서 이익을 남기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나올 것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업체는 앞으로 전면개방까지는 다소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조금 느긋한 태도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산차의 이미지 개선, 국산차는 차체가 약하고 고장이 잦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을 씻고 외국차에 손색이 없다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부산하고 있다.

내년부터 본격생산될 소형승용차개발로 내수 뿐아니라 수출에 주력,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메이커와 중소기업체간의 계열화작업을 확대 양측이 공존 의식을 갖고 서로 영역을 지키면서 품질과 가격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열화작업이 한창이다.

9. 기술 축적단계에 온 기계는 국산구입지원 자금확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리 큰 관심이 없는 분야이지만 기계부분은 특히 중소기업의 제품이 많은 만큼 수입자유화로 인한 업계의 관심은 상당하다.

물론 국내기술로는 생산이 어려운 정밀기계 제품이나 수요가 별로 많지 않은 특수제품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교환기, 건조기 및 팬, 선풍기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이제 겨우 외국업체와의 기술제휴를 통한 기술축적단계에 들어갔는데 수입개방이 되는 바람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거기에도 대기업까지 중소기업 업종을 넘보는 경우가 많아 국내 중소기업체들은 안팎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업계는 국산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국산기계 사용을 추진시키는 등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원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10. 외제품 덤핑공세 심한 석유화학 수입자유화 시기 재고를 건의

석유화학업계는 수입개방으로 인한 외국제품의 덤핑공세가 가장 심한 분야이다.

최근들어 산유국들이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 석유 뿐 아니라 제품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국내 석유화학 업계에 찬물을 끼얹을 소지가 많다.

석유화학업계는 지난 '79년이후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원가 절감 및 폐기물활용, 신제품개발 등에 주력, 이제 어느 정도 정상가동의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입자유화시기를 재고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과거 잦았던 중화학조성과 같이 산업정책이 혼선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펴고 있다.

이상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수입자유화확대 실시와 관련된 국내업계의 대책마련은 아직까지는 관망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업계는 경쟁력강화라는 원칙에만 공감하고 있을 뿐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밀어닥칠 외제품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이나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투자가 시급한 바이지만 현재와 같은 긴축기조 아래서는 이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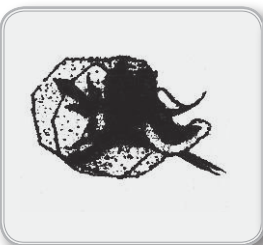
한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은근히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한편 수입자유화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업계의 대책 마련 못지 않게 국민 모두의 협조가 중요한 일이다.

아무리 국내 제조업체들이 외제품 못지않은 제품을 개발, 생산해 내도 국민들이 계속 외제만을 찾는다면 수입 개방 정책은 당초 우려했던 대로 국제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산업기반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시간도 잘 맞지않는 홍콩제 싸구려 시계가 다량 수입되어 날개돋힌 듯 팔리고 있고 국산품보다 훨씬 품질이 떨어지는 외국양복지가 싼값에 들어와 판매됨으로써 국내 복지메이커들을 긴장시키고 있는 일들은 우리 국민들이 가격과 품질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외제라면 사족을 못쓰는 외제 선호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수입자유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은 각 기업들이지만 이들이 외제품과 땃땃이 맞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할 주체는 바로 국민 모두이기 때문이다.



연담공(蓮潭公) 곽예(郭預)

김태호(金泰浩)
《소설가(小說家)》

시대적 배경(時代的 背景)

몽고(蒙古)가 고려(高麗)와 접촉을 갖게 된 것은 고종 3년(1216)에 금(金)의 포선만노(浦鮮萬奴)가 동진국(東眞國)을 세웠고, 거란의 유족(遺族)은 대요수국(大遼收國)을 세웠는데, 몽고군에게 쫓기자 바교적 저항이 약해 보이는 우리나라로 향해 들어오고 이들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고군과 연합군의 성격으로 싸우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의 적이 격멸된 후에는 자연히 새로 대립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부터 몽고는 우리나라에 대해 토색(討索)이 심해지고 고종 11년(1224)에는 저고야(著古也)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왔다가 귀로에 도둑들에게 살해되었는데(1225), 몽고는 마침 세계를 정복하려는 도당으로 각처에서 침략 전장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나라와 절교하고 침공이 잦게 되어 대소 전후 30여년간 여덟 차례나 침입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전화가 극심했던 것은 고종 40년(1253)과 41년의 침략으로서 전주(全州), 경주(慶州) 지방까지 분탕하고 특히 41년에는 포로가 된 자만도 20여만명으로 살아 남은 것이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오직 귀주(龜州)의 박서(朴犀) 장군만은 끝까지 몽고군의 공격을 격파하고 방어하여 만고에 영명을 떨쳤다. 유럽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격해서 함락되지 않은 도성이 없었던 몽고군이지만 박서 장군의 귀주만은 함락시킬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몽고의 침략을 막아내느라고 갖은 애를 쓴 이가 최씨 정권인 바 여기 대해서 육당(六堂)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몽고의 세력이 우리 반도에 들어온 것은 고종(高宗)의 초년이었다. 몽고가 대륙에서 거란과 여진을 압박하여 그들이 쫓겨서 강을 건너 들어오므로 그 뒤를 따라 몽고의 군사가 고려로 들어왔다. 거란과 여진의 세력이 뿌리 뽑힌 뒤에는 몽고가 대신 고려를 집적거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750년 쯤 전의 일이었다.

몽고의 군사가 가는 곳마다 함락되지 않은 성이 없었지마는 고려만은 압박할수록 반격이 심

하여 몽고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나라가 있는가고 놀랄 지경이었다. 몽고가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와서 철주(鐵州)를 무찌르고 귀주로 달려들었을 때도 몽고가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배운 갖은 재주를 다하여 귀주성을 공격했으나 이 성을 지키는 박서 장군은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을 막아냈다.

그 때 고려의 정치를 움직이고 있던 최우(崔瑀)는 서울을 몽고가 침입할 수 없는 곳으로 옮겨 갈 것을 결심하고 고종 29년 7월 6일에 임금을 모시고 강화도(江華島)로 옮겨 들어가니 물(陸)에서 멀지 않은 개성과도 연락하기 쉬워서 몽고의 압박을 받는 일 없이 항전을 계속하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몽고 사람은 과연 바다가 무서워 감히 건너 가지 못하고 강화 저 쪽에 와서 고려 임금에게 어서 물으로 나오라고 호통을 쳤다. 이 동안에 두 나라 사이에 승강이도 많고, 고려 사람의 겪은 고초는 이루 형언할 수 없었으나 고려의 몽고에 대한 철저한 반항정신은 그 때문에 조금도 쇠퇴하지 않고 고종은 강화로 들어가서도 30년 가까이 더 임금 노릇을 하였으며 고종과 최우의 지도력이 존립하는 동안에는 고려와 몽고의 항전은 그냥 그대로 계속되어 나갔다.

그러던 중 고종 45년에 최씨의 세력이 거꾸러지고(제4대 최의(崔瑄)가 제거됨) 이듬해에 고종도 세상을 떠나매(몽고에게) 너무도 시달린 끝이라 조정에 항전을 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아져서 마침내 몽고에게 화친을 청하고 두 나라의 관계가 급속도로 완화되었다.

그래서 고려의 임금이 몽고의 사위되는 조건으로 한 집안처럼 되어버렸다. 말하자면 무력으로 굴복시킨 것이 아니라 인척관계를 맺어서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임금인 원종(元宗) 11년(1131)에 비로소 개성으로 돌아왔다. 고종(高宗)이 강화로 들어간 때로부터 39년만의 일이다. 몽고의 세계에서는 다른 데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일이다.』

한편 이 전후로부터 왜구(倭寇)가 또 집적거리기 시작해서 이른바 「남왜북로(南倭北虜)라고 해서 또 다른 하나의 두통거리가 벌어져 오고 있었다.

연담공이 출생한 것은 고종 19년(1132)으로 바로 몽고와 항전(抗戰)하기 위해 강화로 천도(遷都)하던 해이었다. 난리통에 출생하여 난리 속에서 일생을 마친 이가 연담공으로 그의 항거와 고발의 정신이 투철한 유일무이한 인물이었다.

공의 행적

곽예(郭預) 공은 바로 이런 시기에 태어났으니 고종(高宗)이 강화로 천도하던 19년(1232)의 일이라 공은 나면서부터 국난(國難)을 겪어야 했던 운명의 주인공이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몽고 기병(騎兵)의 말발굽 아래에서 국토는 유린되고 사람들은 학살되고 포로가 되고 약탈(掠奪) 당하는 아비규환(阿鼻叫喚) 속에서 국왕마저 조그마한 섬으로 피난가는 마당에 연담공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분명치 않으나 육지인 청주(淸州) 근방, 그러니까 추동(湫洞)에서 출생하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다.

고려사 열전에

곽예의 자는 선갑(先甲)이요, 초명(初名)은 왕부(王府)이니 청주 사람이다. 고종 시절(高宗 42년)에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전주사록(全州司錄)에 임용되었으며 원종(元宗) 초년에 첨사부(詹事府) 녹사(錄事)에 전보되어 4년에 홍저(洪汙)로 더불어 화친첩(和親牒)을 가지고 일본(日本)으로 가서 노획 당한 인구를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했다. 곽예는 재행(才行)이 있었으나 끌어당겨 주는 자가 없어서 막히고 걸려서 승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관(史館)에서 추천하여 예빈주부(禮賓注簿) 겸 직한림원(直翰林院) 벼슬에 올랐던 것이다.

충렬왕은 본래부터 그의 명성을 들었기에 즉위함에 미처 비로소 발탁 기용하고 자주 영전하여 판도정랑(版圖正郎) 보문서대제(寶文署待制) 지제고(知制誥)가 되고 피사치(필도치(必關赤))가 되어 들어가 기무(機務)에 참여하게 되니 사림(士林)이 사람을 잘 골랐다고 칭송했다.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공은 고종(42년) 시절에 장원급제해서 전주사록(全州司錄) 벼슬에 올랐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록은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櫟翁稗說)에

「속어(俗語) 이궤중자부(以詭衆自負) 급장원시인자(及壯元詩人者) 위성자(爲聖者) 인위(人謂) 장원급제(壯元及第) 부위성자지위자(不爲聖者之爲者) 유곽공예이사(唯郭公預而已)」

〈속담에 남을 속이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자와 장원급제하여 남에게 뽑내는 자를 성자(聖者)라 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원급제하고도 성자(聖者)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곽예공 뿐이라고 했다.〉라고 하였으니 뒤에 나오는 지공거(知貢舉) 사퇴의 건과 아울러 공의 인격을 짐작할 만하다. 진정 겸허(謙虛)의 화신(化身)이라고나 해야 할까?

연담공의 외교적 업적

고종의 일대는 레지스탕스 즉 민족행정의 시기였고, 그의 말년에 최씨 정권이 무너지고 왕권 복귀(王權復歸)로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이어서 고종은 승하하고 원종(元宗)대로부터 고려는 원의 사위 나라가 되게 되었다. 살륙(殺戮)과 약탈(掠奪)로 국토가 얼룩진 틈바구니에서 항전(抗戰)의 기개(氣概)와 열의(熱意)도 민족 문화가 발달했던 강화시절에 공은 20대의 다정다감한 시기를 보낸 것이니 그의 혈관 속에 오죽이나 민족주의의 피가 끓어 올랐을까? 그러나 원나라에 고개를 숙이게 되니 큰 짐이 기울어질 때 한 개의 나무도 지탱할 수 없듯이 공으로서도 방법이 없었고, 원종(元宗)의 시대가 열리자 내원서령(內園署令)에 승진하고(원종 1년 1260) 동 4년에 대관서승(大官署丞) 홍저와 함께 화친첩(和親牒)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게 되니 사명은 왜구(왜적(倭寇))들에게 납치된 인구를 되돌려 받기 위해서였고, 또 이것이 공으로서의 외국에 파견된 것은 물론 사적(史蹟)에 그의 행적이 드러난 맨 처음인 것이다.

일본에서 동년 8월에 돌아와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홍저(洪汙) 곽왕부등(郭王府等) 자일본(自日本) 환주일(還奏日) 궁추해적(窮推海賊) 내대마도왜야(乃對馬島倭也) 징미이십석(徵米二十石) 마맥삼십석(馬麥三十石) 우피칠십(牛皮七十) 영이색(領而索)」

〈홍저와 곽왕부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해적을 추궁해 보니 바로 대마도의 왜이어서 쌀 20섬과 마맥 30섬과 소가죽 70장을 압수해 가지고 왔나이다.〉라고 되어 있다. 성과를 올린 것이다.

원종 11년 5월에 역신(逆臣) 임유무(林惟茂)가 복주(伏誅) 되니 중승(中丞) 홍문계(洪文系)와 장군 송분(宋玢)과 내원서랑 곽예(郭預) 등이 원종의 행재(行在)로 나아가 여러 신하들과 함께 치하를 올린 일이 있었다. 이때에 공은 모든 원원(園苑)을 관장하는 내원서(內園署)의 영(令)으로 종칠(七)품의 관직에 있었던 것이니 39세로서 흑년(惑年)에 육박하고 있었다. 이것으로도 그의 관직의 승진이 지지 부진함을 알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려사 열전에는

『곽예는 재주와 행실이 있으나 끌어당겨 주는 사람이 없어서 걸리고 막혀서 승진하지 못했다.』라 기록돼 있다.

공(公)은 재행이 특출할 뿐 아니라, 곽원(郭元)공 이래로 역대(歷代) 명현(名賢)들이 왕조에 봉공(奉公)하고 성예(聲譽)가 대단했었지마는 최씨 일문의 집권 이래로 문신(文臣)이 몰락하고 권력구조가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새세대에 아유구용(阿諛求容)하는 도배들이 아니면 당시 출세하기는 어려웠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공(公)의 보우법(保牛法)

공은 충렬왕 6년에 대제(待制)였는데 그 뒤에 연조는 미상이나 국자사업전법총랑 위위운 춘궁시강학사를 거쳐 우부승지가 되자 마소도살 금지령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종래 간간이 시행되어 온 것으로 원래 우리나라는 농경국가이니 만큼 농경에 절대 필요한 것이 소인데 식용으로 마구 잡아버리면 노동력의 부족으로 농경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도살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은 농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부국(富國)의 길로 달릴 수 있다는 평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공의 사상적 일면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꽃핀 실학사상(實學思想) 보다 훨씬 앞서 나타난 것으로 심오한 학문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정조(正祖) 때 실학자(實學者) 박제가(朴齊家)는 〈북학의(北學議)〉에서 이 우마의 도살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연담공과 같은 뜻을 적고 있다.

우중상연(雨中賞蓮)

고려사 열전에 공의 인물에 대해서

『공의 사람됨이 공평하고 담백하고 강직하면서도 겸손하고 화락하며 까다롭지 않아 비록

지극히 귀하고 현달하여도 평민시절과 다름없으며 글을 잘 짓고 서법(書法)이 체가 강파롭고도 힘이 있어 일가체를 이룩하니 당대 사람들이 본받아 흡연(翕然)히 서풍을 일변하였으며, 공이 한림원에 있을 때 매양 비가 오면 우중(雨中)에 맨발 벗고 우산을 받고 혼자서 용화지에 이르러 연꽃을 관상하니 후인들이 그의 풍치를 고상히 여겨 그 사적을 많이 시로 읊었다. 아들은 운룡(雲龍)과 운진(雲鱗)이니, 운룡은 벼슬이 도진장(都津長)에 이르렀고, 운진은 과거에 급제하여 교서랑(校書郎)이 되었는데 뒤에 관직을 버리고 중이 되었다.

정사(正史)에 기록된 공의 전기의 전부이다. 여러 가지 중요한 대목을 빠뜨리고 소홀하기 짝이 없는 기록이다. 하지만 공의 지극히 강직하고 겸허했던 인격의 일면과 그가 서법(書法)으로도 독특한 일가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文)이나 서(書)는 다 같이 바로 그 인간이다.

익재(益齋) 이제현(李齊賢)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곽공(郭公)이 한림(翰林)이 되었을 때 매번 비 올 때마다 반드시 우산을 들고 용화원 승교사(龍華院 崇敎寺)의 못가에 연꽃을 구경하였다. 어찌 성자(聖者)가 아니겠는가?』

사학자 호암 문일평(文一平)씨는 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봄의 꽃인가? 꽃의 봄인가? 봄의 미를 대표하는 것이 꽃이라면 꽃의 미를 상징한 것이 곧 봄이다.』

사시(四時)를 인간에게 비길 때 봄은 여희(麗姬)와 같아서 그 어여쁜 풍모(風貌)와 따뜻한 정취(情趣)가 어디까지 사람을 매취(魅醉)케 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봄의 소이(所以)는 만물의 활력을 발랄케 하고 생명을 화창케 함에 있는 것이니 봄의 미를 수(繡) 놓는 꽃도 따져 보면 기실은 식물의 생식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줄옹(拙翁) 최해(崔澐)의 <추차(追次) 곽밀직(郭密直) 예상련시(預賞蓮詩)>(곽밀직 예공의 상련시에 추차함)이라는 시가 있으니,

『봄은 단장 푸른 잎새 가을 못에 어리고, 갈매기와 해오라기 서로 의지해 때 만난 것 기뻐하네. 승교전(崇敎殿)을 거닐던 지난 날 생각할 제, 엷은 구름 지는 해에 보슬비는 뿌리네.』라고 한 것이 공의 <상련시>에 차운한 것이며 <취개 흥장>은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연담의 상련(賞蓮)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 이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 우산을 받고 궁지(宮池)의 연못 가에 우뚝 서서 연꽃을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 있다. 게다가 맨발이나 역려(逆旅)의 객(過客)인가? 이도 저도 아닌 옥당노인(玉堂老人) 연담이다.

지밀직사사 감찰대부(知密直司使 監察大夫) 곽예공이 바로 이 분이니 손꼽아 헤아릴 고관(高官)이다. 그 뿐인가. 시와 문에도 당대의 일인자요, 서법(書法)에는 수경(瘦勁)한 일가체(一家體)를 독창하여 일세를 풍미하던 분인데 무엇 때문에 비오는 날이면 비를 맞아 가면서 그래

도 나막신이라도 신을 법한데 맨발로 용화지의 연꽃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

비바람에 시달리는 연꽃을 바라보며 거기서 사나운 오랑캐의 시달림을 겪고 있는 민족의 모습에 실감(實感)하며 숫제 자신도 물이 고인 땅에 맨발로 버티고 서서 한 포기 연꽃을 실연(實演)해 보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러나 결국 연꽃은 비바람을 이겨 낸다. 비바람이 그치고 해가 솟으면 연꽃은 더 한층 싱싱하게 피어 오른다. 여기에 민족과 조국의 장래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연담은 시를 지었다.

연꽃을 보려 세 번 궁지에 당도하니 푸른 잎새 붉은 단장 예와 다름 없으나, (그러나) 이 내 몸 옥당의 늙은이는 풍정은 여전한데 백발로 성성해 가는 건가?

진실로 감개무량한 광경이요, 풍정(風情)이었다.

공(公)의 문화

공은 문과 시, 서(書)에 능한 가위 삼절(三絶)일 뿐 아니라, 또 한원(翰園)에서 문병(文病)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시(詩), 문(文)의 작품은 매우 많은 것이나 겨우 10수 안팎의 시와 소문(疏文) 한 편이 전해 올 뿐이다.

내전(內殿) 행공덕천도장소(行功德天道場疏)

내전에 공덕천 도장을 설치하는 소.

이 소문은 한발(旱魃)을 당하여 기우(祈雨) 기도를 올린 때의 것이다. 공의 시(詩)는 여러 편 전해 온다.

일요(逸稿)(유자의(有刺意))

하량동난사선비(夏涼冬暖飼鮮肥) 하사천운거부귀(何事穿雲去不歸)

해연부회자일립(海燕不會資一粒) 년년환방화량비(年年還傍畫樑飛)

날아가 버린 새매(풍자하는 뜻이 있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스하게 싱싱하고 기름진 것만 먹었는데, 무슨 일로 구름을 뚫고 가버리고 돌아오질 않는가?

바다 제비는 한 톨의 곡식 알도 돌봐 주는 일 없건마는 해마다 돌아와서 채색한 들보 옆을 날아 다니는데.

수강궁(壽康宮)에서 기르던 새매가 날아가 버린데 대해서 지은 시인데 부제(副題)에 적혀 있듯이 풍자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감개한 시이다.

원래 북방 민족들은 사냥을 즐겨하는 습성인데 고려시절에는 강역문제로 유명한 해동청(海東靑)은 국제무대에 등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원(元)에서 고려 왕실에 가끔 선사를 해온 것이지만 매(鷹)나 새매(鷂)에 관해서는 고려에 대해서 수요와 기대가 굉장한데다가 왕실의 수요까지 겹쳐서 응방(鷹坊)이 설치되고 여기에 소속하는 민호(民戶)가 천을 헤아렸을 것이다.

이 응방을 중심으로 매년 매의 새끼나 새매의 새끼를 털어다가 키워 길들여서 수렵에 사용하고 막대한 수효의 매를 원에게 선사했다. 어쨌든 이 시의 풍자의 의미에 대해서 충북도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수강궁의 <새매>에서는 종교적이며 따뜻한 연담 선생의 철학적인 일면을 엿볼 수 있을 것 같다. 새를 어디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자기를 떠나버린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모(思慕)의 일념을 적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시는 아마 선생이 원나라에 하성절사(賀聖節使)로 가기 직전 얼마 되지 않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도해(感渡海)

공의 시로서 결작은 <감도해>(바다를 건넌 감상)라는 장편이니 이 시의 유래에 대해서, <충렬왕 7년에 원의 세조(쿠빌라이(忽必烈))가 혼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 등에 명령하여 일본을 정벌케 할새 왕(충렬왕(忠烈王))은 김방경(金方慶)에게 명하여 함께 일본에 가게 했는데 패적(敗績)하고 돌아오니 곽예(郭預)가 <감도해>라는 시를 적어 깊이 홍다구의 무리를 질렀다.>

라 한 것처럼 시의 내용은 일본 정벌에 패군한 것을 풍자한 것이다.

바다를 건넌 소감

부상(扶桑)의 바다는 멀어 끝이 없으며, 만리의 창창함이 하늘 빛에 닿았도다. 바다 북판에 오랑캐가 살고 있어 물길을 겨우 통해, 변괴를 헤아리기 어렵도다. 성명(聖明)은 본래부터 생각 밖에 두었건만, 변방 장수가 공을 탐내어 얻기를 꾀하더라. 명령을 받고 동정(東征)함이 작년(昨年)부터였는데, 동방과 남방의 군사 모이는 기한은 유월이었다. 천적배가 물결을 타고 일기(一岐)섬에 모이니, 열길 돛대는 바람을 맞아 부러지려 하였다. 서로 쳐다보며 여름을 지내면서 교전(交戰)은 안 했지만, 그 신고(辛苦)야 어떻게 구태여 그대에게 말하랴. 뜨거운 김과 독한 안개는 사람 몸에 찌는데, 바다에 가득히 뜬 시체는 원기(冤氣)가 맺혀있다. 어느덧 유월(六月)은 30일이 되었는데, 이 때에 사면팔달(八達)에서 미친 바람이 불어와, 전함(戰艦)을 쳐부수는데 어찌나 그렇게도 맹렬하던지, 도대체 누가 창황(倉皇)히 천금호(千金壺)를 버려다가, 부질없이 장사들을 시켜 교실(較室)을 더듬게 하는건가? 슬프고나 강남(江南)의 십만(十萬)군대는, 외딴 섬에 기어 올라 알몸으로 서있게 되었으니, 이제 와서는 원한의 해골이 산(山)과 같이 쌓여서 기나긴 밤 나그네의 혼들이 하늘을 향해 울게다. 당시의 장사로서 살아 남아 돌아오는 이가 있다면, 이것을 생각만 해도 울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건 가? 장하구나 말고(萬古)의 오강(烏江) 언저리에 초패왕이며, 다시 동쪽(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부끄럽게 여겨 공업을 포기하고 말았으니 이 장편의 시가는 그대로 일본 원정의 서사시(叙事時)로서 실감나는 전쟁문학이다.

동 교(東 郊)

말 가는대로 봄 구경 나섰으니, 송아지는 밭갈이에 한창이구나. 새울고 날씨는 따스한데, 물고기 해엄쳐 잔물결 퍼져 가네. 나비들은 서로 얹혀 회통을 하고, 갈매기 떼 줄지어 날아가기도, 어찌다 이내 몸 해오라기 벗 못 삼고, 연작(燕雀)을 따라서 해매이느고.

봄철 농촌의 한가롭고 평화스러운 풍경을 그리고 자신의 환로(宦路)에서 뛰어 돌아가는 신세를 감상적으로 읊은 시. 한 폭의 풍경화 같은 운률대가(大家)의 풍모가 역연하다.

공은 사라져 가다

공의 시문(詩文) 특히 <일요(逸鷄)>와 <감도해(感渡海)>에 나타난 연담공의 애국정신과 그 정신의 발로인 고발성이며 필주(筆誅)에 가까운 풍자는 다른 문인들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바로서 천추에 빛난다 할 것인데, 이러한 고발문학을 내어 놓고도 연담공이 무사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러한 반역자들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공(公)은 좌부승지 국자감 대사성(大司成) 문한학사(文翰學士)에 승진하고, 충렬왕 12년(1286) 지밀직사사(知密直司使) 감찰대부(監察大夫)로 영진(榮進) 원나라에 하성절사(賀聖節使)로 갔다 회로에 순직했다.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춘추(春秋) 55세에 불의에 순직했다고 하는 사실은 나라와 거레를 위해서도 더없는 비극이요,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공의 경직(硬直)한 성품(性品)과 열렬한 의분(義憤)심과 애국 애족의 일생에는 단지 문학으로 만고에 탁월하다기 보다 더욱 높이 평가해야 할 분이며 그것으로 불행한 최후를 마치고었다면 그의 순국(殉國)의 의열(義烈)을 더 한층 높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연담공이 서거하기 전 해 충렬왕 11년에 공의 손자 곽린(郭麟)공이 장원급제했었다.

공의 유해(遺骸)는 청원군 북이면 대율리(淸原郡 北二面 大栗里)에 안장되어 있으나 후에 후손 곽한봉(郭漢鳳)씨를 주축으로 하는 곽씨 종친회에서 명암약수(明岩藥水) 터 명당에 이장하고 사당까지 지어 공의 얼과 생전의 위업(偉業)을 기리게 되었다.

따라서 공은 효성 지극한 후손 곽한봉씨의 주선으로 충청북도 지방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다.



퇴 계 (退 溪) 이 황 (李 滉)

김 창 훈(金昌勳)
(교 사)

편모슬하에서 자란 퇴계

이씨조선의 10대왕 연산군의 무모한 학정(虐政)이 절정을 향하여 소리없이 무르익어 가는 1501년 겨울 경상도 예안현 퇴계리(안동군 도산면)에 살던 진사(進士) 이식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서흥이었다. 그 아들이 커서 그곳을 가리켜 「산수가 청가하여 참으로 구하던 바 맞는다」고 스스로 감탄하고 거기에다 서원을 세울만큼 낙동강 상류의 청량산 부근의 예안(禮安)은 산수가 수려한 곳이었다. 그러나 자연을 사랑하고 학문을 즐기던 조상을 닮아 성질이 꽤 까다롭고 솔직담백한 진보인의 후에 황(滉)이 태어난 12월 25일부터 일곱 달 뒤인 다음해 여름 그의 아버지는 그 아들이 커서 이씨조선을 대표하는 거유이자 성리학자가 된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퇴계가 태어난지 7개월이 되던 때이다.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여의고 이 불행한 아들은 섬세한 그의 어머니 박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났다. 퇴계에게는 형이 여섯 분 누나가 한 분 모두 7남 1녀가 있었으나 맏형이 겨우 결혼한 정도였으니 어린 자식들을 거느린 홀어머니의 고생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는 연산군의 무모한 학정으로 세상이 매우 어려웠던 때인 만큼 나라에 바쳐야 하는 백성들의 부담은 과중하고 독촉은 성화같이 살림이 말이 아니었다. 이런 곤란한 때에 여러 어린 자녀들을 거느린 퇴계의 어머니 박씨는 더욱 힘차게 살아 나아간 훌륭한 어머니였다. 가문을 어떻게 하여서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농사를 독려하는 한편 길쌈과 양잠에 전력하여 생활(生活)을 놓치지 않기에 모든 정신을 다한 이가 퇴계의 어머니였다. 그리하여 자녀(子女)가 차차 자라남에 따라 가난한 살림에서나마 학비를 마련하여 제각기 글을 배울 수 있는 길을 터 주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항상 경계하여 이르기를 「세상에서 흔히 말하기를 과부의 아들은 배운 것이 없다고 비난을 하는 법이니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 남보다 백 배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어찌 이러한 놀림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홀어머니의 이러한 격

려와 감회를 받고 학업에 정성을 다한 보람이 있어 여러 형제들은 모두 성공하여 가문을 빛내었고 막내아들인 퇴계는 우리나라 유림(儒林)들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명현으로 길이길이 이 민족이 지켜나갈 길을 밝혀주는 스승이 되었다.

학문에 온갖 정열쏟아

이 퇴계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에게 의지하는 일이 없었다. 그가 여섯 살 때에 동네 노인에게서 천자문을 배운 것이 학문의 시작이었다. 비록 나이는 어렸으나 아침 일찍이 세수하고 머리빗고 옷차림을 단정히 한 다음에 노인댁 문 앞에 이르러 전날에 배운 것을 두어번 암송하고 나서야 대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것을 배우곤 하였다. 그런데 그 배우는 태도가 마치 어른들이 엄한 스승 앞에 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만큼 훌륭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게 하였다. 하루는 둘째형이 칼로 손을 다친 것으로 보고 그는 형을 얼싸안고 우는 것이었다. 이를 본 어머니 박씨부인은 놀라 묻기를 「너의 형은 손을 다쳐어도 울지 않거늘 어째서 네가 우느냐?」라고 하였다 한다. 이는 퇴계가 어렸을 때부터 형제 간의 우애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인자한 마음씨를 말해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또한 손위사람을 공경하기를 극진히 하였고 비록 밤에 깊은 잠이 들었다가도 옷사람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 대답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취했다 한다. 이는 5, 6세 때부터 이미 그러했다고 하니 실로 어릴 때부터 군자의 기상이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아들의 몸가짐이 도리어 세속사람들의 하는 짓에 맞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그의 어머니는 귀여운 아들을 불러 「네가 벼슬을 하되 시골 조그마한 고을의 책임자노릇 쯤 하는 것은 관계치 않을는지 모르나 중앙정부의 고관 벼슬은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 세속사람들이 너를 용납 못하지나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퇴계는 열두살 때에 숙부인 송제에게서 논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송제는 안동부사와 강원감사를 지낸 사람으로 성미가 조출하고도 근엄한 사람이어서 어린 퇴계로 하여금 논어집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도 빠짐없이 암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배움에 가는 사람은 무릇 집에 있어서도 효도를 하여야 하며 밖에 나가서는 공경하는 태도를 대하여야 하며 일에 임하여서는 삼가며 대중을 삼가되 특히 어진 사람을 친하고 이러한 일을 하고 힘이 남거든 학문을 하여야 한다」는 귀절에 이르러 홀연히 깨달은 바가 있어 스스로 경계하며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된 도리가 마땅히 이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 하루는 논어(論語)를 배우다가 주에 나오는 리(理)라는 글자에 이르렀다. 퇴계는 숙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일에 옳은 것을 일컬어 리(理)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숙부는 크게 기뻐하여 감탄하는 것이었다. 「네가 이미 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퇴계는 이처럼 열두살 때에 이미 글의 뜻을 사색하려는 씩이 트고 있었던 것이다. 퇴계의 바로 손위의 형도 숙부 송제에게서 이 때에 같이 배웠다. 그리고 후에 충청감사(忠淸監査) 등 높은 벼슬을 역임하였으나 사화(士禍)로 희생되었다.

12세때 논어(論語) 이해(理解)

송제는 이 어린 두 조카형제에게 글을 가르치며 평소에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돌아가신 형님은 이런 아들을 두었으니 어찌 세상을 떠나 없어졌다고 하겠는가?」 마치 어린 형제의 성공을 짐작이나 하듯 칭찬을 하는 것이었다. 특히 퇴계를 가르켜 「우리 가문을 빛낼 사람은 이 아이로다」 하였다. 그만큼 숙부는 조카들을 자기 친아들처럼 알뜰히 교육하였다. 그중에서도 어린 퇴계를 더욱 사랑하였으며 퇴계의 이마가 유달리 시원스럽게 넓다고하여 광상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서옹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퇴계는 이때의 고마움을 회상하며 후일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게으르지 않았던 것이 모두 송제공이 가르치고 독려하여 주신 덕택이다.」 퇴계가 열네살이 되었을 때는 이미 독서(讀書)의 취미를 알아 이를 좋아하였다. 언젠가는 산속 깊은 절에서 책상 앞에 바로 앉은채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조금도 게을리 함이 없이 독서(讀書)하는 퇴계를 본 장난꾸러기 애들이 떠돌고 야단법석을 해보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그 장난꾸러기 애들도 결국 퇴계를 엄한 스승과 같이 두려워 하며 공경하게 되었다 한다. 이와 같이 온화 겸양하면서도 범할 수 없는 퇴계의 고결한 인격의 터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퇴계는 어려서부터 중국 도연명의 조용하고도 깨끗한 전원의 시를 좋아하여 그의 사람됨을 사모하였다고 한다. 열다섯살에 지은 가재라는 시는 제목부터가 구김살없는 동심세계 그대로라고 하겠거니와 그 사상(思想)이 벌써 범연치 않아 사연의 천리를 연상케 하여 공연한 허욕이 각자의 본분을 지키는 도리가 아님을 던지시 비유하기도 했다.

들을 지고 모래를 파니 저절로 집이 있더라

앞으로 가도가도 들을 차고 달아나니 밭도 많은 한 옹크의 샘물로써 생애가 족하다.

강호에 물 많음을 물어 무엇하리

이 시는 퇴계가 열다섯살 때 지어 읊은 시이다. 열여덟살이 되던 중종 13년에 우연히 온계리 근처에 있는 연곡리에 놀러갔다가 그 골짜기에 있는 조그마한 못의 물이 하도 맑은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려 시를 지었다.

야들 야들 이슬 머금은 풀은 물가를 둘러있고 아담한 못 맑고 깨끗하여 티 하나 없도다.

떠나가는 구름 지나가는 새

서로가 어울리건만

무상한 제비의 발길

고요한 물을 찰가 염려되네

침식잇고 주역(周易) 독파(讀破)

퇴계는 이미 깊은 철학적 사색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동시에 만권이나 되는 책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선친의 전실(前室) 부인의 친정이 본래 학자의 집

안이었기 때문에 많은 장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장인 김한철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장모 남씨가 그의 사위(퇴계선친)가 학문을 좋아함을 알고 「책은 글을 읽지 않은 사람이 사사로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선비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며 자기집 자체들은 그 귀중한 보물을 가질만한 자격이 없다하여 그 많은 장서를 모두 자기 사위에게 기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퇴계의 선친은 경사백가를 연구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책을 좋아한 그는 생전에 자체들을 훈계하여 「나는 식사를 할 때에도 책이요, 잠잘 때 꿈 속에서도 책이요, 앉으면 같이 앉고 가면 같이 가서 어느 때나 책을 품속에서 떼 일이 없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할 것이니 유유히 부질없는 날을 보낸다면 어찌 성취할 소망이 있겠느냐 하였다. 퇴계는 생후 7개월 만에 아버지를 여의었으므로 선친의 이러한 교훈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그 많은 장서와 학문적 분위기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복만은 타고 났던 것이라 하겠다. 퇴계의 학문은 날로 진전되어 스무살 때에는 주역을 읽게 되었고, 이에 골몰하여 드디어는 침식을 잊고 소화불량증을 얻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는 후일에 문인(文人) 조월천(趙月川)에게 보낸 글 가운데 「젊어서 뜻은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몰라 무리하게 애써 책을 읽은 탓으로 몸을 여위는 병을 얻었다」고 한 것만 보아도 능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발과 정진으로 말미암아 차차로 학문의 참맛을 알게 되었고 그 방법을 깨치게 된 것이다. 퇴계는 스물 한 살에 허씨부인(許氏夫人)과 결혼하였고 스물 세살에 첫 아들을 보았다.

그해 그는 서울로 올라와 성균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당시만 하더라도 을묘사화(乙卯士禍)의 변을 겪고나서 얼마 되지 않던 때인만큼 유생(儒生)들은 사기가 저하되어서 학업에 정진하지 않고 부박한 폐습에 젖어 퇴계의 행동거지가 법도에 어긋남이 없음을 오히려 비웃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진서산(眞西山)이 저술하고 황돈이 주(註)를 단 심경부주(附註)한 권을 처음으로 얻어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마음의 수양을 위해 성현들의 심오하고 치밀한 생각을 기록한 것으로서 이른바 입학(入學)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었다. 그런데 이 책의 주(註)가 모두 송나라 학자들의 말을 기록한 어록(語錄)으로 토를 어떻게 달고 읽는지 분간하기 힘들어 읽어 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퇴계는 그 뜻을 이해하기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드디어는 환하게 통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

명문장 심경후론(心經後論)간행

퇴계는 언제나 스스로 말하기를 심경(心經)을 얻어 읽고나서 바로소 심학(心學)의 연원(淵源)과 심법(心法)의 정징(精徵)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평생을 이 책을 믿기를 “신명과 같이 하여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부(嚴父)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과연 퇴계는 노후에 이르러서도 어두운 첫 새벽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이 심경을 읽는 것을 일과로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공부를 시작하려는 젊은 제자들에게 심경부터 정독하기를 권했다. 그런만큼 66세 때에는 심경후론(心經後論)이라는 글을 지었다. 그때부

터 우리나라에서 간행되는 심경부주(心經附註)에는 명문장으로 알려진 퇴계의 이 심경후론(心經後論)을 붙이게 되었다.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서너달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과 더불어 학문을 강론할 때에는 매양 이 심경후주(心經後註)를 텍스트로 썼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퇴계가 일생을 통하여 이 책의 내용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며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심경(心經)을 기본으로 하여 심오한 사색을 전개하는 점에서 퇴계의 철학적 사상의 큰 특색이 있는 것이요, 퇴계의 퇴계다운 면목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다. 퇴계의 깊고도 정묘한 철학사상의 실마리가 이로부터 시작하고 그의 일생이 학구적 노력이 집중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퇴계의 학문을 알려면 왜 하필이면 이 심경이 문제되었는가에 무엇보다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퇴계는 진정으로 학문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비길 데 없이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되어 뒤따르는 정진을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힘이 된 것이다.

퇴계는 원래 벼슬살이를 즐겨하지 않았다.

당초부터 과거를 보기 위한 공부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스물 세살 때 퇴계는 어머니와 형의 권고로 과거에 세 번이나 응시하였으나 연거푸 불합격 되었다. 처음으로 당하는 고배이었던 만큼 보통사람 같으면 실망도 컸을 터이나 퇴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그런데 어느날 퇴계가 집에 있으려니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갑자기 ‘이 서방’하고 부르는 것이었다. 퇴계는 문득 생각하기를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으나 뒤에 알고보니 자기 집에 늙은 하인을 부르는 것이었다. 이에 퇴계는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가 아직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이름이 드러나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자격지심으로 스스로 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였다.

이처럼 대단치 않은 일로 잠깐 사이에도 득실에 대한 관심을 깨치게 되는 것이니 과거의 합격여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임은 참으로 두려울만한 일이라 하여 제자들을 경계한 일조차 있다.

34세 때 벼슬의 길로

중종 22년 퇴계의 나이 스물 일곱 살 때에 비로소 경상도 향해진사시(鄉解進士試)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해 10월에 부인이 둘째아들을 낳았으나 다음 달에 돌아가시매 서른살 때 다시 권씨부인을 맞아 재혼하였다. 스물여덟살이 되던 해 봄에는 서울서 진사회시(進士會試)를 보고 방(榜)이 붙는 것도 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나룻터에 채 못미처 급제의 소식을 들었으나 퇴계는 기뻐하는 기색도 없이 그대로 내려갔다. 과연 과거를 대단한 일로 생각지 않고 있었음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서른 두 살 때에는 문과별거초시(文科別擧初試)에 급제하였다. 이때 과거를 보러 서울에 왔다가 가는 길에 춘 주막에서 목게 되었는데 밤 중에 도둑을 만나 모두들 대경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으나 퇴계 만은 태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이는 퇴계가 다만 글 만을 아는 나약

한 선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른 세살 때에는 경상도 향시(鄉試)에서 또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그후 퇴계는 벼슬을 버리고 여주에서 한가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김안국(金安國)을 만나 보았다. 후에 퇴계는 이 때를 회상하여 말하기를 「내 그때 비로소 정인군자(正人君子)의 말을 들었느니라」 라고 하였다.

이처럼 젊은 퇴계는 유학자인 선배 김안국(金安國)에게 얻은 바 많았다. 또 서른 세살되던 3월에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이때부터 비로소 퇴계는 벼슬길로 나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관운이 트인 퇴계는 서른 여섯에 호조좌랑(戶曹佐郎)이 되었고 그 이듬 해에는 정육품(正六品)인 승의랑(承議郎)으로 지위가 올랐다. 이해 12월에 어머니인 박씨부인(朴氏夫人)이 돌아가서 온계수곡(溫溪樹谷)에 장사를 지내고 정성으로 상을 입었다. 3년상 마친 퇴계는 서른아홉에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이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세력을 잡고 있던 김안로(金安老)의 권세가 이미 꺾인 때이어서 퇴계는 순조롭게 벼슬에 올랐다. 퇴계는 형조정랑(刑曹正郎), 사헌부평(司憲府平) 등을 거쳐 마흔 셋에는 성균관가성이 되었다. 그러나 퇴계는 곧 이를 사직하고 홀연히 고향으로 내려가 학문을 닦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의 일차 하향은 험난한 세태와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쇠약해진 몸을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는 오히려 전원을 그리고 학문을 동경하는 그의 성격이 동기가 되었는지 모른다. 서울의 정치계와 같은 무전무상(無轉無常)한 동적인 세계보다는 고요한 전원으로 돌아가 오로지 자연과 학문을 벗삼아 조용히 진리탐구에만 몰두하는 정적세계가 그에게는 더욱 절실하였고 또한 그것은 그의 이상향(理想鄉)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벼슬사직 학문닦기 전력

서른 여섯살 때 지은 시 감춘(感春)을 읽어보아도 그가 얼마나 전원을 동경하고 관계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삼년 동안의 서울생활

말(마(馬))이 멍에 쓴 것 같았네

이렇저렇 무슨 도움이 있었나

밤낮으로 임금 은혜 부끄러워라

내집은 낙동강 상류라

한가한 마을 평화를 즐기니

이웃은 모든 농가를

닭과 개는 울을 지키고

조용한 책상에는 서적들로 가득차

푸른연기 붉은노을 산수에 비치고

시내에는 물고기 숲속엔 새들
소나무 밑에는 또한 학이 깃드네
즐거워라 산중생활
돌아가면 술을 빚으리

이렇듯 그는 학자일 따름이며 정치가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꿈은 1년도 채 못되어 깨어져버리고 다시 소환되어 홍문관 교리(校理)에 앉게 되고 인종이 즉위한 45세 때에는 홍문관 전한(典翰)으로 전임되었다.

퇴계가 마흔 여섯 때 처복이 없었던지 두번째 아내 박씨마저 잃었다.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 예(禮)빈사정(事正) 등의 벼슬이 주어졌으나 본래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선비인데다가 여러 가지 일로 더욱 고요한 사색에 잠기고 싶었던지 퇴계동쪽 바위 옆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양진암(養眞庵)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퇴계(退溪)는 토계(兎溪)라고 하던 시내 이름을 퇴계(退溪)라고 고치고 또 스스로 자기의 호(號)로 삼게 되었다. 그후 마흔 일곱에는 안동부사(安東府使)에 임명되었으나 받지 아니하였다. 마흔 여덟살 되던 해 정월에는 단양군수(丹陽郡守)로 나갔다. 여기서 목민관(牧民官)으로 빛나는 업적을 남겼으며 그해 10월에는 풍기군(豊基郡)으로 옮겨졌다. 이는 퇴계의 형인 문헌공(文憲公)이 충청감사(忠淸監司)가 되므로 인해서 상피(相避)하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해에 둘째마져 잃었다.

이러한 내환이 계속되던 마흔 아홉에 경상 감사에게 글월을 올려 백운동서원에 편액(扁額)과 서적을 하사토록 주선하였으니 이는 곧 우리나라에서 서원의 터전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서원(書院)터전 마련

백운동은 풍기군(豊基郡) 북쪽 소백산 밑에 있는 고려 때 명신 안유(安裕)가 있던 곳이다.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있던 주세붕(周世鵬)이 여기에서 서원을 세우고 안유(安裕)를 모셨으며 학문을 닦는 곳으로 마련하였던 것이다. 퇴계는 이곳의 군수가 되자 서원이 왕명(王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혹 폐지되거나 없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감사를 통하여 글월을 올렸던 것이다. 편액과 서적을 하사하고 아울러 토지를 주어 배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함에서였다.

감사 심통원이 퇴계의 뜻을 상소하여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편액이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게 명령하여 글을 지어 주게 하였고 사서삼경, 성리대전 등 서적을 내렸다. 서원에 편액이나 서적이 내려지기는 이때가 처음이었고 여기에서 비로소 서원이 흥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퇴계는 실로 자신도 학문을 닦을 뿐만 아니라 후배들을 위하여서 그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퇴계가 그해 겨울에 병을 얻어 군수직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그 이듬해 즉, 신살이 되던 해 2월에 퇴계의 서쪽에 한서암이라는 집을 짓고 여기서 독서와 사색의 생활을 즐겼다. 처음에 퇴계는 자하봉(紫霞峰) 밑의 하명동(霞明洞)에 거처할 곳을 마련하려고 하

였으나 채 완성되기 전에 죽동으로 옮겼다. 그러나 죽동은 터전이 협소하고 맑은 내가 없었으므로 다시 옮겨 냇가 뒤편으로 정하였다. 결국 세번째에 그 자리가 정하여진 셈이다. 이 시기의 퇴계에게 있어서는 주자학에 대한 매력이 거의 신앙처럼 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문밖 출입을 않고 주자전서(朱子全書)를 탐독하여 차츰 그 학설을 이해하기 시작한 때도 바로 이때였다. 그는 무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오로지 그 연구에 불철주야 열중하여 왔다. 그래서 주위사람들이 더위로 건강을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이를 말렸으나 퇴계는 「이 책을 연구함으로써 마음부터가 시원해지는데 더위같은 것이 무슨 걱정이 될것이나」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글 한 줄을 읽고 천정을 한 번 쳐다보며 진지(眞知)를 실제로 얻으려 한 것은 그의 염원처럼 되어 갔고 드디어는 조예가 깊어갈수록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주 떨어져 가야만 했다. 퇴계의 그 이후 말년의 깊은 철학적 사색은 이 주자(朱子)전서의 연구바탕으로 전개되었으며 그의 심오한 사상도 여기에 힘을 얻었다. 문인(文人) 김학봉(金鶴蜂)에 의하여 퇴계의 서재에는 주자전서 사본이 한 질이나 다 됐는데 너무나 헐어서 글자의 획이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그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얼마나 숙독, 애독한 것인가를 짐작케 하는 증거이거나 또한 퇴계 자신의 행동거지가 이 책에 쓰인 것과 맞지 않는 것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퇴계이기에 조정으로부터 불러들이려는 성화는 재촉이 그칠새 없이 내려와도 그때마다 이를 사양하여 응하지 않기가 일쑤였고 부득이하여 상경했을 때에도 오래 머무르는 일이 없이 곧장 내려가고 말았다. 그가 얼마나 관리생활을 싫어했던 가는 당시의 영의정 이준경(李浚慶)이 「퇴계는 산 짐승과 같아서 붙들어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한 말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그의 명망은 그로 인하여 조용히 자연을 즐기고 학문연구에만 몰두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다.

그가 원 둘이 되던 명종 7년에 다시 소환되어 정삼품(正三品)인 통정장부(通政丈夫)의 지위에 올랐고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되었고 원 셋에 정치운의 천명도를 개정하였다.

종묘(宗廟), 제문(祭文) 등 작성

정치운은 퇴계와 같은 유학자로서 천지의 이치와 조화의 이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천명도를 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퇴계의 학설과 어긋나는 점이 많아서 개정한 것이며 정치운도 이에 동조하였던 것이다.

이 무렵 명종 8년 경복궁이 불에 타버렸다. 이에 대하여 종묘(宗廟)를 위안하는 제문(祭文)과 동궁 상량문과 새로 중수된 경복궁의 여러 전각의 편액과 중수 경복궁 기둥이 모두 퇴계의 손으로 이루어 졌다. 한편 그는 형조참의(刑曹參議) 등을 거쳐 첨지중추부사 등에 이르렀다.

퇴계가 여러 가지 중요한 글과 편액을 썼다는 것은 퇴계의 문장이 그만큼 뛰어났음을 말해주는 것이거나와 선 다섯 때엔 농암 이현보(李賢輔)의 행장을 썼으며, 또한 어머니인 정부인(貞夫人) 김씨(金氏)와 정부인 박씨의 묘표(墓標)를 찬(撰)하였다.

그러나 그의 끈덕진 사퇴희망은 결실을 가져와 그는 다시 4년 만인 신 다섯에 청량산에 들어가 수양하다가 약 1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리하여 주자전서 중에서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 명종 11년 신 여섯에 주자서절요를 편서하였고 향약(鄉約)도 초(草)하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 번 벼슬을 맡기었으나 오래 병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신 여덟살 때 당시의 영의정인 심연원(沈連源)과 대제학인 정사용은 퇴계에게 감사벼슬을 주라고 하였으나 퇴계는 성심으로써 이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명종은 어필(御筆)로서 퇴계에게 정이품(正二品)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지휘와 공조참판(工曹參判)의 벼슬을 주자고 하였으나 퇴계는 역시 병으로 인하여 받을 수 없노라고 상소하였다. 임금도 허락하지 않자 두 번 세 번 사양하는 상소를 올렸고 끝끝내 허락하지 않자 하는 수 없이 그 벼슬을 받았다.

신 아홉에 송계원명이학통록(宋季元明理學通錄)이라는 방대한 저작을 내놓았다. 이는 여러 시대의 이학의 대가들의 행장(行狀), 전기(傳記), 어록(語錄) 등을 집대성하여 기술한 책으로서 전 11권으로 되어 있다. 퇴계는 본래 체질이 약한 편이어서 자주 병으로 고생한 바 있거니와 나이 50~60에 이르러서도 한결같이 독서에 정진한 탓으로 매양 현기증이 일어남을 한탄한 일이 많았고 특히 안질로 고생을 했다.

벼슬살이 40년, 일곱번 사양

퇴계는 이렇듯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상하고 눈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오직 학구에만 열중하였음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는 벽에다 「번거로움을 구하는데 고요할 만한 것이 없고 졸(拙)한 것을 구하는 데에는 부지런한만한 것이 없다」는 옛시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써붙여 두었다. 예순 넷 때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 행장을 찬양하였다. 조광조는 종종 때의 유학자였다. 그러나 퇴계와 조광조 사이에는 유학자로서의 태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조광조는 연산군이 내쫓기고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유학을 곧 실천에 옮겨 이상적인 정치를 실행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흘러 소인 군자의 변을 되풀이하고, 재래의 태도를 고치는데, 지나치게 과감하여 이러한 급직전 행동은 드디어는 반대파를 형성시켰다. 그러던 중 반대파는 마침내 조광조를 역적으로 몰아 물리치고 드디어는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을 가리켜 기묘사화(己卯士禍)라고 하지만 유학을 그대로 정치생활에 옮기려는 극단적 행동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그러나 퇴계는 학문을 철학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조광조와 같이 실권을 쥐어 모든 것을 자기의 이상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벼슬을 사양하기를 즐겨하였고 벼슬에 나아가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같은 유학자이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 퇴계가 40년 가까운 벼슬살이에 네 임금을 섬겼으니 전후 일곱번이나 물러나 그만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퇴계가 나라일을 가볍게 생각했다거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출처진퇴

가 오로지 옳은 도리에 따라 지키는 데서 취하여진 것 뿐이다. 흔히 퇴계는 그의 성격상 적극적인 강인한 면이 적다고 평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그것은 피상적인 평가에 불과하다.

그의 정미하고도 철저한 사색과 아울러 생명에서 나온 신념은 오히려 태연자약한 움직이지 않는 마음과 힘찬 기개로 나타남을 알게 된다. 우선 그의 언행록에서 일화를 추려 보기로 하겠다. 그가 예순 여덟이 되던 말년의 일이지만 7월에 광나루를 건너 서울로 들어가는데 큰 풍우를 만나 거센 파도가 치솟아 올라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이르렀다.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찌할 바를 몰라 야단을 했지만 퇴계는 앉은 그대로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퇴계는 일찌기 늙은 소나무에 읊은 시(詩)에서 그의 세찬 기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도 하였다.

밀없는 깊은 소 절벽 위에 나타난 노송나무

그 기개 하늘을 떨치고 산봉우리를 위압하네

붉고 푸른 것이 본성을 해침을 원치 않네

복숭아나 오얏을 따라 즐겨 아양피우랴.

이러하기에 탐관오리의 숙청에는 추상같은 태도로 나라 일에 임하여 기강을 바로 잡기에 과감했다.

탐관오리 징계진언

퇴계가 마흔 두살 때 어사(御使)로서 충청도지방의 민정을 돌아보고 임금에게 아뢰기를 「공주의 판관(判官) 인귀손(印貴孫)이 본래 성미가 고약하여 청렴하고 근실한 목사(牧使) 이명(李命)의 영을 어기고 하는 일이 상반모순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관의 물건을 말에 실어 가까이 있는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한 바 그 탐욕의 더러운 꼴이란 형언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흉년이 들어 괴로워하는 백성을 구하는 것이 시급한 이때 그런 탐관오리를 징계한 연후라야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를 엄하게 벌하여 탐관오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퇴계는 또한 예순 여덟살 때 임금 앞의 강의석상에서 조광조의 사람됨과 그의 학문이 출중함을 칭찬하고 기묘사화(己卯士禍)가 남곤, 심정(沈貞) 등 간악한 무리들의 소행임을 밝혀 드디어 임금으로 하여금 남곤·심정의 벼슬을 박탈케 하였다.

여러 벼슬을 역임하는 동안에 예조판서 대제학 등 문교에 관한 중책을 맡기도 하였고, 젊었을 때에는 호승관으로 왜노(倭奴)를 동래까지 호송한 일도 있고, 군마를 점검하는 직책을 띠고 의주로 갔던 일도 있다. 퇴계가 마흔 다섯살이 되던 해 7월에 인종이 승하하고 명종이 왕위에 오르자 왜노(倭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화친을 요구해왔다. 그 이전에 삼포(三浦)의 왜노(倭奴)들이 난을 일으켜 변장(邊將)을 살해한 일이 있어 이것들을 토벌한 후 왜노들의 내왕을 끊었던 것인만큼 조정에서는 국상도 있고 해서 인심이 불안한 때문이라 더욱 왜사(倭使)를 거절하려 하였다. 이때 퇴계는 홀로 용감하게 임금께 상소하여 왜노의 청

을 그저 물리칠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이미 북쪽의 오랑캐와도 틈이 생겨 겨루고 있는 이때 만일 북쪽과 남쪽의 두 오랑캐들이 한꺼번에 밀어들면 장차 무엇을 믿고 이를 척결할 것인가 조정이 왜노의 청을 거절한다고 하니 만일에 그윽히 괴탄(怪嘆)하는 바 이 일이야말로 백년사직의 근심거리요 억만생명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널리 조정의 신하들과 의논하셔서 선처하시기 바랍니다고 하면서도 속담에 「교만한 아들이 어미를 꾸짖는다」고 하였듯이 미리 주의하여 단속하지 않으면 혹은 어미를 꾸짖는데 까지 이르는 것이니 이것은 물론 사람의 아들된 도리라고 할 수 없지만 또한 부모의 잘못이기도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노를 대하는데 있어서도 미리 주의하여 단속함만 같지 못하니 너무 지나치게 후대를 하면 더욱 방자해지고 욕심만 부릴 염려가 없지 않다고 취할 바 태도를 소상하게 상소하였던 것이다. 퇴계가 쓴 네살 때 문인 황금계(黃錦溪)에게 글 속에서 나라의 딱한 정세를 언급하고 있다.

나라의 딱한 정세(情勢)에 잠 못이뤄

이제 남북의 큰 환란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으로 닥쳐들고 있는데 아무리 둘러보아도 어느 것 하나 믿을 것이 없으니 산림(山林)의 즐거움 인들 어찌 반드시 보충할 수 있겠는가 이로써 사사로운 근심도 그윽히 한탄됨을 어찌할 수 없거늘 하물며 나라의 방비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토록 나라의 딱한 사정을 늘 걱정하고 있던 퇴계가 쓴 다섯살 되던 해 호남지방에 왜구가 침입(侵入)하여 여러 고을을 빼앗기게 된 일이 있었다. 그때 제주에서 왜선 70여척이 아군에게 대패하여 달아났다는 기별을 수군절도사인 박세현에게서 듣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3년 후인 선 여덟살 때에 황금계에게 다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남쪽 바다에 흥한 기운이 날뛰니 이 근심 적지 않은지라 나라가 장차 무엇으로써 이 캄캄한 밤의 한탄을 막아 낼 것인가 알 수 없다. 산골의 벽촌도 오히려 견딜 수 없겠거늘 하물며 나의 강토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퇴계가 예순 여덟이 되던 해 8월(月)에는 무진육조소(戊辰六條疏)를 즉위한지 얼마 안 되는 선조께 인효(仁孝)를 다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성되게 몸과 마음을 살피고 닦아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마친 여섯가지 조목으로 된 것을 읽으로써의 급무를 논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겨울에는 유명한 성학십도(聖學十圖)와 그것을 임금께 올리는 글을 같이 올렸다. 이 성학십도(聖學十圖)는 불과 열폭 밖에 안 되는 간단한 것으로서 유학의 근본원리와 수행방법을 총 망라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간추린 알맹이의 결정체인 것이다. 동시에 퇴계는 모든 사상이 일목요연하게 들어있다. 당시의 임금 선조도 퇴계의 뜻을 가늠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받아들여 신하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것인만큼 병풍으로 만들어 올리라고 하였다.

그 이듬해 3월(月) 퇴계가 마지막으로 임금의 결을 물러 나던 날 임금은 재삼 머물러 있기를 간곡히 권하였으나 귀향의 뜻이 더욱 간절하여 임금도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좋은 말을 남기

고 갈 것을 권하였다. 이에 대하여 퇴계는 지금은 정치가 잘되어 태평(太平)한 세상(世上)같으나 북쪽과 남쪽에서 외국(外國)의 침범이 염려되는 터이요 백성들은 고달퍼하는데 나라의 창고가 비어 있으니 나라의 장래가 근심되거나와 줄연히 사변이라도 일어나면 흠과 같이 무너지고 기왓장이 같이 깨어지고 말 징조가 없지 않으니 임금으로서 백성(百姓)과 마음을 같이 하고 덕을 같이 하여야 함을 누누이 진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선조 2년(年)의 일이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이 25년(年)이니 이미 23년전(年前)에 퇴계는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나 견잡을 수 없는 곤경에 빠질 것을 예측하고 근심한 것이다.

70세(歲)로 타계(他界)

퇴계(退溪)가 산(山) 속에서 세월을 보냈으나 늙어갈수록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은 더욱 간절하여 학자(學者)들과 더불어 말이 나라일에 미치면 문득 흐느껴 한탄하며 감분(感憤)하곤 하였다. 퇴계의 일상생활은 남달리 검소했고 청렴결백한 생활(生活)을 하였다. 퇴계가 마흔 여덟에 단양에서 풍기군수로 옮길 때 단양골 관청사람들이 삼단을 짊어지고 와 이것은 관가소유의 발에서 거둔 것이니 전혜에 의하여 행수(行需)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짐을 벗어 놓았다. 이에 퇴계는 노하여 「내가 명령(命令)한 것이 아니어늘 어찌 네가 이런 것을 짊어지고 오느냐」 하며 이것을 물리치고 두 개의 괴석(怪石)과 서적 만을 싣고 갔다.

또 도산서원 바로 앞 낙천(洛川)에는 은어(銀魚)가 많아 나라에서 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고기잡이하는 어랑(魚梁)을 두어 근처에서 사사로이 잡는 것을 금한 일이 있었다. 퇴계는 늦가을이 되어 관가의 어랑(魚梁)이 끝날 때까지 그 근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공연히 의심받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역(賦役)에는 남달리 솔선수범해서 응하여 이웃사람들로 하여금 모범을 보였다. 이에 그들도 퇴계를 본받아 서로 먼저 하려 했다.

퇴계는 무엇보다 겸허로서 덕(德)을 삼아 공지가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손님이 오면 나이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마당까지 내려와 맞고 보냈으나 옳지 못한 말을 걸어오거나 질문을 해오면 정색을 하고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계가 일찍이 노래부르며 시종하는 여러 여자(女子)들이 있는 어떤 연석에 참가하였다가 문득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게 되자 이것을 막고 억제함으로써 거북한 유흥을 겨우 면하긴 하였으나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고백한 일도 있었지만 군마를 점검하는 직책을 맡고 평안도(平安道) 의주(義州)에 한 달을 묵고 있으면서도 여색을 가까이 해본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도중에 평양에 들렀을 때만 해도 감사가 이름난 미녀(美女)를 골라 모시게 하였으나 끝내 돌아보지도 않았다.

퇴계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 이미 다시 일어나지 못할 중환(重患)의 몸으로 여러 문인(文人)들과 더불어 평소와 다름없이 강론을 계속하였다.

일흔살이 되던 선조(宣祖) 3년(年) 11월(月) 9일(日) 종가의 제사에 참가하였다가 감기가 든

것이 내내 편치 못하여 일어나지 못했다. 12월(月) 2일(日)에 병세가 이미 악화하여 유언으로서 죽은 후에 예절을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을 타일렀다. 비석(碑石)도 세우지 말고 퇴도만은진성이 공지묘(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만 새기라고 하였다.

12월(月) 8일(日) 퇴계가 숨을 거두자 원근의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고 애통해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에너지는 국력이다
아껴써서 애국하자

어음수표(手票)에 관(關)한 제문제(諸問題)

정 계 남(鄭啓男)

〈변호사(辯護士)〉

문 (問)

저는 갑(甲)이라는 은행(銀行)과 당좌거래(當座去來)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제 명의(名義)의 수표(手票)를 위조(僞造)하여 갑은행(甲銀行)에 제시하고 수표금(金)을 지급받았습니다. 갑은행(甲銀行)에게 잘못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그 책임(責任)을 추궁할 수 있는가요?

답 (答)

(1) 갑은행(甲銀行)의 조사의무(調査義務)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다보면 위조(僞造) 또는 변조(變造)수표 등이 있을 가능성이 예견되므로 은행은 수표의 진위(眞僞)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귀하로부터 수표에 사용될 인감(印鑑)의 신고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인쇄한 수표용지를 귀하에게 교부하고 귀하가 수표를 발행한 때에는 반드시 이 용지에 신고인감을 날인하도록 약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은 수표금을 지급할 때는 수표에 날인된 도장이 신고인감과 같은지, 그리고 수표용지가 은행 소정의 것인지 등을 조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갑은행(甲銀行)이 위조수표에 대해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은행의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은행이 인감대조나 수표용지 등의 조사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가려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더라면 문제의 수표가 위조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은행이 위와 같은 조사를 태만히 한 결과 위조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으로 인한 손실은 은행이 부담하여야 하고 귀하의 당좌예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반면 은행이 신고인감의 대조와 수표용지의 식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임을 알지 못하고 지급을 한 경우에는 은행은 책임을 면하고 그 지급액을 귀하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특약은 미리 당좌계정서(當座計定書)에서 귀하와 갑은행(甲銀行)이 약정(約定)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며 가령 특약이 없어도 상관습(商慣習)에 따라 이와 같은 결론을 인정한 판례(判例)도 있습니다.

(2) 수표용지, 신고인감이 도용(盜用)된 경우

은행이 교부해 준 수표용지와 신고인감 두 가지가 모두 도용되어 수표가 위조된 경우에 귀하는 은행이 지급하기 전에 도난 또는 분실신고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지급하였다면 은행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이 위조수표라는 것을 알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지급으로 인한 책임을 은행이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표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귀하 성명(姓名)의 필적(筆跡)이 인감과 같이 은행에 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그것의 이동(異同)에도 주의하여야 하고 그 대조를 태만히 한 때에는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그 이외의 수표 기재방식이나 필적 체제가 다소 다르다고 하여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인감이 위조된 경우

은행은 보통의 경우에 신고인감과 수표상의 날인을 나란히 하여 육안(肉眼)으로 비교해보는 평면대조방식(平面對照方式)으로 비교하고 있으며 이때 숙련된 대조사무 담당자에게 기대되는 업무상 상당한 주의를 한 후에 수표금(金)을 지급한 것이 인정 될 경우에는 은행은 면책(免責)됩니다.

은행은 짧은 기간 안에 대량의 어음, 수표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여야 하고 고객신뢰관계 등의 이유(理由)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기계(機械)나 도구(道具)를 사용하는 엄밀한 대조를 하는 것을 은행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수표용지나 신고인감의 분실, 도난 등으로 수표위조의 위험을 은행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은행의 주의 의무는 더욱 가중되므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면 은행은 면책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할 것입니다.

문 (問)

수표(手票)를 발행하였으나 본의아닌 부도(不渡)를 냈습니다. 어떠한 제재(制裁)를 받게 됩니까?

답 (答)

(1) 형사책임(刑事責任)

귀하는 부도수표단속법(不渡手票團束法)에 의하여 처벌(處罰)받게 됩니다.

같은 법(法) 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者)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과실(過失)로 인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표를 부도낸 자(者)는 고의(故意)가 없더라도 과실(過失)이 있으면 처벌을 받게 되고 다만 과실(過失)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때에만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통증권인 수표의 경제적 안정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교환소(交換所)의 거래정지처분(去來停止處分)

귀하는 형사책임(刑事責任)과는 별도로 어음 교환소(交換所)에 의하여 거래정지처분(去來停止處分)을 받게 됩니다. 어음 교환소(交換所)가 거래정지처분(去來停止處分)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어도 그 대전(代錢)이 다음 영업일의 영업시간 내에 지출은행(支出銀行)에 입금(入金)되면 지출은행(支出銀行)은 다음날 교환개시시간까지 부도어음 입금계(入金届)를 어음 교환소(交換所)에 내게되는데 입금계(入金届)가 없는 경우

(나) 위 입금계(入金届)가 있더라도 전조합은행(全組合銀行)을 통(通)하여 1년간 2회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있는 경우

(다) 거래없는 은행을 지급인 또는 지급장소로 정한 관계로 부도가 된 경우 등에는 거래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사유로 교환소(交換所)가 거래정지처분(去來停止處分)을 하고 전조합은행(全組合銀行)에 통지하게 되면 전조합은행은 귀하와의 당좌거래(當座去來)를 즉시 해제하고 통지일로부터 1년간 대출거래(貸出去來)를 금지당하게 됩니다.

이같이 되면 기업경영자(企業經營者)로서의 신용(信用)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문 (問)

어음금(金)을 만기전(滿期前)에 지급하는 경우와 만기(滿期)에 지급하는 경우와는 지급인(支給人)의 조사의무(調査義務)에 차이가 있다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요?

답 (答)

(1) 만기(滿期)라고 함은 어음금(金)을 지급할 날로서 어음상에 기재된 일자를 말합니다. 어음은 만기에 지급한 것이 본칙(本則)이므로 어음 채무자(債務者)는 만기 전에 지급을 할 필요(必要)가 없으나 소지인과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만기 전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기전 지급은 만기에 있어서의 지급과 달리 임의의 지급이므로 이 경우에 지급을 하는 자(者)는 자기(自己)의 위험부담(危險負擔)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자(者)는 의무(義務)의 이행으로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의 조사 의무가 경감되고 있습니다.

어음법(法) 제40조는 이처럼 만기의 전후로 나누어 지급인의 조사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임의의 지급과 지급의무에 기한 지급과의 사이에 취급상(取扱上)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2) 만기 전일지라도 지급인과 소지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인은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지급은 만기지급의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責任)의 경감(輕減) 혜택(惠澤)을 받지 못하고 자기(自己)의 위험부담(危險負擔)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급할 수 있음에 불과합니다.

「자기(自己)의 위험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함은 지급인이 무권리자(無權利者)에게 예컨대 소지인의 어음상 배서(背書)의 연속 등 형식적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지급인(支給人)이 소지인의 실질적 권리가 없음에 관하여 악의(惡意)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이 없이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은 무효이고 진정한 권리자(權利者)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거듭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며 지급위탁(支給委託)이 취소(取消)되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불이익(不利益)은 지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詐欺)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責任)을 면(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급자라도 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은 조사하여야 합니다. 즉, ① 어음이 방식(方式)에 적합한가 아닌가, ② 소지인에 이르기까지 배서(背書)가 연속하여 있는가 없는가, ③ 자기의 기명날인(記名捺印)이 진정(真正)한가 아니한가의 세 가지 점은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에 어음의 외관(外觀)으로부터 판명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위 3가지의 형식적 자격을 가지는 어음소지인(所持人)에게 지급을 한 경우에는 지급인에게 사기(詐欺) 또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이 없는 한은 면책(免責)됩니다.

생활(生活)의 지혜

○ 속이 빈 무우를 알아내는 법 : 무우를 살 때 겉만 보고는 속이 비었는지 알 수 없다. 바람이 든 무우는 맛도 없지만 비타민도 떨어지기 마련이다. 예로부터 줄기에 바람이 들면 뿌리에도 바람이 든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

우선 무우잎 줄기를 하나 따서 잘라보아 거기에 바람이 들었으면 뿌리는 보나마나 바람이 든 것으로 판정(判定)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우는 잔뿌리가 없고 말쑥하게 빠져서 무게가 묵직한 것이 좋다.

○ 양파를 벗길 때 눈물이 안나게 하는 방법(方法) : 양파의 껍질을 벗기다 보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양파 속에 들어있는 자극성 가스가 발산되기 때문이며 양파를 물 속에 담가서 껍질을 벗기면 그 가스가 물에 녹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껍질을 벗길 수 있다.

만일 가스의 자극으로 눈물이 나거든 곧 냉장고 안에 얼굴을 들이대본다. 아픈데가 금방 없어질 것이다.

동물세계의 숨은 이야기

사슴

김 정 만
〈서울대공원 병원장〉

일부다처제의 집단을 형성

사슴은 뿔을 가진 동물 중에서도 특이한 생태적 변화를 일으키는 동물이다. 매년 4월과 5월 초 사이에 낙각(落角)이 된 다음 그 자리에서 약재로 유명한 녹용의 순이 매년 반복해서 돌아난다.

그러므로 양록강 같은 곳에서는 하지전 녹용이라고 해서, 새로 돌아나는 융단같이 부드럽고 고운 녹용을 복용하면 혈액순환이 왕성하다는 이유를 들어 녹용이 솟아 오르는 약 60일을 전후하여 잘라내서 피와 함께 먹는다.

이것을 먹으면 사람의 보혈 뿐 아니라 강장제로 좋다하여 동양 3국에서 보약 중의 보약 즉 선약(仙藥)으로 치고 있다.

이처럼 한약제에 좋다는 사슴이 현 지구상에 18속내중에 이르고 있지만 한방에서 약재로 쓰이는 품종은 불과 10~15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계의 사슴은 일반 초식동물과는 달리 입추가 지나면 뿔이 굳어지기 시작하여 찬바람이 일기 시작할 무렵이면 뿔의 끝부분을 바위나 고목같은 곳에 문질러 창끝처럼 뿔날을 세운 후 온몸을 모래밭이나 바위 등에 부딪혀 굳은 살이 배기게 한다.

숫사슴의 경우이지만 이처럼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왕위쟁탈전의 사전 준비인 것이다.

전년도 왕노릇을 한 숫사슴은 1년 동안의 항력으로 쇠진해진 몸을 이끌고 첫서리가 내리는 어느 새벽녘에 후궁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해 도전에 실패한 숫놈들의 재도전을 받아 초원의 낙엽 위에서 뿔과 뿔의 대결을 한다.

힘과 뿔의 힘이 부족한 놈은 지체없이 꿇어 앉아 항복의 표시를 정중히 표현함과 동시에 꼬리를 내려 뒷다리 사이로 끼어 넣으면 승자는 패자에게 아량을 보여 도망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한번에 도전하여 왕위를 쟁탈하는 숫놈은 거의 없다. 보통 3~5회 정도의 도전을 해낸 용맹있는 놈이라야 가능하다. 지혜있는 도전자는 다른 숫놈의 도전장을 먼 발치에서 관전, 왕의 헛점

을 파악한 후 도전장을 내고 단숨에 한판승부를 내고 만다. 이렇게 해서 왕자의 자리에 오르면 멋진 남성미를 뽐내며 후궁들 앞에 나타난다.

동물의 세계도 매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도전을 받아 현재 자리가 위태로와지면 상대를 목살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슴도 도전하여 패자가 된 숫놈의 재도전이 두렵다고 여겨지면 뿔로 옆구리를 찔러 창자나 갈비뼈가 고장이 나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래서 다시는 자기 자리를 넘나 볼 수 없도록 혼을 내준 다음 무리에서 이탈하게 유도한다.

승리의 개가를 올린 새 왕자는 후궁들 간수를 위한 가출방지책과 자기소속 무리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자리를 옮겨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일부다처의 숫놈의 향락은 이때부터 시작, 암놈들의 행동거지를 낱알이 살피면서 완전한 집단의 리더가 된다. 만약 암놈이 이탈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일이 있으면 상처를 내어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심하면 살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놈의 이탈을 막는 것은 보통 발정기에 볼 수 있다.

이 시기가 끝나면 순해지는 것이 사슴 숫놈의 생태이다.

보통 20~50마리의 암놈을 거느리고 있지만 왕성한 정력으로 전체 암놈이 수태를 한다.

암놈의 임신기간은 227~240일로서 1두의 새끼가 나오면 1년동안 보살핀다.

맑은 마음 바른 예절

피어나는 나라자랑

건강상식(健康常識)

비만(肥滿)과

그 식이요법(食餌療法)



성 낙 응(成樂應)

〈의박(醫博) : 이화여대(梨花女大) 교수(教授)〉

비만(肥滿)도 「비만증」이라 하여 하나의 질병 취급을 하게 되었다.

특히 비만과 각종 성인병(成人病)과는 확실히 상관관계가 성립 되고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삶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전문가, 비전문가 할 것 없이 제 나름대로의 비만예방법, 비만치료법을 발표 주장하게 되어 관심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쇼킹한 처방까지 등장하여 불안한 환자들로 하여금 터무니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비만의 정의(定義)에 대하여는 많은 경로를 통하여 발표된 바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영양학에서는 신장에 비례한 「표준체중」을 가정(假定)하고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각자의 체중이 얼마나 초과하였나를 결정하고 있다. 즉 표준체중보다 10%~20% 초과한 경우를 과체중이라 하여 경계하고 있으며, 30%이상 초과시 보통 「비만」이라고 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는 20% 이상 초과 때를 비만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계를 요구하는 수치는 30% 이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표준체중의 계산법은 어떠한가? 그 수치는 아래와 같다.

(H-100)0.9= 남자 표준체중

(H-100)0.85= 여자 표준체중

H..... 각자의 신장(cm)

구미각국(歐美各國) 문헌(文獻)에는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를 표준체중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구미인에 비하여 골격이 작아서 남자에게는 0.9를 곱하고 여자의 경우 골격도 작은 한편 지방 축적이 남자에 비하여 약5~6% 많아서 0.85를 곱하고 있다.

여권대 신장이 170cm의 남자의 경우 표준체중은 다음과 같다.

(170-100)0.9=63kg 이때 +2kg를 허용치(許容値)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170cm의 남자에 서는 63~67kg이면 알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체중이 72kg라고 하였을 때는 약 10%쯤 초과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과체중의 범위에 속한다. 이 과체중은 그 경우보다는 이런 사람에 있어서는 앞으로 잘못하면 체중이 쉽게 80kg, 90kg까지도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內包)하고 있어 조심하라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40代 이후의 남자 또는 첫 아이를 분만하고 난 뒤의 여자에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서 비만증이 있었다.

한때 배가 나오고 듚직한 사람을 부러워하였다.

또 그런 분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 「사장배」라고 까지 부러운(?) 대상이 되기도 한적이 있었고, 여자에 있어서도 부자집 만머느리감이라 하여 제법 똥똥한 사람을 찬양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런 것이 모두가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하여 체중조절(體重調節)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한편 어린이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량아라 함은 손목에 자죽이 나거나 목이 붙어버릴 정도로 똥똥한 아이가 우량아가 되었으나 요즘 우량아의 개념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더구나 국민학교 아동의 비만이 과거 약 20여년 전만 하여도 약 1%도 못되어 걱정없던 것이 요즘은 4~5%까지 상승하고 있어 거리, 특히 아파트촌 같은 곳에서는 비만아를 자주 보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국민교생의 약 7% 정도가 비만이라고 하며 국민보건상 적신호(赤信號)를 올리고 있다.

그것은 비만아의 약 85% 이상이 성인(成人) 비만증으로 그대로 연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비만의 해(害)는 과연 무엇이며 왜 비만을 그렇게 경계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선 체중이 많으면 그만큼 심장에 대한 부하(負荷)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에컨대 여러분들이 「트렁크」 10kg짜리를 들고 계단을 오려면 숨차고, 무겁고,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 체중이 10kg 더 많은 것은 아무 생각없이 편안하게 지니고 다니고 있다. 그러나 심장은 그렇지가 않고 상당한 부담을 받는 가운데 그것이 누적되어 각종 심장질환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비만은 근육이나 뼈가 크거나 많은 것이 아니고 지방(脂肪)의 축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며 이들은 동시에 혈액 내에 코레스테롤과 중성지방(中性脂肪) 함량(含量)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중성지방합량의 증가는 곧 동맥경화증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되고 있어 비만증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셋째는 기타 당뇨병, 통풍 등 대사성질환(代謝性疾患)도 비만증에서 그 발생빈도가 높다고 되어 있다.

당뇨병은 선천적(先天的) 유전이라 하고는 있으나 비만증이 없으면 발생빈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병 중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심근경색증이나 뇌혈전증의 원인도 비만증에서 온다고 한다.

그러면 위와 같이 성인병과 관계가 깊은 비만증의 예방과 식이요법(食餌療法)은 과연 무엇인가?

비만증도 운동부족이나 과식, 과음없이 선천적으로 된대거나 홀몬 이상(異常)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전체 비만증의 1% 미만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 대부분, 즉 99%는 역시 운동부족에다 과음 과식이 원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증 유발에도 역시 선천적 요인이 개재되며 지방세포수가 많거나 또는 지방세포의 증식(增殖)이 빠른 사람에게 있어 더욱 비만의 빈도가 많거나 정도가 심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비만증도 선천적으로 소질을 타고 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비만증의 예방은 체내(體內) 지방축적을 줄이는 길 밖에는 없다. 당질(糖質)이나 단백질(蛋白質)은 체내 저장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저장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방은 에너지가 남게 되면 얼마든지 무한정 저장을 시킬 수가 있다. 더구나 여성호르몬은 피하지방(皮下脂肪) 저장을 촉진시키고 있어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함량이 높다. 남자도 40대(代) 이후가 되어 갱년기(更年期)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비만증이 부쩍 늘게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必要)한 양만큼 섭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항상 섭취한 만큼의 에너지를 어떤 방법으로든 소비하는 것이 최상의 예방이 된다. 흔히들 별로 먹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뚱뚱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말은 있을 수 없고 어떤 경우 이견 지방의 축적은 에너지 과잉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비만치료로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理想的)이다.

그러나 한가(閑暇)한 사람도 아니고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는 매일 일정시간 일정량의 운동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부득히 식이요법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식이요법은 비만의 정도(程度), 또한 현재 비만으로 유발된 질병의 유무(有無) 등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건 섭취열량을 줄이라고 하면 흔히들 절식(節食)을 생각하기 쉽다.

이런 경우 조심해야 할 것은 비만치료에 있어 열량은 줄여야 하지만 단백질이나 각종 비타민 및 광물질 등은 필요한 양을 반드시 섭취하여야 한다. 그것이 한 끼, 두 끼를 거르거나 절식을 오래 계속하면 결국 열량섭취를 줄이는 것과 동시에 기타 비만과 관계없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必要)한 영양소까지 부족하게 되어 영양 실조증이 되기 쉽다.

그래서 빈혈이 된다거나 각기가 된다거나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있다. 그래서 체중조절을 위하여는 각 개인의 상태에 따라 일정량의 열량을 결정하고, 당질도 총 섭취

열량의 50% 정도는 유지하여야 하고 지방도 15% 정도는 유지해야 하며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된다.

이렇게 되면 단백질은 필요(必要)량 이상 섭취하게 되고 단백질은 특히 동적 작용이 크므로 에너지 소비가 늘게 되어 체중조절에는 더욱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 끼를 거르는 상태에서는 지방저장이 요구되는 효소의 활성도를 높이게 되어 같은 에너지량을 섭취하는 경우와도 더 많은 지방저장이 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체중조절을 한다고 사우나탕에 가거나 헬스클럽에서 큰 돈을 내고 열심히 움직이는 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 짓을 하여도 식이요법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좋은 효과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운동도 어떤 특수조건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움직이도록 하면 된다. 집에서 아침에 길가에 나가서 약 20분 정도 조깅을 하고 동네길을 쏘고 집안밖 청소를 하면 그것으로 헬스클럽에 가서 1시간, 2시간 뛰는 것과 다를 것 없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우리는 흔히 특수한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으레히 어떤 장소까지 가야 하고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며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체중은 2주일에 2kg 정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한다. 그러나 체중감소를 너무 천천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때는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의 감시하에 체중조절을 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비만은 막아야 하고 일단 된 다음에는 어떤 특수한 요법을 찾지 말고 항상 열량섭취를 자기 활동범위 이내로 하도록 노력하면서 항상 움직이도록 하고 전문지식없이 어떤 특수요법이나 결식, 단식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방담에 방첩없고

안일에 승공없다

호돌이의 23개(個) 경기종목(競技種目)

묘기확정(妙技確定)

김 현(金炫)

〈호돌이 원작자(原作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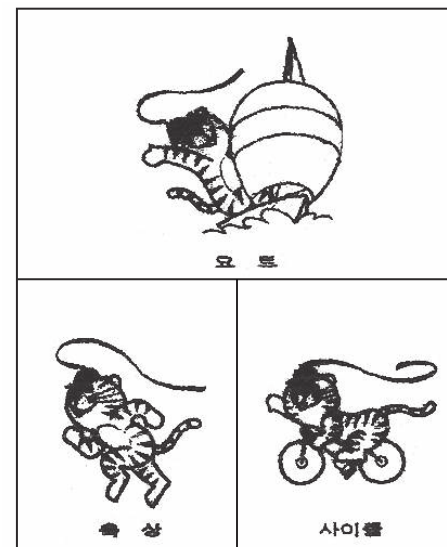
올림픽 표어

「세제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88 서울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가 펼치는 23개 종목의 경기모습이 확정 발표되었다.

올림픽위원회는 호돌이 원작자 김현(金炫)씨가 주제별로 그려낸 58종(경기 23, 민속 7, 대회안내 9, 알파벳 문자와 숫자 19)의 그림의 홍보와 수익사업을 위해 결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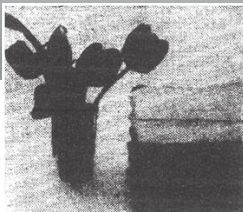
한편 서울 올림픽 표어는 4만 8천 1백 9명의 응모자 가운데 서울에 사는 홍재훈(洪在勳)씨의 「세제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양궁	테니스	탁구
		
수영	유도	핸드볼
		
근대 5종	사격	배구
		
	복싱	

		
복싱	펜싱	체조
		
농구	승마	카누
		
레슬링	역도	조깅
		
	하키	

남을 보는 거울



정 재 호
(시인)

시간만 있으면 미술전시관을 한 바퀴 도는 것이 버릇이 되었다.

시화전, 회화전, 조각전, 목각전, 서예전, 시서화전, 바가지전, 고서화전, 우표전, 그림엽서전, 기록사진전, 사진동인전, 공예전, 건축설계전, 도자기전, 도서전, 우량학용품전, 불량상품전……

벼라벌 명목의 전시회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느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라 관람하는 표정도 다르다.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것도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보기엔 무가치한 것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한다.

예술은 보는 사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기교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고, 주제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도 있다.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은은한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둡고 침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동양화를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서양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다.

현대 미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고전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사람도 있다.

미술은 설명이 필요없다. 거추장스런 매개체가 없이 직접 영혼과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선과 색채로 우주를 창조하고 생활을 묘사하고 역사를 재현시켰다.

나는 미술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자연의 아름다움도 배웠지만 사물을 보는 눈을 배웠다. 공간 구성과 색채의 조화로 인생을 표현하는 그 뛰어난 기교에 넋을 빼앗긴 적도 있었다.

예술은 시간을 초월하고 국경도 초월하기 때문에 영혼과 영혼이 통하고 가슴과 가슴이 통한다. 마음이 울적한 날은 전시회를 찾아나선다. 그러면 억눌렸던 가슴이 확 트이고 어둡던 마음이 밝아진다.

예술은 나를 돌아보게 한다. 게으른 마음에 채찍을 가해주고 오만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어 주고 간사한 마음에 철퇴를 내려준다. 예술작품마다 감정의 무늬가 수놓여지고 역사의 발사국이 적혀 있으며 피와 눈물의 자취가 얼룩져 있다.

오늘도 우연히 고서화 전시회를 보았다. 신사임당을 비롯한 40여점의 국보급 서화가 전시되어 있다. 특히 감명깊은 것은 영리를 떠난 순수한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한 점이다.

전시장에선 어딘가 돈냄새가 풍기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다. 팜플렛도 무료로 주고 전시작품도 비매품이기 때문에 한결 마음이 즐거웠다. 귀한 작품을 모으느라고 경제적으로도 힘이 겨웠겠지만 시간과 정성도 보통이 아니었다.

김추사 삼형제의 서간문은 처음 보는 것이었고 남호은의 사군자, 퇴계의 태극도해, 신사임당의 초충도, 김옥균의 글씨는 참으로 희귀한 보물이었다.

그는 어느 중학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전국을 누비다시피 돌아다니며 고서화를 모아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떤 고물장수에게서 헐값으로 구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허물어진 집에서 벽에 바른 종이를 오려 온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폐지를 모아 놓은 것에서 간신히 찾아냈다고 하니 그 집념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는 서화 애호가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예술에서도 일가견(一家見)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에 대한 해설도 상당한 경지에 달했고 그가 보는 예술관도 비교적 건전했다. 보기 드문 전시회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웃기를 여미게 하는 경건함이 장내를 꽉 채우고 있었다.

어떤 전시회를 가보면 불쾌하기 짝이 없다. 저속한 작품을 걸어놓고 판매하는 데만 마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작품의 평가나 감상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 작품을 파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전시회의 목적은 작품의 평가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판매하는 일은 부수적인 문제이다.

남의 것을 모르면 제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남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며 스스로를 평가하는 저울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르시스처럼 제 모습에 도취하여 이성을 잃은 경우가 많다. 자기 작품을 과대 평가하고 아집에 빠져 남의 충고를 귓가로 흘려 보낸다.

예술가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의 작품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고 한 단계 높여서 평가하려고 든다.

남을 아는 일은 쉽지만 스스로를 아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 진리인 것 같다.

어떤 시화전을 보면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습작같은 것을 내놓고 조금도 부끄러운 태도가 없는 것을 보면 자기도취의 농도를 짐작할 수 있다.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전시회를 순례한다.

거기에서 인생도 배우고, 예술도 배운다. 그래서 나를 재확인하고 성장시키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키우기 위한 밑거름이다.

가난한 사람의 노자



이 원 우

생활을 하면 우선 목이 메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십여년도 훨씬 전의 아버지 일기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회갑도 못 맞으시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당신께서는 이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씀을 남은 노트 한권의 어느 페이지에다 이렇게 써 남겨 놓으신 것입니다.

「실로 몇 년 만에 다니러 가는 처가(妻家)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노처(老妻)는 기차를 타러 역으로 나가면서 그만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다. 나 또한 마음이 우울하기 그지없었다. 오랜만에 돌이켜 하는 나들이라 노처야 눈물이 나겠지만 나는 나대로 걱정이 있어서이다.

자식이 주는 노자(路資) 주머니에서 썬해 보니 다녀오면 꼭 차비로 쓰고 남을까 말까 하는 돈이었다. 하는 수 없이 역전 조서방한테서 얼마를 꾸어 기차를 탔다만은 어찌 내 마음이 편했겠는가. 겨우 수박 한 덩이를 사서 가는 길이라 초라하기만 하였다.」

동맥경화로 영영 일어나지 못할 자리에 누우셨을 때 이미 가족들은 이 일기장을 보아 한바탕 울음바다를 이루었지만 당신께서 저세상으로 기어이 떠나신 뒤에도 우리는 같은 슬픔에 복받치곤 했습니다. 막내 누나는 눈이 벌겍게 부은채 「아버지도 너무하셨재. 원 우리한테라도 돈 좀 달라고 하셨으면 될 거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혼자 남으신 어머니께서는 더욱 나들이를 하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긴긴 세월을 오직 방 안에서만 앉아 계셨습니다. 그 대신 집에 찾아 오는 손님들에겐 어떤 일이 있어도 노자를 보태도록 엄명을 내리셨지요.

잠시 지나는 길에 들린 손수조차 따질 수 없는 고향의 먼 친척이라 하여도 그냥 보내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못배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언짢아하면 당신의 주머니 그 가난한 주머니를 터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도 오년(五年)을 채 더 못 사시고 중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두 어른께서는 노자에 대해서는 지나치리만큼 연연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두 어른께서 집안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삼고자 몸에 익히신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는 겨우 십리 밖에서 자전거로 출장나온 매형의 노자를 걱정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아야 니 매형 돈 가진 거 있는지 몰라」 특히 어머니께서는 자식이라고 해서 예외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방학이 끝나 형님댁으로 공부하기 위해 떠나는 하루 이틀 전 쯤이면 당신께서는 그 어두운 눈으로 어머니께서는 앞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장롱 속을 열심히 뒤적이셔서 한 컬레의 버선을 꺼내시고는 꼬깃꼬깃 감춰두었던 지폐 몇 장을 끄집어 내어 건네주시면서

「자, 이거 노자해라. 닭 팔안돈 아닌가」 하셨습니다. 그 돈이야말로 예삿돈이 아니었습니다. 낙향(落鄉)해서 야학(夜學)을 여시고 동네 청년들에게 한문을 가르치시는 아버지도 가난하셨지만 어머니 또한 마당에서 기르는 몇 마리의 닭이 유일한 재산인데 그걸 판 전부를 하나 쓰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내 손에 쥐어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염원이 한꺼번에 묻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가에 다니러 가시는 두 어른께, 장성하여 직장까지 버젓이 가진 자식이 노자조차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니 세상에 또 이런 불효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다시 한 번 회한에 잠겨 봅니다. 그때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3년이 지난 뒤에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독립해서 가정이란 것을 꾸몄습니다. 보잘것 없는 내집에도 손님은 더러 찾아 오는 편입니다.

그들이 떠날 무렵이면 어김없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눈 안에 떠 오릅니다. 당신들께서, 「야들아 그냥 보내서는 아니되는지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그럴 때 짜증을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이웃에 달려가 빌려오기 예사지만 단돈 몇 푼이라도 노자에 보태 쓰실라고 내놓지 않고서는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떠나는 그들의 손을 꼭 쥐어 보면서 유달리 인정이 많으시던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이제 손님에 대한 노자 걱정은 내 대(代)에서 당연한 전통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언니야」

「누나야」

「와그라노?」

「오늘밤만 자고 가래이.」

지금 건넌방에는 손님 둘이 와 있습니다.

정희와 정해…… 정희는 내 친질녀요, 정해는 우리 아이 둘을 길러줬던 지금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정희는 며칠 전에 서울에서 내려와 묵고 있는 터이고 정해는 작은 아이 상훈이의 생일을 용케 기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둘 다 오후면 떠날 손님들이라 미리부터 나는 노자 걱정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기껏해야 합해 돈 만원 안쪽이지만 지금 당장은 그만큼도 지닌 게 없으니 아무래도 지현이나 상훈이의 빙어리 저금통에서 얼마를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땐 또 아버지 어머니의 생전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냐 사람집에 사람 안 찾아오면 그 집안은 결코 흥하지 못하는 법이다.」

진 리(眞理)



박 일 송(朴一松)
〈시인(詩人)〉

전쟁(戰爭)이란
가혹한 운명(運命)에의 장난으로선
알지 마시오
그곳에서는 사랑과 진실과 신의와
그리고
약속(約束)에의 판가름이 아니겠오
일찌기 우리는
많은 전쟁을 통해
교훈(敎訓)을 얻었으니
그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
생명(生命)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려야 산다는 것과
살려고 해선 죽는다는 진리(眞理)

그리운 바다



〈편집 실〉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지
외로운 바다와 하늘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키 큰 배 한 척
그 배를 인도할 별 하나
그리고 물결치는 키바퀴, 바람의 노래
펼쳐지는 흰 돛
바다 얼굴 위에 젓빛 안개와 동이 트는 젓빛 새벽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지, 흐르는 조수가 부르는 소리는 거절 할 수 없는
거치는 부름이며 똑똑한 부름이기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하얀 구름 날아가는 바람찬 날
뛰는 물보라, 날려가는 물거품, 울어대는 바다갈매기
나는 다시 바다로 가야지, 방랑의 짚시생활로
바람이 칼날같은 갈매기의 길로 고래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깔깔 웃는 방랑자 친구의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긴 당번시간이 끝난 후의 고요한 잠과 달콤한 꿈.

고향(故鄉)따라 전설(傳說)따라

정 연(鄭 衍)



애타는 기다림

전남(全南) 영광읍(靈光邑)

곧을재에 얹힌 이야기

곧 올텐데..... 곧 올텐데.....

아내는 고개 위에 쓰러져 누운 채 남편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러나 적(敵)에게 붙잡힌 남편은 안타깝게 아내를 부르며 적의 잔인한 채찍에 시달려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곧 올텐데..... 곧 올텐데.....

아내도 그렇게 되뇌이다가 끝내는 두 눈을 감고 말았다.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곧을재.

지금으로부터 약 2천년 전 성진(聖愼)이라는 부족국가의 한 어진 아내의 애달픈 한(恨)이 맺
혀있는 고개라고 지금껏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 고개마루 위론 양복입은 우리네들이 무심히 지나치지만 그 황토고개 마루엔 눈물겹고
아리따운 상고(上古)의 전설이 풀꽃잎에 구르는 조각들에 맺혀있는 것이다.

삼국(三國)의 한나라였던 백제(百濟)가 서기 전 그 무렵엔 크고 작은 부족국가들이 강줄기를
따라 혹은 산비탈 계곡을 따라 울창한 숲을 끼고 드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성진(聖愼)이라는 부족국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였다.

성진은 더 없는 평화와 고요가 깃들어 있는 나라였다.

봄이면 파야란 시냇물에 진달래 꽃잎이 떠가고 여름달밤이면 아련한 모깃불 연기가 박꽃이
핀 초가 지붕 위로 오르곤 했다.

울밑엔 개나리 꽃이 새벽햇살에 눈부시고 외양간의 송아지는 음메하고 울었다.

정말로 목불인전의 참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어떤 녀석은 송아지의 군 두레에 줄을 걸어 말꼬리에 달고 달리기도 했다.
 아비규환의 유흥지옥이 이럴 것인가?
 다행히도 도손부부는 적병의 눈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둘이는 북쪽을 향해 사력을 다해 정신없이 걸어갔다.
 둘이서 온 힘을 다해 걷고 있을 때, 아내는 높은 고개중턱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여 여보시오..」
 아내는 가쁜 숨을 몰아 쉬었다.
 미투리는 벗겨지고 발끝마다 피가 맺혀 있었다.
 손가락은 가시에 찢려 피가 흐르고 태양에 그을린 얼굴에는 땀이 번쩍었다.
 「물! 물! 서방님, 물!」
 도손은 주위를 살펴봤지만, 잿빛암석과 황토만이 깔린 황망한 산골이었다.
 「여보오, 이 고개만 넘어가면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을거요」
 도손 역시 목이 말랐다.
 마른 입술에 침을 발랐다.
 「여기서 쓰러지면 안돼! 자, 어서 기운을 내어 고개를 넘어가자구 응」
 도손 역시 아내의 곁에 쓰러지고 말았다.
 가쁜 숨을 쉬며 손을 내 밀었다.
 「서방님! 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난, 원래 몸이 약했어요 죽을꺼예요!」
 「안 되겠어요. 난 어차피 죽을 몸. 서방님은 어서 고개를 넘으셔요. 서방님만 사신다면 난 결코 죽지 않을꺼예요. 난 서방님 가슴에 언제까지나 살아있을 걸요. 뭐... 서방님, 서방님 혼자 만이라도 고개를 넘으셔요. 네...」
 도손은 흐느끼는 아내를 껴안았다. 아내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도손은 아내의 삼단같은 머리카락에 입술을 문지르며 울었다.
 「여 여보!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더 가면 저 고개 아래 마을이 있을거야!」
 「아 아니예요. 우린 남보다 행복하게 살았어요」
 「난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도손은 얼른 아내를 업었다.
 몇 걸음 옮기다가 또 쓰러졌다.
 쓰러진 도손의 눈 앞에 꽃뱀 한 마리가 미끄러져 갔다.
 「서방님 곧 적병이 쫓아올 거예요. 서방님만 먼저 고개를 넘으셔요 네?」
 도손은 아내를 번쩍 안아 비틀거리며 숲속에 뉘었다.

도손의 아내는 풀섬에 맺힌 이슬을 혀로 핥았다. .
 「여보오. 당신 여기 숨어있구려, 난 마을로 되돌아가 물과 약을 갖고 다시 돌아 올께...」
 「안돼요 안돼!」
 도손은 아내의 애절한 목소리를 등 뒤에 두고 지치고 병든 짐승처럼 비틀거리며 걸었다.
 몇 번인가 돌뿌리에 걸려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 도손이가 마을에 되돌아 왔을 때는 밤이었다.
 달빛에 비친 마을의 모습은 비참했다. 타다 남은 기둥들만이 우뚝 서 있고 아직도 타는지 연기과 냄새가 진동했다. 도손이 자기집 근처로 가는 대나무 숲을 막 지날 때였다.
 어둠 속에서 튀쳐나온 억센 손이 도손의 얼굴을 쳤다.
 도손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무엇인가 질질 끌려가는 걸 깨달았을 때 도손은 기절했다.
 찬물이 끼얹어져 한참 후 정신을 차렸다.
 햇불이 휘황했다.
 그 머리 위에 짙게 드리워진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같은 녀석, 성진나라의 첩자였다. 너 이실직고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일아침 까마귀 밥이 될 것이다.」
 쓰러졌던 도손은 일으켜 앉혀졌다.
 성진나라의 첩자는 도손을 일으켜 앉혀놓고 큰소리를 질렀다.
 「임마, 무릎을 꿇어」
 가족신이 도손의 정강이를 짓밟았다.
 거기엔 눈이 화등잔같은 맹골의 장수가 호피(虎皮)를 깔고 앉아 있었다.
 「음 기골이 장대한 녀석이로군, 성진의 너구리 녀석들 중엔 장수감이겠는걸... 네 이놈. 네 이름이 뭐냐?」
 「도, 도손이옵니다.」
 「도손..... 흠 그래! 지금 성진의 왕은 어디에 피신하여 왕비와 같이 머리를 쳐박고 달달 떨고 있는가.」
 좌중에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시끄러워...」
 장수가 화등잔의 눈을 치켜뜨자, 모두들 입을 다물었다.
 「네 이놈 바로대라. 넌 성진왕의 밀명을 받고 우리의 허실을 탐지하려왔지!」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난... 난 다만 같이 피신하던 아내가...」
 「아내가? 아내가 어쨌단 말인가?」
 「아내가 병들어 물과 약을 구하려 왔을 뿐입니다.」
 「뭐 뭐라고! 계집이 병들어 물과 약을 구하려 왔구나! 핫 핫, 그래! 네 계집은 지금 어디에 있는고!」

「그 그건 말씀드릴 수 없사옵나이다.」
 눈이 화등잔같은 장수의 손이 번쩍들리는가 했더니 생피채찍이 도손의 이마에 날았다.
 「어이쿠...」
 또 한 번 생피채찍이 도손의 목을 감았다.
 「바른대로 대란 말이야, 그래 네 말을 전부 옳다고 하자. 그래 네 계집은 지금 어디 있는고」
 「장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난 물과 약을 가지고 아내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 아내는 죽고 맙니다.」
 다음 순간 다시 생피채찍이 또 한 번 울었다.
 「내 일찌기 성진녀석들이 호색(好色)한다는 얘길 들었거니와 명불허전이로고... 다 죽어가면 서도 계집소리만 하고 있으니, 네 이놈 목숨이 아깝거든 네나라 임금의 처소(處所)를 대든지, 네 계집이 있는 곳을 대라. 정녕 까마귀밥이 되기 싫거든 이실직고해라.」
 「정말이옵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면 내 아내가 죽고 맙니다.」
 도손은 두 손을 모아 맹골의 장수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화등장같은 눈을 부릅뜨고 또한 장수는 큰소리로 호령했다.
 「에잇, 고약한 놈...」
 생피채찍이 도손을 또 난타했다.
 도손은 그만 적의 매질에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다.
 맹골의 장수는 도손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디론지 사라져갔다.
 이런줄도 까마득히 모르고 고개 위에서 도손의 아내는 「곧 올텐데, 곧 올텐데」 중얼거리며 고개 아래를 보다가 도손의 아내도 숨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는 뒤 그 고을 사람들은 도손의 아내가 「곧 올텐데, 곧 올텐데」 하고 약과 물을 마을로 가지려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은 고개라고 해서 고개이름을 「곧올재」라고 지어 불렀다.
 「곧 올재」
 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림의 사연이 깃들인 이름인가?
 오늘도 「곧 올재」를 넘는 사람들은 그날의 전설을 까마득히 잊고 갈길을 재촉하고 있다.

지상에선 점검철저

공중에선 경계철저

통한(痛恨)의 강(江)

정 해 환(丁海煥)

〈교사〉



저주의 땅, 베트남에서 귀국하면서 도무지 끝과 의미를 알 수 없었던 그 터무니없이 참혹했던 전쟁을 회억해 내고 있다.
 전쟁은 그 아무쪽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오로지 남은 건 한이요, 치욕이요, 처절한 절망일 뿐이다.

바람은 강을 거슬러 올라 왔다. 강물은 하늘보다도 훨씬 더 짙은 암청색이었고, 초추의 하늘은 한 점의 구름도 담지 않은 채 창황하게 높이 부풀어 있었다. 그 창황한 하늘 밑으로 강은 다소 완만한 능선을 이룬 야산을 끼고 세월처럼 길게 누워 있었다.

한낮도 기울어진 시각, 그러나 가을의 해는 아직도 뜨거웠다. 더러는 조무래기들의 물장구질이라도 있을 법한 강변은 군데군데 몇몇 낚시꾼들만이 덩그런히 보일 뿐, 한결 고즈넉했다. 강수욕을 즐기는 피서객들을 위해 임시로 급조된 그 풍경없는 천막집들이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띄엄띄엄 남아 있었지만 이미 여름은 강을 떠나고 없었다.

「강은 확실히 변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곧 강심에서 눈을 거두고는 강줄기의 아래 위를 번갈아 가늠하며 「몇 번이나 와서 확인했지만 이곳이 틀림없어. 그래 여기쯤이 될 거야」 하고 덧붙였다. 나는 줄곧 아버지의 그 깊고 아슬한 눈을 주시하며 계속 품어 온 아버지께 대한 일련의 의구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도대체 아버지 이 곳에서 무엇을, 그 어떤 정황을 캐내겠단 말인가. 나는 다시 그런 아버지를 향해 오랜 세월을 길러 온 비웃음이 가슴을 차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애야 너 오늘은 나와 같이 어딜 좀 다녀올 데가 있다.」

조반을 마치고는 버릇처럼 밖으로 나가려고 신발을 죄이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말이었다. 나는 그때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언제부터인지 막은 모르지만, 아뭏든 철이 들면서부터 시작된 아버지께 대한 막연한 경원은 고질같은 외면 속에서 더욱 그 키가 자랐

다. 우리의 부자지간은 적어도 일반의 그것과는 애초부터 판이한 관계를 고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의외로운 것이어서 나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나는 신발끈을 묶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차라리 아버지의 그 갑작스런 제의에 대한 거부 의 몸짓이라기 보다, 결코 이번이 있을 수 없는 별난 부자지간의 타성 때문이라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내말 알아 들었느냐? 약속이 있으면 취소해라!」

아버지의 단호한 두 번째의 음성이 들려 왔을 때, 나는 비로소 마루에 선 그를 올려다 보았다. 생전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근엄한 얼굴이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아—>하마터면 나는 소리를 지를 뻔 했다. 정말 나는 여태껏 그러한 얼굴의 아버지를 기억해 본 일이 없었다. 갑자기 거인이 되어 버린 것 같은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그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언제나 비굴한 몰골로 미치광이가 된 어머니 앞에서 왜소하게만 비쳐졌던 나부……, 그 사내가 하룻밤 사이에 저렇게 돌변하다니…… 나는 더욱 짙은 혼돈속에서 차라리 막막한 기분이었다.

「저녁 때면 돌아 올 수 있는 거리다. 옷차림은……. 그래, 그 작업복이면 된다.」

그의 구부정한 등어리가 안방 쪽으로 사라지고 난 한참까지 나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그 신발끈 마저 매려느냐」

이윽고 간편한 외출복 차림을 한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야 나는 홀린 듯 그를 따라 나섰다. 그리하여 우리는 한 시간여를, 낡은 경원선 열차에 실려 이곳 J읍을 우회하고 있는 한탄강에 도착했다.

「틀림없는 이곳이야」

아버지는 확신이라도 하듯 다시 몇 번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강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갑자기 무료함같은 걸 느꼈다.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그 밀도 끝도 없는 중얼거림에 왈각 짜증이 치밀었다.

나는 힘껏 강쪽으로 돌맹이를 차 보내면서 자리를 뜨려 했는데, 그때 다시 아버지의 신음 비슷하,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나의 등을 나꿔챘다.

「여기서 우린 너의 누나 셋을 버렸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동족분쟁과 뇌 엄마의 그 실수, 때문에…….」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전혀 알 수 없는 타인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 보았다. 강줄기의 배경으로 한 중노의 일그러진 얼굴이 강심을 향해 나무등걸처럼 서 있었다. 일순 나의 안면엔 다시 오래 잊어 둔 비웃음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나는 아버지의 오늘 여행목적 생각을 생각해 내는데 성공했다.

(그래요, 근데 그 누나들을 죽인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한 동안 아버지의 얼굴에서 졸전의 그 비굴했

던 모습을 다시 찾아 내려고 노력했다.

「들취 때문이었어! 그 원수같은 논의……」

아버지의 수염잡힌 하악이 한 차례 경련을 일으켰다.

(들취 때문이었다구?)

나는 코웃음을 흘렸다.

(이젠 책임 전가까지 하시려는군 아예……)

나는 새삼 아버지의 얼굴이 뻔뻔스럽게 느껴졌다.

(결국은 그 죄피목은 옛날 애기의 각색을 위하여 나를 끌어냈었군……)

아버지의 느닷없는 <한탄강행>의 저의를 파악한 나는 그만 허탈해지고 말았다.

(처음부터 물어보고 나설 걸……)

나는 비로소 아버지와 동행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될진 모르지만 이제 넌 우리 가족의 일을 바로 알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난 오늘 널 예까지 데리고 온 거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다.

「제겐 어차피 흥미없는 일이에요. 가능하다면 그런 악몽같은 빨리 잊고 싶을 뿐이에요.」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심통사납게 아버지를 향해 뇌까려했다.

「다만…….」

하고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확실하다는 건 아버지가 누나 셋을 죽였다는 사실 뿐이에요. 그래서 엄마 미치구 말았구요. 결국 아버지 그 엄마까지 죽게 만든 셈이에요. 근데 엄마가 누나들을 버렸다니……」

나는 한참동안 숨을 헐떡거렸다. 갑자기 그 누구에게랄 수도 없는 분노가 끓어 올라 나는 그만 고향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애써 스스로의 표정을 안으로 다스리고 있는 듯 시종 중후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차라리 그러한 그의 표정에서 더한 역겨움을 느꼈다.

「그래 적어도 지금까지는 너에게 그렇게 알려왔다. 그러나 그 애긴 이제 수정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버지는 두어 번 숨을 몰아 쉬었다.

「결코 다시 들어 놓고 싶지 않은 얘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는 말을 늦추고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가만 있자, 우리 저 천막집으로 가자. 갑자기 술을 한 잔 하고 싶구나.」

아버지는 자신이 가리킨 허름한 노천상점쪽을 향해 휘적휘적 걸어갔다.

(그러실테지 어차피 그 치독스런 과거를 도금시키려면 술이 필요하실테지……)

나는 한 모금 소주를 깨물었다.

아버지는 연거푸 두 잔의 소주를 비웠다.

그리고는 갑자기 생각이라도 난듯 나에게도 술을 따루어 주며,

「한 잔 하려므나」 하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연신 날아드는 파리떼들을 쫓기 위해 손을 내저었는데, 그때 상점주인 여자는 「근처에 양계장이 있어서 파리가 아주 말도 못해요.」 하고 묻지도 않은 말을 변명처럼 주절거렸다.

그녀가 가리키는 강변 미류나무 숲 속으로 제법 규모가 큰 길다란 양계장과 돈사가 숨어있었는데, 그 위로 헬리콥터 한 대가 요란한 소음을 떨어뜨리며 날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어렵게 이곳에 도착했다.」

다시 아버지는 애길 꺼내기 시작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우린 이곳을 왔었지...」

아버지의 눈길은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고, 서서히 주기가 오르고 있는 그의 얼굴엔 후덥한 회색의 그늘이 덮이기 시작했다. 나는 가능한한 아버지의 그 천연스런 얼굴을 보지 않으리라고 내심 작정하며, 멀리 강 너머를 바라보았다. 별절게 상채기를 드러내고 엎드린 포장되지 않은 군용도로 위로 트럭 하나가 붉은 먼지를 말아 올리며 달려가고 있었다.

「남북분단은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도 엄청난 보상을 요구했다. 이젠 너희들에게도 그런 전쟁 애기쯤은 식상해서 별스럽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치욕의 동족상잔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

(아버지, 당신의 추억을 경청해 드리기엔 어머니나 제가 너무도 오랜 고통 속에서 부대껴 왔읍니다.)

나는 슬며시 이를 악물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집에서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무당굿이 열렸었다. 복술이 좋다고 명망이 높았던 복술, 무당쟁이치고 우리집을 거쳐가지 않은 작자가 없을 정도로 어머니는 그 때 무당들을 끌어 들이는데 열중해 있었다. 온갖 법석을 다 떨어대는 안방엔 언제나 가지각색의 조화와 흡사 도깨비라도 튀어 나올 것 같은 경채비가 차려져 있었고 한 손엔 느슨한 부채 또 한 손엔 섬뜩한 무도를 들고는 살풀이 경이니, 큰경이니를 외치며 신바람을 일으켜대는 무당쟁이 앞에서 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손발을 비비고 있었다. 그리고 무당쟁이들의 소름끼치는 휘파람과 더불어 방안의 공기를 매섭게 가르며 번득이는 칼춤 앞에서 아버지는 중죄인 같이 땀을 뻘뻘 흘렸다.

「네 죄가 크구나! 휘익 휘익..... 그 어린 것들을 버리고 온 너희들의 죄는 너무도 크구나!」

무당쟁이의 질풍같은 닥달에 아버지는 언제나 고개를 꺾으며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그때 구경꾼들 속에 숨어서 그 무참한 형상의 어머니와 아버질 결눈질하며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무당굿은 내가 소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무수한 구경꾼들과는 달리 어린 가슴에 너무도 섬뜩하게만 느껴졌던 그 푸닥거리를 나는 한 번도 좋아해 본 일이 없었다. 더구나 그러한 것이 일종의 <미신> 행위에 해당되는 부류의 것임을 학교에서 배운 뒤부

터는 더욱 그 무당굿이 소름끼쳤다. 해서 나는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터무니없는 무당굿을 주도하고 있는 아버지를 저주하기 시작했다. 아니 사실 내가 아버지를 질시하게 된 이유는 정작 다른 곳에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느날 나는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무당굿의 철폐를 주장했다. 그때 아버지는 말했다.

「니 엄만 지금 미침 병에 걸려 있다. 그런 너의 엄말 구할 수만 있다면 미신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난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 어머니가 미침병에 걸린 이유를 끝내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얼마 동안은 더 우리집에선 무당굿이 베풀어졌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는 기어이 무당쟁이들과 더불어 이른바 진혼제를 주재한다며 어느 강을 다녀왔는데, 그 후부터 어머니의 광증은 외려 심각해졌다. 마침내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술을 먹이기 시작했다. 그럴때마다 그녀는 곧 오랜 잠 속에 빠져들곤 했는데, 아버지의 그런 치료는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다. 해서 그녀는 늘 덜쩍 지근한 술냄새를 풍겼다. 드디어 나는 아버지에게 그 무작스러운 치유방법의 취소를 완강히 제의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만류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엄마는 네가 헤아릴 수 없는, 너무도 큰 슬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 때 아버지가 내게 변명처럼 들려 준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고작 그런 방도밖에 취할 수 없는 아버지의 무능이 새삼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는 또 새로운 사실을 연출해 내고 있었다. 술을 마시기만 하면 곧장 깊은 잠에 빠지곤 했던 그녀는 어느덧 무당춤을 흥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술을 요구했다. 다시 그녀에겐 합병증처럼 알콜중독 증세가 추가되고 있었다.

나는 이웃들이 던지는 그 찌뱃한 동정의 눈길 앞에서 늘 부끄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럴때마다 그만 땅 속같은 곳으로 싹 사그라져 버리고 싶은 충동으로 가슴이 아득해지곤 했다.

이미 나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다.

(엄마는 기어코 아버지 땀에 죽을 것이다!)

나는 참담한 절망감에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정작 더 큰 충격과 절망은 그 후에 찾아왔다. 그것은 차라리 청천의 벽력이었다. 어느 날 이웃으로부터 우연히 좇어 들은 아버지에 관한 <엄청난 과거>는 내게 참담한 외로움과 더불어 조숙한 염세를 안겨 주었다.

아버지는 살인자였다. 비속살인 그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잉태된, 절대 불가피한 그 어떤 경우였다손 치더라도 아직 가슴이 여물지 않은 내게 있어서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이었다. 피난길, 아무리 생사를 결단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곤 하지만 아버지 스스로가 나의 누나, 그것도 연년생으로 태어난 다섯 살에서 일곱 살까지의 세 핏줄을 한꺼번에 강물에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가증스러운 용기, 아—간혹은 옛날

애기처럼 쉽게 들어 넘겼던 그 6. 25의 참상—더러는 소음을 막기 위해 울음이 터지는 갓난 아이들을 질식시켜 죽이기까지 했다는 얘길 들으면서도 나는 차라리 전생을 환상으로만 느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 환상 아닌 현실이 벼락처럼 내 앞에 떨어지다니, 나는 그때 몇 번이고 도리질을 쳤다.

(그 어린 것들을 버리고 온 너희들의 죄는 너무나도 크구나 휘잇 휘잇)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무당쟁이들의 독경사.

그것은 다시 예리한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찢고 들었다.

「아버지! 정말 강물에다 누나들을 던졌어요?

어느날 나느 가슴을 떨면서 기어이 이 말을 해치웠다.

「전쟁은 모든 걸 빼앗아 갔다……」

한참 후에야 아버지는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어리다. 그러나 넌 곧 그걸 이해하게 될 게다!」

아버지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 아무 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이는, 특히 사내아이는 자라면서부터 점점 부모와는 타인이 되어간 나는 그 세속적인 논리에서가 아니더라도, 나는 아버지를 포용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그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망동으로 해서 어머니의 인생은 슬프게도 침몰했으며, 급기야는 그 슬픔에 대한 무모한 땀 질—술을 먹이는—때문에 그녀는 종내 구제불능의 한많은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지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우리 가족 모두를 죽였다!)

나의 작은 가슴은 너무 어린 나이로 염세를 맞이했다. 그 후 아버지는 모든 걸 함묵했다.

그리고 그는 오직 세 식솔의 생존을 위해 개미처럼 충직했다.

나의 학교생활은 언제나 삭막했다. 나는 늘 혼자였다. 담임교사는 가정 방문을 온 뒤부터 더욱 나를 주시하는 눈치였다. 돌연한 말썽으로 어쩌면 그 혼해빠진 <도의적 책임>에 연루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강박감 때문이었을까, 터무니없는 자괴지심일지는 모르지만, 아뭏든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은 늘 <제엔장 재수가 옴 붙어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언젠가 우연히 훔쳐본 그 교무수첩의 나에 대한 신상기록내용—요주의 학생, 심한 조울증, 모친 정신질환 운운—만 보더라도 그랬다. 이미 치유될 수 없는 광질을 가진 여인의 자식임을 인지한 그는 내게 구역질이 날 만큼이나 세심했다. 그럴때마다 나는 차라리 허덜허덜 웃고 싶은 충동을 받은 했다.

어느날 나는 상담실에서 담임교사와 대좌하고 있었다. 그의 얘기는 너무도 장황했다. 어머니의 병세에 관한 이야기며, 학교 생활에 대한 격려하며……。 그리고 그는 거듭거듭 올바른 정신생활을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과 명량한 교우관계가 있어야 됨을 강조했다. 그때 나는 불쑥「선

생님 전 결코 미치지 않을 거예요!」하고 내질렀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나는 그 정확한 이유를 조금도 모르고 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선생님의 당황해 하는 얼굴을 보았다. 순간 나는 그곳을 뛰쳐 나오고 말았다.「강진구! 야, 진구야—」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차라리 알싸한 희열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얼마 동안은 정말 통쾌하게 웃어 제쳤는데, 그때 나는 속으로 진짜 내가 지금 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덜컥 들어 가슴을 떨었다. 웃음을 뚝 그친 나는 이를 악 물었다. <그러나 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웬지 눈물이 나왔다. 흥건하게 물기가 고여오는 눈을 통해 저녁 노을이 무척이도 붉게 보였다.

어느날 점심시간, 학교 마당에 느닷없이 벌거벗은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야말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녀는 운동장을 가로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한 동안 전 세계를 흥흥하게 했던 이른바 <나체질주>를 방불케 하는 그 갑작스러운 풍경에 잠시 입을 벌리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와—하고 탄성을 내질렀다. 나는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 그 흥물스러운 여자가 생판 낯모르는, 그래서 나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임을 감지하고 나서도 나는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어느덧 그녀는 운동장 교단 위에서 마치 청중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는 웅변가 이거나 한 것처럼 무어라고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다. 삼시간에 아이들이 그녀의 단상을 에워쌌다. 정말 너무도 갑작스럽게 벌어진 광경이었다. 그녀는 소리쳤다.

「여기 이 구멍으로 비행기 열다섯 대가 들었겠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은 거무 티탄한 그녀의 아랫도리를 가리키고 있었다. 와— 하고 다시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러댔다. 이때였다. 교단을 포위한 아이들의 전열이 갑자기 흐트러지며 일순 아우성이 일었다. 거기엔 언제 나타났는지 남자 선생님들이 제각기 막대기를 쳐들고는 아이들을 교실로 내리쫓고 있었는데, 그런 선생님들의 얼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터무니 없이 성이 나 있었다. 그들의 그 난데없이 초강경해진 표정들이 너무도 낯설어 보였기 때문에 아이들은 차라리 한동안 어정쩡한 기분들이었다. 그러한 와중 속에서도 어느 여선생은 어디에서 준비했는지 한 벌의 치마로 그 벌거숭이의 여인을 다독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든 일들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것이었다.

그때 아이들은 모두 교실로 쫓겨 들어갔지만 그들은 제각기 긴 목을 창 밖으로 뽑아대고선 까닭없이 슬취한 사내들처럼 얼굴이 붉어진 선생님들을 훑쳐보다간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기막힌 풍경의 귀추를 가늠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는 학교 용인들에게 이끌려 교문을 나갔는데, 이 때 길게 목을 빼낸 아이들은 일제히 손을 흔들고 환성을 질러 그녀를 배웅했다. 해가 켠하게 하늘 가운데서 타고 있었다. 후에 사 안 일이지만 그녀는 어느 남자로부터 버림을 받은 뒤 갑자기 돌아버린 여자라고 했다.

그날밤부터 나는 새로운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학교 운동장, 엄숙한 조례시간에 느닷없이 벌거벗은 어머니가 나타나 무당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신 「진구야, 진구야 내 아들 진구야!」를 소리소리 지르며 정렬한 학우들 사이로 나를 찾으려 다녔다.

나는 끝없이 끝없이 도망질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걸음은 언제나 나보다 빨랐고 급기야 나는 절망적인 허우적거림으로 발버둥을 치다간 잠이 깨곤했다. 그러한 치욕의 술래잡이는 거의 매일 밤 계속되었기 때문에 나는 종내 꿈속에서도 그 상태가 악몽임을 알아차릴 정도였다. <아, 이것은 꿈이다 빨리 깨어나야 한다.> 나는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것은 끝내 더한 가위눌림으로 변해 심한 곤욕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생결단 몸부림 끝에 그 어려운 꿈을 깨고 나면 나는 전신이 식은땀으로 젖어 오랜 동안 허탈에 빠지곤 했다.

(아버지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아버지를 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독살한 꿈을 꾸 날밤, 나는 열일곱의 나이로 처음으로 몽정을 했다. 쫓고 쫓기는 지옥같은 숨바꼭질 끝에 드디어 사면초가로 포위당한 나는 나를 둘러싼 추격자들이 경찰관들이 아닌, 제각기 한 아문씩 몽둥이를 쳐들고 있는 학우들임을 알아냈을 때, 나는 외로웠다. 그들은 한결같이 소리를 높여 준엄한 심판을 던졌다. 「애비를 시해한 자, 너는 이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아 나는 정말 외롭고 외로웠다. 이젠 어쩔 수 없다는 진퇴양난의 기로에서 허둥거리던 나의 생리는 기어이 경련과 더불어 토정을 했다. 그때의 그 섬뜩하고 불쾌했던 기억을 나는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만났던 그 터무니없는 몽정은 적어도 나에겐 영원히 지울수 없는 불가사의였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나는 더욱 아버지를 기피했다.

어느 겨울날 아버지는 밖에서 참새구이를 사온 일이 있었다. 일찌기 없었던 별난 일이었다.

「이걸 먹어 봐, 특히 머리가 어지러운 사람에겐 이게 좋단다.」

아버지는 그걸 특별히 버리고 사온 눈치였다.

「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단숨에 거절해 버렸다. 나의 태도가 너무도 완강해 보였던지 아버지는 다시 그걸 권하지 않았다. 얼마 후 아버지는 그걸 모두 혼자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뿌드득 뿌드득,

그때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는 오래 허우룩한 얼굴로 그것을 씹고 있었다. 아무튼 아버지와 나는 세월이 갈수록 더욱 소원해졌다. T시장에서 제법 큰 생선가게를 하고 있는 아버지는 항상 귀가 시간이 늦기도 했었지만 나는 집안에서 직접 그와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드물었다.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용된 가정부— 그녀는 힘이 장사여서 무지막지한 어머니 수발하는데 안성마춤이었다. 연천택을 통해 나는 아버지와 모든 절차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러한 중계역할을 익숙하게 해내고 있었는데, 그 중계역을 너무도 잘해주어서 마치 그녀는 오직 우리집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여자 같았다. 어쨌든 나는 그때 대학 진학에 관한 일마저 그 녀에게 상의할 정도였다.

오랜 방황으로 일관된 나의 학업상황은 끝내 허절찬 삼류대학을 지망하게 했고, 그 대학에 합격하였을 때, 연천택은 자기 일이나 되듯 눈물을 찔끔거리면서까지 나의 그 영광스러운 합격(?)을 기뻐했다. 그후 나는 그 알량한 대학에서 마저 영예로운 학사경고를 받았는데 그 얘기만

은 그녀에게 하지 않았다.

「비극은 언제나 희극이 있는 곳에 있다고 들었지만, 난 한 번도 님 엄마의 실수를 그런 부류에다 놓고 생각해 본 일이 없다.」

아버지는 다시 술잔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단숨에 마셔버렸다. 그런 그의 동작은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목젖으로부터 꿀꺽하는 소리가 날 정도였다.

「님이 엄마는………」하고 아버지는 다시 말을 잇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멀리 강 옆으로 솟아오른 산 꼭대기에선 쪽빛 하늘을 배경으로 끊임없이 레이다가 돌고 있었다.

「전쟁이 남긴 상처 중에서도 님 엄마의 그것은………」

아버지는 다시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얼른 애기의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 너머 어디선가 송아지 울음소리가 아슬하게 들려왔다.

「이 강에다 세 피푼이를 버리고 나서 님이 엄마는 거의 일년간을 산송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또 한 차례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바로 사변이었지 설상가상의 북새통에서 차라리 님 엄마는 거짓말처럼 일어나더군. 동족이 겨룬 전쟁은 아예 그런 슬픔까지도 허락지 않을만큼 냉혹했었으니까. 사변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역설이 될테지만, 아뵤든 님 엄마 그통에 모든 슬픔을 다 잊어버린 것 같더군.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는 다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곧 라이터 켜는 소리가 들렸다.

「정작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났었지. 전쟁이 끝나고 몇 년간, 그 어수선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그래도 다부지고 억척스러운 기질을 만들었어. 그때 용케도 님이 엄마가 너를 낳았다. 양중스런 너의 고추를 보면서 나는 사실 그때 세상을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나는 불현듯 북쪽에 두고 온 너의 할아버지를 생각했지 당신게선 오매불망 고추달린 손주가 한이었거든……」

아버지는 칙—하고 코를 풀었다.

「그런데 너를 키워내기에 한 동안 정신이 없던 너의 엄마에게 다시 그 악몽이 찾아오고 말았지 모든것은, 설사 그것이 더할 수 없는 그 어떤 슬픔일리라도 그것은 마침내 망각되고 무디어져 곧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마치 재갈을 처음 물린 망아지처럼 말이야……」

혹 내어 뺏는 아버지의 담배연기가 나의 답수룩한 머리카락을 일렁이게 했다.

「어느날 밤 꿈에 갑자기 나타난 세 자매를 보고 님이 엄마는 다음날 윈 종일 울었지, 그담부터 님 엄마는 흡사 신들린 여자처럼 변하기 시작했어, 그리고는 온통 무당쟁이만 찾아다니더군, 사실 나도 무당교의 효험은 애당초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님이 엄마의 간곡한 염원을 나는 차마 물리칠 수가 없었어, 나는 차라리 그러한 것으로나마 님이 엄마가 다시 정상인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막연히 빌기까지 했었지, 그러나 결국 우리의 신은 모든 것을 뿌리기만 했지. 거두

어 갈 줄은 몰랐어, 나는 정말 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전쟁을, 어설픈 이데올로기 높음에 빠진 인간들을 방조하고 있는 신, 세상의 온갖 비극을 방관만 하고 있는 그 직무유기의 신을 나는 차마 경모할 수 없었어.]

아버지의 목소리엔 갑자기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게 끝없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다만 나는 오랜만에, 이미 단련된 표준말 속에 숨겨진 북쪽지방의 독특한 억양을 그 화난 음성에서 느꼈을 뿐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늘 어찌자고 나를 여기까지 데려 왔을까. 나는 다시 아버지의 그 새삼스러운 저의를 회의하기 시작했다. 스스로가 어쩔 수 없이, 한갓 역사의 재물이 되었다는 그 역원을 나에게 전승시킴으로 해서, 그 자신 한 많은 명예를 나누어지자는 의도라면, 그래서 그 참담했던 과거를 동정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내겐 파렴치한 억지 하소일 뿐이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더 남겨두고 싶은 것일까. 그리고 그는 이 가증스러운 역사의 현장에서 과연 무엇을 더 내게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

「내가 오늘 널 예까지 데려 온 것은……」

아버지가 마치 나의 심증을 꿰 뚫고 있거나 한 것처럼 말을 해 왔을 때 나는 한 순간 급소를 맞은 기분이었다.

「너가 집을 떠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바로 들려주고 싶었어.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야. 그리고 넌 곧 집을 떠나게 된다.」

내가 집을 떠나다니, 아버지 도대체 지금 무슨 애길하고 있는 것일까.

「자, 이걸 보아라. 징집 영장이다. 며칠 전 송부되어 왔지만 일부러 오늘을 기다렸다.」

이때 나는 곧 아버지를 올려다 보지 말자던 스스로의 다짐을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관인이 찍힌 징집 통지서를 받아 들었다. 영장이 떨어지다니, 그것은 뜻밖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작년 이맘때쯤 군의관에게 엉덩이를 철썩 맞으며 입대 전 신검에서 <갑종>합격을 받은 사실을 떠올렸다. 우리는 그때 모두 불기 짝을 꺼내리고 었드려 치질검사를 받으며 별스럽게들 키득거렸는데, 별로 굴욕감 같은 건 느끼지 못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너가 얼마나 나를 증오하고 있었는가를……. 그러나 사실 난 너에 대해 속수무책이었다. 우선 우리의 그 참참했던 역정을 너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될지가 막연했었지. 우스운 얘기가 될진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너의 끊임없는 저항을 바라보면서 네가 한 사람의 실직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음을 대견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눈을 감았다. 만감이 여울지는 그의 안면으로 간단 없이 파리페가 날아 들었다.

「어쨌든 너는 이제 모든 걸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었다. 결코 이 자리가 너에게 한갓 고향만

을 풀게하는 그런 의미의 자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너는 이제 모든 사실을 바로 알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아버지는 얼른 소줏잔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 병의 술을 더 청했다.

「너도 거 한 잔 해라.」

아버지가 다시 자신의 빈 술잔에 술을 따르며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걸 마시지 않았다.

「결국은 그 붉은 흡혈귀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했다, 그리고 그 원수놈의 들쥐가…….」

아버지는 다시 그 밀도 끝도 없는, 황당한 들쥐를 들먹였다. 두 번째였다. 순간 나는 얼른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내가 소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느날 어머니와 나는 별안간 안방으로 침범한 쥐 때문에 혼비백산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방과 방 사이로 난 마루를 통해 뛰어들, 무척이기도 큰 쥐였다. 그때 나는 엉겁결에 세숫대야를 내던졌는데, 신통하게도. 그 세면도구에 쥐가 덮이고 말았다. 그 순간 어머니는 이미 하얗게 까무라쳐 있었다. 쥐는 실 새 없이 덜커덩거리며 발악을 쳐댔지만, 나는 그 세숫대야를 들치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분노한 쥐가 뛰어오를 것만 같은 생각에 꼼짝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백짓장처럼 하얗게 질려 거품을 빼문 엄마를 보며, 나는 쥐보다 더 큰 공포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나중 어머니가 다시 정신을 차린 뒤에도 우리는 오직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하여 그 쥐가 어떻게 처리될 때까지 책상 위에 동그라니 올라 앉아 오돌오돌 떨고만 있었다. 그 후에도 어머니 쥐만 보면 피가 없는 얼굴로 가슴을 떨어대곤 했다.

「그야말로 갖은 고초를 다 겪으며 이곳에 도착한 우리는 그날 밤 이 강을 앞에 두고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우리가 예까지 온 걸 생각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내가 최초로 듣는 아버지의 <과거지사>는 제법 장황했다.

아버지— 강중수씨, 그는 삼수군과 더불어 함경도에서는 가장 깊고 험준한 오지로 알려진, 갑산군의 어느 집안에서 팔남매 중 막내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래도 가장 부농으로 소문난, 그는 소위 천석꾼 집안의 귀한 아들이었다. 그의 부친, 그러니깐 내겐 조부님이 되시는 분은 성격이 무척 활달한 편이었으나, 또한 고집이 세기로도 정평이 나 있었다. 비록 일제치하이긴 했지만 지주층— 산간지방이라 넓은 임야에서 특히 가축을 많이 길렀다. —에 속했던 그는 그 일대에서선 무시할 수 없는 고을 유지로 군림하고 있었다. 당신의 그 포괄한 고집은 후에 많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는데 자신의 여식들이 말다툼을 벌였다고 해서 행랑채에다 불을 놓고는 진화하려드는 가족들을 장대로 후려 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명절날에는 사위들을 모아놓고 씨름판을 벌이고, 흥이라도 날 때면 기꺼이 마굿간의 황소를 도륙한다든지 하는 일이 그것이었다. 해서 아버지는 곧잘 어린 나이로 쇠붙알이 바람을 넣어 축구공 놀이를 하는 행운을 누렸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쩔 할아버지는 딸을 일곱이나 출산시킨 스스로의 묘한 입장을

별나게 시위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아뭏든 당신의 그러한 서슬 때문에 아버지는 외려 겁악하게 자랐다. 그 후 다소 일찍인 나이로 혼례를 올린 아버지는 딸만 셋을 연년생으로 낳았다. 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한 할아버지로서는 속으로 못마땅해 했겠지만 일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해서 아버지는 더욱 초조하고 죄스러운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해방은 갑자기 찾아 왔다. 온통 새로운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던 세상은 그러나 곧 변모하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새역사가 태동되려던 조국은 다시 좌·우익의 파동으로 술렁거렸다. 민심은 흥흥해지고 마침내 마을엔 계절풍처럼 「로스게」들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조선 여인들의 노소를 잘 구별할 줄 몰라 더러 노파들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들려 올 무렵엔 세상은 이미 주종이 바뀌는 세월로 꺾어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직했던 머슴들은 집을 뛰쳐나간지 오래였고, 할아버지는 알량하긴 했지만 지주에 속했다는 이유로 서서히 수모를 맞이해야 했다.

어느날 할아버지는 드디어 소를 도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종전의 그 활달했던 당신의 성벽이나 취향에서가 아니었다. 이윽고 어느날 밤,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 불러 놓고 월남행을 명령했다.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당신의 지엄한 최후 발령이었다. 종내 아버지는 귀중품을 꾸리고 할아버지께서 손수 장만한 우육포를 짙어진 채, 어머니와 세 딸을 거느리고 야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은 결국, 동행월남하자는 어머니의 간곡한 청을 단호히 끊으시고 끝내 그곳을 지키겠다는 당신의 불같이 완고한 고집을 마지막 보는 날이 되었다. 상당히 먼 밤길을 따라 나오시며 당신은, 거듭거듭 매사 신중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당신은 끝내 월남해선 꼭 고추달린 손주를 낳아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질 못했다. 아버지는 일주일간의 야행 끝에 간신히 철원에 도착했다. 거기서 겨우 직업 안내원을 만난 그는 다시 일주일여를 반딧불만 쫓아다니는 고행 끝에 마침내 이곳 T읍 한탄강에 도착했다.

「그때 우리는 이미 지칠대로 지쳐 있었지.」

아버지의 얘기는 계속 되었다. 그것은 강을 닦지 않은 건조한 음성으로 강보다 더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린 이 어둠 속에서 길게 누워 있는 강물 앞에서 아련한 희망 같은 것에 잠겨 있었다. 저 강을 건너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곧 참담한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었지, 왜냐 하면 그때 안내원은 강에 도착하자마자 대변에 난색을 표하더군. 갑자기 북쪽에서 비가 내려 강물이 불었기 때문에 건널 수 없다는 얘기였지, 그리고 보니 정말 시커먼 강물은 훨씬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달려드는 듯했어, 야음 속에서 오랜 동안 우리들의 눈에 익었던 반딧불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면서 나는 한 여름 밤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랫턱이 덜덜 떨리는 추위가 느껴지더군. 나는 안내원에게 사정사정 매어달렸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나는 마치 어린애처럼 울먹였지,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흔들었어, 결국 확률없는 도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

의 생각이었지, 나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 딱이 그런 분노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는 모호했지만 말이야, 어쨌든 나는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어떤 오기 같은 것이 끓어오르고 있음을 느꼈지, 그때 나는 결심했어, 기어코 저 강을 건너고야 말겠다고, 항시 우유부단했던 내가 어떻게 그런 단호한 결의로 하게 되었는지는 지금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야, 좀 우습긴 하지만 아마 내게도 니 할아버지의 그 불칼같은 고집이 숨어 있었는지도 몰라. 허기야 그땐 이미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였으니까. 하여튼 나는 곧 강을 건널 준비를 서둘렀지, 그런데 문제는 너의 누나들이었어,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물 속에 어린 목숨까지 한꺼번에 데볼구 간다는덴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군. 너의 엄만 죽어도 같이 죽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동행을 고집했지만, 그 당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 할 수 없이 우린 다시 안내원들에게 애원했지, 우리가 먼저 강을 건너봐서 그것이 가능하면 다시 아이들을 데리러 올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지켜 달라고 말이야. 그들은 그것까질 거절하지는 않더군. 그리고 우리가 만일 도중에서 어떤 사고를 만나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세 아이들을 좀 맡아 달라고 했지. 물론 우리는 그만한 돈과 귀중품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것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최후의 방책이라고 생각했었지, 그들은 우리들을 만류하지 않았어, 그때 니 누나들은 똑같이 나의 다짐—틀림없이 우리가 짐을 옮겨 놓은 뒤 데리러 오겠다는 그 다짐에 고개를 끄덕거렸어, 그런 개들은 마치 철이 다 든 어른같았지, 그래서 나는 집을 떠나온 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 왜 그렇게 울고 싶었는지, 마침내 우리의 무모한 도강은 시작되었어, 그것은 정말 사생결단이었다. 강은 생각보다 얕더군. 모래가 밀려와 평평해졌던 그곳은 제일 깊은 곳이라야 가슴께 오는 물이었지. 드디어 우린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어, 정말 기적을 만난 기분이더군 그러나 나는 곧 쓰러지고 말았어, 무거운 짐에 시달려 물집이 터진 발바닥 때문이라기보다 나는 무겁게 나를 짓누르던 긴장의 이완으로 더욱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 같애, 그러나 우린 곧 서둘러 짐을 강둑으로 옮겨 놓지 않으면 안 되었지, 빨리 아이들을 건네오기 위해서였어, 그때 나는 새삼 자신감과 더불어 새로운 용기가 솟아 올랐지, 그 흥분때에 나는 물에 불어 터진 발바닥의 통증도 잊어버렸어, 간혹 찌엄찌엄 앓아 있는 소련군 감시초소의 불빛이 조그맣게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한 번 강을 건너본 나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 아—그런데……」

아버지의 얼굴은 갑자기 곤혹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잠시 적막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때 갑자기 니 엄마가 꺽 소리를 질렀단다. 그 돌연한 일성은 마침내 깊게 잠든 강을 깨우고 말았지, 들쭉, 그 들쭉 때문이었어!」

아버지의 음성엔 어느덧 애조가 묻어있었다.

「강둑을 기어 오르던 너의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그 들쭉이 뛰어 올랐다는군……. 긴장으로 굳었던 일개 나약한 여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성을 내지르고 말았지. 참으로 여처구니없는……. 그때 돌연 강 건너 쪽에선 총성이 날아 왔어, 때를 같이하여 그쪽에선 다시 (엄마!) 하는

진숙이의 절규가 들려왔지, 그때 큰 놈의 이름이 진숙이었어, 강진숙…… 난무하는 플래시 불빛과 더불어 연달아 총성이 울리고, 피끓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대던 니 엄마는 마침내 까무라쳐 버렸어, 그때 나는 아득한 절망을 만났지, 그렇게 허망할 수 없었던 그……」

드디어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깊숙이 묻어 버렸다.

한 차례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 위에선 우두둑 송충이들이 떨어져 내렸다.

(아버진 지금 울고 있는 것일까?)

나는 식탁 위에서 꼬무작거리고 있는 송충이를 한 마리 한마리씩 문질러 죽였다.

결국 이데올로기의 싸움은 아무쪽에도 이익이 없는 것이었지, 다만 그것은 너무도 엄청난 형벌만을 남겼을 뿐이야.」

이윽고 다시 고개를 든 아버지의 충혈된 눈이 멀리 강쪽을 향해 황량하게 버려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목이 타올랐다. 그래서 나는 황급히 술잔을 들어올려 단숨에 마셔 버렸다.

(나는 정말 영원히 아버지질 저주할 수 있을까.)

나는 마침내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다시 아버지는 나의 술잔에 두 번째로 술을 따랐다. 나는 공손하게 두 손을 들어 술잔을 받았다. 무엇이 이토록 나를 겸허하게 만든 것일까. 나는 괜히 화가 치밀었다.

(그러나 아버지, 결코 전 전쟁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 가공할 민족의 비극을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거예요.)

나는 손톱을 물어 뜯었다.

해는 서산에서 한 뼘 가량 남아 탈진을 버티고 있었고 강물은 그러한 햇살을 받아 구겨진 금박지 처럼 반짝거렸다.

「넌 이제 곧 군대를 가게 된다. 그러면 전쟁의 의미와 더불어 저 무도한 북쪽 괴뢰집단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좀 더 깊게 인식하게 될지도 몰라. 군에서 돌아 올 때 쯤엔 더욱 성숙한 청년이 되어 있겠지, 결코 전쟁은 병정놀이가 아니야.」

아버지는 다시 조용히 가라앉은 자세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다음의 과정을 얘기하지 않았다. 나도 사실은 그 고난과 치욕의 역정을 다시 물을 용기는 없었다. 다만 나는 저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차오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오래도록 목젢을 떨었다.

(너희, 언젠가는 너희의 그 망상이 너희 스스로를 단죄하게 되리라.)

나는 거듭 거듭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한 번 소중한 물건이거나 한 듯 소집영장을 내려다 보았다.

「아마도 새들은 신분증이 없어도 삼팔선을 날아갈 수 있을거야.」

갑자기 아버지는 강을 낚는 까치떼를 바라보면서 어린애 같은 말을 했다. 그런 그의 울대뼈가 쉬임없이 꿈틀거렸다. 새삼스런 가학심리 같은 것으로 향수가 덤벼 오는지도 몰랐다.

「벌써 해가 저렇게 기울어 버렸군.」

이윽고 아버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사냥이 비치고 있는 강 하류를 바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석양을 받아 더욱 붉어 보였다.

「우리 돌아갈 때, 시장에 들려 배를 좀 사가자. 니 엄만 옛날에 배를 무척 좋아했었다.」

아버지는 강 건너 질펀한 배밭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갑자기, 긴장을 배경으로 우뚝선 그의 모습이 거인처럼 느껴졌다. 한많은 여자를 파수꾼처럼 지켜온 거인, 나는 갑자기 난데없는 감상이 덤벼움을 느꼈다.

(그래요, 우리 배를 사가요.)

나는 대답 대신 아버지의 목덜미를 기어오르는 송충이를 잡아 내었다.

— 독자에게 알립니다 —

이 책자에는 군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부지불식간에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책자의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3700

제목 : 「공군」 제194호

1985년 7월 25일 인 쇄

1985년 7월 27일 발 행

발 행 : 공 군 본 부

편 집 : 정 훈 감 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연락처〉 전화: 813-2691, (호)-5115



공 군 의 결 의

우리는 자랑스런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